

수상작품집 | 대상 <몰래 심은 강낭콩> 외 46편 |

2021 공직문학상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수상작품집 | 대상 <몰래 심은 강낭콩> 외 46편 |

2021 공직문학상

2021년

공직문학상

2021년 10월 발행

발 행 인사혁신처

발행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Tel. 044) 201-8421, 3 / Fax. 044) 201-8428

펴낸곳 U&I 문화정보 Tel. 042) 242-0897~8

※ 이 책의 무단 전재 또는 복제 행위는 저작권법 제 136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수상작품집 | 대상 〈몰래 심은 강낭콩〉 외 46편 |

2021 공직문학상

CONTENTS

대상 수상작

대상	몰래 심은 강남콩	서울연지초등학교 정영호	8
----	-----------	----------------	---

시

금상	무수한 건너편들	서대전우체국 윤계순	26
은상	당신의 가토 인비저블	하남시 미사도서관 주향호	28
은상	바지랑대의 꿈	서울시 종로구청 황성관	30
은상	나를보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숙희	31
은상	사월	정선군 화암면 행정복지센터 심진경	32
은상	우리 동네 정육점	해오름초등학교 박형식	33
은상	색즉시공	전) 서울송파공업고등학교 이정원	37
은상	설렁탕집 반딧불이	중부지방국세청 하재분	39
동상	달팽이	하장초등학교 유효정	41
동상	투명한 길	영주소방서 김일하	43
동상	느린걸음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호석	44
동상	無窮花	교육부 김경미	46
동상	버드나무	부산동래교육지원청 이정행	47
동상	또 다른 나를 위하여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강병철	48
동상	아마조네스의 변	공덕초등학교 김래연	50

시조

금상	아내의 향아리	전) 중경고등학교 임영선	54
은상	꽃씨 묻은 한식날	전) 영암군청 김형만	55
은상	돌담길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정해선	56
동상	남명매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규준	57



수필



금상	타란툴라와 춤을	두송중학교	이강선	60
은상	사막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전소연	66
은상	마음만은 우렁각시처럼	특허청	권인섭	75
은상	동치미	전) 포항이동중학교	손달호	82
은상	손	전) 태안초등학교	김명재	86
동상	선물은 쓰레기가 아니다	전) 충청남도청	권오인	92
동상	파도	경기도청	강동우	98
동상	못가름	대구 장동초등학교	문은주	103
동상	빨래집게	부산시청	서은영	108
동상	질투가 꽃이 되는 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지민	112



단편소설

·희곡



금상	책 도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최은지	120
은상	짧은 충동의 기록	외교부 주교배대한민국총영사관	윤종대	155
동상	먼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미경	199
동상	영광카메라	군산용문초등학교	공자영	236



동시



금상	공부하기 싫은 날	교육부	김서영	270
은상	홍학 꽃	김제교육지원청	장효진	271
은상	실내화 사주세요	진주 이반성초등학교	박예록	273
동상	잠이 샌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손옥연	275
동상	나의 하루는 동물의 왕국	대통령경호처	정 걸	276
동상	베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석은옥	278

CONTENTS



동화



금상	비둘이의 꿈	산림항공본부 남궁용훈	282
은상	뽕튀밥 껏밥	성남시 중앙도서관 서연미	296
은상	제기차기의 달인	대양초등학교 장철호	306
동상	슈퍼마켓에는 장보고가 산다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김가람	315



공직윤리



은상	최 영사의 또 다른 일터	주 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최재훈	328
----	---------------	--------------------	-----



공직공감



은상	야철	부산구치소 김성준	340
동상	주임님, 꼭 살아내세요	법무부 의정부교도소 정봉길	351

2021년 공직문학상

대상수상작

동화 • 물레 심은 강낭콩



몰래 심은 강낭콩

서울연지초등학교 정 영 호

따가운 햇볕에 축 늘어진 느티나무 잎들처럼 몸이 무겁다. 오늘은 가방 안에 알림장 밖에 들어있지 않은데도 말이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한밤중 귀찮은 모기처럼 귓가에 웅웅거린다.

“씩이 난 강낭콩을 모두 살릴 수는 없어요. 이제 한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뽑아야 해요.”

친구들은 우리가 심은 강낭콩보다 더 크게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네?”, “싫어요.” 대답은 다양했지만 사실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았다. 선생님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결국 그걸로 끝이다.

요즘 들어 선생님의 눈치를 더 보게 된다. 방과 후 수업을 듣고 교실을 지나쳐가는 길에 선생님이 통화하며 우는 모습을 본 친구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금세 친구들의 불만은 소나기가 그치는 것처럼 잦아들었다.

“집에 가져가서 새 화분에 심을 친구들은 이 지퍼 백에 넣어주세요. 가지고 가지 않을 친구들만 이 플라스틱 화분 안에 넣고요.”

만사 귀찮아하는 영철이와 모든 대답이 난 학원 숙제하느라 바빠서로

끝나는 알미운 인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지퍼 백을 챙겼다.

‘어느 강낭콩을 뽑아야 할까?’

친구들의 고민은 깊어졌다. 한두 개는 집에 가서 키울 거라면서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몇 번의 선생님의 재촉 끝에 나 역시 하나를 고르고야 말았다. 싹이 더 크게 올라온 녀석, ‘냥이’ 로.

“엄마, 화분 하나 사주면 안 돼요?”

“왜?”

“강낭콩 키우려고요.”

“우리 집에서는 식물 못 키우는 거 알잖아. 그럴 시간 있으면 빨래나 좀 개라.”

맞다. 우리 집은 지하라 햇볕이 들지 않는다. 나는 엄마의 뒷말은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왔다. 슬그머니 지퍼 백을 꺼내 보았다. 물 묻은 솜에 처량하게 싸여있는 싹 난 강낭콩이 나인 것 같아 안타까웠다. ‘콩이’를 뽑을 걸 그랬나. 자세히 보니 학교에서 볼 때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았다.

답답해서 밖으로 나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온통 시멘트뿐이다. 옆집 2층 난간에 놓인 화분이 눈에 들어왔다. 물론 그림의 떡일 뿐이다. 하지만 내 눈은 연이어 이층집 난간을 훑었다. 그러다 골목길을 빠져나왔는데 확 트인 시야가 싱그럽다. 그리고 우뚝 선 새 아파트.

“몇 학년이에요?”

그네를 타고 있는 내게 단정한 치마를 입은 여자아이가 물었다.

“4학년.”

“나도 4학년이야.”

금세 말투를 바꾸며 얼굴에 웃음꽃을 활짝 피운 아이는 참 예뻐다.

“몇 동에 살아?”

“어, 난 저기.”

“아, 그렇구나.”

그 아이와 나는 함께 그네를 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쪽 주택가에 산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말을 걸어주는 아이가 고마웠다.

“난 지금이 거의 유일한 놀이 시간이야. 온종일 학원 다니느라 숨만 겨우 쉬고 있어. 넌 어때?”

내가 뭐라고 하면 좋을까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어느새 나타난 젊은 아주머니가 예술이를 불렀다.

“우리 엄마야. 나, 잠깐 갔다 올게.”

예술이는 엄마에게 달려가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다. 그리고 엄마는 어느 순간부터 내 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엄마가 재는 몇 동에 사는지 묻고 예술이는 이 아파트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들의 대화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예술이는 과일 주스 한 개를 들고 나에게 왔다. 그리고는 미안해하며 내게 주스를 건넸다.

“이제 들어갈 시간이라. 다음에 또 만나자.”

“그래, 잘 가.”

물론 나는 그 말이 그냥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다. 엄마가 놀지 말라고 했을 게 뻔하다. 그래도 그런 내색 없이 미안해하는 예술이가 고마웠다.

그 일 이후로 이 아파트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다. 차단기가 있는 정문으로는 들어가기가 꺼림칙해 일부러 쪽문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다.

“우와~”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화단. 그리고 나무와 꽃들. 화단으로는 부족했는지 텃밭 상자와 화분들도 도로 중앙에 줄지어 있었다. 저 넓은 곳 중에 딱 한 뼘만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화단을 둘러보았다. 얼마나 관리를 했는지 일부러 심어놓은 식물 말고는 풀 한 포기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분리수거장 옆 화단은 민들레 몇 개가 솟털 같은 씨앗을 품고 있었다. 민들레는 그나마 예뻐서 뽑지 않았을까? 괜히 용기가 났다. 책에서 보니 강낭콩도 꽃이 예쁘던데. 열매는 먹을 수도 있잖아. 나는 얼른 집으로 뛰어갔다.

주머니에 지퍼 백 채로 강낭콩을 담아 다시 아파트로 달렸다. 기대 반 걱정 반, 심장이 해대는 펌프질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그렇게 쪽문으로 들어서는데,

“안녕?”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는 그렇게 요동치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멈춘 것 같았다. 하지만 다행히 아저씨는 이것저것 캐묻지 않고 나를 지나쳤다.

‘휴.’

안도의 한숨과 함께 살금살금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막상 강낭콩을 심으려니 날이 너무 밝은 것 같았다. 아까는 안 보이던

CCTV도 이곳저곳에서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좀 더 주위를 둘러보지 않고 행동에 옮긴 내 성급함에 머리를 콩 한 대 쥐어박아 주었다. 얼른 가서 비밀 수첩에 작전을 짜 봐야겠다. 결국 나는 작전상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돌아오는 길에 경비 아저씨가 다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어쩌면 혼나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바람결에 희미하게나마 목소리가 실려 왔다.

“외부에서 온 아이들이 놀이터를 다 차지하고 있다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뀐 게 없네요. 제발 외부인 단속 좀 하세요.”

나는 웬지 뒤통수가 화끈거리려 얼른 쪽문으로 빠져나왔다.

다시 집에 돌아온 나는 강낭콩을 고이 모셔두고 비밀 수첩을 꺼냈다.

1.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들리기 쉽다.
2. 매일 물 주러 가기 어렵다.
3. 잘 자라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떠오르는 건 단점뿐이었다. 그런데도 이 계획을 실행해야 할까? 어쩌면 장점은 하나도 없고 단점 투성이인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난 그만 생각하기로 했다. 어차피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미 마음을 먹었는데도 밤에 나가는 것이 또 문제였다. 난 어쩔 수 없이 또 한 번 용기를 내었다.

“엄마, 쓰레기 버릴 거 없어요?”

“네가 웬일이래?”

“강낭콩이 시들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버려야 해서요.”

“그렇게 싹 나기 전에 엄마 줬으면 밥에라도 넣어 먹었지.”

“이미 싹이 난 상태로 가져온 거예요.”

“알았어. 음식물 쓰레기 버릴 게 있는데 갖다 버릴 수 있겠니?”

“네, 제가 버리고 올게요.”

나는 괜히,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티를 내며 돌돌 말린 비닐봉지의 꼬트머리를 움켜잡았다.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최대 10분. 핑계를 대고 또 대도 10분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

“엄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 강낭콩 물어줄 곳이 있는지 잠깐만 보고 올게요.”

“밤늦은 시간에…….”

계단 끝 현관문을 닫자 엄마의 목소리도 함께 묻혔다. 이제 조금 늦더라도 약간의 잔소리만 들으면 될 것이다. 어쨌든 전봇대 옆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비닐 채 던져놓고는 달리기 시작했다.

내가 1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 뛰어본 적이 있었던가? 운동회 날에도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중간 등수에 맞춰 들어가곤 했다. 괜히 이어달리기 대표로 뽑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이어달리기 대표는 잘 뛰는 아이들을 고르고 고른 것이기에 내가 대표로 뛰었다가 우리 편이 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원망의 화살은 나에게 쏟아지겠지. 지금은 나를 쳐다보는 이가 없어 다행이다. 상체가 들쭉거릴 정도로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다.

아파트에 도착하기까지 3분 정도 지났을까? 나는 성큼성큼 민들레

화단으로 걸어갔다. 점심때는 가득했던 민들레 씨앗이 들판처럼
빠져있었다. 민들레들과 너무 가깝지 않은 곳에 손가락으로 구멍을
만들었다. 학교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다. 마침 이곳 흙도
부드러웠고. 얼른 강낭콩을 꺼내 구멍에 넣었다. 그리고 흙으로 덮었다.
이쯤 되면 완전 범죄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 하지만 내게는 시간이
없었다. 손을 탁탁 털고 지퍼 백은 주머니에 구겨 넣은 채 또 달리기
시작했다.

“기집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 빨리도 다녀온다.”

“강낭콩 묻어줄 곳이 없어서 그냥 버리고 왔어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는 내게 엄마도 더는 묻지 않았다. 화분
사달라고 졸랐던 게 생각났다 보다. 나는 문을 닫고서야 거친 숨을 한
번에 몰아쉬었다. 이제 한시름 놓았다. 하지만 금세 새로운 걱정이 그
자리를 메웠다. 물은 어떻게 줘야 하나? 싹이 나면 들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또다시 한 아름 안겨진 걱정과 함께 잠이 들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온통 강낭콩 생각뿐
이었다. 우선 급한 건 강낭콩에 물을 주는 것인데 어제처럼 밤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문제는 거의 매일 밤 밖에 나가야 한다는 건데. 이것도
오늘 엄마와 담판을 지어야겠다. 체육 수행평가가 있는데 매일 줄넘기
백 번씩을 해야 한다고. 주택가에는 운동할 곳이 없으니 옆 아파트
놀이터에서 해야겠다고 말이다. 다른 건 몰라도 공부한다는데 못 하게
할 엄마는 아니니까.

민들레 씨앗이 줄어갈수록 강낭콩의 싹은 더 많이 자랐다. 덩달아 내 마음의 불안도 점점 커갔다. 지금은 풀꽃이나 잡초의 싹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커도 눈에 쉽게 띄 테니까. 아니 어쩌면 지금이 더 위험할지도 모른다. 진짜 잡초라고 생각해서 뽑아버리면. 나는 또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보았다.

1. 강낭콩 싹 옆에 작은 팻말을 꽂아놓는다. 강낭콩이라고.

⇒ 오히려 정체가 더 노출될 수 있다.

2. 누군가한테 도와달라고 한다. 누군가라……

112, 117? 경찰관? 119? 소방관?

말도 안 된다. 이깟 걸로 전화를 하다 장난 전화로 잡혀갈지도 모른다.

엄마? 당연히 탈락. 오빠? 더더욱 탈락.

예술이? 어디 사는지 모르는데. 만날 수만 있다면 말이라도 해볼 텐데.

경비 아저씨? 가능할까?

내 비밀 수첩 한 장이 또 마음속 이야기로 채워졌다. 그리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채워졌다. 낮부터 꾸물거리던 하늘이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 나에게는 좋은 일, 강낭콩에는 더더욱 좋은 일. 비 오는 날이 이렇게 행복할수가. 오늘 저녁에는 나가보지 않아도 되겠지. 우리 냥이, 마음껏 마시고 무럭무럭 크렴.

학교에 있는 강낭콩에는 떡잎 사이로 본잎이라는 것이 나왔다. 하지만 솔직히 마음이 가지 않았다. 아담한 공간에 흙이 있고 마음껏 햇빛을 받고 아침마다 당변이 물을 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는

‘콩이’가 조금은 미웠다. 마치 우리 오빠를 보는 것 같다.

선생님이 세 개씩 나누어주신 강낭콩. 사흘이나 물에 불려놔는데도 싹이 나지 않아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려진 ‘강이’. 그리고 남겨진 ‘냥이’와 ‘콩이’. 처음에는 우리 세 남매 생각이 나서 이름을 붙였는데 붙이고 나니 후회가 되었다. ‘강이’는 큰오빠처럼 이제 더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더 속상했다. 그렇다고 ‘콩이’는 ‘냥이’가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을까? 우리 작은오빠처럼 그냥 자기만 공부 잘하면 다겠지. 엄마가 오빠는 컴퓨터도 사주고, 스마트폰도 사주고, 용돈도 많이 주니까 그저 꿀꺽꿀꺽 받아먹으며 공부만 하면 되니까. 큰오빠가 사고로 아빠 곁으로 가고 난 후 모든 사랑과 정성은 작은오빠에게 쏟아졌다. 작은오빠는 행복할까 불행할까, 아니면 부담될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이 있을까?

오늘은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오늘도 나는 아파트 화단으로 향했다.

‘냥이’도 어느새 본잎이 나왔다. 오늘 과학 시간에 강낭콩이 싹 트는 과정을 배웠는데 본잎 사이로 또 다른 본잎이 자라고 하다 보면 위로 쑥쑥 큰다고 했다. 그러면 지주대를 세워서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럼 지나는 모든 사람이 이곳에 콩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겠지. 정말 갈수록 태산이다. 콩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야 하나? 물론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 ‘냥이’를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미안할 만큼 기분이 좋아지지만 말이다.

“안녕?”

잠시 판생각을 하느라 몰래 보고 지나쳐야 한다는 나만의 규칙을 어겼다.

그러자 구청 단속반에 엄마가 하는 새우튀김 노점상이 걸렸을 때처럼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대답도 못 하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가 키우는 강낭콩이었구나.”

지난번에 마주쳤던 경비 아저씨였다. 나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져서 눈만 땡그랗게 뜨고 있었다. 아저씨는 다행히 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여기 있는 식물들은 전부, 다 자란 것들을 사 온 거란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키운 게 없지. 저기 있는 민들레조차도 우리가 키운 게 아니거든 아저씨도 강낭콩 같이 키워봐도 될까?”

나는 어느새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다. 그런 내게 아저씨는 경비실을 가리키며 저 안에 조리개가 있으니 언제든 가져와서 사용해도 좋다고 하셨다.

아저씨는 언제부터 나를, 아니 강낭콩을 보고 계셨을까? CCTV로? 아니면 내가 지나갈 때마다? 어쨌든 나는 외부인이니 아저씨는 일을 잘하고 있었던 거라고 봐야겠지. 무엇보다 고마운 건 내가 몇 동에 사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쩌면 내가 여기 살지 않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 않을까?

몽유병에 걸린 사람처럼 집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최고의 지원군을 만났다는 것만은 확실했다. 단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느낌이랄까? 마치 단원평가 시간에 안 풀리는 수학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데 누군가한테 답안지를 건네받은 느낌이었다. 한편으로는 나의 비밀을 누군가에게 들킨 것 같아 아쉽기도 했다. 몸은 편해지겠지만

마음은 웬지 불편할 것 같았다.

“오늘은 줄넘기하러 안 나가니?”

“수행평가 끝났어요.”

‘냥이’가 보고 싶기는 했지만, 오늘은 웬지 더는 나가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토요일. 친구들 만나 놀다 온다고 하고 집을 나섰다. 아파트 쪽문 입구에 도착해서부터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경비 아저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경비실에 그냥 들어가도 괜찮은 걸까? 다행히 경비 아저씨는 주변에 보이지 않았다. 아직은 조리개를 그냥 갖다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평소처럼 물병을 준비해 왔다. 날이 밝을 때 물을 주는 경험은 처음이었다. 주변에 돌러가며 조금씩 물을 뿌려주었다.

“희주야!”

요즘은 등 뒤에서 나를 놀라게 하는 일투성이다. 그래도 오늘은 익숙한 목소리였다. 못된 장난을 하다 들킨 아이처럼 오늘도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렸다.

“안녕?”

오늘도 어김없이 밝게 웃는 예술이는 참 예뻐다.

“나 그거 알아. 강낭콩이지? 경비 아저씨가 물 주시는 거 봤어.”

역시 아저씨가 물까지 주고 있었구나.

“나도 그 옆에다 강낭콩 키워도 돼?”

얘는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 여기는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너희 아파트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만 강낭콩을 키워. 그래서 우리는 보기만 해야 해.”

인제 보니 이 아파트의 맞은편에는 아파트와 함께 개교한 초등학교가 있었다. 당연히 이 아파트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지난번에 아저씨가 물주고 있을 때 나도 강낭콩 키워도 되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하셨어. 그게 희주 너였나 봐.”

“난 사실 여기에 몰래 심은 거였는데.”

“그래, 몰래. 나도 여기에 너랑 같이 몰래 심고 싶어. 과학 수행평가 때문에 집에서도 강낭콩 키우는데 그건 또 엄마가 키우는 거나 마찬 가지거든.

나도 내 강낭콩을 심고 싶어. 아무도 몰래. 너랑만 같이. 아, 경비 아저씨도 있구나.”

“그, 그래.”

내 대답을 듣자마자 예솔이는 지난번처럼 나를 두고 갔다. 그리고 다시 강낭콩 한 알을 들고 돌아왔다. 강낭콩을 쪼개서 속 모양을 관찰하는 실험을 위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라고 했다.

“우리도 선생님이 강낭콩 쪼개는 거 구경만 했었는데.”

“정말? 모든 학교가 다 똑같나 봐. 왜 실험을 선생님들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너는 집에서 개인 실험이라도 하잖아라고 차마 말하지는 못했다.

예솔이는 어느새 내 팔짱을 끼고 화단 쪽으로 끌었다. 그리고는 ‘냥이’ 옆 두 뼘 정도 거리를 가리켰다.

“이 정도면 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솔이는 여전히 밝게 웃으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있는 것 같았다.

“흙에 구멍을 내야 하는데.”

“아, 강낭콩의 두세 배 크기로 말이지?”

예솔이는 내 설명을 들으며 강낭콩을 심었다. 그 모습이 정말 신나고 재미있어하는 것 같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다.

“나, 흙 처음 만져봐. 모래는 만져봤지만.”

“나도 강낭콩 심으면서 처음 만져본 것 같아.”

우리는 강낭콩을 다 심고도 강낭콩 주변의 흙을 만지작거렸다.

“이름 안 지을래? 내 강낭콩은 ‘냥이’ 라고 지었어.”

“우와, 멋진데. 그럼 나는 ‘콩이’ 라고 지을래.”

그건 우리 오빠 강낭콩 이름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러고 보니 처음에는 ‘콩이’가 내 강낭콩이었는데 언제 ‘냥이’가 내 강낭콩으로 둔갑한 거지? 어쨌든 예솔이가 ‘콩이’라고 해주니 기분이 좋았다.

“예쁜 이름이다.”

나도 예솔이에게 웃어주었다. 예솔이만큼 예쁘지는 않겠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오빠가 누워서 TV를 보며 킁킁거리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혼자 TV를 차지하고 있는 오빠가 얄미웠겠지만, 오늘은 왠지 그렇지 않았다.

“오빠, 라면 끓여줄까?”

오빠는 당황했는지 잠시 나를 멍하니 쳐다보다 말했다.

“그, 그래. 달걀도 하나 넣고.”

물론 주말에 엄마가 없을 때면 오빠가 먼저 나에게 라면 끓여오라고 시키곤 한다. 그런데 내가 먹지 않을 라면을 끓이는 것이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웬지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오빠, 오빠는 공부하는 거 안 힘들어?”

오빠는 또 당황해했지만 요즘 들은 말 중에서 가장 길게 대답해 주었다.

“공부야 당연히 힘들지. 힘들어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고, 참.”

오빠랑 참 오랜만에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아 신기하기까지 했다.

월요일 아침, 오늘은 내가 강낭콩 물주기 당번이라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교실에 가방을 놓고 텃밭에 있는 조리개를 가지러 가야 한다. 교실에서 텃밭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건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한 달에 한번 정도만 하는 일이라 불평하는 친구들은 없었다. 막 가방을 놓고 나가려는데

“지이잉~”하고 선생님 책상에 놓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발이 그쪽으로 나를 이끌었다. 휴대전화 화면에 잠시 몇 개의 글자가 보였다 사라지자 정신이 펴뜩 들었다. “엄마, 보고 싶……” 나는 선생님의 문자를 훑쳐본 사실을 들길까 얼른 학교 화단으로 뛰어갔다.

그런데 교실에 안 계시던 선생님이 화단에 계셨다. 허리를 숙이고 있는 선생님 옆으로 가며 일부러 아무렇지도 않은 척 큰 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뭐 하세요?”

“어, 희주구나.”

선생님은 웬지 경비 아저씨와 예술이에게 당했을 때의 내 모습 같아

보였다.

“어, 강낭콩이잖아요?”

강낭콩 두 개가 텃밭에서 본잎을 뽑내며 자라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예술이가 되어 있었다.

“선생님, 저도 같이 키울래요.”

“그, 그럴래?”

선생님은 멋쩍게 웃으셨다.

“그럼, 선생님이랑 희주가 하루씩 번갈아 가며 물을 줄까?”

“네!”

“이제 더는 몰래가 아니네. 희주랑 함께 키우게 됐으니까. 아니면 우리 둘이 몰래라고 해야 하나?”

나도 선생님께 미소를 지어드렸다.

“희주는 엄마랑 아빠 중에 누가 더 좋니?”

“저, 저는 엄마가 더 좋아요.”

“그렇구나.”

웬지 선생님께서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계시는 것 같았다. 선생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괜히 용기가 났다.

“저, 있잖아요.”

원래는 비밀 수첩에 적어야 할 이야기 같았지만 웬지 선생님에게는 말해도 될 것 같았다. 뭘? 뭐든. 강낭콩을 몰래 아파트 화단에 심은 일도, 아파트 화단에서 예술이랑 경비 아저씨랑 같이 강낭콩 키우게 된 것도, 학기 초 엄마 몰래 학습 환경 조사서에 아빠 이름과 연락처를 써서 제출한 것도, 우리 집에는 아빠랑 큰오빠가 없는 것도, 그래도 엄마랑

작은오빠가 있어서 괜찮다는 것도 말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함께에는
선생님도 포함이니까.



2021년 공직문학상

시

무수한 건너편들
당신의 가토 인비저블
바지랑대의 꿈
나를 보다
사월
우리 동네 정육점
색즉시공
설령탕집 반딧불이
달팽이
투명한 길
느린 걸음
無窮花
버드나무
또 다른 나를 위하여
아마조네스의 변



무수한 건너편들



서대전우체국 윤 계 순

고층빌딩의 창문을 닦는
로프공들은 만나는 창문마다
그 안쪽의 자신을 만난다
몇 개의 매듭을 풀고 나니 또 몇 개의
매듭이 묶이는 외줄이 되었다
공중을 닦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마리오네트쯤 될까
햇살의 찡그린 얼룩들을 지워나가면
선명하게 나타나는 무수한 건너편들
별들이 밤하늘의 창문들이라면
저 무중력의 희미한 사람은
늘 자신의 앞을 닦고 또 닦는 사람,
그도 한때 저 안쪽에서 일하고 싶었던 사람
수십 갈래로 번지던 생각들이
팔을 뻗어 햇빛의 너비를 가늠해 볼 때
하늘 사다리처럼 난간을 내어준 순간들
아찔한 일들이야 저 아래쪽에서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

누군가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 주듯
 천품을 살피 내려 준 천직
 이쪽을 닦아 저쪽을 선명하게 빛내는 일
 아래로, 아래로 닦다 보면 어느새 바닥
 문득 무수한 창문의 안쪽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채지만
 이미 노을이 거울 속으로
 안과 밖의 하루를 편입시킨다



당신의 가토 인비저블*



하남시 미사도서관 주 향 호

나는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지만 한 편으로는 늘 케이크를 만든답니다. 부드러운 쉬폰케이크만큼 사람도 얇아서 저마다 구멍 하나씩은 지니고 있기에 쉬폰케이크를 전문적으로 만들었어요.

재난지원금이 생긴 후부터는 가토 인비저블이라는 특별한 케이크에 관심을 가졌어요. 세상에도 구멍이 났기 때문인데요. 재앙이 닥칠 때 우리의 답은 늘 하늘이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고 묻게 되고 나는 오존층에서 쏟아지는 자외선을 손바닥으로 막으며 사실은 내 탓이어서 빛에게 부끄럽다고 고백하게 된답니다. 하늘의 답도 역시, 지상에 사는 우리여서 빛은 우리의 구멍을 층층이 엮어서 원래의 방향을 따라 하늘로 되돌아가는 것이 본연의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지요. 무작정 기다려야 했거나 평등하지 않다고 느꼈거나 가난했던 마음을 과일과 채소 슬라이스로 층층이 쌓아 올릴 때 보이지 않게 반죽하여 굽는 방법은 무척 매력적이었어요.

까마득히 먼 번호표를 뽑아 들고 다가와 다짜고짜 화를 내는 민원인이나 온종일 말동무가 필요한 민원인에게는 달콤한 재료, 까칠한 동료와 무서운 상사에게는 달지 않은 재료를 고르지요. 케이크를 만들 준비가 끝나면 나는 손에 밀가루를 가득 묻히고 잠시 눈을 감아요. 내 손을 잡고 끝도 없이 달려서 바다에 닿은 타인이 새하얀 케이크를 내밀던 날을 떠올려봐요. 입으로 바람을

일으켜 촛불을 끄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니까,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겠지 이해하면서요. 심술궂은 바다가 달려와 나를 끄고 도망치고 또 끄고 도망치네요. 나는 심지에 맺힌 촛불이 타인의 눈물이라서 내가 후-하고 날려준 후에야 비로소 희망을 맛봤답니다. 빛이 잘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상상이 허락된 순간이었어요.

케이크는 어쩌면 당신의 구멍 난 날들을 밀가루 속 글루텐 성분으로 엮어 초를 꽃게 하려고 만들어지는 건지도 모르지요. 살다 보면 당신도 응원을 받아야 할 때가 있을 테니까요. 굵기가 끝난 가토 인비저블을 당신께 드리겠어요. 맛있게 드시려면 보이는 곳에 놓아둔 채 미룬 일을 하면서 가토 인비저블을 일단 까맣게 잊어보세요. 곧, 한적한 순간이 와 옹그러니 하는 박수 한 번에 한 가지를 깨닫고 아차 하는 박수 한 번에 잘못 하나를 인정하게 될 때 겹겹이 쌓인 높이 그대로 한입에 넣지 말고 포크로 조금씩 떼어 혀끝으로 음미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빵사가 되지 그랬냐고요? 과일과 하나가 된 반죽은 다 구워지면 거의 보이지 않게 되는데 나도 보이지 않게 살고 싶을 뿐이어서요.

* 가토 인비저블 : 보이지 않는 케이크라는 뜻.

바지랑대의 꿈



서울시 종로구청 황 성 관

사너덜 기와집 앞마당에 바지랑대는 하늘이었다
빨강고추가 멍석에 널리고 기와집 용마루에 거문고 걸리면
중년의 여인은 떨리는 손끝으로 여섯줄 현을 탄다
뒤뜰 대숲 따라 골바람이 불면 파도소리 귓가에 맴돌고
돛단배 무리지어 쪽빛으로 물 드릴 때
마당에 홀로선 아낙은 지그시 눈감고 어깨춤을 춘다

처서處暑를 갓 넘긴 들판에 벼이삭 부비는 소리
참새 떼 쫓는 강통소리에 짹 이룬 메뚜기는 화들짝 놀라 뛰고
논두렁 서리태는 속적삼 싹짓돈 되어 개다리소반에 올랐다

기와집 고명팔 사주단자 오가고
앞마당에 먹물먹인 차일遮日 높게 치던 날
초례청醮禮廳 기러기는 소곡주 합환주에 날개 짓을 한다

소복 입은 여인의 버선인양 백설기 같은 눈은 쌓이고
동네우물 가는 길에 차가운 발자국
손바닥은 짹짹, 이마에 주름살은 늘어만 가는데
우체통 빛바랜 고지서에 십년 묵은 신경통은 깊어만 간다

기관지 고질병에 겹쳐 멍든 기왓장은 층층이 기침을 뱉어내고
장독대 정한수에 영정사진 드리우면 여든아홉 어머니는 망부석이 되었다
장군봉 넘어온 아침 햇살은 기와집 앞마당에 가득한데
수줍은 바지랑대 오월 목단꽃 붉은 꿈을 꾸다

나를 보다

은상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한 속 희

긴 겨울속으로 숨은 너는
다시 읽는 詩
잃어버린 글자들이
푸르스름한 어둠속에 웅크린 채
시간을 기억한다
묵은 서랍에 저녁을 넣어둔다
어젯밤은 투명하고
불빛에 묻어버린 적막이
눈물로 차오르고
나는 텅빈 향아리가 된다
널브러져 지친 기억은
움켜진 손아귀에
붉은 자욱으로 남아
그 시간 끝에서
다시 마주할 너의 길위에 서있다

떨어진 꽃잎을 세다가
 밥을 굶었다
 매해 사월에는 바닥을 본다
 사월의 마른 바람은 꽃잎을 날리고
 찢어진 대기 틈으로 사라진 꽃잎은
 다음 사월에 다시 나타난다
 줄지도 않고 틀림없이
 마른 바람이 찾아들어
 비가 내리길 바란다
 꽃잎을 모아 묻어주고 싶다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없이 사월만 담은 꽃잎에게
 자연의 성숙과 노화와 죽음을 알려주고 싶다
 사월에는 꽃잎을 세어야 한다
 바닥을 보고 밥을 굶어야 한다
 아무래도 봄비는 쉬이 내리지 않으려나 보다
 그러니 여전히 꽃잎은 나타난다
 그러니 반드시 보아야 한다
 적어도 사월에는 그렇게라도 하여야 한다
 어느덧 노란 나비가 날아오를 때까지

우리 동네 정육점

은상

해오름초등학교 박 형 식

일주일에 세 번
주인이 정한 수 금 토요일은
우리 동네 정육점 소 잡는 날이에요
유난히 많은 눈이 예보된 주말 날씨에도
언제부턴가 지도에서 슬쩍 사라진 외진 골목에도
환한 눈을 넉넉하게 재어놓은 도심에는
선홍빛 육질이 좋은 어린 소가 되새김질한
붉은 달이 어김없이 뜨지요
한쪽으로 빗질을 잘해 넘긴 새벽 공기는
붙임성 좋게도
비릿한 우유가 살얼음처럼 얇게 부서지는 논독을
새벽마다 살짝 밟고 넘어서요
밤새 꼬깃꼬깃한 어둠을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헛간에선
건초가 누가 지켜보지 않는데도
밤마다 훌쩍 참 고맙게도 자라주어요
어느새 검붉게 물든 하늘은 차라리 너무 밝아
함박눈은 정말이지 깜빡 잠들었다 깨도 도무지 가라앉지 않는데
채식으로 밝아진 눈엔

더 이상 뜯어 먹을 풀이 보이지 않죠
정육점 주인이 보기 좋게 썰어놓은 한 접시의 달이 뜨면
꼬르륵 들리나요
간도 보지 않고 삼킨 달은 여태 식지 않고
녹말 덩어리처럼 허영게 굳어
논두렁을 따라 끝없이 흐르고 있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면 선명해지고 깊어지는 마블링
밤하늘 구석진 곳마다 조금씩 자라나는 붉은 살점 하나
살짝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혀요
저 멀리 호주에도 청정한 달이 뜬다는데
이번 달 주문량을 맞추지 못할까 하는 조바심에
연료를 가득 채운 보름달은
막상 구름에 가려서는 항구에서 연일 불법체류 중이에요
불판처럼 붉게 달궈진 정육점 냉장고에 누워
일광욕을 느긋하게 즐기는 소 햇바닥은

아직 할 말이 남아있을 거예요
신기하게도 발음기관이라고 적당히 구부러져 있어요
막상 혀뿌리를 무겁게 눌러
접시에 들러붙은 발음기호를 꺼내려고 하면
접시 한가득 흥건하게 침부터 고이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소 햇바닥이 건네는 진솔한 말엔 시큰둥하던 손님은
 정작 부위마다 붙은 터무니없는 가격표에는 혀를 내두르다간
 잠시 판청을 피워요
 역시나 눈치가 빠른 주인은 식감이 좋은 부위로 시식을 권할 줄 알죠
 특보를 낼 정도로 눈을 많이 품어
 주둥이가 거뭇한 구름을 뚫고 이제 막 도착한 포화지방산은
 예상은 늘 빗나가지 않아
 밤하늘 가득 불꽃놀이처럼 폭죽을 터뜨려 주어요
 혀를 말아 올리면 그에 질세라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며
 입안 가득 부챗살처럼 퍼지는 육즙으로
 혀는 누가 지켜보지 않는데도
 입속에서만 어물어물
 옆구리가 결리도록 혀뿌리만 연신 꼬아대기 바쁘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과분하게도 너무나 고맙게도 잘 대접받은 오늘이
 안타깝게도 최후의 만찬일이래요
 거세된 수소의 눈은 너무 순박해
 단골을 오래 기다렸다 덤으로 따라나서죠
 완전하게 익히지 않아도
 눈가에 습기를 품은 미디엄 달빛도
 조악하게 만져 놓은 구름이 먼저 채가며
 날 것으로 끌럭

낮부터 어스름 미리 나와 낮을 유난히 가리던 붉은 달도
순식간에 판매 완료
갑작스런 폭설과 교통체증에도
서터를 내리는 주인의 손놀림은 날아갈 듯 가볍기만 해요
대놓고 호객행위를 하는 이벤트 언니들도 없고
요란한 광고판 없이도
우리 동네 정육점에 다시 올 주말은
입소문만으로도 즐거운 달구경 제대로 하는 날이에요

소 엉덩이에 악착같이 붙어있는 배설물 위로
착 감기는 꼬리뼈가 만들어낸 바람은
오늘따라 더욱 매섭기만 해요



1.

날마다 팔레트에 물감을 섞는다
비가 오는 날에는 블루와 레드를,
귀에서 이명이 들리는 날에는 그린과 블루를 섞는다
기억이 임계점을 향해 달려갈 때는
블루와 그린과 레드가 한꺼번에 섞여 백색이 되기도 한다

거울 앞에 선 물체의 색은 같은 방향을 유지한다
마이크로폰이 처음 목소리를 이탈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데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는 색만이 아니다
음성이 벽에 부딪쳐
난반사되어,
블루로 변하기도,
블랙으로 변하기도 한다

어떤 마음들은 부딪치다가
블랙아웃되기도 한다

2.

어둠이 오면 색의 경계가 사라지고 너머의 광장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창밖 어둠속에

익숙한 얼굴이 어제처럼 다가온다

지나간 것들은 무슨 색으로 정의될까

나만의 방식으로 색을 입힌다

그리움에는 또 무슨 색을 칠해 놓을까

레드, 그린, 블루, 옐로, 화이트, 블랙...

그대로 놓아둘까

도화지를 찢어 버릴까

점점 줄어드는 나의 여백에,

점점 넓어지는 너의 부재에

3.

검정색 새 한 마리가 허공으로 날아간다

찰나에서 찰나로

혼자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다가
멀리서 불빛이 글썽이는 것을 보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의자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는 몇 사람이 보였다
수어를 하며 밥을 먹는 그들의 눈동자에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손 마디, 마디에서 작은 반딧불이가 태어난다

뚝배기를 비우며 그들은 눈 앞에 떠오르는
반딧불이를 보고 있는 것일까?
간혹, 묵은지 같은 웃음들이 배시시 공중으로 번졌다
침묵에는 허기를 채울 수 없는 속앓이가 있다
죽은 후에야 허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열병에 걸려 목소리를 잃어버리신 큰 아버지
입안에서 나오지 못한 말들이 고인 채,
끝내 방 한가운데서 고목처럼 구부러지셨다
내가 모르는 설움을 가슴에 묻은 채 떠났다

입관을 하러 가기 위해
그의 가슴을 열었을 때,
사람들은 반딧불이가 큰 아버지의 가슴 바깥으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식당에서 혼자 먹는 저녁은
멀리서 보면 모두가 반딧불이들 같다
깜박이다가 사라지는 상처처럼

반딧불이는 맑은 상처 속에서만 살다 간다



담벼락 사이 상처가 있는 곳,
 몽글대는 달팽이 무리 신기해 반짝이던 나는
 저 멀리 호박넝쿨 위에서 또깡또깡
 곡괭이질 하는 어머니 간간이 확인해보곤 하였는데
 쓸데없이 흙 속에서 무엇 하는 짓이냐!
 얼굴 붉어진 아버지의 엄포가 바람에 실리면 어찌나
 어머니의 마른 등살을 치고 가면 어찌나
 여섯 살의 나는 쪼그려 앉아
 달팽이를 보며 시간을 세고 있었다
 그만 밝은 곳으로 나와 주면 좋으련만
 몇몇은 회오리치는 얇은 껍질 속에서 비밀같이
 뽕뽕 박혀있고 몇몇은 흐물텅 흐물텅
 어둠을 뭉치고 있었는데,
 첫째는 도망치듯 시집을 갔고
 달려 빛 삼부이자 얹어서 짜낸 대학 등록금
 둘째, 셋째, 넷째가 일수 짝뚝 줄을 섰던 그 시절
 방 한 칸에 빨래처럼 널려있던 오 남매의 내일은
 땀으로 흥건했던 어머니의 속옷처럼 마를 줄을 몰랐다

새벽을 보고 밤의 별을 엮어서 이고 가도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 이룬다 달팽이는
강낭콩 꼬투리도 담고 까끌까끌한 콩잎까지 엮어 넣어
자신만 없는 빈집을 사연 많은 소설집처럼 등에 메고
기우뚱 기우뚱 꿈틀거리는데,
종아리 사이에 노을처럼 걸린 시간을 저릿저릿하며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그 무리 속으로
던졌다 돌을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뭉그러진 가계(家系)를 짚어진 얼굴 하나가
벽을 타고

오른다



투명한 길



동상

영주소방서 김 일 하

창문에 난 길을 들여다본다
초록의 풀밭이 투명하게 일렁이는 길 위에서
길잡이 개미가 표시해둔 페로몬 향을 따라
한 행렬이 고요히 흘러간다
개미처럼 걸어다니고
개미처럼 살아내면서
누군가의 무사한 걸음을 위한
길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만 나를 부려먹었는데
앞서간 개미의 걸음이 창에 매달려
다른 개미의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저 긴 행렬이 한 몸이다

얼마나 많은 길이
허방 같은 창을 무사히 다녀갔을까

경기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 호 석

어차피 멈추어 설 시계바늘을 왜 자꾸 돌리시나요?
제자리걸음 일거라는 소아신경과 교수의 진단 후
아기 엄마의 시간은 맥없이 내려앉았다.

일곱 달을 채 품지 못한 엄마의 마른 눈물이
시계의 투명한 살결 위에 떨어지고
파문에 갇힌 시계바늘은 부르르, 털썩 주저앉는다

엄마의 손길이 닿으면 발가락에 힘을 주는 시계바늘
몇 번의 까치걸음은 하나의 반경으로 귀결되고
얼마 가지 못하고 엄마의 품으로 들어와 박힌다
중력을 거스르고 열두시를 향해 올라가 보지만
운명을 거스르지 못하고 여섯시로 회귀하는 시계
결국 오른쪽으로만 돌고 돌아 제자리인걸까

한걸음 가고 비틀, 또 한걸음 가다 멈칫
초침의 힘겨운 걸음을 바라보다
엄마가 알아차린 것은

시계바늘이 걷는 길이
 동심원을 그리는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매순간 새로운 직진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세상이 규정해 놓은 열두 개의 숫자 대신
 엄마의 간절한 눈빛을 이정표 삼아
 넘어져도, 멈췄다 천천히 가도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 두려울 리 없는 시계는
 끝없이 전진을 하고 있었나보다

언젠가, 돌돌말린 고무나무 어린잎 같은
 양상한 시계바늘에도 살이 차오르는 날
 짹짹 아기의 웅얼이
 마디마디 연결되어 단단한 문장으로 뻗어 오를 테지
 잃어버린 시간이라도 찾을 듯



교육부 김 경 미

오랫동안 그 나무에 무엇이 피고 졌는지 알지 못했다.
비바람에 휘청이지도 않았고, 불지도 않았다.
어머니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촉촉한 눈시울을 훔치고는
막차에서 내린 나를 맞아
된장국에 불 켜려 잔걸음으로 앞서곤 했다.
이내 돌배처럼 작아지는 그녀의 길은,
수없이 국을 데우고, 나물을 무치고, 깨를 뿌리는,
그건 무슨 신념처럼 보였다.

가을비는 나를 이곳에 데려왔다.
이곳은 생각의 끝과 시작
빛바랜 꽃나무 아래, 때 묻은 무지개색 보료
꿈을 꾸다가 울던 곳
무지개색 보료 앞에 어머니가 신념처럼 상을 들인다.
가을비를 맞아 붉은 어머니
젖은 무궁화처럼 앉아 손을 흔든다.

첫 봄비가 오는 날이었다
 나는 투명한 몸이 되어 버드나무의 뿌리를 따라
 지하로 내려갔다 바닥이라고 생각했더니
 더 깊은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한때 구름 속에 있을 때
 바닥의 세계가 훤히 보이는 듯한 착각도 했지만
 여기서는 열은 구름만큼 부질없는 것이었다
 사방은 어두운 공허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내리고 마는 것이
 길을 걷는 자의 여행법일지도 모른다
 공허 속에 어두운 방이 보이기도 하지만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아 머무를 자리 없다
 머물 곳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더 깊은 바닥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얇고 부드럽기만 한 손가락 같은 것이
 나를 끌어올린다 강한 힘에 이끌려 올라가는 동안
 고개를 들어 나보다 앞서간 것들을 본다
 햇빛을 받으면서 끌어올린 손가락이 끝나는 지점에는
 허공에 연듯빛 줄기가 그려지고 있다
 바닥으로 떨어진 것들도 자리가 있었다
 저마다 아름답고 싱그러운 자리가 있었다

또 다른 나를 위하여

동상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 강 병 철

나뭇가지가 철쭉 부러지며 통증을 호소했다.
바람은 잠자코 있고 풀잎은 거꾸로 드러눕는다.
양상한 슬픔, 해를 향해 휘어지고 있다.
붉은 혀가 지평선과 은밀하게 입맞춤하는 사이,
강바닥은 메말라가고 죽은 냇 위로 모래가 쌓여갔다.

그때 거침없이 나는 사막을 걷고 있었다.
바오밥나무는 던지시 나에게 소곤거린다.
〈성령에 이르기 전 눈을 감아선 안 된다〉
모래바람에 묻힌 미라도 눈꺼풀이 열려있다.
혼돈의 길을 따라 눈 부릅뜨고 사막을 걷는다.
기나긴 여행의 끝은 집을 바꾸는 일일 뿐이라며
새들은 날아간다. 아!
부끄러운 눈물을 훔치고 있는 내 곁에
다가와 쌓이는 청춘의 잔해들,
끈덕진 불면증은 밤새도록 늪지 않는다.

내가 비로소 어둠의 잠을 접고 일어난 날
 꿈은 낭자한 거리의 인파 속으로 사라져 갔다.
 꿈이 동강난 허수아비가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같이
 바람처럼 일어나 외친다.
 <허튼 맹세의 어둠에서 깨어나라>

이제 나는 널 새벽녘 머언 바다로 나가
 초록의 물고기를 잡아와야 할 것이다.
 뜨거운 사막 위를 걷던 부릅뜬 눈으로 가장 낮은
 땅으로 걸어 들어가 아름다운 아라비아 처녀의
 그 짙은 눈썹을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아마조네스의 변



공덕초등학교 김 래 연

그랬다.

세상은 질서정연하고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원주에 가까웠다. 서슬 퍼런 칼날을 움켜쥐고 언제건 내리치겠다는 묵직한 의지가 모래바람에 끊임없이 실려 왔다. 모근까지 쭈뼛서는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나서야 발밑에 드리운 건 평지가 아닌 나락인 걸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시계추처럼 흔들리는 작태로 위태로이 외발을 서는 일뿐임을 알고야 말았다.

바스락,

오른쪽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파도처럼 몰아치던 날 밤에 여자는 달빛으로 버린 칼끝을 제 심장에 겨누었다.

활쏘기가 불편해 오른쪽 가슴을 도려냈다는 그리스 신화 속 아마조네스처럼,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바위에 제 발톱을 간다는 매처럼. 살기 위한 희망으로 가득 찬 절망의 쇳조각이 살갗을 누빌 때 한껏 여윈 얼굴의 달이 정갈한 빛깔로 결의의 장면을 목도했다. 달빛을 빚어 만든 시위로 쏘아 올린 활이 원주의 끝에 걸렸다.

푸우,

일그러지는 원주는 질박한 달항아리. 고아한 자태 앞에선 불균형한
몸체도 예술에 가까웠다. 날선 세상은 무더졌지만, 여전히 견고한
성이었다. 한쪽 가슴을 도려낸 채 외발로 선 여자는 나락을 등지고
섰다. 뱃고동처럼 온몸을 둥둥 올리는 맥박이 성난 활시위를 당겼다.
한껏 기울어진 세상을 향해 여자가 쏜 건 서러움, 질박함, 그리움,
혹은 그 어디에도 닿지 못한 깊은 우물 속 언어들.

달이 푸른 밤이었다.





2021년 공직문학상



시조

아내의 향아리
꽃씨 묻은 한식날
돌담길
남명매



아내의 항아리

금상

전) 중경고등학교 임 영 선

아내는 새까맣게 탄 항아리를 안고 있다
묵은 소리를 내며 양금도 서려 있는
어찌다 뚜껑을 열면
설움도 쏟아지는

삭힌 발효의 시간 잔소리도 잦아들고
오롯한 집중의 시간 생각도 깊어지는
한 세월 깨지지 않는
항아리를 품고 있다

켜켜이 쌓은 사연 때론 눈물짓지만
깊숙한 울림으로 가족을 담고 있는
아내는 용광로 같은
항아리를 안고 있다



꽃씨 묻은 한식날

은상

전) 영암군청 김 형 만

종달이 긴 울음 이냥저냥 봄 한 철
 텃마루 걸터앉아 접시꽃이 곱다 시던
 어머니 생각 떠올라
 씨 따 모은 접시꽃

띠 김불 양상한 청명한 봄 한식날
 이부자리 둘레에 꽃씨를 묻는다
 봄 한 철
 긴 꿈 깨시면
 웃으실까 한여름

한식날 비 오시면 풍년든다 하시던
 접동접동 울 어매 목소리 으밀아밀
 하남산 멧 꿩 소리에
 붉어지는 눈시울

* 시작 노트 : 내일 비 온다는 예보를 듣고 지난여름
 따서 모은 희고 붉은 접시꽃 씨를 어머니 묘소 둘레에
 심었다. 어머니는 생전에 접시꽃을 좋아하셨다.

돌담길

은상

충청북도 산림환경연구소 정 해 선

시간이 내려앉는 나직한 돌 틈 사이
마주한 너와 내가 한결을 엮어 보다
닿아서 깎인 모서리 이끼로 남은 당신

돈아난 병아리꽃 겨울 벌써 잊었는지
처음 만난 지상에서 날개를 퍼덕이자
얕팍한 인화지 같은 봄 햇살이 내리네

간절한 소망 몇 줄 하늘가에 닿았을까
가슴속 다 비운채 비답도 비워버린
시간이 곱게 쌓이네, 살짝 기운 돌담길



경남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이 규 준

앞들에 내린 고요 칼춤에 금이 가고
몰아치는 피바람에 꺾어버린 이정표
궤도를 벗어난 세상 가는 길은 안개 속

짙은 어둠 걷어낼 등불은 어디에
그 운명 외면 못해 지리산에 자리 잡고
산천재 홀로 걷는 수행길 곁에 둔 *남명매

선생을 품었나 추울수록 진한 향기
한평생 외고집 수액으로 흐르나
오백 년 이어온 기개 바람도 비켜가네



* 남명매 : 조선중기 유학자인 남명 조식 선생이 거주하던
지리산 산천재 옆에 심은 매화나무



2021년 공직문학상



수필

ESSAY

타란툴라와 춤을

사막

마음만은 우렁각시처럼

동치미

손

선물은 쓰레기가 아니다

파도

못가름

빨래집게

질투가 꽃이 되는 순서



타란툴라와 춤을

두송중학교 이 강 선

내 눈 속에 거미가 산다. 오른쪽 눈동자 끝에 그물을 치고 있는 그놈의 정체를 잘 살펴보려고 눈동자를 왼쪽으로 굴러본다. 포획된 먹잇감이라도 낚아채듯 거미가 냉큼 달려 나온다. 마치 팽팽한 거미줄 위에서 춤이라도 추듯 조금도 주저함이 없다.

미루다 찾아간 안과에서 ‘비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노화의 일종으로 치료 방법이 없단다. 수정체와 망막 사이의 공간을 채우고 있는 유리체가 혼탁해지면서 망막에 그림자를 드리워, 벌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며칠 전 딸아이의 방 천장에서 수직 낙하해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미를 죽인 적이 있다. 가느다란 거미줄에 거꾸로 매달린 채 다리 마디에 뻗뻗하게 힘을 주고 있는 거미는 파리나 모기를 죽일 때와는 달리 섬뜩한 생각이 들었었다. 거미가 육지에 살게 된 최초의 동물이라고 하니 영물일 것이다. 그래서였을까. 내 눈 속 검은 비문의 정체가 바로 내가 죽인 거미의 상이 맺힌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마저 들었다. 거미는 눈이 8개나 되지만 시력은 매우 나쁘다고 한다. 눈이 있다고 모두 다 잘 보는 것은 아닌가 보다. 나도 안경을 낀 적이 없는데 정작 보지 못하고 산 게 있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딸아이의 마음이었다. 그동안 나의 무의식이 외면해 왔던 것일까. 거미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이후부터 나는 책을 읽는 대신 우두커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날도 그랬다. 뭔가 사소한 일로 남편의 거친 언행이 시작되었다. 시어머니의 제삿날이라 행주로 제기를 닦고 있던 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늘 무서워하며 눈길조차 피하던 아버지에게 딸이 큰 소리로 울며 대항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급기야 딸은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평소 아버지와의 사소한 갈등에도 늘 말이 없던 온순한 딸이었기에 놀라움이 컸다. 이튿날, 도시락을 핑계 삼아 회사로 찾아간 나에게 딸은 강력하게 독립을 선언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독립하겠노라고.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느껴온 두려움 때문에 다 성장한 지금도 남성을 적대시하거나 방어적 태도로 대하게 되어 연애도 할 수 없었다고 울면서 고백했다. “엄마도 이제 무조건 참고 인내하거나 누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라”는 일성은 야멸찼다. “아빠에 대한 엄마의 수동적인 태도가 아빠를 더욱 공격적으로 만들었음이 분명하다”라는 딸의 말에 나는 독거미에 쏘인 것처럼 마비되고 말았다.

딸은 타란툴라였다. 타란툴라는 몸집이 크고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는 무서운 독거미로 알려져 있지만, 실은 성격이 얌전하고 온순해서 애완동물로도 키운다. 먼저 공격하는 법은 없지만, 적의 공격을 받으면 등 쪽에

무수히 나 있는 날카로운 털을 뽑아 적을 향해 던진다고 한다. 그날 딸은 자객이 표창을 던지듯 나에게 마구 비수를 던졌다. 어린 시절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잦은 체벌을 가하던 아버지에게, 이제 대 놓고 반격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늘 조용하고 순응적이던 딸의 가슴속 어디에 이런 날카로운 비수를 숨기고 있었을까. 최근 독서 모임에서 미국의 임상심리학자인 토니 험프리스의 『가족의 심리학』을 깊이 읽은 후, 우리 가족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오랫동안 고민해 왔노라고 말했다. 폭력은 대물림 되는 것으로, 자신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폭력성이 언제 발현될지 몰라 두렵다는 말을 덧붙이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남편의 별명은 ‘바른생활 사나이’였다. 별명에 걸맞게 자기가 세운 기준에 맞지 않는 가족들에게 자주 화를 분출하며 매섭게 몰아치고 늘 강하게 지배하려는 사람이었다. 나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문제 삼을 용기가 없었다. 그저 저 시절의 남자들은 모두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버린 것이라고 이해해 버렸다. 그렇게 인정해줌으로써 내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에 대항해야 하는 위험으로부터 도망쳤다. 가능한 한 남편에게 맞춰 주고 인내하며 좋은 아내, 착한 여자라는 주변의 평판을 유지했다. 딸이 가끔 무기력해지고 자존감이 바닥이라고 말할 때조차 나는 그 심각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었다. 딸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점차 둔감해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다. 내 눈 속 비문처럼.

거미는 실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허상인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 끈질기게 따라붙던 내 눈 속 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러다가 거미의 부재를 눈치챈 순간에는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다. 거미는 나를 조롱하고 있었다. 평생 거미와 함께 세상을 바라볼 사태를 걱정하는 나에게, 안과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뇌는 금방 익숙해져 버리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가 의식할 때만 보인단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니, 안 보이는 순간이 더욱 겁이 났다. 보이면 보이는 대로, 안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거미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자아를 가진 나를 담금질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식을 완전히 독립시키기 위해서 키운다고 말하면 서도 ‘보호’라는 이름으로 가두고 통제했다. 날마다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 사이에, 긴밀하게 만나야만 발생하는 마찰력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었나 보다. 운동 방향과는 언제나 반대로 작용하는 마찰력 처럼,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끼리 오히려 상처를 주고받으며 어긋나고 있었던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인간은 살기 위해 과거를 파괴하거나 해체할 힘을 가져야만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과거를 법정에 세우고 고통스럽게 심문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아프지만 나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했다. 딸의 상처를 알아차린 순간부터 나는 심한 우울과 불안에 휩싸였다. 눈물이 자발없이 흘러내렸다. 같은 굵기의 강철보다 5배나 강하다는 거미줄이 내 목을 옥죄어 오는 것 같다. 우리 가족의 상태를 거울에 비추어 보고 싶어 가족 상담을 신청했다. 나는 좋은 부모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핑계를 대면서 스스로를 심판대에 세우는 일이 어렵게만 느껴졌었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마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다. 딸 덕분에 최근에 읽은 몇 권의 심리학 관련 책들이 한결같이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며 나를 채근했다.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는 것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고 깨우쳐 준다. 상담 마지막 날 그토록 완고하던 남편은 우리 가족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나 역시 친정엄마 이야기를 하다가 내 안에 어른이 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는 ‘내면 아이’와 처음으로 만났다. 타인이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 가는 가족 관계가 새삼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엉켜있음을 알게 된 순간이었다.

자식이 독립하듯 부모도 자식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 며칠 뒤에 딸은 허물을 벗듯 입었던 옷을 침대 위에 벗어놓고, 자신의 새로운 집을 향해 떠날 것이다. 텅 빈 방을 우리 부부는 오래도록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 거미는 자라기 위해서 여러 번 탈피 과정을 거친다. 탈피를 하는 순간 위협을 받았을 때 스스로 잘라냈던 다리도 다시 생겨난다고 하니, 딸의 상처가 아물고 그 자리에 새 살이 돌아나기를 소망한다. 날개가 없는 거미가 날아다니는 곤충을 잡기 위해 허공에다 거미줄을 치는 기술을 발달시키지 않았던가. 딸은 이제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갈 것이다. 새삼 딸이 혼자 그려 갈 무늬가 궁금해진다.

그동안 무거웠던 가족의 무게는 오히려 내 삶을 단단히 붙들어 매어준 중력이었다고 애써 나를 위로하고 다독여본다. 등에 짊어진 짐이 무거울 수록 강을 건널 때, 쉽게 휩쓸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먼저 내 마음을 솔직히 설명하고 드러내는 연습부터 해보아야겠다. 마음의 중심을 친정 엄마나 딸이 아닌 나 자신에게로 옮기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면 아이’와 대화를 이어가야 하는 숙제도 생겼다. 중세 시대 ‘타란토’ 지방

사람들은 타란툴라에게 물리면 웃거나 울다가 죽는다고 믿었다. 그 고통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는 것이었는데, 그 춤 이름이 타란툴라 댄스라고 한다.

나의 타란툴라 댄스는 익숙해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불협화음을 알아차리기 위해 추는 춤이다. 그러자면 우선 내 눈 속 거미부터 살려 놓아야 한다. 우린 함께 8분의 6박자 혹은 8분의 3박자의 빠른 템포로 경쾌하게 춤을 출 것이다. 첫 스텝으로 비문이 살아있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강하게 굴러본다. 그리고 텅 빈 컴퓨터 화면 앞에서 점멸하는 프롬프트를 호기롭게 직시한다.



사막

인천시종합건설본부 전 소 연

제 아주 오랜 바람 중 하나는 사하라 사막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하라에 비하면 그랜드 캐년이나 포트스테판은 반쪽짜리 사막 같아서 이곳에 두 발을 딛고 서야만 느낄 수 있는 무엇이 있으리라는 환상이 저를 지배했다는 게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스물다섯, 이제야 광막한 사막에 왔습니다. 스위스의 설산만큼이나 숨을 턱 막히게 하는 곳에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서서 온통 모래뿐인 저 어딘가에서 떨어지고 다시 떠오르는 해를 보았습니다. 눈을 감고 멍대로 걷다가 다시 눈을 떠도 온통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어서 길을 잃을 염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적막’이라는 단어를 감각해 보셨나요? 사막은 적막합니다. 머리카락의 미동조차 만들지 못하는 작은 바람이 귓가를 스치는 소리마저 선명한, 나란히 선 H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날아드는, 탄산음료의 기포가 툭툭 터지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는 곳입니다. 보이는 것이라곤 끝없는 모래사막과 시시각각 색이 변해 묘사가 불가능한

하늘뿐인 이곳에서 저는 적-막-이라는 단어를 처음 배운 어린아이처럼 한 단어를 내내 입안에 굴리며 곹씹어야 했습니다.

사하라는 정말이지 그 이름을 닮아 처음부터 끝까지 아- 하는 탄성을 내지르지 않고는 못견딜 곳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적막한 곳이 있다면 분명 이곳이겠지요. 저는 적막의 한가운데에서 죽은 낙타의 잔해를 보았습니다. 그 누구도 낙타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아 낙타는 주저앉은 모습 그대로 부패하고 있었습니다. 그간 아무도 낙타가 죽은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았는지 죽음의 이유를 묻는 제 앞에서 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마 싸움이었거나 병 때문이었을 거야, 하는 두루 몽술한 답만을 얻은 채로 저는 그 유골을 지나쳤습니다. 사막 특유의 모래 먼지 냄새가 폐부를 찔렀고 목이 건조해 연거푸 물을 마시고 잔기침을 해야 했습니다. 사막의 오후, 작열하는 태양 탓에 흐릿해지는 시야 사이로 저는 숨이 끊어진 낙타를 무심히 지나친 무수한 발자국들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투박한 무덤도 보았습니다. 머리와 발이 묻힌 위치에 돌 두 개를 꽃아 두는 것이 전부인 무덤이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죽음은 묘비도, 이름도 없이 그저 두 개의 돌로 동일하게 추모된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저편에서는 모든 존재가 이름을 잃는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세 개의 돌이 꽃힌 무덤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임신한 여자의 무덤이라는 덤덤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존재한 적 없으나 분명 존재했던 삶. 삶이 되기 이전에 사고처럼 죽음을 먼저 겪어버린 무엇. 사막에는 시선이 닿는 곳마다 죽음이 흔하게 놓여 있었고 저는 그 모든 죽음들의 서사를 상상하는 것이 무거워 이내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사막에는 길이 없었지만 알리는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만

보이는 길을 따라 사하라와 맞닿은 알제리 국경 근처까지 가니 유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온통 죽음의 흔적만 좇다가 의외의 곳에서 삶을 만나니 그저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맨발로 차를 향해 뛰어와 앞다투어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맛은 달고 끝 맛은 신 사탕을 한 주먹 나누어주면 아이들은 슈크란, 하고 인사를 한 뒤 멀어지는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주었습니다. 서로에게 주어진 다정을 교환하는 오후는 한껏 반짝거렸습니다. 양과 염소의 무리를 몰고 가는 유목민을 만날 때면 사탕을 건네고 풀을 뜯는 가축들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업고 있는 아기의 얼굴에는 파리가 아주 많이 붙어 있었는데 아이도 여자도 파리를 쫓을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이는 보채지도 않고 여자가 받아 건넨 사탕을 입에 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주작게 슈크란, 하는 인사를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마침내 맞이한 사막의 밤은 정말이지 이상했습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국의 노래가 흥겹게 들려서 가벼운 허밍으로 따라 부르지 않고는 못 버틸 밤. 얼굴에 닿는 모닥불의 열기가 낮설어 그 온도에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던 밤. 고개에 들면 글자 그대로 별이 쏟아질 것 같은 하늘만이 시야에 가득하던 밤. 겨우 이름만 아는 사람들과 나란히 앉아 박수를 치며 어울리는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밤. 핸드폰의 메모장 대신 작은 공책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싶었습니다. 핸드폰의 인공적인 불빛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빠르게 글씨를 써 내려갔습니다. 아침에 확인해보니 글씨의 절반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지난밤의 감정만은 오롯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글은 그 순간을 돌아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아름다움을 모조리 당신에게 선물하고 싶은 제 간지러운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막의 복판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순간을 무수히 상상해왔지만 정작 이곳에서 마주하는 매 순간순간이 상상하던 것 이상의 경이로움이라 어쩐지 눈물이 났습니다. 자꾸만 아려오는 코를 심호흡으로 달래며 모로코인들이 불러주는 아리랑을 들었습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십-리도 못-가서 발병 난다- 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금세 웃었습니다. 이 낯선 기분을 대체 어디서 느껴볼 수 있겠어요? 다 타들어가는 장작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라서, 그 연기 때문에 눈물이 났다면 당신은 믿어 줄 건가요? 다행히 이곳에는 울지 말라 저를 달래는 이도, 왜 우느냐며 이유를 묻는 이도 없었습니다. 짙은 어둠에 몸을 숨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혼자만 간직하고 싶어서 입술을 물고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소리 없는 울음에 익숙해진 나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제 왼편에는 딱 손톱 모양의 얇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당신은 날씨와 무관하게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날마다 크기를 달리하며 부지런히 떠오르는 달을 응시하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을 눈에 담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덧 모로코인들은 사랑은- 은하수 다방 문 앞에서 만나-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가 그들에게 이런 노래를 가르쳤는지, 또 그들이 노래 가사를 이해는 하고 있을지 가벼운 의구심이 들었지만 금세 그만두었습니다. 눈을 돌리면 곧장 사막의 광막함에 압도되어 하나의 생각을 오래 이어갈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있습니다. 모로코에, 사하라 사막에, 그 한가운데에 있는데도 도통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연거푸 차를 권했고 제가 마시는 찻잔들에 온통 무지개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를 한 모금 삼킬 때마다 반짝이는 무지개를 삼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꾸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쌀쌀한 사막의 밤에 차의 온기를 오롯이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입에 남은 차의 잔향은 코끝을 기분 좋게 간질입니다.

또 저는 순간을 기록하는 갖가지의 방식에 대해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좋은 카메라로 하늘 사진을 찍고, 그 카메라에는 수만 개의 별로 반짝이는 밤하늘이 그대로 담깁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하수가 선명하게 담긴 사진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저는 이곳에서 언어의 무력함을 통감하는 중입니다. 이 작은 공책에 이토록 아름다운 밤을 담아낼 재간이 제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꺼져가는 모닥불의 흐릿한 빛에 의존해 적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사라져 버릴 것 같은 아름다움을 어떻게든 붙잡기 위해 손에 힘을 잔뜩 주고 두서없는 감정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오른쪽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선명하고 정면으로는 카시오페이아가 보이는 밤을, 무수한 별자리의 이름을 들어 놓고도 찾아낼 수 있는 건 고작 두 개뿐인 이 밤을, 아 별자리의 이름같은 것을 몰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밤을 말입니다. 낭만이라는 단어를 아껴둔 이유가 바로 이 밤인 것 같다는 실없는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저는 불가항력적으로 당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사막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당신이었으니까. 덕분에 저는 어린 나이에 세 대륙의 사막을 여행했으니 사막에서 만난 아름다움들은 어느 정도 당신에게 빛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년 만에 다시 만난 당신은 여전하기도, 여전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넌 여전하네, 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와르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난 이년 간 저는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을 다시 만나지 않으면 제 삶이 도통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한 번 부서진 관계에 대한 두려움에 이런저런

핑계들을 끝도 없이 나열하다가 더 이상의 핑계가 존재하지 않는 계절에 닿아서야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우리가 아니었던 이 년의 시간을 잊은 것처럼 잘 지내? 하고 물었습니다. 당신과 연락이 닿은 후에도 우리를 그저 그때에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이성과 당신의 손을 잡고 서울 곳곳을 거닐던 날들에 대한 대책 없는 그리움이 매섭게 싸워대서, 억지로 억지로 눈을 감아 우리의 사진을 한 장도 남기지 않은 과거의 나를 탓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연인이 되기 전, 가볍게 스치는 손을 수없이 의식하다가 이내 장난인 척 맞잡았던 손의 감촉을 기억합니다. 당신은 조명을 디자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에 들어서도 당신은 늘 눈으로 조명부터 따라 그리곤 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두지 않은 채 건다가 신발끈이 풀리면 당신은 늘 쪼그려 앉아 풀린 신발끈을 묶어 주었고 저는 가만히 손을 뻗어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당신은 큰 소리를 무서워하는 나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소음을 만날 때면 당신의 두 손은 제 손보다도 빠르게 움직여 두 귀를 덮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단 한번도 저보다 먼저 잠에 들지 않았습니다. 잠들기를 유독 어려워하던 저에게 새벽은 얼마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당신을 만난 후로 저는 더 이상 새벽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자장가이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신을 쓰려고만 하면 온 세상의 단어가 너무 협소하다며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루를 온통 낭비하곤 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뿐인 시간을 쌓았습니다. 적당한 바람, 적당한 체온, 적당한 밀도의 언어와 감정, 그리고 적절한 긴장과 안정감까지. 저는 당신의 눈을 마주 보고 대화하는 모든 순간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몇 개의 표정에 울고 웃어

버리는 저의 나약함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는 노래와 영화에 대해, 읽고 있는 소설에 대해, 힘겹게 버텨온 시간들에 대해, 각자가 보는 낮은 세상들과 아픈 부분들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불꽃처럼 강렬한 깨달음으로, 때로는 압도적인 크기의 감정으로 저를 내리치는 관능적인 대화였습니다. 당신은 다정하지만 단호한 사람이었고 우리는 법과 도덕의 매혹적인 선들을 멋대로 넘나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인생의 크고 작은 불행을 자랑하는 순간마저도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물 같은 유연함으로 서로의 오만과 편견을 적셨습니다. 입 밖으로 낼 문장들을 신중하게 골라내려 불편하지 않은 침묵으로 접어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어쩌면, 너와는 사막을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날부터 제 바람은 사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신과 나란히 사막에 가는 상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것 투성이인 곳에서도 당신은 단연 빛나리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제 문장이 저를 매력적으로 만든다며 감탄했습니다. 당신은 부서질 빙판 위로 저를 끌어들이면서 안전하다고, 당신의 옆은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난히 조심스러운 성격이던 당신이 앞뒤 재지 않고 달려드는 걸 보고 저는 그 빙판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보다시피 저는 그 빙판 위에 홀로 남아 위태롭게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던 날, 당신은 내게 사람을 외롭게 하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늘 제가 없는 곳에서 당신의 날씨는 어떤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이 무책임하게 직조해놓은 대화 속에서 있지도 않은 사막을 홀로 헤매면서도 당신을 원망하지는 못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로 저는 스스로를 외롭게 하는 재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마음의 속도가 어긋나는 순간은 재난에 가깝습니다. 저는 자주 과거에 침잠하는 사람이니, 그 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렸던 날들이 되새겼습니다. 쉬이 없어지지 않는 당신의 기적은 순간순간 제 앞을 스쳤습니다. 저는 그 시절을 보내며 마음을 꽤 많이 잃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당신 앞에 섰을 때, 당신이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을 저보다도 많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남몰래 안심했습니다. 여전히 다정한 당신의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당신에게 먼저 손을 뻗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 가는 길과 사람 가는 길이 같지 않을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준다면 저는 기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 손을 잡아버릴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당신을 따라나설 게 분명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아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유독 ‘모르겠다’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당신은 늘 미완의 질문이었습니다. 답을 해 줄 유일한 이는 내 세상에서 사라졌으니 거듭 생겨나는 질문들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모르겠어, 뿐이었습니다.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제가 흐릿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흐릿해지는 저를 잃지 않기 위해 온몸으로 분투해야 했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니 어지러웠습니다. 눈을 세게 감았다가 서서히 뜨며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을 피해서 온 보름이 있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깜빡깜빡 점멸하는 불빛들. 제각각의 크기와 밝기로 존재를 선연히 증명하는 별들. 북두칠성이 이동하는 것을

지켜보며 하늘이 움직이고 있음을 새삼 깨달은 순간. H와 머리를 맞대고 모래 위에 누워들은 김사월의 노래. 하늘을 가로질러 선명하게 흐르던 은하수와 찰나의 순간 탄성을 자아내게 하던 별뿔별. 소원을 빌기엔 너무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때의 소원은 별뿔별을 보는 것뿐이었으니 소원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손끝으로 별을 따라 그리다가 눈을 감아도 이내 눈앞이 반짝거리는, 아아 정말이지 아름다움에 눈이 멀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은 당신에게 전화를 해야겠습니다.



마음만은 우렁각시처럼

특허청 권인섭

삼겹살 먹으로 갔다가 정작 묵은지나 계란찜에 감동할 때가 있다. 횃집도 마찬가지다. 제일 큰 점시에 담겨 나올 생선회를 먼저 기대하지만, 집집마다 그때그때 다른 기본상차림을 즐기는 재미도 쏠쏠하다. 도토리묵, 팽이버섯 구이, 옥수수 치즈, 미역국, 삶은 새우……, 몸값 비싼 광어·우럭·참돔 같은 그날의 주인공이 출연하기 전에 먼저 상 위에 오르는 예비 선수들이다. 여기서 비싼 일식집이든 동네 허름한 횃집이든, 상 한쪽에 길쭉한 콩치구이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횃집 세계에선 묵시적 룰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끓여서·삶아서·구워서·무쳐서 아니면 그냥 생(生)으로 나오는 부요리(副料理)중에서 콩치구이야말로 간단한 반찬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저녁시간에 손님이 밀려오자 급하게 구웠거나 점심에 미리 구워 놓은 것은 젓가락 가져가기도 전에 금방 티가 난다. 어느 집은 콩치에서 빠진 탁한 기름이 점시 위에 흥건한데, 이런 경우 살이 다 익거나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입안에 비린내가 가득 찬다. 어떤 콩치는 어찌나 살이 단단히 굳어버렸는지 젓가락 쥔 손가락에 힘 꽤나 써야 겨우 뜯어 먹을 수 있다. 이처럼 무성의하게 제공되기도 하지만, 보통은 주된 횡감이 상에 오르기 전에 앞 사람과 이야기 하면서 시간 때우기엔 괜찮은 정도로는 나온다. 회 요리에는 빠지지 않는 기본 반찬이니 (확실히는 모르지만) 주인장이나 주방장 입장에서든 안 내놓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정성 들여 굽기에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게 콩치구이가 아닐는지.

회 먹으로 갔으니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식으로 취급받지만, 생각지도 않은 고퀄리티(高quality)에 놀란 콩치구이도 있다. 생선구이 전문점 사장도 슬쩍 알바로 취직해서 배우고 싶을 정도라고 할까. 언뜻 봐도 매우 싱싱한 콩치를 기름이 적당히 빠지도록 촉촉하면서도 바삭하게 구웠는데, 노릇노릇한 은빛이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머리에 가까운 등 쪽에 젓가락을 넣고 살을 잡아당기니 살이 마치 김장김치 찢어지듯 꼬리 끝까지 쭈~욱 일어난다. 대충 구운 때처럼 살에서 느끼한 기름이나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김이 살짝 나오면서 뽀얀 속살이 드러나는 모양이.... 먹어 보기 전에도 ‘이건 진짜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껍질 위에 살살 뿌려진 소금이 어금니 사이에서 살짝 씹히는데 혀에 닿는 살이 보들보들하다. 그날 횡감의 어종이 무엇이었는지 집에 와서 잊어버릴 정도로 흐뭇한 콩치구이. ^_^

그 콩치구이가 상 위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지만, 주인장이 그날 아침에 남해안 어느 포구로부터 보내온 하얀 스티로폼 박스에서 은빛 콩치를 꺼내는 모습이 상상된다. 씻고 간하고 적당한 세기의 가스

불 위에서 조금 탄 듯하게 구워진 콩치. 콩치구이에 이런 정성을 들일 정도이면, 주인장이 내놓은 다른 밑반찬이나 진짜 주인공인 횡감에도 신뢰가 갈 수밖에. 이런 횡집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연보다 조연이 더 주목 받아서 뜨는 케이스라고 해도 좋다. 요리든 뭐든 주인공에만 주목할 때가 많았는데 밑반찬 같은 조연에 감동하면 유달리 그 기억이 오래간다. 고급 뷔페에 가도 그렇다.

뷔페의 김밥은 횡집 콩치와 같은 입장이라고 보인다. 뭘 먹을지 고르는 것부터가 고민인 뷔페에선, 본전 뽑아야 한다는 부담감에 남들이 주로 접시에 담는 고급메뉴부터 시작한다. 나는 비싼 수산물이나 스테이크와 함께 슬쩍 김밥도 접시에 담는다. 같이 온 사람들은 고급진 것들 제쳐두고 그 흔한 김밥을 담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한다. 저렴한 분식점에서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여기까지 와서 먹느냐고. 뷔페의 김밥이란 아마 횡집의 콩치구이처럼 그저 구색을 맞추기 위한 메뉴일지 모른다. 그러다 보니 맛없을 때도 많다. 밥도 질고, 그 안에 들어간 햄이나 시금치나 단무지도 저렴한 맛밖에 안 날 때 보면 특히 그렇다. 어느 손님이 김밥은 왜 없냐고 항의할까봐 억지로 차려놓았다는 기분이 든다. 그래도 항상 예외는 있다.

‘뷔페에서 이런 김밥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되지도 질지도 않게 지어진 하얀 쌀밥을, 참기름과 소금을 환상의 비율로 넣고 잘 비벼서, 윤기 자르르 흐르는 김 위에 펼쳐놓고, 싸구려 느낌이 전혀 없는 재료와 함께 알록달록하게 말아서 만든 김밥이 그렇다. 삼겹살집 왔다가 양념게장에 반해서 공깃밥 먼저 시켜서 먹을 때가 있는 것처럼, 김밥

먹느라 스테이크에 손이 덜 가게 되는, 옆 사람에게 편잔을 들어도 좋을, 그런 김밥도 가끔은 뷔페에서 만날 수 있다. 김밥 같은 사소한 메뉴 덕분에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뷔페. 어찌 보면 사소한 것이 큰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사례가 어디 콩치구이나 김밥에만 있을까. 수백 년에 걸쳐 돌 한 덩어리씩 차곡차곡 쌓아 만든 세계문화유산 건축물에서도 마찬가지다.

프랑스 소도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의 명물이라면 단연코 분홍빛 돌로 지어진 대성당이다(1015-1439년에 걸쳐 지었다). 파리 노트르담 성당과 달리 종탑(bell tower)이 하나만 있는 고딕양식인데, 종탑 높이가 142미터이고, 돔(dome) 높이가 58미터에 정면의 장미창(rose window) 직경이 15미터라고 하니, 우선 그 규모에 ‘와’ 소리가 절로 나온다(프랑스에서는 두번째 크고 세계적으로는 여섯 번째로 높은 성당이다). 규모도 규모지만, 이 성당의 매력은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색깔이라 할 수 있다. 분홍에 갈색도 섞인 듯한 색깔인데, 바라보는 각도나 거리에 따라서, 하루 중에도 태양의 고도에 따라서, 하늘이 흐린 정도에 따라서, 그때마다 달라 보이는 색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이 성당을 보는 묘미다.

이런 독특한 색의 변화는 성당 건축에 사용된 ‘돌’이 특이해서다. 유럽의 성당에 보통 석회암이나 대리석이 쓰인 것과 달리 스트라스부르 성당에는 ‘사암(sandstone)’이 사용되었다. 사암도 평범한 황갈색 사암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만 나는 ‘분홍색’ 사암이다. 분홍색 사암이 그 오랜 시간 바람과 비를 맞아 거뭇거뭇해지기도 하고 갈색으로 변하기도 해서

독특한 색깔을 만들었지만, 날씨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성당의 색깔이 변하는 이유는 돌 속에 섞인 ‘석영’ 알갱이 덕분이다. 빛이 무색투명한 석영에 부딪히면 무지개처럼 여러 색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성당의 색깔이 다양하게 변한다고 한다. 이렇게 큰 성당의 매력이 정작 돌 속에 숨어 있는 작디작은 석영 알갱이 덕분이라니…….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 보는 사람이 알든 모르든, 작든 크든, 위대함이나 완벽함의 기초는 작은 것에서 나옴을 실감하게 된다. 미켈란젤로 같은 거장의 그림도 다르지 않다.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Cappella Sistina)의 천장화 ‘천지창조(제작년도 1508-1512년)’를 그릴 때의 일화가 있다. 그는 4년 동안 천장 가까이 설치한 작업대에 누운 채로 그림을 그린다. 고개는 뒤로 젖히고 팔은 뻗어 붓을 쥐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날마다 하는 것이다. 어느 날 천장 한구석에서 끙끙대며 붓질을 하던 미켈란젤로는, 그런 모습을 본 친구의 핀잔에 이렇게 답한다.

“뭐 하러 그리 열심히 하는가?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구석까지 제대로 그렸는지 누가 안다고.”

“누가 알긴. 그거야 내가 알지!”

“내가 알지”라는 이 말이, 요즘은 크든 작든 무슨 일을 할 때나, 옆구리를 쿡쿡 찌른다. 직장에서도 집에서든 내가 무슨 일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지 나 자신은 잘 알기 때문이다. 뭔가 소홀히 하려는

마음이 생길때면, ‘그건 덜 익은 신(sour) 포도일거야’ 라는 마음을 ‘내가 알지’ 라는 마음으로 이기려고 한다. 먹고 싶어도 손이 닿지 않을 때는 시고 쓴 포도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어하기도 한다. 힘이 모자라서 못하는 일에는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 자기합리화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냥 정성이 부족했던 일을 두고 그 일을 신 포도처럼 생각하는 건 핑계다. 멀쩡히 해야 할 일을 신 포도처럼 편하하고 있는지도 내가 잘 안다. 그런 내 마음을 꿰뚫어 알아차릴 때야말로 신 포도를 입에 넣은 기분이다.

그래서 ‘내가 안다’ 는 인식은 가장 엄격한 내 마음의 파수꾼이다.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에서도 마찬가지다. 근래, 잘하는 솜씨는 아니지만 금요일에는 자기전에 토요일 아침이나 점심에 식구들과 먹을 반찬을 만든다. 거리두기 생각해서 외식을 전혀 안 하고 있고 배달음식에도 질리자 올해 들어 생긴 소소한 습관이자 가족에 대한 애정 표현이다. ‘금요일 밤의 우렁각시’ 가 되어, 계란말이, 어묵볶음, 김치찌개, 두부조림, 호박전, 콩나물무침 같은 간단한 반찬을 시도하는데, 같은 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해도 이상하게 그때그때 맛이 조금씩 다르다. 씻고, 썰고, 볶고, 끓일 때 갖는 마음가짐의 차이가 맛의 차이를 만드는 것 같다. ‘식구들 좋아하게 맛있게 만들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만들 때하고 ‘이번 주는 대충 때우자’ 라는 생각으로 만들 때하고 몸에서 나오는 기운이 다른데, 아무래도 ‘만드는 사람의 마음’ 도 음식 맛의 일부를 이룬다는 생각이 든다. 앞서 말한 콩치구이나 김밥도 그렇겠지.

솜씨와 능력은 부족하더라도 최소한 ‘마음만은 우렁각시’ 처럼 살려고 한다. 더 일찍부터 그랬더라면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마음으로 음식을 하고, 보고서를 쓰고, 사람을 만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아무리 작을지언정) 결과에 차이가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마음이 손끝에서, 눈빛에서 보이지 않는 긍정적 에너지를 뿜어내어 대상(對象)에 전해주기 때문이라고……. 콩치구이와 김밥과 대성당의 빛깔에 감동한 적이 있는, 내가 얻은 결론이다.



동치미

전) 포항이동중학교 손 달 호

동안거를 마친 수도승처럼 향아리 밖으로 나온 동치미의 자태가 단아하다. 시간과 환경이 변색시킨 익은누에처럼 노름한 빛깔, 속이 익으면서 겉으로까지 투명해진 동치미는 이성적인 비구니 상(象)이다.

찬물에 씻은 통무를 소금에 굴려 단지에 담아 재운 후, 장물을 붓는다. 무는 청각, 파, 생강, 마늘을 넣은 형곶주머니를 안고 소금물에 침지되어 동면에 든다. 동침 무는 향아리를 박차고 나갈 갑갑한 충동을 누르며 발효의 가시밭길을 건너간다.

동치미의 향이 그저 나는 것이 아니었다. 소금물에 침전된 무는 농도가 높은 쪽으로 삼투되어 염기가 낮아지고, 그 자리에 양념이 배이면서 제 맛이 잡혀진 것이다. 그 맛은 양념주머니를 부둥켜안고 삼동설한을 건너 온, 동치미의 기다림의 열매이리라. 독 속에서 속살이 아리는 고통을 견디며 염도를 맞춰온 동치미의 인고가 자못 놀랍다.

동치미한테서는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 검박하고 수수한 정취가 배어 있다. 겨울밤에 뜬구름 같은 기와집을 몇 채씩 짓는 수다로 입이 궁금해

지면, 뒤란에 묻어둔 동치미가 제격이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살얼음이 뜬 동치미를 짹짹 쪼개 먹으면, 한열(寒熱)이 뿜내는 윤치도 재밌거니와 맛도 그저 그만이다. 밤이 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울 맨입을 축이는 야참으로는 동치미만한 것도 없으리라.

자신을 공양하는 예지의 동치미는 기품이 있다. 격식 있는 상을 차릴 때 동치미가 복판에 놓인다. 입 적심을 비롯한 입가심 등, 동치미 보시기에는 수저를 자주 들므로 동선을 요량한다. 접빈객의 수염이나 두루마기의 흰색에 격을 맞출 반상 위의 홍일점도 동치미였다. 교자상에 오를 때는 막대와 반달 모양으로 나박나박 썰어서 교자의 혼을 담아낸다.

대접에 담겨 있는 동치미로부터 곰삭은 향이 풍겨온다. 돌로 지그시 눌러 햇살을 꿈꾸며 자연 발효된 동치미 향이다. 송곳날 같은 한기를 꺾은 뒤에야 새 생명으로 거듭난 동치미를 바라보다 문득 오랜 지기지우인 신형을 떠올린다. 신형에게 느껴지는 뭉근한 향기가 동치미의 그것과 공통분모로 통분된다.

신형은 교회든 절이든 어디에도 얹매이지 않는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듯, 자기 생활이 신앙이다. 동치미가 항아리 속에서 제 몸을 단련시키듯, 신형은 일상생활에서 스스로를 다스린다. 식욕부터 경계한다. 배는 팔십 프로로 한정해, 양이 차기 전에 숟갈을 놓아 맛있을 때를 삼간다. 맛있는 음식은 몸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이 식욕에 맞서는 논리다. 영양 과잉으로 군덕살을 끼워 다니는 일은 전무하다.

동짓날은 액을 막고 잡귀를 쫓는다고 하여 동지팔죽을 쑤어 먹는다. 나이만큼 새알을 먹다보면 생목 오르는데 그땐, 동치미가 해결사다. 소화 장애가 있는 팔가루가 물릴 때도 동치미가 교통순경이다. 팔죽은 동치미와 앙상블이었다. 동지팔죽의 족보에는 소화와 요갈의 다리를

놓아준 동치미의 어시스트 역할이 적혀 있었다. 교사시절에 신형은 학생 주도로 끼를 살리도록 어시스트 역할에 주력했다고 한다. 당사자가 학습 하계끔 가교 역할에 충실함은 그만의 교수법이다. 동지팔죽과 학생이 효능을 발산하도록 재능을 견인하는 조력자의 지혜를 보여준다.

신형도 동치미처럼 초년엔 맵고 지린 무였을 것이다. 그랬던 그가 중증 장애아들이 있는 다솜 복지센터에 발을 들인 때부터가 수련의 시간에 든 변곡점이 아니었나 싶다. 뇌성마비로 누워 지내는 아이들과 역지사지의 공감체험을 했다는 신형이다. 용변을 한바탕 치르고 나면 땀이 잇따라 줄줄 겨드랑이를 타고 흐른다고 했다. 휠체어에 들어 올릴 땐, 다리가 아래로 처져 감당이 불감당이었다고 고백도 했다. 담장 너머로 자신과의 약속을 뽕개치고 싶었을 땐, 왕소금을 가슴속에 한 주먹 풀어 넣었음지도 모르리라. 컴컴한 고독이 밀려올 땐, 청무밭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소금기로 막으며 산패를 지켜냈던 동치미처럼.

신형의 자선활동엔 어떤 계기도 없었다고 한다. 건강한 육신을 그렇지 못한 이와 나누는 일은 축복받은 자의 몫이라는 신조에 기초해 있었음이다. 자신을 삭혀 배품을 지향한 동치미처럼 신형은 잠자는 자신을 불러 내 약자와 나눔의 정신을 일깨웠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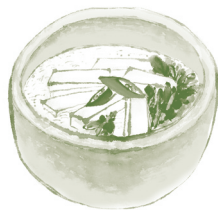
식사 중에 매운 맛이 입안을 설쳐댈 땐, 그 중재자로 동치미가 주사침이다. 매운 맛의 근원인 캡사이신은 물에 녹지 않는다고 한다. 유산균을 발효한 동치미에는 용해된다는 것이다. 신형의 인품도 소리 소문 없이 주변에 퍼져, 매운 맛을 상쇄해 주는 동치미처럼 갈등의 중재자로 주의를 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긍정의 기반 위에서 인간관계는 작동된다는 지론은 신형의 중재론이다. 부정적 생각은 한번 자리 잡으면 이참에 마음속에 전세를 내고 산다는 것이다. 어느새 주인이 바뀌어 객이 주인

행세를 하다 얻은 것이 갈등이라며 헤식게 웃는다. 온유한 긍정적 사고는 캡사이신을 잠재우는 동치미의 효모균이었으리라. 신형의 말에 점두하며 승복하는 것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인품의 신뢰에 있지 않을까?

연탄가스를 마셨을 때도 할머니들은 동치미를 떠먹었다. 동치미가 발효될 때, 미생물의 분해 활동으로 생긴 무극성분자가 연탄가스를 주저 앉힌다고 한다. 절임부터 숙성까지 발효 과정 전체를 관철하는 동치미의 간난신고가 영묘한 약이었지 않았을까.

피가 탁한 동맥경화증에도 동치미가 주삿바늘이다. 사람의 혈액만이 아니고 사회적 공감에도 동맥경화는 있지 않을까? 그렇다. 낮은 곳, 억울한 곳, 외진 곳에도 혈액순환을 기다린다. 너도, 나도, 제도에도 동맥경화증이 도사리고 있다. 혈액순환이 잘돼야 건강하듯, 한마음으로 묶어내는 힘의 원천인 소통이 원활해야 ‘우리’가 건강함은 불을 보듯 하리라. 외진 데를 피하지 않았던 신형은 사회적 동맥경화를 뚫는 침 같은 동치미였던 것이다.

사람 사는 법을 아는 신형도, 남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동치미도 이제 타인을 향해 깨어 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길을 걷고서도 그 길을 동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는 신형과 동치미가 피정을 끝낸 수녀처럼 현묵하다. 피안을 건너 대접에 떠 있는 동치미. 신형이 동치미를 타고 사방을 발섭한다. ‘다솜복지센터’의 영혼이 깬다.



손



전) 태안초등학교 김 명 재

결코 녹록하지 않았던 삶의 땀국물이 켜켜이 숨어있는 그녀의 손을 보면 명치에서 밀고 올라오는 속울음을 기어이 토해내고 만다. 겨우 육순의 손이다. 누구는 그 나이에 반질반질 기름기 흐르는 섬섬옥수에 손톱 위 보석도 박고 형형색색 그림까지 그린 사람도 있다만 그녀의 손은 스쳐보아도 흉물스럽다. 유난히 돌출된 마디마다 비뚤어져서 굽어있는가 하면 마땅히 짝 퍼서 손뼉이라도 쳐야 손 일진데 오므라져 퍼지지 않으니 어두운 주머니속이나 겨드랑이 속에 파묻혀있기 일쑤다. 일찍이 그녀의 어머니가 한 말이 어제 들은 듯 생생하다.

“입 하나 들어 불라고 근동에 있는 논마지기 솔참은 집에 날 시집 보낸기라. 시집서 밥은 안 끓어서 좋은데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아. 새벽 부터 늦은 밤까지 죽으라고 일만 하는데 남편은 군대에 가버렸지 뭐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기라.

큰 동서 시집이 또 말이 아니더라꼬. 칼날 같이 무섭데. 결혼한 지 두

달쯤 지났는데 이상하게 속이 미식거리는기라. 아이고, 달맞이도 안하고 아~를 가진거 같아서 뒷산 언덕에 바우에서 몇 번이나 뛰어 내린지 모른데이. 큰 동서가 아~가 없어 걱정이 말이 아인데 내가 먼저 떡 임신을 해봐라 우짜겠노. 바우에서 암만 뛰어내리도 아~가 안 지워지데. 그런데 뒷산 산신님이 날 불쌍하게 봤는지 큰 동서한테 태기를 점지해 준기라. 내가 딸을 낳고 몇 달 지나 큰 동서가 아들을 낳았 는데 이거 뭐 딸 낳은 나는 부엌때기고 아들 낳은 큰 동서는 왕후마마야. 동서 아들 먼저 젖 주고 남은 젖으로 내 딸래미 물렸어. 큰 동서 산후 조리를 일 년이나 했지 아마.

내 딸 눈칫밥 천덕꾸러기로 키우면서 시집 농사 다 지어가매 어른들 수발들다가 내 청춘이 다 가버렸다 아이가. 베틀 일에 호미질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젊을 때부터 열 손가락이 다 굵어버렸지 뭐.”

그 엄마에 그 딸이다.

그녀도 맘이 곱고 순하여 몸 사리지 않고 일을 한다. 아흔 노모 봉양 하고 집안 대소사 챙기는 것은 물론 남의 일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다. 장애인들 돌보고 독거노인 살피고 텃밭 농사지어 동네방네 나르는 오지랖을 펴나.

손은 그 사람의 역사이기에 살아온 내력을 알알이 품은 그녀의 손이 바다 향 나는 젓갈과 굴, 새우등 고향의 향을 잔뜩 들고 멀리 부산에서 달려왔다. 우리 집 김장 날 단골 손이기 때문이다. 그 손이 100여 포기 배추에 소금을 척척 뿌린다. 소금물에 손을 넣어 휘휘 젓더니 휘어진 손가락으로 맛을 본다. 물 10에 소금 1의 비율을 정확히 맞추던 나와는 차원이 다른 손가락 맛 농도로 다시 소금 한 바가지를 푹 떠 넣는다.

저침없는 그녀의 손이 아름답다. 소금에 절이는 일은 부패하지 않게 식품을 보관하는 핵심이다. 그녀의 서슬 푸른 인생도 소금에 절여져 저리도 웅골차게 맛이 들었나. 도처에 강요된 소비와 사회적으로 계획된 행복 따윈 거들떠보지 않는다. 올곧은 시선으로 앞만 보는 그녀는 젊은 시절을 의처증 가진 남편에게 밤마다 이유도 없이 두들겨 맞고 살았다. 짐승으로 변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발소리만 듣고도 가슴이 쿵쾅 거렸는데 아침에는 순한 양이 되어 두 손 짹짹 비는 그 모습이 측은하여 모진 세월을 견디어냈단다. 그래서일까? 사람을 아니 세상을 시선두지 않는다.

저녁에 절인 배추는 밤새 두어 번 뒤집어 준 덕에 알맞게 절여졌다. 잠 설치고 뒤집어주며 절여진 배추는 그녀가 아이를 뺏기고 남편에게서 도망친 모진 세월의 흔적이다. 새벽 배추를 씻는다. 새벽 공기 차고 시려도 책임을 진 사람의 손은 경쾌하다. 때마침 풍경소리 은은하고 새벽 닭소리 힘차다. 배추를 씻는다는 행위는 불순물과 잔물을 걷어내고 새로운 세계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한 때 그녀는 신비로운 주술의 손을 가진 적이 있었다. 다른 이의 속 모습을 사랑하고 속 기원을 귀신처럼 알아내는 이른바 신이 내려뒀던 것이다. 남의 아픔을 쓰다듬어 주는 그 손의 열정이 너무나 뜨거워서 앓으나 서나 사랑을 염원했었다. 두 손 맞잡은 그녀의 손이 병 고침과 삶의 끈을 이어주려는 신 내림으로 뜨거워져 있을 때 이웃들은 이상한 눈으로 흘끔거렸다. 미친 듯 춤을 추고 생사를 넘나드는 혼절과 헛소리를 하기 전까지는.

집에 먹을 것이 없어도 손님이 오면 대접해야 했던 그 옛날에는 길손이

반가울리 없어 두려운 존재였다는데 그래서 천연두의 역신을 손님이나
 마마라고 불렀나보다. 날을 따라다니며 인간생활에 영향을 주는 귀신을
 손이라 했듯 그녀가 원하는 사랑의 손도 귀신의 손으로 여겨 병원에
 드나들며 긴 치료로 일상을 되돌려준 사람은 지금의그녀 남편이었다.

양념장을 만든다. 그 옛날 그녀의 어머니가 한 것처럼 진한 옥수에
 찹쌀 풀을 넣고 고춧가루와 액젓을 손대중으로 뿌려 넣는다. 눈대중으로
 넣은 마늘과 생강, 매실청이 녹아든 양념장은 진하고 풍미롭다. 다시
 일어난 그녀의 일상이 갖과 무채와 파를 넣고 비벼진 양념장에 버무려져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한다. 각각의 재료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도 서로
 어울려 세월의 발효로 환상적인 맛을 낼 것이다. 양념장을 치대는 지금의
 그녀처럼.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절정의 시간, 이때야말로 전부가 하나 되는
 시간이다. 손들이 함께 놓고 있다. 두 손이 협업하여 노는 걸 가만히 지켜
 보면 주위의 모든 것이 리듬을 타고 질서 속에 운행한다. 거칠고 투박한
 남편의 손이 수육을 삶을 동안 켜켜이 양념장을 묻혀 인생을 배우는
 아들과 딸의 손에서는 재미있는 비트가 흘러나온다. 장갑을 꺼도 형체가
 드러나는 그녀의 손이 치대고 통에 담고 나르느라 분주한 틈에 쪼그려
 허리 아픈 나도 슬쩍 일어나본다. 맵고 짜고 단 맛이 따뜻한 온기 속에
 뭉그러진 이 조합이 너무 좋아 눈물이 난다. 불현듯 다른 이와 어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 것을 비워 남을 채우는 그녀의 손이 얼마나 눈부신
 존재인지 울컥해진다. 받은 달란트를 열심히 사용하는 그 손을 보면
 앨버트 뉘러의 ‘기도하는 손’이 떠오른다. 자신은 손이 굳어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 친구인 뒤러가 대신 역작을 그려달라는 기원을 담은 손이다. 김치를 쭉 찢어 이 입 저 입에다 넣어 주고 씨익 웃던 그녀가 수고 많았다고 어깨를 다독인다.

‘누가 할 소리?’

두 손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지금부터는 온도와 바람과 공기가 시간에 얹혀 남녘의 젖갈과 여기 강원도 산골 배추의 합방을 한층 농익게 할 것이다. 하여 성깔 삭혀 거듭난 김치는 언제든 길손의 식탁에 오를 것이며 가족의 자양분이 될 것이다. 수육과 막걸리의 힘을 빌려 배추김치, 갓김치, 동치미, 총각김치 가득 올라온 상을 마주하니 다시 한 판 축제의 장이다. 체온이 때로는 천 마디 말보다 따뜻할 때가 있다. 주저니 받거니 잔을 따르다가 양념장 묻힌 얼굴로 상대의 입속으로 밀어 넣은 김치가 입가에 또다시 빨건 도배질을 할 때 우리는 손뼉을 치고 웃어재겼다. 모두가 맞잡은 손으로 눈 한번 찡그려주고 어깨를 다독이며 수고를 칭찬한다. 그녀가 한 소절 구성지게 가락을 뽑는데 눈물 그렁그렁 하던 나는 결국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아무도 모르게 들썩들썩.

결망지고 다니는 우리의 인생은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주막에서 한바탕 열싸하게 웃고 내일은 또 내일의 길을 가면 된다. 가진 것 없어도 나누고 지독히 아파도 당연한 듯 감사하는 그녀의 손은 김치가 곱삭는 그 세월이 만들어낸 역작이다. 생각해보니 그녀는 웃고 있는데 울음을 삭이는 내가 우습다. 아내를 개 패듯 두드려 패고 밥벌이도 안중에 없던 그녀의 남편에게 손가락질 무수히 한 내 손은 얼마나 깨끗했든가. 빌려준 오십만원 뭉기적거리며 받았고 연탄이 없어 냉골 방에 아기랑 열싸안고

있을 때 따뜻한 전기요 하나 사주지 않은 철없던 내 손이 먹지처럼 시커멓다.

그녀가 신발 끈을 매려 한다. 사선으로 휘어진 어깨 아래 굴곡진 허리로 토해낸 앓는 소리는 심 없이 입으로 손을 가져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탄식이다. 주먹 불끈 쥐고 이 세상에 태어나 사랑하고 미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두 손으로 밥 벌어 먹고, 움켜쥐고 놓치기도 하며 살다가 결국엔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 그녀가 왔던 길 혼자 떠나려 한다. 이제 나도 밥 먹고 살 형편이 되어서 노갯돈 두둑이 주려해도 받지 않는다. 손으로 죄를 짓고 그 손으로 구원을 갈망하는 못난 내게 포옹하고 쓰다듬으며 건강하라고 신신당부 하는 그녀는 하늘 아래 하나 밖에 없는 내 언니다.



선물은 쓰레기가 아니다

전) 충청남도청 권 오 인

눈구름에 갇힌 쇼파에서 낮잠을 청하던 그 때 폰 벨이 울렸다.

‘권형! 차 한 잔 할까요?’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던 선배였다. 사실 퇴직하고 애경사가 있을 때 고작 한두 번 만난 것이 전부여서 반갑기도 했지만 한 편으로는 연락 한 번 못한 미안한 생각과 함께 습관적으로 오침을 하려던 때여서 그리 내키지는 않았다.

‘네, 무슨 일이 있나요?’

‘아니 오랜만에 얼굴 좀 볼까하고...’

주섬주섬 두툽한 잠바 하나 걸치고 형클어진 머리에 회오리 털모자 하나 쓰고 나갔다. 선배는 젊었을 때 급하던 성질은 아직도 여전한 듯 벌써 커피숍의 창가 쪽에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웃는 얼굴의 눈가에 수심이 보였다. 선입견인지 몰라도 뭔가 숨길 수 없는 언짢은 얼굴이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번개 치듯 지나갔다. 의자를 테이블 가까이 끌어당기며 은퇴하고 소원했던 시간을 가까운 공간으로 좁혔다. 그리고 재취업한 근황이며 건강까지도 관심 있게 나누는 동안

예전에 편하게 지내던 사이로 분위기는 다가왔다. 거리감이 견히자 ‘태안이 고향인 권형에게 한 가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을 해 놓고 주저하며 뜰을 들었다. 무슨 큰일인가 싶고 혹여 베일에 싸인 블록체인 같은 곳에 배팅을 권유하지나 않을까하는 의구심에 부담의 무게감을 느꼈다. 하지만 망설이던 입에서 의외의 물음이 나오는 순간 내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다.

선배는 약간 상기된 얼굴로 불편한 심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목소리가 커지며 옆 테이블을 넘고 있었다. 화가 섞여 토해 놓은 사연은 이랬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몇 년이 지난 설 때 어촌에 사는 지인이 깜짝 선물을 보내주어 반갑게 열어봤더니 값싼 새파란 파래 김이었다. 들여다보는 순간 귀한 선물의 품격은 하찮은 물건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래도 잊지 않고 보내준 고마운 성의에 아침밥에 싸서 먹었더니 뚝고 깔깔하여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이걸 아니다 싶어 파래 무침처럼 만들어 먹을 생각에 물에 불려 놓았다가 점심에 무침을 했더니 더 이상 먹는 음식이 아니다 하고 화갑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추락한 백수이다 보니 무시당한 기분에 너무 마음이 상해서 내게 하소연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다. 가만히 그 말을 듣자니 왜 그리 가당치 않던지 웃을 일이 없던 나를 웃게 만들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이런 때 딱 어울리는 말이다. 모르는 데서 오해가 생겼고 여기에 자신의 삼식이 처지를 보태니 버럭 울화가 치밀어 주체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사모님까지 등 뒤에 대고 ‘수준에 딱 맞는 선물이네’ 하며 비아냥대는 말이 비수가 되었던가 보다. 달갑지 않은 선물을 받고 스트레스에 짜증난 선배에게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무식의 소치라며 아는 척하면 상처를 더 받을 것 같고 막연히 이해를 구하면 선물을 보낸 사람을 험담해야할

상황이다 보니 난감했다. 선물을 보낸 사람이나 받은 선배가 모두 귀한 선물로 새 포장을 하는 공약수를 찾아주어야 비싼 차 값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여 일단 즉답을 미루고 나도 선물 때문에 실수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오래전에 조그마한 포구에서 친척 아주머님 혼자 운영하는 회집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그곳에서 주말에 친구들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주머니께서 부피가 작은 검정 비닐봉지를 내 손에 쥐어 주시며 ‘냉동실에 넣어두고 먹으라’는 말씀을 곁들였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고맙게 받아들였다. 말린 건어물쯤으로 생각하고 집에 와서 봉지를 열어보니 처음 보는 빅 소시지의 모양과 크기가 닮은 정체모를 해산물이었다. 하얀 비닐에 돌돌 말아 포장된 채 뽕뽕 열어있는 누렇고 거뭇한 해물은 에스키모의 주식처럼 보였다. 어촌 출신인 아내도 처음 보는 신기하고도 이상한 물건이라며 들춰 보았지만 생선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어묵 같은 완제품도 아니었다.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어 칼로 끝 부분을 베어 입에 넣었더니 맛은 미궁으로 빠졌고 비릿한 냄새가 바다가 고향이라는 확신만 얻었다. 일단 성도 이름도 모르는 해산물은 고마운 마음 보다는 이상한 선물로 딱지를 맞고 냉동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 잠들었다. 그리고 한 이태쯤 지나 전복, 해삼 양식하는 집안 동생이 왔다. 그때 깊이 잠든 정체모를 물건이 불현 듯 생각났다. 냉동고에서 뽕뽕 열은 물건을 꺼내어 건네주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느냐’며 보여 주었더니 비닐포장 된 괴물을 받자마자 웃기부터 했다. 껄껄 웃으면서 비닐을 벗기더니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듯 ‘와~ 물건 좋다. 좋아’

‘형님! 이게 고노 와다 인디, 몰라요?’

‘그래 와다?’ ‘고노 와다가 뭐여?’

그날 아우는 고노 와다를 떡국처럼 썰어 참기름 장에 찍어 내게 권하면서 술안주로 볼이 터지게 먹고 나머지는 양념과 상추를 넣고 비빔밥을 똑딱 만들어 한 그릇씩 주면서 술기운에 으쓱해진 기분을 감추지 못하고 일장 연설을 했다. 고노 와다는 해삼 내장으로 영양가가 최고여서 생물로 먹기도 하고 얼려서 보관하여 먹기도 하지만 호불호가 있는 기호식품이다. 나라에 따라서 명칭도 다른데 일본에서는 야행성인 쥐를 닮았다하여 바다 쥐라는 나야코(海鼠)라 부르며 영어권에서는 오이와 닮았다하여 바다오이(sea cucumber)라 한다며 주절주절 제법 수준 높은 말을 이어갔다. 해삼은 무척추 극피동물로 맛은 짜고 성질은 무득하지만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은은한 바다 향과 고소하고 단백한 맛이 일품이란단. 정말 그날 참기름에 찍어 먹는 와다는 중독성이 있어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이어서 먹은 비빔밥은 학습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정말 혀끝의 욕망을 제어할 수가 없었다. 그동안 무지의 소치로 냉대 받던 고노 와다는 가장 귀한 음식으로 내 입맛을 사로잡았다. 그날 이후로 내가 좋아하는 꽃게 간장게장과 어리 굴 젓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고노 와다 비빔밥이 첫 손가락으로 꼽혔다.

이 이야기가 다 끝나기도 전에 선배는 눈을 두 번 깜박거리며 무슨 뜻인지 알겠냐며 말을 끊었다. 그리고 궁금한 파래 김의 정체를 알고 싶다며 채근했다. 태안지방 어촌이 고향인 나에게 미궁에 빠진 파래를 건져 올리고 싶어 안달이 났다. 선배가 아는 파래 김은 색깔이 푸르러 일명 청태(靑苔)라고 하는 감태(甘苔)다. 생김새는 매생이와 비슷한 해초로 태안의 청산리와 이원 청정해역의 얕은 수심에서 자란다. 오롯이 바닷물과 햇볕에 의지해 갯벌에서 자라는 감태는 주로 겨울철에 생산되어 생물로 떡국에 넣어 먹기도 하고 숙주무침도 한다. 김처럼 말린 제품은

참기름을 바르고 소금 간을 하여 먼 불에 살짝 구워내면 단맛과 씹쌀한 맛이 나고 해초향이 은은하게 퍼져 입맛을 돋운다. 오염되지 않은 바다에서 소량이 생산되기 때문에 값도 김(해태)에 비해 다섯 배 정도 비싸다. 아주 귀한 대접을 받는 겨울철 감태다. 라고 아는 만큼 설명을 하였더니 무슨 큰 죄를 지은 양 ‘무식하여 잠시 고마움 보다는 나쁜 마음을 품었다’ 다며 자책의 한 숨을 내 쉬었다. 그렇게 귀한 선물을 욕으로 포장하여 쓰레기 통에 넣었다니 참으로 안타까웠다. 나 역시 귀한 고노 와다를 몰라 고마운 마음 보다 이상한 해산물로 이태 동안이나 오해를 했으니 부끄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날 선배나 나나 상식의 한계가 빛은 미움에 고해성사를 하고 뉘우침의 보속을 수행해야할 일이었다. 선물을 주신 분께 너무 미안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선물 이야기를 하다 보니 갑자기 오 헨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단편소설이 생각났다. 가난하지만 사랑하는 부부에게 돌아온 크리스마스는 선물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아내는 남편 몰래 자신의 소중한 머리를 잘라 남편의 시곗줄을 샀고 남편도 역시 아내 모르게 귀중한 시계를 팔아 아내의 머리피를 샀다. 크리스마스 날이 되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물을 주고받았다. 하지만 서로에게 더 이상 쓸모없는 선물을 마련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까지 가치를 상실한 허접한 것은 아니다. 진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여 선물을 마련한 따뜻한 이야기다. 어떤 물건이든 진실을 담은 선물은 고귀한 것이다.

선물을 주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고자 내가 가진 자원을 희생하는 것이지만 받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모든 선물은 값으로 가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을 담은 정도가 소중한 것이다. 오히려 반대급부가 있는 고가의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독이다. 게다가

감태를 받은 선배나 검정 비닐에 고노 와다를 들고 온 무지의 백수도 단지 물건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먹는방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하여 하찮게 여긴 것도 죄악이다. 선물은 귀한 것인 만큼 감사한 마음이 먼저다. 내용보다도 마음 씀씀이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선물을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의 안목을 생각하여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도 좋을 것 같다. 요즈음에는 꿈에 떡 맛보듯 가끔 있는 선물도 허리를 굽혀 가슴으로 안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다독인다. 이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파도



경기도청 강 동 우

혼자서 맞이하는 파도는 상처에 뿌리는 소금물이다. 둘이서 듣는 파도는 함께 덮는 숨이불이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바다에 자주 놀러 갔다. 파도소리가 한껏 좋아졌을 때 나의 딸 이음이 밀물처럼 나타났다.

요즘 가장 듣기 두려운 말은 ‘밥’이다. 식사 준비하려고 도마를 꺼내기만 하면 16개월 이음이는 ‘밥’이라고 분명하게 발음한다. 그와 동시에 보채기 시작한다. 묵직하고도 짧게 끊어치는 밥이란 음성은 총탄이 되어 내게 날아든다. 나는 방패가 없고, 이음이는 어금니가 없다. 이음이에게 감자, 무와 같이 단단한 채소를 먹으려면 멸치육수에 오래 익혀 무르게 해야 한다. 나는 그동안 총탄을 고스란히 받아낸다. 그래도 육아휴직 경력 3개월째 접어드니 굳은살이 박였다. 조금은 견딜만하다.

아이를 잘 안을 줄도 모르던 아빠는 급류에 휘말린 듯 육아휴직이란 섬에 표착했다. 아내가 출근하면 그 섬은 아이와 나 둘뿐인 무인도가 된다. 무인도는 생존의 공간이고, 생존하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 아내를 위한 일회성 요리와 가족을 위한 삼시세끼는 아예 다르다. 하나의

조리법만 꿰고 있을게 아니라 식재료의 보관법도 익혀야 하고, 특징도 알아야 한다. 식재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가 없으면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아내는 나의 실수를 모르는 척해주는데, 아이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가지를 기름에 먼저 볶은 적이 있다. 기름을 흠뻑 먹은 채 쪄그라든 가지를 먹여야 할지 망설였다. 그리고 사과 간 것의 잔해와 밥 딱 한 숟가락이 남았던 적도 있다. 사과 잔해를 반찬 삼아 먹여야 할지 망설였다. 그런 순간에는 머릿속에 희한한 관념이 싹튼다. 아이는 맛에 대한 편견이 없다. 이윽고 망설임은 사라지고, 주술에 걸린 듯 밥숟가락을 아이의 입에 넣는다. 아이는 음식이 혀에 닿자마자 뱉어낸다. 뱉어내고도 혀를 두어 번 더 날름거린다. 말을 할 수 없는 아이는 뱉는 행위로 어른을 꾸짖는다. 도가 지나치십니다!

어렸을 적 목성이나 토성에도 나름의 생명체가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른이 되어서야 행성에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야만 유기체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 정도라는 것은 생명의 탄생과 직결된 문제이다. 중요한데도 명확하진 않다. 정도는 유일무이한 답이 될 수도 없고, 답이 아예 없는 무한한 개방성을 뜻할 수도 없다. 정도는 정답과 정답이 아닌 것의 양극단 사이, 어느 언저리에 아른아른 존재한다. 간단히 말하면 나의 정도는 삼키는 것과 뱉는 것 사이에 존재한다.

아이가 매 순간 밥을 꼭꼭 씹어서 꿀꺽 삼켰으면 좋겠다. 어떤 공식 같은 것이 있을 만도 한데, 없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 수백억의 부모가 아이를 키웠음에도 없는 것을 보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유일하게 밝혀진 보편적 진리는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이다. 내 아이의 변덕은 오롯이 나의 몫이고, 한끼 식사와 탄생, 전개, 소멸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식사 준비에 앞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좋아하는 반찬이라도 자주 먹으면 질린다. 아이가 좋아하는 양파 계란말이, 양배추 찜, 표고버섯 조림은 식단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반찬을 정했으면 질풍같이 조리한다. 그러나 아이의 외로움은 요리보다 빠르다. 아이가 외로움에 겨워 부엌 여기저기 알짱대면 텔레비전을 켜다. 그래도 방심할 수는 없다. 가끔 아기 펭귄도 소시지 원숭이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식사에 돌입하면 눈치를 살피야 한다. 아이가 밥을 안 먹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밥숟가락을 힘껏 몰아쳐야 할 때가 있고, 스스로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봐야 할 때가 있을 뿐이다. 음식을 남겼어도 만족함을 알고 식판을 물릴 줄도 알아야 한다.

아이가 밥을 다 먹었으면 설거지를 한다. 설거지는 고독한 시간이다. 이음이가 밥을 잘 먹었으면 의기양양하게 그릇을 닦고, 뺐었으면 마음을 무뎠히도 닦는다. 마음을 닦는 와중에 아이가 내 다리를 붙잡고 들러 붙으면 큰소리가 난다. 이음이 너! 아이는 해맑게 웃고, 순수한 웃음 앞에 나는 부끄러워진다.

한끼 식사의 탄생, 전개, 소멸은 무한히 반복된다. 그러한 반복이 나를 완성시킨다.

하루 종일 밥 생각이다. 밥에 이렇게 공을 들인 적도 없다. 이제껏 식사의 탄생과 소멸을 남에게 맡기거나 과감히 생략해 왔다. 오로지 식사의 전개에만 집중했고, 그 대가로 고작 효율성을 확보할 뿐이었다.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린 밥은 생산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었다. 그런데 밥의 생애를 책임지게 된 지금, 밥은 그 자체로서 나의 목적이 되었다.

밥을 짓고 먹고 치울 때 나는 시지프스가 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원에게 효율성은 신이다. 신은 육아휴직을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형별이 되게끔 만들었다. 육아휴직을 써서 세상을 잠시 등지고, 하루의 대부분을 가족 먹일 밥에 쏟아붓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행위이다. 나는 그 행위로써 신에게 도전하는 자의 숭고함을 맛본다. 형벌을 어떻게든 받아내서 초연히 수행하는 시지프스가 많아지면, 형벌은 더이상 형벌이 아니게 된다. 앞으로 신은 다른 얼굴을 보여줘야 할지도 모른다.

효율성의 위력은 여전히 강력하다. 내 안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남아 있다. 사회와 직장이 나를 잊을까 두려울 때도 있다. 가정에 힘을 쏟은 만큼 다른 능력이 퇴보할까 봐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무릅쓰고 처연히 밥을 짓는데도, 아이는 아빠의 희생을 기억할 수 없음이 아쉽기도 하다.

내 최초의 기억은 네 살 때 외삼촌이 오토바이를 태워주었던 순간이다. 두뇌가 여물기 시작했고, 부르릉하고 부르짖던 오토바이의 강렬한 모습 덕분에 내 최초의 기억이 될 수 있었다. 두 돌도 안 된 이음이에겐 아빠와의 맛있는 하루는 절대 최초의 기억이 될 수 없다. 나중에 딸이 사춘기에 들어서고, 내가 어떻게 너를 길렀느냐며 으박도 질러보고, 기억을 되살리려 갖은 노력을 해보아도 딸은 이 시절을 기억해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무의미한 순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즐거운 이유는 소중한 것을 되찾았다는 기분 때문이다.

식사는 언제나 파도처럼 밀려온다. 바닷가에 선 것처럼 수십 수백 번 밀려온다. 지금 내가 새롭게 맞이하는 파도는 잠시 후에 떠나보낼 파도이다. 떠나보냈던, 무수히 많은 파도는 저 멀리 가버렸다. 생전에 다시는

마주치지 못할 파도는 무의미함인데, 그 무의미함은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한다. 무의미함의 존재는 쌓이고 쌓여 바다가 된다. 나는 무의미함의 존재와 누적을 가족이라고도 부르고 싶다.



못가름

대구 장동초등학교 문 은 주

미나리 맛이 감치는 것은 봄이 가까워졌다는 기별이다. 미나리는 얼음을 깨부수고 싹틔우며 잠자던 대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풀잎이다. 삼겹살 한 점에 미나리를 돌돌 말아서 먹으면 알싸한 내음이 입안을 감돌며 온몸의 세포를 깨운다. 그 맛을 진정으로 즐길 줄 알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유년 시절의 풍경이 영사기 필름처럼 드르륵거리며 돌아간다.

새벽부터 쌓아 올린 몇 개의 더미는 올망졸망한 산봉우리 같았다. 시래깃국에 보리밥을 말아서 후루룩 마시듯 먹는 엄마 곁에서 먼 산을 바라보며 나는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빈 그릇을 받아들고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재촉했다. 그릇을 건네는 엄마의 왼쪽 손가락을 동여맨 무명천 끝자락이 물에 젖어 너털거렸다. 또 손가락을 베인 것이다. 한 줌이라도 더 बे기 위해서 숨 한 칸 설 틈이 없는 엄마의 곁을 나는 떠나지 못했다.

엄마가 미나리를 베어주면 밀동을 잡고 손가락으로 빗질을 했다. 갓 치장하고 나온 동네 언니의 파마머리처럼 한 올 한 올이 탱탱하게 살아

있었다. 누런 곁 잎을 떼어내고 나무 도마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다. 엄마의 손은 빠고 보태기를 반복하다가 몇 가닥의 지푸라기로 미나리를 묶었다. 칼로 줄기 앞부분을 깔끔하게 쳐내면 단이 완성되었다. 바둑판처럼 반듯하게 미나리 탑이 올라갔다.

“아주머니는 저울이 필요없는기라.” 미나리 단의 무게를 달던 장사꾼의 농 섞인 칭찬에 셈을 넉넉하게 쳐달라고 받아치는 엄마의 얼굴에 함박꽃이 피었다. 엄마의 새벽잠을 파먹고 쌓아 올린 미나리 탑은 트럭을 타고 서울로 올라갔다. 부드럽게 봄바람이 인다. 옆 논배미에서 흔들대는 미나리의 비릿한 물 냄새가 사방으로 흩어졌다. 엄마는 논둑을 한 바퀴 돌고는 몇 단 쯤 나오겠다고 혼잣말을 하시고는 허벅지까지 오는 빨간 장화를 벗어 던졌다. 논이 크기에 따라 미나리 단이 몇 개쯤 나오는지 엄마는 눈짐작으로도 어림잡았다.

명절 음식에 물렸는지 아이들이 피자를 사 왔다. 여덟 조각의 피자는 한 사람에게 두 개씩 돌아갔다. 피자를 별로 내켜 하지 않는 남편이 한 조각을 남겼다. 서로 먹겠다며 뽀족한 날을 세우는 남매의 모습이 낯설다. 입 짧은 딸이 오늘은 두 조각을 먹고도 남은 것을 차지하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다. 어제도 치킨을 남겨두었더니 오빠가 도둑고양이처럼 씹먹어 치웠다고 볼멘소리를 해댄다.

성인이 된 남매의 셈법은 칼로 무 자르듯 했다. 깎둑썰기하다가 채 썰기를 하며 정확하게 자기 몫을 챙겼다. 나는 어릴 때 그러지 못했다. 엄마의 마음 저울은 언제나 장남인 오빠에게 향해 있다는 걸 알았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해 익숙한 나를 돌아보며 내 아이들은 제 몫을 당당히 요구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랐다. 마음도 자를 수 있다면 저울에 달아서 똑같이 나누어 주려 애썼다. 근데 그건 나의 착각이었고

딸의 서운함은 굳어지고 있던 터였다.

언젠가부터 아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딸은 제 방에 틀어박힌다. 낯선 남자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것 같다는 딸의 고백에 뒤통수를 얻어맞은듯 아득했다. 자기를 가르치는 듯한 오빠의 행동과 말투가 거슬린다면서 속내를 드러냈다. 돌이켜보면 무슨 일을 결정할 때면 딸의 입장보다 첫째의 상황에 따라 계획을 세웠다. 시골에서 도시로 이사 올 때도 아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맞추었다. 친구를 사귀기 힘들다는 딸의 외침을 외면했다. 유적지 답사를 위해 떠났던 여행도 딸의 눈높이에 맞추지 않고 아들의 의견에 따랐던 거 같다. 삼 년의 터울에 맞는 합의점을 찾아야 했지만, 한쪽에 더 무거운 무게추를 달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둘의 마음이 함께 닿을 수 있는 중심점을 만들지 못했다. “저번에 말했는데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입술까지 새파랗게 질렸던 딸의 표정이 가슴을 후린다.

내가 쏟은 관심만큼 대가와 보상을 바란 것은 아닌지, 아이들이 성취한 결과에 따라 얼굴에는 꽃이 피고 낙엽이 졌을 것이다. 언제나 살갑게 다가왔던 아들에 비해 딸은 크면 클수록 나와 엇박자를 쳤다. 서로의 마음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다. 미나리깡에서 오빠에게 돈을 건네고는 환하게 웃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른다. 참고서 사야 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놓지 못하는 내 모습도 보인다.

하세월 미나리 탑을 쌓았던 엄마의 못가름은 손길 따라 정확했지만, 그보다 더 시간이 없었던 자식을 향한 생각 탑은 언제나 고민과 회한으로 가슴앓이를 해야 하였을 것이다. 그 흔적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엄마는 팔순이 넘은 지금도 텃밭을 가꾼다. 참기름이며 고춧가루를 당연한 듯이 갓다 먹었다. 오 남매에게 참기름 한 병이라도 똑같이 나누어

주기 위해 참깨를 사서 기름을 짜주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아이의 대학등록금에 보태라고 옆구리에 찔려 주었던 돌돌 말린 신문지에는 미나리 잎이 납작 얹드려 있었다. 초록의 색과 향기를 그대로 품은 채였다. 성치 않은 다리를 질질 끌며 미나리짬에 붙박인 엄마의 모습이 떠올라 지금도 그 돈은 서랍 한 칸에 있다. 어쩌다 서랍 문을 열면 생각할 틈도 없이 눈물버튼을 누르고 만다. 이등분 한 내 마음이 오등분 한 엄마의 마음보다 크다고 할 자신이 없다.

제일 까다로운 못가름은 자식들에게 주는 마음을 가르는 일이 아닐까. 두부 자르듯 토막 내지지도 않는 일이다. 때론 그게 물건이나 돈으로 교묘하게 둔갑한다.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어리석음으로 서로에게 생채기를 내고 만다. 깎두기나 무생채에 들어가는 양념은 거의 같다. 며칠 지나 먹어 보면 맛은 천지 차이다. ‘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크기에 따라 양념을 흡수하는 능력이 다르다는 것을 나중해야 눈치채고 내 양념 못가름이 잘못된 걸 알았다.

못가름은 균형이다. 오늘, 쌀 오십 킬로 생선토막 천 개, 수박 열다섯 통 그리고 북엇국으로 천 명의 식사를 준비했다. 언제나 똑같이 나누어 주길 애쓰지만, 많이 남아서 버리는 일도 있고 적은 양에서 또 못가름해서 나누어 주기도 한다. 매일 배식하면서도 끝나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개운치 않다. 아이들이 적은 양으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 염려도 된다. 군대에서의 배식 실패는 총알 빠진 총이라고…. 남편은 곧잘 그 말을 하였다. 배식할 때면 비장함마저 든다. 밥 짓는 일을 북 짓는 수행의 길이라고 했던가. 매일 그 뜻을 헤아려 본다.

며칠 전부터 군대의 배식이 언론에서 떠들썩하다. 사진에 찍힌 도시락에는 건더기 하나 없는 오징어 국, 김 하나가 전부였다. “먹지 못한 자의

서러움을 아냐.”고 어느 군인의 외침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부모님에게서 귀에 인이 박이도록 들던 말이 젊은 청년의 입에서 나왔다. 밥 굶는 나라도 아닌데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민다. 분명 오징어가 들어가고 무와 파도 함께 끓여졌을 것이다. 김치나 다른 반찬도 있었을 것이다. 군 당국은 뒤늦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한다. 배고픈 서러움이 제일 크다.’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했던 그 말들이 절로 새겨진다.

인생의 나이를 못가름해본다. 널빤지 같은 옛 덩어리에서 한 조각씩 나누듯 삶을 쪼개었다. 옛장수 마음대로의 뜻에 나의 삶에서조차 주인공에서 비켜 선적이 있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한 지점에서 언제나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 시간이 지나서 무릎에 든 푸른 멍이 없어진 줄 알았다. 더 깊이 파고들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깨닫는다. 술한 못가름의 지난한 시간을 합쳤다가 다시 나누면 지금과 다른 내가 되었을까.

판판하고 넓게 켜 나뭇조각으로 만든 의자보다 여러 조각을 이어서 만든 나무 의자가 더 안락하고 여유롭다. 틈새가 연결해주는 그 공간에 바람과 공기가 넘나들기 때문이다. 못가름되어지고 못가름하면서 든 멍을 다독이며 내 삶의 못가름에도 작은 행간이 있길 바란다.

빨래집게



부산시청 서 은 영

빨래를 낸다. 지는 햇살 온기라도 잡으려 서두른다. 겨를 없이 빨래 집게를 집는다. 툭, 손잡이가 부러진다. 급한 마음이 엄지로 쓸렸나 보다. 손가락에 플라스틱 삭은 가루가 묻어 있다. 젖은 빨래를 물고 있는 동안 빨래집게도 제 몸의 물기를 증발시킨 것인지 하얀 가루분을 내며 삭아 있다. 부러진 집게는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줄에 걸린 채 대롱거린다. 쓸모없어 버리려고 입을 벌리려다 검지 살점이 집혔다.

빨래집게에 물린 자리가 이빨 자국 같다. 끝이 닳아 뭉툭 네모진 아버지의 이빨 자국이 이랬다. 양다물고 이를 갈며 주무시던 아버지를 보면 허까지 갈아버릴 것 같았다. 투레질을 하는 입술 사이에 손가락을 넣고 윗니와 아랫니를 벌려 보려 했던 적이 있다. 잠든 상태이니 쉽게 될 줄 알았는데, 잠결인데도 어떤 위험을 감지했는지 아버지는 입을 더 꼭 다물더니 집요하게 쭈셔대는 내 손가락을 깨물고 말았다. 하지만 비명은 단음이었다. 고단한 아버지가 꺾까봐 나는 손가락을 입에 넣고 혀로 아픔을 달래야만 했다. 이빨에 물린 자국은 잇을 만하면 들었던 아버지의

고생처럼 금방 또렷해졌다.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가셨다가 해방 후 돌아오신 할아버지는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다. 할아버지가 안 계시니 만이었던 아버지는 소년임에도 가장이 되었다. 친척이 많아도 비빌 언덕이 돼 줄 수 있는 큰 어른이 없었던 어린 가장은 혈혈단신 고아 같았다. 고아처럼 산다는 것은 지나간 어제도 닥쳐올 내일도 아니라 당장 오늘만 살기 급급한 하루살이라는 것을 코밑이 막 거뭇하기 시작했을 나이에 어찌 알았을까.

열네 살, 상급학교를 진학하는 것 대신 머슴살이를 하게 된 것은 순전 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삼시세끼는 고사하고 한 번을 배불리 먹어 본적이 없는, 배부른 건 고사하고 무엇으로도 끼니가 때워지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할머니가 어떻게든 밥 한 그릇을 지어 시렁에 올려 두면 그 밥 한 그릇을 형제끼리 나눠 먹었다. 아버지가 먼저 손가락으로 가운데를 질러 뭍을 먹고도 배고파서 한술두술 더 먹다보면 아래쪽으로 굴이 파였다. 그러니 쌀 한 가마니 반에 머슴살이로 가는 것이 서럽기만 한 일은 아니었을 게다.

플라스틱 빨래집게처럼 깡마른 몸이 부러져도 외줄을 물고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터득했는지 아버지는 청년이 될 때까지 남의집 살이를 지탱했다. 여전히 돈 대신 쌀가마니로 셈되는 시절이었고, 지방마다 쌀값이 차이가 나서 고향 시골로 오면 저절로 한 가마니가 더 붙어 있곤 했다. 보드라운 잔뜩는 서러운 눈물이 쌓여 굶어졌지만 어떤 고난이든 단단히 버티면 수확되는 재미를 알아갈 즈음에 군대 영장이 나왔다.

때맞춰 흙을 갈고 씨를 뿌리고 피를 뽑지 않아도 밥이 나오는 군대, 제 몸 하나만 훈련으로 건사하면 쥐꼬리라도 월급 나오는 군대, 첩첩상관이 집안 어른이라도 되는듯 마음만은 든든했다는 군대였다. 제 땅

한 피기 없는 농사라는 게 젖은 성냥을 켜는 것 같아 열심히 하면 곧 불이 꺼질 것 같지만 결국은 주인만 좋은 헛물켜기일 뿐인 것을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니 군대에서 가르쳐주는 운전 교육에 온 정성을 다할 수밖에. 난생 처음으로 자격증이라는 것을 땀을 땀 때 아버지는 머슴 밖으로 나오는 허가증을 받은 듯 기뻐했다. 그리고 다시 그 굴레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를 갈면서 자는 밤이 더 많아졌다.

운전기술 덕분에 아버지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변두리였지만 도시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버지 인생에도 속도라는 게 붙어 자식도 생기고 집도 장만했지만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고 사느라 다리는 딱딱하게 부어올랐다. 늦은 밤 돌아와 부은 다리에도 베개를 베어줘야 잠들 수 있었다. 쉬는 날이면 우리들에게 주물러라 시키기도 했으나 얼마 조물거려다 생쥐 도망가듯 모두 밖으로 빠져나가면 벽에 다리를 걸쳐 올려놓고 잠들었다.

발이 얼굴보다 높이 치켜든 날이면 발도 말을 했다. 이력履歷를 다지려고 살이 굳어졌다고, 깨어지더라도 나가떨어지지는 않았다고 반 갈라진 새끼발가락이 말을 했다. 빙초산을 숨에 묻혀 발가락 사이에 끼워놓아도 죽지 않는 무좀의 근성으로 버텼다고, 꿈꾸는 대로가 아니라 흘러가는 대로 사느라 발가락이 조금씩 휘었다고, 남동생이 양자로 보내지고 여동생이 서울로 무작정 돈 벌러 가는 바람에 가족이 갈라지는 것이 애가 타서 발뒤꿈치에 흠이 박힌 채로 걸었다고 말을 했다. 뺨지 못한 울분을 삼키고 바닥까지 내려간 심사가 폭폭 씹어 발부터 시체가 되어간다며 지독한 고린내를 뿜었다. 평생 자식들 길을 내어주느라 소 굵처럼 두꺼워진 발톱으로 이제 목숨줄을 붙들고 있는 것도 벽차다고 말을 했다. 다리를 올리고 거꾸로 누운 채 이를 갈며

주무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마치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으려 줄을 물고 있는 빨래집게 같았다.

인도의 도비가트는 세계 최대의 빨래터이다. 카스트에도 속하지 못하는 불가촉천민들이 새벽부터 일어나 온 몸으로 빨래한다. 그들의 머리 위 빼곡히 얹힌 빨래줄 사이에 빨래집게 하나 찾아 볼 수 없다. 새끼 꼬듯 비틀어진 두 줄 사이에 옷가지 끝을 끼우는 것이 전부다. 아무리 물고 늘어져도 바뀌는 세상이 아니라면 악다물고 살 필요 뭐 있냐며 틈 사이에서 걸치고 있을 뿐이다. 세파를 타는 비법이 순응과 복종이라는 것을 안 그들의 혀는 온전해서 환하게 웃을 수 있나 보다.

손잡이가 부러진 빨래집게를 살핀다. 손잡이가 부러져도 악다문 입은 왜 그대로일까 보니 둥근 쇠고리가 양쪽에서 늙은 몸을 잡아주고 있다. 움켜쥐는 힘이 손잡이나 집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안쪽에 둥글게 말아 쥐는 쇠고리인 것이다. 쇠고리만 온전하면 부러져도 줄 하나 잡고 버틸 수 있는 것이다. 팔다리가 삭아도 생계의 끈을 물고 있게 하는 아버지의 쇠고리는 무엇이었을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이라는 이름표가 햇볕에도 비바람에도 쉽게 삭을 수 없었던 쇠고리가 아니었을까.

바람이 분다. 흔들리는 빨래의 어깨에 집게 하나를 더 걸어 놓는다. 늘어진 빨랫줄 따라 젖은 빨래를 더 단단하게 붙들었으니 살아가는 일이 뒤척이며 흔들려도 거뜬히 젖은 그늘을 말릴 수 있겠다. 햇볕이 머물던 자리가 아버지가 누워계셨던 방바닥처럼 아직 따뜻하다.

질투가 꽃이 되는 순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우 지 민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이제까지 살아온 31년 삶 중 한 번에 무언가를 이루어본 적이 없다. 남들 눈에 띄는 특출난 재능은 없었고, 대학도 재수를하여 들어가고, 공무원 시험도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다. 매년 국가직-지방직-서울시를 쳤으니 9번의 시험을 친 셈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지만, 늘 남들과 같거나 더 많은 것을 지불하고 성취하는 전형적인 ‘범재, 혹은 그보다 조금 아래’ 그제 나에 대한 나의, 그리고 주변의 평가였다.

반대로 동생은 한 배에서 태어났으나, 외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정말 다른 사람이다. 동생은 무언가를 배우는 것에서, 특히 음악에 특출난 재능이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음악 분야로 가는 것보다 본인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교육 분야를 선택해서 한번의 재수 없이 서울교대를 들어갔다. ‘여러 방면으로 다재다능한 수재’ 이게 동생에 대한 주변의 평가였다.

이렇게 능력적으로 다른 두 형제가 같은 가정에 있으면, 우습게도 7살

이나 나이 차이 나는 형이 동생에게 자주 느끼는 감정은 다른 정상적인 형제들과 다르다. ‘형제애’ 보다는 지독한 ‘질투’다. 이 질투라는 감정을 처음에는 사실 어렴풋이 느끼고만 있었지, 머리로 알고 있지는 못했다. 그저 동생이랑 나는 동전의 앞뒤만큼이나 맞지 않는 것뿐이라 생각했다. 이게 질투구나 하고 알게 된 것은 동생은 대학생 새내기로 대학에 들어가고,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게 된 27살 때부터였다. 가장 인생의 아름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스무 살의 동생과 20대의 가장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보고 있자니, 울화가 터진 것이다.

질투는 그렇게 점점 몸집을 부풀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마침내 공무원 수험생활 막바지에 이른 29살 즈음, 곧 서른이라는 나이에 대한 압박이 생기면서, 이 감정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있었다. 심지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2017년 마지막 서울시 시험에 어처구니없게도 시간을 잘못 써서 급히 마킹한 나머지 4과목과 5과목을 바꿔 마킹한 일이 있었다. 제대로 마킹했다는 가정하고 채점을 해보니 1배수에 들어갈 꽤나 괜찮은 점수였다. 여기가 시작점이었던 거 같다. 애써 이성으로 눌러왔던 괴물이 세상 밖으로 나온 시작점이다.

보통 그 괴물이 하는 짓은 이렇다. 부모님들이 취업 얘기를 하면 전혀 연관이 없는 동생 얼굴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동생이 가끔 기숙사에서 집으로 돌아와 쉬는 날이면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가 싫어 피하거나 늘 툴툴거리는 말투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 스트레스가 아무 이유 없이 쌓이고 그걸 먹는 것으로 풀다 보니 살이 쪼들었다. 그리고 이 열등감과 질투가 밤에 잘 때쯤 되면 ‘수치심’으로 변해 나를 갉아먹었다. 낮에는 가족을 갉아먹고, 밤에는 나를 갉아먹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런식으로 천천히 나는 나를, 그리고 나의 주변을 파괴하고

있었다.

이러다가는 정말 큰일을 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집 밖으로 나와 무작정 강릉으로 가는 버스를 끊었다. 가끔 너무나 속이 답답할 때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다. 숨을 크게 쉬고 바라보는 바다는 뭐든 품을 듯이 넓었다. 그 옆으로 작고 허름한 배와 크루즈처럼 크고 화려한 배가 지나가는데 그게 마치 나와 내 동생의 모습 같아 보였다. 배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작은 배는 흔히들 말하는 통통배였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배가 ‘운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녹슨 곳도 하나 없이.

그렇게 멍하니 바다를 보며 한 1시간 정도 지났을까, 다른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저 작고 허름해 보이는 배가 내 모습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저 배보다 못할 수도 있다. 적어도 저 배는 작지만 자기만의 속도로 항해를 하기 위해 선주가 늘 관리를 했을 것이다. 선주는 하루하루 바다로 나가기 전에 저 배를 정성스럽게 돌봤으리라.

‘나’라는 배가 있다면 그 배는 관리도 안된 채 목울대부터 발끝까지 녹이 슬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 지옥에서 나갈 실마리가 나온 것 같았다. 눈물이 났다. 아이처럼 펄펄 울었다.

조금은 마음이 후련해져 집으로 돌아왔고, 다시 문제집을 들고 문제를 풀었다. 그러다 지금은 내 인생의 시가 된 기형도의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시를 만나게 되었다.

질투는 나의 힘 -기형도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질투는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자괴감에서 시작한다. 그 자괴감은 온전하게 ‘나’를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한다. 어찌보면 연애할 때 씹워지는 콩깍지보다 더 강력한 콩깍지가 씹워진다. 그래서 ‘구름 밑을 천천히 쏘다니는 개처럼/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리’거나 ‘가진 것 탄식밖에 없어/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살아간다.

그렇게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 데서 오는 질투라는 감정이 뿌리를 내리고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닿는다면, 삶의 기반을 흔들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런 삶의 끝은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라는 구절로 나타난다. 당연하다. 나부터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며, 누가 나를 두려워할까. 이 시구가 두렵고 또 두려웠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뭐냐 묻는다면 마지막 두 줄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단 한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를 꼽을 것이다. 이 시의 제목 ‘질투는 나의 힘’이 나온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질투라는 감정을 용기를 내 정면으로 마주보고, 나와 화해하고, 진정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저런 시구가 나왔을 것이다. 그리고 비로소 질투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부끄러운 감정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정신적인 힘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요즘 한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자가 자신을 ‘배 아픈 가수’라고 소개한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는 아마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들으며 어마어마한 질투를 느꼈을 것이다.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거치고 본인을 사랑하는 지점에 왔기 때문에, 그도 본인을 ‘배 아픈 가수’라고 소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심지어 한 인터뷰에서는 ‘질투는 창작자에게 감사한 요소’라고 말한다. 질투가 삶의 자극이자 동력이 된 것이다.

비슷한 과정을 겪은 나 역시 질투를 또 다른 삶의 동력으로 삼게 되었다. 처음에는 기분이 묘했다. 영화에서 보면 몇 년간 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장면이 있던데, 그가 일어났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이지 않을까? 질투는 그냥 사람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 이겠거니 하며 안고 가게 되었다. 크루즈는 크루즈의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고, 통통배는 통통배의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면 되는 거다.

동생이라는 크루즈를 부러워 하기보다는 나라는 통통배를 소중히 하기로 했다. 통통배는 통통배의 방식으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다. 잠들어 있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속도는 더뎠지만, 적어도 다시 뒤로 가지는 않는 하루하루가 쌓였다. 실질적인 문제에 정면돌파를 하기 시작했다. 일단 망가진 몸부터 바로 잡았다. 규칙적으로 생활만 해도 4kg이 빠졌다. 운동을 병행하니 8kg이 우습게 빠졌다. 공부도 이제는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다. 회사를 다닐 때보다 치열하게 계획하고, 일지를 써서 하루하루를 비교했다. 무언가에 몰입하는 경험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다. ‘그래, 이거지...’라고 무릎을 여러번 쳤다. 또한 옆에 있는 동생은 가장 쓸만한 아군이 되어 있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녀석답게 설명이 깔끔했다. 동생이 집에 올 때면 옆에 붙여놓고 도움을 받았다. 공시 생활은 늘 마지막 순간이 힘들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나는 그 한 해가 공시 생활 3년 중 제일 행복했다. 합격은 그저 부산물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2020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 집에서 펼쳐지고 있다. 동생이 임용고시에서 떨어졌다. 그것도 면접에서. 처음으로 세계 넘어져 본 탓일까, 내상이 매우 심해 보인다. 이제까지는 자기가 노력하면 어지간한 것들을 취할 수 있었던 녀석이 풀이 팍 죽어서 집에서 콧 박혀 있는 걸 보면 내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마음이 찢해진다. 못된 것만 형한테 배워서 몇 개월째 신경도 날카롭다. 아마 지금 동생의 질투 대상은 먼저 합격한 동기들 일 것이다. 그가 하루라도 속히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내가 먼 길을 돌아 이른 화해의 바다에 나보다는 조금 일찍 당도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그 뜨거움으로 혼돈을 깨고 인생의 제2막을 새로 써보기를 바라고 또 바라본다.

2021년 공직문학상

단편소설·희곡

책 도둑
짧은 총동의 기록
먼 길
영광 카메라



책 도둑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최은지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살아 있으라, 누구든 살아 있으라.

-기형도 <비가2> 중에서

1.

책을 훔치는 이유는 간단하지가 않다. 빵이나 옷을 훔치는 이유와는 명백히 다르다. 책에 대한 애착이나 수집벽이 없는 사람이 책을 훔치지는 않는다. 책을 향한 욕심이나 집착이 남다르게 강한 사람만이 책을 훔친다. 그리고 책을 훔치는 일은 도둑질이 아니라고 믿는 바도 있을 것이다. 그것도 엄연히 범죄인데 말이다.

작은 책방을 연 지 일 년여가 되어 가는 서준은 책방에서 책을 훔치는 인간을 만나게 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 어째서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지 않은 걸까. 어쨌거나 그건 가능한 일이었고, 그 장면을 목격한 이후 줄곧 도대체 왜 책을 훔치는 것일까, 에 대해 곰곰 생각하게 되었다. 돈이 없어서 라면 책을 포기하면 된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야만 하는

것과는 다른 일이다. 미치도록 읽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책이 있다면 도서관에서 빌리거나 중고 서적을 구입할 수도 있다. ‘책을 읽는 것’과 ‘책을 소유하는 것’은 다른 일이지만 말이다. 책을 구입하는 진짜 이유는 그 책이 내 책장의 어딘가에 꽂히게 될 그 순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을 오르가즘에 비유하는 것은 좀 지나치지만, 그것과 비슷하다. 그건 서준이 책방을 낸 이유이기도 하다. 책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주는 흥분을 서준은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다. 그 공간에 서 있는 것에서 흥분을 느낀다면 책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사람이다.

서준은 본인이 그런 인간이라는 걸 깨달은 어린 시절부터 책방 주인이 되는 것을 꿈꾸었다. 책을 사랑했던 할머니를 두었던 서준은 할머니의 방에서 책을 골라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초등학교 시절 책방 주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서준의 부모는 말도 안 된다고 웃었다. 그의 꿈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책방 주인이 되겠다는 그의 꿈은 별처럼 그의 마음속에서 반짝였다. 그러나 청소년기를 거치며 그의 꿈은 희미해졌다. 그는 거대한 자기장에 끌린 듯 책방 주인과는 관계없는 먼 곳으로 가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그는 다시 책방 주인이 되는 꿈을 꼬집어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 유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7년 간 직장 생활을 했다. 그의 상사였던 박팀장은 ‘윤서준, 너 이 회사에 몇 년이나 있었지?’라는 말을 달고 사는 사람이었다. 고작 그 몇 년 회사 생활했다고 이따위로 행동해도 되나, 라는 말도. 서준은 하루하루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버티는 것이 인생이다. 서준은 진작 그걸 깨달았지만 그렇다고 버티는 것이 수월해지지는 않았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이, 내일을 버티면 다시 또 해가 떠올랐다. 숨 막히는 하루하루가 여름 햇살처럼

들이닥쳤다. 그 뜨거운 흐름을 서준은 견딜 수 없었다. 공장에서 한 노동자의 팔이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난 날, 서준은 마치 자신의 팔이 잘린 듯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흐릿한 별이 되어 꺼져 가듯 남아 있는 꿈에 대해 생각하게 됐다.

서준은 박팀장에게 사표를 냈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박팀장에게 서준은 이유를 굳이 찾자면 별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별을 찾는 게 어때요, 라고 덧붙였다. 서준이 그렇게 말하고 돌아설 때 박팀장은 무슨 포라이 같은 소리야, 라고 중얼거렸다. 박팀장이 그 말을 이해할 거라고 서준은 생각지 않았다. 그저 하고 싶은 말이 그것뿐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마지막 포라이 같은 소리가 만족스러웠다. 서준은 그 길로 은행에 가서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찾았다. 은행 대출까지 끌어모았지만 그가 낼 수 있는 책방은 작고 초라했다. 그렇다고 해서 주눅이 들거나 후회가 되지는 않았다. 꿈을 좇는 일은 언제나 호사스러운 것이다.

책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책방이라니, 어리석은 꿈이었다. 서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곤 했다. 시대를 읽지 못하는 불쌍한 낭만주의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열여덟 평 되는 임대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불안을 잠재우는 방법 중 하나는 빠르게 할 일을 해치우는 것이다.

서준이 책방을 낸 곳은 천안의 시청 옆 아파트 지대의 카페 골목 한 모퉁이였다. 그는 어떻게든 서울을 벗어나고자 했다. 거대한 블랙홀처럼 사람들과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서울의 자장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제주 바다를 바라보는 곳에 책방을 내겠다는 계획은 몇 년 뒤로 미루기로 했다. 아는 선배의 소개로 천안의 책방 자리를 돌아본 서준은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사인했다. 전세도 저렴했고, 신축 건물이어서 손볼 때도 없었다. 불과 직장을 그만두고 한 달여도 되지 않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다. 책장에 책을 하나하나 꽂아 넣는 순간에는 알랭 드 보통의 문장을 하나 하나 음미하는 것처럼 세상이 흥미로움으로 가득 찼다.

참고서나 잡지를 제외한 책들로 벽면을 채웠다. 거대한 책의 숲은 견고하고 아름다웠다. 서준이 사랑하는 책의 작가들은 가운데 놓인 진열대에 배치했다. 예를 들면 로맹 가리나 마르케스 같은 작가들이었다. 길과 먼한 벽에는 둥그런 유리창을 냈다. 책을 편하게 볼 수 있는 작은 테이블과 벤치도 들였다. 흰 벽에 베이지 책장과 벤치는 산뜻하게 어울렸다. 카운터에는 커피 머신도 들여놓았다.

책방 <다락> 이라고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손님은 참고서를 사려는 40대 여자였다. 아들 참고서를 사겠다고 했다.

- 이 책방은 참고서가 없는 순수한.....

- 아, 네.....

여자는 재빨리 알아듣고 몸을 돌려 책방을 빠져 나갔다.

두 번째 온 손님은 교복을 입고 온 여학생이었다. 문제집을 살 수 있냐고 물었다.

- 이 책방은 문제집이 없는 순수한.....

- 뭐야, 문제집을 안 파는 데 무슨 서점이야. 헐. 존나 이상해.

여학생은 중얼거리며 책방을 나섰다.

서준은 그 날 참고서 없음, 이라고 출입구에 써 붙여야 할까, 하고 심각하게 고민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카페 분위기를 내는 간판과 출입구에 지저분한 사족을 더하는 것은 그의 취향이 아니었다.

이대로 조금 더 버텨보자, 고 그는 생각했다. 그리고 몇 번 더 그렇게 참고서를 찾는 손님이 찾아들기는 했지만 ‘진짜 책’을 사려는 몇몇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 와, 여기 이런 책방이 생기다니, 정말 좋네요.

이렇게 감탄한 것은 30대로 보이는 여자였다. 그녀는 벤치 옆에 놓인 울마 화분과 그 옆의 책장에 휴대폰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었다. 흰 벽에 난 동그란 유리창을 향해서도 사진 찍기에 한창이었다. 책방 중앙에 놓인 작은 스탠드와 진열대를 향해서도 몇 번 더 사진을 찍고 서점을 둘러보다가 카프카의 <변신>을 산 뒤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서준은 그녀에게 블루마운틴 원두를 갈아 만든 아메리카노를 가져다 주었다.

- 이걸 오늘 제가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그리고 그녀는 커피잔을 책 옆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

서준은 <변신>을 산 여자가 인스타에 책방 사진을 올려줄 것을 기대했다.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오는 것만큼 광고가 되는 게 없다. 서준도 잘 알고 있는 바였다. 사촌들 몇에게 부탁해서 인스타에 책방 사진을 올리긴 했지만, 자발적으로 인스타에 사진을 올려줄 진짜 손님이 있다면 그만큼 다행스러운 일도 없었다. 그러니 이천 원 하는 커피 한 잔은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었다.

그녀 덕분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서준이 원하는 대로 인스타에는 ‘감성 책방다락’의 사진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덧 누가 다녀갔는지 서준이 일일이 기억할 수 없을 만큼의 손님들이 찾아왔다. 그리고 손님들의 대부분은 커피를 주문하고 벤치에 앉아 사진을 찍었다. 매뉴얼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더라도 한 것처럼. 심지어 책을 사지 않는 손님들조차 커피를 주문했다. 그리고 역시 휴대폰을 들이대고 사진을 찍었다. 인스타는 일종의 전염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처럼 같은 포즈와 각도로 사진을 찍어 올렸다. 소셜네트워크는 다양성을 추구하며 다양성을 지우는 이중성을 지녔다. 인스타 감수성이 인간의 기호나 취향을 같은 모양으로 찍어낸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인스타에 책방 사진이 쌓일수록 커피 매출이 늘었다. 서준이 월세 부담을 덜게 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책 매출은 지진부진 했다. 그것은 서준이 생각했던 것 그 이상으로 그를 곤란하게 했다.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날들이 하루하루 이어졌다. 커피와 인스타가 아니었다면 그는 벌써 문을 닫아야 했을 것이다.

서준은 이른 아침 책방에서 책의 먼지를 터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손에 목장갑을 끼고 먼지털이로 책 위쪽을 하나하나 훑어냈다. 책 먼지를 털다가 맥주를 마시기도 했다. 아무 때고 맥주를 마시고, 책을 읽고, 바깥을 내다보고. 시간은 얼마든지 그가 연주하는 대로 흘렀다. 생계형 책방 주인이 되었지만, 만족스러운 것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연주한다는 기쁨 때문이었다. 출근과 퇴근을 궤도로 달리던 시간은 그가 달리는 대로 새로운 궤도를 그렸다.

그날은 책방 유리창을 닦고 책 먼지를 털고 책의 배치를 손보느라 분주한 날이었다. 오전 내내 책방 청소를 하고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셨다. 5월의 햇살이 둥그런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와 있었다. 커피 몇 모금을 마시며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창 너머 5월의 은행나무들은 햇살 아래서 초록빛 몸체를 흔들며 부서질 듯 반짝거렸다. 초록빛 잎들 사이로 수많은 프래시가 터지듯 햇살이 반짝반짝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5월의 잎들은

연두와 초록의 색깔 표본을 모두 모아 놓은 듯한 빛깔이다. 그 잎들이 또 빛을 받으면 빛의 비늘처럼 반짝였다.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책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신비로운 일이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은 행복한 인간이다. 서준은 이곳에서 나무를 보며 늘 그런 확신에 빠지곤 했다.

서준은 그 나무 아래를 지나 이쪽으로 건너오는 한 여자를 보았다. 12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여자는 빠른 걸음으로 무단 횡단을 하여 이쪽으로 건너온 뒤 책방으로 뛰어들었다. 서준은 여자를 방해하지 않으려는 심산으로 목장갑을 끼고 다시 책 정리를 시작했다.

여자는 흰색 캔버스 가방을 들고 푸른빛 쉬폰 롱스커트에 흰색 면 티셔츠를 입고 사뿐사뿐 발레라도 하듯 책 사이를 오가며 책을 뒤적거렸다. 서준은 사다리를 이용해 책장 높은 곳을 닦고 책 먼지를 털어냈다. 잠시 후 서준이 사다리에서 내려왔을 때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서준은 유리창 너머여자가 왔던 곳으로 시선을 던졌다. 그러나 여자는 이미 그곳을 벗어난 뒤였다. 산뜻한 비누 거품처럼 가볍게 들어섰다 사라져버린 것이 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박하사탕을 뿌려 놓은 듯 상쾌한 그녀의 흔적은 금세 사라져 버렸다.

푸른 치마의 여자가 다시 나타난 것은 며칠 뒤였다. 그녀는 그 때와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 12시가 조금 지난 시각, 그녀는 책방에 들어섰다. 삼십대의 여자 두 명이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있을 때였다. 서준은 커피를 만들다가 책방으로 들어서는 여자와 눈이 마주쳤다.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자는 서준을 힐끗 본 뒤 책장 사이를 가로지르며 책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날도 여자는 30여분 뒤 책방을 나갔다. 서준이 컵을 닦고 있을

때였다. 여자는 어느새 보이지 않았다. 그 후 몇 번 더, 여자는 사뿐사뿐 들어와 어느새 사라지곤 했다. 한결같은 차림이어서 점차 여자의 이미지는 푸른 치마로 굳어졌다. 서준은 이제 여자가 들어설 때 아, 오랜만이네요, 또는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넸다. 여자는 외면하듯 그의 시선을 피했다. 여자는 책을 사지도 커피를 주문하지도 않았다. 마치 길을 잃은 작은 새처럼 책방 안을 헤매다가 조용히 빠져나갔다.

책방엔 다양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건 서준이 책방을 내기로 결심한 순간엔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책처럼 다양한 인간이 존재한다. 그걸 알고 있는 것과 직접 그들을 만나는 것은 다른 일이었다. 회사를 다니던 시절엔 하루종일 같은 인간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다. 서준에게는 박팀장이 견딜 수 없는 인간이었지만 그의 견딜 수 없는 폭언도 예측 가능한 것이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것이 서준이 폭탄을 대하는 방법이었다. 박팀장이 폭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말이다. 그런데 책방의 손님들은 누가 폭탄인지 가늠할 수 없는 백지 상태이다.

한 중년 여성은 오전 10시가 되면 책방에 들어섰다. 50을 넘긴 것처럼 보이는 그녀는 루이뷔통 가방을 들고 구찌 스카프를 목에 두르는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며 책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카운터에 있는 서준을 불렀다.

- 내 기사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데 오늘 내 기사 좀 해줄 수 있어요?

서준이 다가갔을 때 그 중년 여성이 물었다. 중년 여성은 크게 부풀려진 머리를 살짝 쓸어 올렸다. 그리고 중년 여성은 마치 그것이 너무 당연한 질문인 듯이 서준의 답변을 진지하게 기다리며 그를 응시했다.

- 아니요, 죄송하지만 저는 서점을 닫을 수가 없어요.

- 왜요?

- 네?

- 왜 서점을 닫을 수가 없냐구요?

중년 여성은 정말로 모르겠다는 얼굴이었다. 피부는 팽팽하고 반들반들 윤이 났다. 그런데도 나이가 드러나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인간의 얼굴은 나이를 이길 수 없다. 현대 의학이 지우는 것은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주름일 뿐이다. 주름을 지워도 세월은 남는다. 그것이 얼굴이다. 공들여 화장을 한 얼굴이 약간 일그러진 표정을 지었다.

- 손님, 저는 여기 주인이고 오늘 이곳에 있어야 하니까요.

서준은 최대한 정중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 이곳을 닫는다고 뭐가 문제가 되나요?

- 아니요, 그렇지는 않지만 오늘은 정기 휴일이 아니고.....

생각해보면 중년 여성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갑자기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버릴 수도 있었고, 훌쩍 차를 몰고 바닷가를 간다 한들 그게 무슨 대수일까. 책방 주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서준에게는 넘치고 넘쳤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중년 여자의 제안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 제안을 받지 않을 자유도 넘치고 넘쳤다.

- 여기를 닫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중년 여성은 집요했다.

- 아니요, 저는 운전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이유를 설명해 줄래요?

갑자기 기사를 해줄 수 있냐고 묻고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대라는 건 어불성설이었다. 그렇다고 딱히 운전기사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해야 하니까요. 오늘 여기 책방을 10시

까지 열어야 합니다. 그게 제 일이지요.

-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을 지불할 거예요. 운전하는 것뿐 아니라 여기 손해 보는 거 모두 계산해서 백 만원이면 되겠어요?

서준은 헛웃음이 나왔다. 박팀장 같은 인간은 어디에나 있었다. 타인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늘어놓는 벽 같은 캐릭터 말이다. 물론 박팀장은 서준을 벽 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터였다. 어른으로 산다는 건 서로의 벽을 확인하는 일인지도 몰랐다.

-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책방 주인으로서 저의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 그건 뭘까? 돈 벌려고 하는 거면서.

중년 여성은 짜증이 난다는 듯 미간에 힘을 주었다.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은 무모하다. 서준은 책방 주인이 되겠다는 꿈에 대해 부모를 설득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건 설득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준은 중년 여성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야 한다. 이해할 수 없는 책이 세상에는 무수히 존재한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 된다.

- 아, 결정적으로 저는 운전면허가 없습니다. 그걸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서준은 여전히 정중함과 여유를 유지했다. 박팀장에게는 늘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했다. 말을 고르고 골라도 언제나 하고 싶은 말은 빛나 갔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돌아설 줄도 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좋다. 그것이 서준에게 약간의 희열을 안겼다.

- 참, 무슨 면허가 없어. 싫으면 싫다할 것이지. 아니 내가 뭐 무슨

어려운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비싸게 구네. 돈도 주겠는데.....

중년 여성이 뒤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책방을 빠져 나가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곧이어 입구에 놓인 우산 꽃이 바구니가 넘어가는 소리도 들려왔다. 샤넬백의 체인이 철렁철렁 움직이는 소리는 멀어졌다. 서준은 바구니를 세워놓고 피식 웃었다.

너 회사 다닌지 몇 년 됐어? 오년 밖에 안됐는데 나한테 지금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거야? 나는 상사가 죽으라면 죽는 시늉도 했다고. 알아? 박팀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서준은 결국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왜 고개를 숙였던 것일까. 이제는 그 시간들도 웃으며 돌아볼 수 있었다. 그 진지했던 박팀장과 자신의 대화가 한없이 우스웠다. 누군가 충을 들고 나타나 책을 모조리 훔쳐 가겠다고 하는 상황만 아니라면 이제 서준은 아무래도 좋았다.

푸른 치마의 여자가 책방에 들어서는 시간이 다가오면 서준은 어느덧 유리창 너머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니 12시가 되기 전부터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티셔츠가 푸른색으로 바뀔 때도 있었지만 푸른 치마의 여자는 거의 같은 차림으로 나타났다. 단발머리는 가끔 묶여 있었다.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한 맨얼굴에 립스틱도 바르지 않았다. 가끔 지쳐 보이는 표정이었지만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굳은 얼굴이었다.

푸른 치마의 여자는 여행 서적 앞에 자주 서 있곤 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책 중 하나는 <제주도의 푸른 밤>이라는 여행 서적이었다. 그것 때문이었을까. 푸른 치마의 여자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서준도 제주도를 꿈꿨다. 에메랄드 빛 바다가 내다보이는 어딘가에 커피를 파는 책방을 내고 아침마다 바다를 들여다보고 싶었다. 로맹 가리의 소설 <새들은

페루에 가서 죽다>에 나오는 카페 주인처럼.

서준은 아직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었다. 직장에 다니면서 만났던 여자 지우 덕분에 싱가포르와 마카오에 다녀온 적은 있었다. 친구 소개로 만난 지우는 유치원 교사였다. 지우는 1년씩 계약을 맺으며 유치원을 옮겨 다녔다. 그리고 계약과 계약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곤 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엔 여행을 다녔다. 혼자서 다낭이나 괌 등을 다녔다. 몇 년씩 한 유치원에 있어 봐야 평생 직장이 될 것도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지우의 지론이었다. 실업급여가 월급만큼 나오는데 일하는 게 호구 아니야? 우리나라 복지가 이렇게 좋은데 뭐하러 일을 해? 지우는 몇 년째 같은 회사에 몸담고 있던 서준을 호구라고 놀렸다. 박물관에 박제될 캐릭터급이라고. 함께 회사를 때려치우고 유럽이나 가는 게 어때? 라고 말하곤 했다. 지우는 하나의 여행을 끝내면 다음 여행지를 골랐다. 커다란 캐리어는 언제나 그녀 침대 옆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여행 가방을 꾸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신이 있는 것은 어쨌거나 존경스러운 일이다. 서준이 그녀를 만났던 이유는 그것이었다.

지우 덕분에 두 번의 여름 동안 싱가포르와 마카오를 다녀오긴 했지만 서준에게는 그 여행지들이 서울과 다르지 않았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높은 빌딩과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거렸다. 비행기까지 타고 날아가서 굳이 서울을 붙여놓기 한 듯한 도시 풍경 속에 다시 빠져 들어가는 것은 탐탁지 않았다. 뻔한 연애 소설을 읽는 것만큼 흥미롭지 않은 것이다. 어디에나 스타벅스가 있고, 샤넬 립스틱을 살 수 있는 매장이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된다는 지우였다. 세상이 예측 가능하다는 것에 위안이 된다는 것이다. 몇 년씩 일하다 언제 잘릴지 모르는 것보다 1년이라는 끝을 보고 달리는 것이 낫다는 그녀였으니 그럴 만도 했다.

서준은 그녀 역시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처받은 인간들은 언제나 공격적으로 방어한다.

세 번째 여행을 계획하던 중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준은 제주도에, 지우는 호주에 가고 싶어 했다. 지우는 서준을 설득하다가 혼자 호주로 가버렸다. 그 후 서준과의 연락을 끊었다. 호주에도 바다가 있다, 는 것이 지우의 설득이었다. 바다가 보고 싶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서해도 있고, 남해도 있고. 왜 제주 바다를 고집하느냐. 글썄. 제주 바다가 보고 싶은 건데 왜 고집하느냐고 묻다니. 알랭 드 보통의 책을 읽고 싶은데, 아멜리 노통의 책도 있는데 왜 알랭 드 보통의 책을 읽고 싶어하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았다. 서준은 연락이 없는 지우를 내버려 두었다. 지우의 인스타도 기웃거리지 않았다. 그렇게 제주 바다와 호주의 바다를 고집하는 두 인간은 끝이 났다. 서준은 그렇게 서로 다른 것일 뿐이었다고 생각했다. 제주 바다와 호주 바다의 차이만큼 다른 것일 뿐이었다고. 그리고 사랑은 두 바다의 차이를 메우지 못할 만큼 초라한 것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다름을 이겨내는 사랑의 위대함 따위가 없는 빌어먹을 인간인 것에.

제주는 그에게 지우와의 마지막을 떠올리게 하는 메타포 같았다. 인간의 다름을 깨닫게 한 제주. 가보지 않았지만 가야만 하는 곳이 되었다.

서준은 푸른 치마의 여자가 서 있던 자리에서 <제주, 사랑의 애월>이라는 책이 비죽 튀어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책을 다시 켜는 흔적이었다. 역시 제주에 관한 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의 지금 현재를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는 책이다.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가 그가 어떤 감성으로 지금 현재를 사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적어도 책의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라면 마음을 열어 볼 수도 있다. 그건 책 표지를 보고 책의 내용을 예측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책을 펼쳐 문장 속으로 빠져드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나은 일이다. 그렇게 믿고 있던 서준은 책의 제목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시작되는 소설처럼 푸른 치마의 여자가 책을 훑치는 장면을 목격했다.

여자가 책을 훑치는 것을 서준이 목격한 것은 5월 말,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여자는 푸른 우산을 들고 빗속을 걸어 책방으로 들어왔다. 두 명의 여자가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푸른 치마의 여자는 어느 때처럼 사뭇사뭇 책장 사이를 오가며 가끔 책을 빼들고 아무 페이지나 펼쳐 읽곤 했다. 애무하듯 책들을 손가락으로 쓸어가며 걸어 다니기도 했다. 이십여 분 후 여자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주위를 둘러본 뒤 다시 책을 살펴보고 있었다. 서준은 커피를 내리는 중이었다. 푸른 치마의 여자에게 커피 한 잔을 내어줄 심산이었다. 그 순간 여자는 책 하나를 뽑아 캔버스 가방에 집어넣었다. 순식간이라면 순식간이었다. 서준이 여자를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다면 알아챌 수 없을지도 몰랐다. 왜 그 순간이었을까. 서준은 읽지 말아야 할 책의 결말을 읽어버린 것처럼 당혹스러웠다. 가끔 어떤 소설의 결말은 서준을 혼란스럽게 하곤 했다. 아멜리 노통의 <반박>이 그랬다. 작가가 내린 결말은 서준의 기대를 벗어났다. 삶은 물론 그렇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지곤 한다. 그 순간에도 삶은 계속된다. 소설이 끝나는 것과 다르게.

서준은 여자의 다음 행동을 궁금해하며 힐끗거렸다. 감히 깜찍하게도 책을 훑치다니, 꽤 씬한 일이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푸른 치마의 여자가 어떻게 책방을 빠져나갈지 자못 호기심이 일었다.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책 몇 권을 뒤적거리며 훑어보았다. 그리고 시계를 들여다본 뒤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의 토끼처럼 책방을 빠져 나갔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작품 중 〈빵가게 재습격〉이라는 소설이 있다. 그곳 소설의 주인공은 이상한 공복과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햄버거 가게를 털러 간다. 서준은 그 견딜 수 없는 허기를 직장 생활에서 느꼈다. 아무리 밥을 잘챙겨 먹어도 이상하게 늘 배가 고팠다. 그리고 그 허기가 잦아든 것은 책방을 내년부터이다. 푸른 치마의 여자도 그런 허기에 시달리는 게 아닐까. 아무리 그래도 감히 책을 훔치고 유유히 달아나다니. 책방에서 책을 훔치는 일은 엄연히 범죄였다. 범죄는 그 사람의 허기를 묻지 않는다. 책에 대한 갈망이든 타고난 도벽이든 정신질환의 문제이든.

푸른 치마의 여자가 그동안 몇 권의 책을 더 훔쳐 갔는지 서준은 알 수 없었다. 한 권의 책이든 열 권의 책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만이 의미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 서준은 난감했다. 서준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을 근거로 여자에게 책 도둑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서준은 책방 가운데 천장에 설치해둔 CCTV 녹화를 떠올렸다. 그는 그날 오후부터 카운터에 앉아 CCTV가 녹화된 한 달여의 영상을 돌려 보았다. 녹화본을 들여다 보는 것은 하품이 나는 지루한 작업이었다. 그러면서도 빨리감기를 하여 매일 12시 즈음으로 시간을 돌리면 약간의 흥분에 휩싸이곤 했다. 그리고 며칠 동안의 조사 끝에 푸른 치마의 여자가 적어도 여섯 권 이상의 책을 훔쳤다고 결론 냈다. 때로는 CCTV의 사각지대에 서 있기도 했다. 때로는 CCTV를 등진 채로 서 있었다. 명백하게 책을 캔버스 가방에 넣는 장면이 잡힌 건 다섯 번이었다. 아주 대범하게 책을 집어 들어 당연하다는 듯 자신의 가방 속에 밀어 넣기도 했다.

그것은 전혀 범죄처럼 보이지 않았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지만
않았을 뿐 어딘지 여유롭고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역시 책을 훑치는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는 건가. 서준은 책을 훑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대학에 다니던 시절 서준은 한 카페에 갔다가 책을 훑쳐 온 적이
있었다. 북카페에서 책을 읽다가 읽던 책을 집어 들고 온 것이다. 그 책은
제임스 미치너의 <소설>이었다. 그 당시 서준은 그 책을 계속 읽어야
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것은 분명 ‘훑치는 것’이었지만 서준은 그렇게
했다. 표지를 넘겨 책을 펼치면 <이 책은 북카페 달콤한 독서의 소유
입니다. 책을 다 읽으시면 제자리에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책은 서준의 서재 한 구석에 꽂혔다. 어쨌거나 서준이 푸른
치마의 여자가 책을 훑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시절의 자신을 생각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것이 일종의 ‘허기’와
관련된 것이라면 서준은 푸른 치마의 여자를 이해하고 싶었다. 인간의
허기는 빵만을 훑치게 하지는 않으니까.

며칠 후 푸른 치마의 여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서준은 커피를 마시겠냐고
물었다. 여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준을 올려다 보았다.

- 커피 내린 게 좀 많아요.

서준은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는 뜻으로 덧붙였다.

- 아, 네. 그러시다면.....

- 네. 벤치에 앉아서 편히 책 보세요. 커피 가져다 드리죠.

푸른 치마의 여자는 여전히 망설이는 듯하다가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벤치 앞 테이블에 줄지어 세워진 읽기 전용 책들 중 한 권을 뽑아 들고
커피를 기다렸다.

- 이 근처에서 일하세요? 점심시간인가요?

서준은 커피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 네. 맞아요.

- 아, 그러시구나. 어떤 책 보세요?

- 아, 이거요.

푸른 치마의 여자는 읽던 책의 표지를 보여주었다. <자기 앞의 생>이었다.

- 좋아하는 작가인가요?

- 아뇨. 그냥 집히는 대로.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대화로는 푸른 치마의 여자가 왜 도둑질을 하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서준은 긴 프롤로그를 읽는 것처럼 조바심이 났다. 그러나 선부르게 접근하고 싶지도 않았다. 고작 책 몇 권을 훔쳤다고 진짜 범죄자처럼 대할 수는 없었다. 꽤심한 것과 별개로 웬지 수궁이 가는 도둑질이었기 때문이다.

- 어떤 일을 하세요?

- 네?

-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해서요.

- 그건 왜?

푸른 치마의 여자는 눈썹을 모으고 미간에 힘을 주었다.

- 아,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했다면 죄송해요. 책에 관심이 많으신 거 같아서요. 요새는 보기 힘든 일이니까요. 책에 관한 일을 하시나 해서요.

- 회계 사무를 봐요. 따분한 일이죠.

- 그러시군요.....

- 숫자만큼 따분한 게 없죠.
- 그런데 위험하죠.
- 그렇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푸른 치마의 여자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서준은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여자는 대화를 시도하는 서준을 밀어내고 있었다. 말하자면 얘기를 하기도 전에 방문을 확 닫고 들어가 버리는 것과 비슷했다. 그날의 수확이라면, 적어도 그날은 책을 훑치지는 못할 거라는 것뿐이었다. 길고 지루하게 전개되는 책을 읽어야 할 때처럼, 마치 푸르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천천히 읽어나가듯 인내해야 했다. 대부분 관계의 실패는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백년 동안의 고독>은 아무리 빨리 읽어도 삼 일은 걸린다. 진짜 그 책을 이해하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읽는 것과 이해하는 것, 그것은 정말이지 다른 일이다.

2.

- 자매님, 돈 좀 가진 거 있어?

두 달 간 집에 들어오지 않던 민석이 나타나 내뱉은 말이었다. 얼굴은 꺼칠하게 말라 있었다. 이십 대의 생기발랄함이 빠져 나간, 흡사 몽크의 절규같은 느낌이 배어 있는 얼굴.

민석은 영특한 아이였다. 아버지의 사고 전까지 줄곧 1등을 하던 아이였다. 대학은 스스로 포기했다. 대학이 아니어도 잘 사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그랬던 민석은 몇 년 사이 완전히 다른 인간이 되었다. 진경은 긴 한숨부터 쉬었다. 생각 같아서는 이 멍청한 자식을 두들겨 패고 싶었다. 그러나 동생 민석은 진경보다 덩치도 컸고, 맛을 만큼 호락호락한 놈도

아니었다. 게다가 스물여덟 살이나 된 성인 남자였다. 때린다고 말을 들을 나이도 아니었다. 어찌다 어른이 된 이 어린 남자를 진경은 이제 포기해 버렸다. 가족은 그녀에게 포기와 연민 사이를 시계추처럼 오가게 한다. 놓아버리고 싶다, 놓아버려서는 안된다..... 진경에게 가족은 그랬다. 어쨌거나 불쑥불쑥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할 때는 마구 두들겨 주고 싶었다.

- 돈은 왜?

- 자매님도 알잖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이대로는 안된다고.

진경의 동생 민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편의점을 전전하다 사이비 종교에 빠져 집을 나갔다. 진경이 그건 사이비야, 라고 말하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 자매님, 자매님은 삶의 욕심을 버려요. 우리가 발버둥쳐도 이 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마음을 두세요.

민석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일까, 진경은 궁금하지도 않았다. 돈을 요구하는 구원은 진경에게 필요 없었다.

- 야, 이 머저리야, 그런 것도 종교냐? 정신 차려.

- 자매님, 자매님은 아직도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달라지지 않는 세상이라고. 맨날 일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구원이라도 받기 위해 기도하고, 헌금내고, 또 기도하고.

- 그래, 너 가서 기도 많이 해. 그러고 살아. 근데 나한테 돈 있냐고 묻지는 마. 난 이대로 살아야 하니까. 꺼져.

민석은 신경질 부리듯 뺨 일어나서 방을 나갔다. 처음엔 민석과 소리치며 싸웠다. 제발 그 따위 사이비 종교를 믿어서는 안된다고. 그 빌어먹을

사이비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고. 그러나 이제는 그럴 기운이 없었다.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 포기하는 게 낫다. 포기가 주는 안도와 위안도 있다. 진경의 삶의 끌고 가는 건 포기가 대부분이었다. 민석과 한바탕 싸우고 나면 며칠간 불면에 시달렸다. 그 때에 비하면 진경은 이제 편안해졌다. 각자의 삶이다. 각자의 절박함으로 살아갈 뿐이다. 그 절박함이 서로를 상처내도 어쩔 수 없었다.

- 진경아, 할머니 목욕 좀.....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진경은 무거운 몸을 일으켰다. 할머니를 씻기고 저녁을 차리고 치우고 엄마를 씻겨야 한다. 진경의 저녁은 직장에서의 하루만큼 분주했다. 하루쯤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자고 싶었다. 그러나 진경의 가족은 그런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다.

진경의 아버지는 그녀가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시절 자살했다. 사업이 망하고 빚에 시달리다 옆 동네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졌다. 진경은 야간 자율 학습을 하다가 소식을 들었다. 진경은 그날 삶이 얼마나 양아치 같은지 깨달았다. 양아치 같은 이 삶을 견뎌야 하는 이유를 진경은 아직도 알 수가 없다.

그날 이후 진경의 삶은 원하는 곳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마치 진경은 머리에 거대한 줄이 달려 있어 거부할 수도 없이 그 줄에 매달려 끌려가는 것 같았다. 진경은 가까스로 전문대를 졸업했다. 등록금은 진경의 이름으로 들었던 저축을 깨서 마련했다. 그것이 마지막 남은 아버지의 선물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장 지금의 회사에 들어와 11년이다. 욕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대형 아파트 건설사에 납품하는 꽤 안정적인 회사였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여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대리라는 게 함정이었지만. 대학 때 사귀던 찬우는 노량진으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러 갔다. 찬우는 진경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그 때 할머니와
엄마를 버려두고 갔다면 달라졌을까, 하고 그녀는 가끔 생각했다. 찬우는
가끔 천안에 내려 올때마다 그녀를 찾았다. 그 후 그녀는 그가 몇 년 만에
서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걸로 그와는 끝이었다.
진경의 친했던 고등학교 친구 몇몇도 서울로 가서 취업을 했다. 진경은
천안에 발이 묶인 듯 홀로 남겨졌다.

진경의 엄마는 빗에 시달리다 우울증에 당뇨가 겹쳐 움직이지를
않았다. 하루종일 소파에 누워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면서 하루를
보냈다. 진경의 할머니는 뇌경색으로 몸의 오른쪽을 쓸 수 없게 되었다.
진경이 직장 생활을 해서 받는 월급으로는 두 여자를 돌보기에 도 턱없이
부족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는 했지만 역시 쉬운 일이 아니었다.
월급의 한 톨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런데 민석은 구원이니 뭐니
하면서 돈이 생기면 교회에 쏟아부었다. 교회에 쏟아부을 돈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잠깐씩 일을 했다. 그거야 어쩔 수 없었다. 거기까지였다.
진경이 민석을 봐줄 수 있는건, 진경은 더 단호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금도 민석을 포기한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 할머니, 화분에 더 이상 물 주지 마세요. 화분 다 죽어.
- 알아. 알아. 잘 돌봐야지.

한쪽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할머니가 집에서 가까스로 움직이며 하는
유일한 일은 화분에 물을 주는 것이었다. 진경은 몇 개 남지 않은 화분
들이 썩어나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화분 받침에는 물이 매일 넘쳐 있었다.
해피트리, 고무나무, 군자란. 이제 세 개의 화분만 남았다. 한때 할머니는
베란다 앞에 두 줄로 길게 받침대를 놓고 화분을 한가득 키웠다. 오래

전부터 화분을 돌보는 것이 할머니의 유일한 취미였다. 이상한 일은 몸이 마비가 된 이후부터 할머니는 화분에 물을 주는 방법을 잊은 듯하다는 것이다. 시도때도 없이 물을 주어 물이 흘러넘쳤고, 화분은 썩어나가 하나씩 내다 버리기 시작했다. 마치 그건 진경의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과 비슷했다. 가족이 무너지는 데 화분이 멀쩡할 리 없었다. 어찌면 모든 것은 인과 관계 속에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된장찌개와 계란 프라이로 저녁을 차려 놓고 진경은 방에서 라면을 먹었다. 된장찌개와 계란 프라이는 할머니와 엄마의 몫이었다. 밥 먹는 순간만이라도 혼자가 되고 싶었다. 혼자가 되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라면을 먹으며 <제주, 바람 속으로 걷다>를 읽기 시작했다. 언제쯤 제주에 가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유일하게 꿈꾸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진경을 제외한 여직원 네 명이 제주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들은 항공권 예매며 숙소 얘기로 한참 웃고 떠들었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면 라떼를 마시고 퇴근을 하면 네일아트를 하러 갔다. 남자친구에게 선물 받은 프라다 가방이나 구찌 지갑을 자랑 하곤 했다. 진경이 그 무리에 끼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그들 중 한 명인 구매과 직원인 동주는 대출금을 갚느라 월급의 반이 빠져 나갔다. 같은 총무과 직원인 애리는 계약직 직원으로 두 달 후면 그만두어야 했다. 디자인 팀의 주희는 월세비용이 없어 가끔 돈을 꾸러 다녔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주나 홍콩을 갔다. 그들의 삶도 보이는 것만큼 화려하지 않다는 것이 진경에게는 그나마 위안이었다.

- 진경 대리는 이런 거 싫어하지? 어떻게 네일 없이 다니냐.
- 그냥 저렇게 살게 댜. 싫다는데 댜. 화장도 안 하는데 무슨 네일아트야.
-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지난번에는 편의점에서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있던데.

- 몰라. 얘기도 안 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 칙칙한 얘기 싫어.

화장실에서 그들은 진경에 대해 떠들어댔다. 우연히 그 얘기를 엿듣게 되어도 진경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신경을 쓴다 한들 달라질 게 없었다. 진경은 많은 일을 포기하고 무덤덤하게 살기 위해 애를 썼다.

- 진경 대리는 여행 같은 거 안 가?

제주 여행 계획을 세우다가 애리가 물었다. 진경은 피식 웃었다.

- 내 삶은 여행을 갈 만큼 여유롭지가 않아서.

진경은 있는 그대로 내뱉었다. 사실이었다. 가끔은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여행을 할 수도 있었다. 그렇다 한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모든 게 여전할 것이었다. 그 여행의 끝이 싫었다. 멀리 달아나도 여전히 줄에 묶인 듯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 끝. 그들은 모두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정도도 하고 살 수 없다는 것에 놀라는 것 같았다. 제주 정도는 누구나, 보통의 한국 사람이면 다 가는 곳이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였을까. 보통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라면 진경도 한번쯤 가고 싶었다. 그날 이후 진경은 제주를 꿈꿨다. 마음속에 제주 지도가 문신처럼 아로새겨진 기분이었다. 제주의 해안도로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는 생각을 하다가 잠에 빠지곤 했다. 흐릿해지는 의식을 부여잡고 제주 바다속으로 걸어 들어가곤 했다.

진경은 가끔 버스를 타고 청주 공항에 갔다. 청주 공항에 내려서 2층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높은 천장에서는 웅웅 소리가 났다. 캐리어를 밀고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갔다. 진경은 그들을 구경하며 오래도록 그곳에 있었다. 멀리 비행기 엔진 소리도 들려왔다. 대합실에서는 비행기를 볼 수 없지만, 진경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었다. 묵직한 비행기의

몸체는 가볍게 땅을 박차고 날아 점이 되어 하늘 끝으로 사라졌다. 그 가벼운 몸짓은 놀랍도록 아름답다.

그것은 진경이 제주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방법이었다. 거기에서 조금 더 걸어 들어가면 제주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제주에 닿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제주의 바람이 살갓을 핏는 것 같았다. 지루해지면 알랭 드 보통의 책을 꺼내 읽었다. 마치 제주 앞 카페에서 책을 읽듯이. 배가 고파지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해결했다. 그렇게 진경은 대합실에서 하루를 보내고 어스름이 내려앉을 무렵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취미라면 취미일까. 여행이라면 여행일까. 괜찮은 취미를 만들면 살 만하다. 진경은 버스를 타고 돌아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다. 다시 살아갈 힘이 났다. 진짜 여행을 한 것처럼.

<제주, 바람 속으로 걷다>를 읽다가 문득 책방 주인이 떠올랐다. 진경은 금능해수욕장의 바다 사진을 흘린 듯 바라보다가 책을 덮었다. 책방 주인은 얼마 전부터 진경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었다. 진경은 그가 베푸는 호의가 탐탁지 않았다.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 뒤에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진경은 이유 없이 친절할 인간을 만난 적이 없었다. 지금은 회사를 그만둔 디자인팀 대리였던 남자는 점심 식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진경에게 몇 번 커피를 사다 주었다. 그리고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했다. 진경은 그가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 아이의 돌잔치에 회사 직원들도 초대되었다. 진경이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두 번이나 거절하자 김대리는 진경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다. 커피 한 잔은 그런 숨은 의도를 품을 때가 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자 진경은 더욱 불안했다. 책방 주인의 친절이 거슬렸다. 불안감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다. 수많은 생각들이 거품처럼

보글거렸다. 춤을 추듯 어지러운 생각들 속에서 진경은 머리가 점점 더 아파오는걸 느꼈다. 진경은 생각을 털어버리고 일어나 다 먹은 라면 그릇을 들고 방을 나섰다. 머리가 아프다고 설 수 있지가 않았다. 이 빌어먹을 인생은 아픈 것도 유예가 된다, 빌어먹을. 진경의 입에서는 욕이 튀어나왔다.

-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며칠 후 책방 주인이 다시 물었다.

- 판매하시는 커피잖아요.

- 고작 이천 원인데요, 뭐.

진경은 한번도 책을 사지 않았다. 그런데 굳이 커피를 내주고 싶어 하는 주인이 이해되지 않았다. 진경은 조금 미안한 얼굴로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책방 주인은 빙긋 웃고는 커피를 내주었다.

- 오늘은 날이 너무 덥군요. 한여름 날씨네요.

책방 주인은 창 너머에서 타고르고 있는 바깥을 힐끗 내다보고 말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실내는 바깥을 가늠할 수 없게 했다.

- 다음주부터는 장마라고 하던데 다행이죠? 요즘 지나치게 덥잖아요.

진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책방 주인이 내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진경은 문득 방 책상에 놓인 책방에서 훔쳐 간 책들을 떠올렸다. 어쩌면 그 책들 때문인지도 몰랐다. 책방 주인이 눈치챈 것이다. 주의를 기울인다고 기울였지만 무언가를 훔치는 일은 처음이었다. 생초보인 주제에 일곱 권의 책을 훔친 것은 가히 경이로운 일이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무사히 왔는지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책방 주인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백이라도 해야 할까. 내가 책을 훔쳤다. 그래서 이제 어쩔 셈이냐고? 책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유를 묻는다면 뭐하고 해야 할까.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이 양아치 같은 삶에 대한 소심한 복수? 아니면 이 견딜 수 없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에 대한 일탈? 아니면 정신과적 질환으로 인한 충동적 도벽? 굳이 이유를 찾자면 모두 맞기도 했고 틀리기도 했다. 진경 자신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어느 순간 책을 훔치는 자신이 거기에 있었다. 그 순간의 자신이 낯선 타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마치 습관처럼 책을 훔치고 있는 타인이 계속 찾아왔다. 복잡하게 짜여진 감정의 무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진경은 그 감정의 한 가닥조차 표현할 길이 없었다. 언어는 너무 빈약하다. 언어는 비틀어지고 훼손되기 일쑤다. 아무리 언어를 잘 골라본다 한들 미친년이 되는 것이다. 아니, 도둑질에 이유 따위가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도둑질은 도둑질일 뿐이었다. 이유가 근사한들 도둑질이라는 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었다. 그러니 아직은 자백할 수 없다. 증거를 들이대기 전까진 버텨야 한다. 무너져서는 안 된다. 진경의 머릿속에서는 생각의 가지가 끝없이 뻗어나갔다. 이제는 여기 다시 올 수 없는 걸까. 그 부분이 가장 씹쓸했다. 이 조용한 오후를 놓치는 것이. 진경은 뜨거운 바깥 대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 머리가 후끈거렸다.

- 저기, 제가 이번 주말 제주에 다녀오는데요.

후끈거리는 진경의 머릿속으로 책방 주인의 목소리가 툭 뛰어들었다.

- 제주요?

- 네.

- 혹시 책을 읽고 싶으시면 여기 오셔도 좋습니다. 제가 책방 비밀번호를

알려드릴게요.

- 네?

- 아,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글썄요. 혼자 조용히 책에 둘러싸인 공간이 필요해서 책방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런 공간을 원하시는 것 같아서요, 당신도.

진경은 뭔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 진경은 이해할 수 없는 소설의 한 대목을 읽고 있는 것처럼 혼란스러웠다.

- 여기 앉아서 책을 보고 싶은 만큼 보셔도 좋아요. 커피도 내려 드시고.

- 그렇게까지.....

- 고마운 마음이 들면 책의 먼지나 좀 털어주시면 됩니다. 책은 먼지가 아주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사실은 책방을 부탁한다는 겁니다.

책방 주인은 빙긋 웃었다. 책방을 부탁한다? 도대체 무슨 심산일까. 진경은 미궁 속으로 더 깊게 빠지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치 그것이 덧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책방 주인의 전략에 휘말리고 있다는 불안감. 책방 주인은 비밀번호가 담긴 메모지를 내밀었다. 진경은 마치 곧 터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폭탄이라도 되는 듯 메모지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책방 주인이 설명하는 몇 가지 주의 사항들, 에어컨을 켜는 법과 전원을 차단하고 문을 잠그는 것들에 대해 건성으로 들었다. 책방 주인은 진경을 카운터로 데려가 커피를 내리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진경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지만 주인 없는 책방에 올 생각은 없었다. 구미가 당기는 제안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책방에서 책을 훔친 진경으로서는. 이렇게 된 바에야 읽고 싶은 책들을 모두 캐리어에 담아 도망을 치는

방법도 있었다. 생각만으로 짜릿한 일이다. 캐리어 가득 읽고 싶은 책을 넣고 책방을 나오는 것은 호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다 알고 있다는 듯 명석을 깔아주는 데 그렇게 할 수는 없었다. 마치 어디 흠쳐 가려면 흠쳐가 보라. 내가 널 진짜 책도둑으로 만들어주겠다, 라는 계획이 깔려있는 듯 했다.

진경은 도망치듯 책방을 빠져 나왔다. 책을 흠쳤을 때에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다. 회사로 돌아오는 길은 여전히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날 오후 진경은 관리 이사의 자리로 불려갔다. 그리고 이사로부터 인원감축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책방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진경의 머릿속이 급하게 현실로 돌아왔다.

- 알다시피 요즘 아파트 경기가 좋지 않으니.
- 네. 그래도 저는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요.
- 알지. 우리도 지금 최소한의 인원만 생각하고 있어요.
- 네.
-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상담을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으니 혹시 결과가 나쁘게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게.

관리 이사는 반쯤 벗어진 머리를 쓸어 올렸다.

- 전 정말 회사에 다녀야 해요. 할머니,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 있어요.
- 알아 알아. 아까도 말하지 않았나.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그리고 퇴직금과 별도로 육개 월 분 월급을 위로금으로 생각하고 있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 너무 좌절하지 말게.

회사와의 딜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다른 회사를 알아보면 된다. 그러나 요즘 같은 시기에 새 직장을 잡는 게

쉬운가. 그나마 한 직장에 다니고 있어야 한 가지 걱정은 덜게 되는 셈이다. 실직하고 집안에 있는 두 여자와 하루종일 같이 보내는 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힘겨울 터였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면서 전전긍긍 몇 개월을 보내고 싶지도 않았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다 버리고 제주로 도망쳐 버릴 것 같았다. 계기가 만들어지면 쉬운 법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진경은 컴퓨터 모니터를 물끄러미 바라봤다. 미세먼지가 짝 들어찬 것처럼 머릿속이 뿌옇게 느껴졌다. 이렇게 실직을 할 수는 없었다. 창밖으로 어느새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다. 흐릿한 하늘과 대기 속으로 비는 사선으로 내려꽂히고 있었다. 진경은 숨이 막힐 듯 어지러웠다.

직원들은 차례로 관리이사와 면담을 했다. 그리고 두셋이 모여서 인원 감축에 대해서 수군거렸다. 이미 내정이 되어 있다는 둥, 몇몇이 자발적으로 감원 대상에 지원을 했다는 둥 하는 이야기였다. 진경은 얼핏얼핏 들리는 얘기들에 감정이 요동쳤다. 최종 인원 감축 대상은 일주일 뒤에 발표될 거라고 전해졌다. 그 전에 그들에게는 다시 면담이 있을 거라고 했다.

금요일 오후는 비가 계속 내렸다. 창문을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비는 세상을 지웠다. 젖은 풍경 속으로 간간이 천둥이 치고 번개가 지나갔다. 사무실 분위기만큼 어수선했던 날씨였다. 퇴근길, 진경은 그 빗속을 뚫고 과일가게에 들러서 수박을 한 덩이 샀다.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었다. 모든 걸 버리고 떠난다면, 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쪽이 찢어졌다. 마지막 수박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늘 마지막에는 관대해지기 마련이다.

집안은 여느 때처럼 난장판이었다. 화분 물이 흘러넘쳐 거실 바닥 여기

저기 물이 흥건했다. 진경의 엄마가 먹던 과자 부스러기와 봉지도 소파 주변에 널부러져 있었다. 식탁에는 점심에 먹은 반찬들과 빈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진경은 말없이 식탁 위부터 정리했다. 그리고 흥건한 물들을 닦고 할머니의 옷을 갈아입혔다. 물 위에 주저앉은 건지 소변을 본 건지 옷이 다 젖어 있었다. 반복성의 이 일상이야말로 인간이 견뎌야 하는 가장 어려운 대상이다. 지금 견뎌야 하는 건 엄마와 할머니가 아니라 그 일상이었다.

제주에는 어떤 바람이 불까. 언젠가 사진에서 본 것처럼 검은 돌담이 둘러진 작은 집을 얻어야겠다. 돌담 위로 올라오는 지붕은 붉은색이면 좋겠다. 작은 창문 너머 옥빛 바다가 보이고, 반대편에는 검은 돌담 아래 하얀 수국이 자라고 있을 것이다. 진경은 마음속으로 제주의 집을 그렸다. 마치 그곳에 오래도록 자신을 기다리는 집이 있길라도 하듯이.

토요일 오전, 진경은 달아나듯 집을 나섰다. 아침도 거른 채였다. 진경은 정류장 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하나를 먹어 치웠다. 편의점은 진경의 고향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편의점 삼각 김밥은 진경을 먹여 살린 기특한 메뉴였다. 몇 십 년이 더 흐른 뒤 기억에 남는 음식은 편의점 김밥과 라면이 될 터였다. 진경에게 엄마가 요리를 하던 시절은 기억 너머에 묻혔다. 엄마가 카레나 수제비를 만들어 주던 시간들 위로 켜켜이 고단함이 내려앉았다. 시간은 무섭게 과거를 조각내고 지운다. 기억은 기억으로 덮인다. 지금의 진경은 소파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엄마를 기억할 뿐이다.

편의점을 나선 진경은 버스를 기다렸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엔 짙은 구름이 위압적으로 깔려 있었다. 언제라도 다시 올부짚을 듯.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진경은 집이 있는 방향을 한참 올려다 보았다. 집은 언제

부터 떠나야 할 곳이 되었을까. 진경의 가슴을 바람 한 줄기가 훑고 지나갔다.

책방에 도착하자마자 진경은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어 놓은 뒤 먼지를 털어내는 일부터 했다. 유리는 전용 약품을 뿌려가며 꼼꼼히 닦았다. 대걸레를 빨아 바닥을 구석구석 문질렀다. 청소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지만 진경은 공을 들여 책방 곳곳을 쓸고 닦았다. 그 사이 비는 쏟아졌다 그치기를 반복했다. 청소하는 데 두 시간여가 흘렀다. 그 사이 책을 사러 온 몇몇이 있었다. 책을 사러 들어온 대학생처럼 보이는 여자가 소셜 파트 앞에서 책을 뒤적거렸다. 진경은 지금은 책을 팔 수 없다고 하려다가 내버려 두기로 했다.

- 카드 단말기가 안 돼서 현금 내셔야 하는데 괜찮으세요?

책을 뽑아들고 카운터로 온 여자에게 진경이 말했다.

- 아, 네. 괜찮아요.

여자는 지갑에서 현금을 쉰 뒤 내밀었다.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도>라는 책이었고 만이천원이었다. 진경은 책값을 받아 카운터 아래 선반에 놓인 바구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 책 제목과 값을 기록해 놓았다. 책방 주인은 책방에 클로즈 팻말을 걸어 놓고 조용히 책을 읽다 가라고 했다. 진경도 사실 그럴 심산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손님을 맞고 있었다.

두 번째 손님도 현금으로 만사천원을 지불하고 <잠의 제국>이라는 책을 사들고 갔다. 30대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오늘은 사장님이 안계시네요, 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 구하는 줄 알았으면 내가 하는 건데, 라는 말도 덧붙였다. 사람들은 멋대로 생각하기 좋아한다. 진경은 멋대로 생각하는 여자를 보내고서야 벤치에 앉았다.

밖에는 다시 비가 쏟아졌다. 창문 너머의 세상은 비로 흠뻑 젖어 있었다. 진경은 한참 동안 그 창문 너머의 세상을 응시했다. 세찬 빗소리와 비를 뚫고 달리는 자동차 소리가 책방의 고요를 찢었다. 진경은 그 소리들 속으로 몸을 던진 채 고요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진경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책방에 취직을 해야 할까. 이런 책방이 어디에 또 있을까. 책방 주인에게 채용해 달라고 해볼까. 그러다 문득 책도독인 주제를 생각하니 피식 웃음이 났다. 책방 주인에게 무슨 말이든 해보고 싶기도 했다.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던 것이 언제였는지 알 수도 없었다. 습관처럼 입을 닫고 살았다. 말을 나눌 대상도 하고 싶은 말도, 멸종 동물처럼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다. 진경은 읽기 전용 책꽂이에서 <바람이 노래를 들어라>를 빼들었다. 그리고 모든 잡념을 지우려는 듯 책 속으로 빨려 들었다. 문득문득, 책을 읽다가 제주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다.

월요일 오전, 진경은 머리가 아팠다. 어딘지 깊은 두통 같았다. 토요일 밤, 민석이 다녀갔고 또 그 눔과 입씨름을 했다. 민석은 주방 식탁 의자를 넘어뜨리고 돈을 내놓으라고, 집을 내놓자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전세 사천이 진경이 가진 전부였다. 그걸 내놓으면 할머니와 엄마는 갈 곳이 없다. 진경은 건조하게 내뱉었다. 날 죽이라고. 민석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고으르렁거렸다. 그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맹수 같았다. 그렇게 위협적으로 소리치다가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사라졌다. 그동안에도 진경의 엄마는 소파에 누워만 있었다. 텔레비전을 볼 때와 다르지 않은 눈빛이었다. 진경은 그날밤, 정말로 집을 떠나는 생각으로 잠을 설쳤다. 제주행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청주행 버스를 탄다. 그곳에서 비행기만 타면 된다. 이제는 할 수 있을것 같았다. 희망을 품으면 불안하다. 대부분의 불안은 희망을 품은 상태에서 온다. 진경은 그럼에도 이번에는 희망을 들추어냈다. 한번은 희망이라는 카드를 써도 되지 않겠냐고.

진경은 아픈 머리를 달래 보려고 커피를 두 잔이나 들이부었다. 그 사이 감원 대상에 대해서 사무실 곳곳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자신의 이름이 오가는 것을 진경은 얼핏얼핏 들었다. 머리는 점점 더 아파왔다. 머릿속으로 전기드릴이 파고드는 것처럼.

그날 점심시간이 되기 전 진경은 모니터 자판 위에 구토를 했다. 갑작스러운 구토였다. 머리가 아픈 것이 점점 더 심해지더니 속이 뒤집어지듯 울렁거렸다. 그리고 멀미를 하듯이 구토가 튀어나왔다. 옆에 있던 직원들은 역겹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같은 과 정대리가 토사물을 치워 주었다. 미간에 잔뜩 주름을 잡고 토사물을 치우던 정대리는 몸이 힘들면 들어가 쉬는게 어떠냐고 물었다. 진경은 괜찮다고 대답하고 화장실에서 입을 행구었다. 몸이 확실히 좋지 않다. 진경은 숨을 고르고 눈을 부릅떴다. 이렇게까지 버텨야 할까, 라고 생각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사에서 잘리면 진짜 제주에 가야겠다고. 한 번쯤은 이기적으로 살고 싶다고. 아니, 이기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진경은 어지러운 몸을 이끌고 자리로 돌아와 의자에 기댄 채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진경은 점심도 먹지 못했다. 그리고 속이 다시 매스꺼워 화장실로 튀어갔다. 속이 안 좋으면 화장실을 가야지 여기다 토를 하냐, 민폐야, 라고 수군대던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던 탓이다. 화장실 변기에 구토를 하고도 진경은 일어나지 못했다. 의식이 하얗게 지워지고 있었다. 흐릿해지는 기억사이로, 제주에 가야 한다,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면..... 이라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진경을 붙잡고 있었다.

119 구급차가 도착한 것은 오후 다섯 시였다. 네 시간이 넘도록 아무도 진경이 사라진 것을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진경이 조퇴를 했다고 생각했고, 누군가는 병원에 갔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진경의 휴대폰과 가방이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화장실 문 하나가 잠겨 있다는 것도. 진경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이미 진경은 이 삶의 너머로 흘러갔다. 뇌출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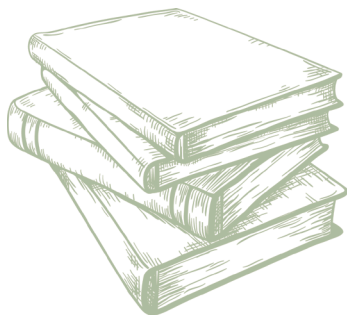
진경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장례식에 온 회사 직원은 두 명 뿐이었다. 민석은 텅 빈 장례식장을 지키다가 그 직원들이 진경의 핸드폰 연락처에 고작 다섯 명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장례가 진행되는 동안 감원 대상이 공지에 올라왔다. 회사 직원들은 감원 대상에서 빠진것을 안도하거나 명예 퇴직의 이름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들과 송별회를 하느라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그들이 안주 삼아 떠드는 것은 진경이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젊은 나이에도 관리를 해야 한다, 요즘은 삼십대도 안전하지 않다, 혈압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 같은 건강 관련 이슈들이 그들 사이를 오갔다. 고작 일주일도 되지 않아 진경은 잊혀졌다.

3.

장마가 계속되는 동안 서준은 푸른 치마의 여자를 기다렸다. 그러나 푸른치마의 여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몇 주 전 제주를 다녀오는 사이, 푸른 치마의 여자가 책방을 다녀간 것이 마지막이었다.

월요일 오후 제주에서 돌아오는 길, 책방 근처에서 서준은 모퉁이를 돌다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119구급차에 길을 내주었다. 서준도 그 구급차처럼 마음이 급했다. 책방을 너무 오래 비운 터였다. 푸른 치마의 여자가 책방을 다녀갔는지 궁금한 탓도 있었다. 책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자마자 서준은 푸른 치마의 여자가 다녀간 것을 알았다. 모든 게 같아 보였지만 달랐다. 책방은 청소를 해도, 하지 않아도 티가 나지 않는 곳 이기도 했다. 그러나 분명 책방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테이블은 반질반질했고, 책의 먼지도 없었다. 비죽비죽 튀어나온 책도 없이 가지런 했다. 서준은 푸른 치마의 여자가 남겨둔 메모를 발견했다. 다섯 권의 책을 팔고 받은 현금도 바구니에 있었다. 푸른 치마의 여자가 흠쳐 갔던 책값이라고 내놓은 십일 만원도 함께였다. 그 메모는 불길한 기운을 자아냈다. 어쩐지 그것으로 끝이라는 예감이 스쳤다.

비는 리듬을 타듯 오락가락했다. 서준은 커피를 내리고 마르케스의 <예고된 죽음의 연대기>를 읽으며 오후를 보냈다. 책을 읽다 가끔 출입문으로 시선을 던졌다. 왜 책을 흠쳤던 걸까, 가끔씩 서준의 마음을 두드리는 질문에 대해 그는 끝내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끝>



짧은 충동의 기록

외교부 주교배대한민국총영사관 윤 종 대

06:29~06:33

더는 집을 옮기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몇 해 전 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한껏 사치를 부려 방과 거실에 각각 설치한 공기청정기 파랑 불빛이 아직은 어둠에 싸인 검정 마룻바닥을 뚫고 침대 밑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자니 아쿠아리움, 그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상어가 있는 메인 수조처럼 그 푸른 불빛이 일렁인다. 험탁 위, 눈길을 비추는 가로등 불빛처럼 하얀빛을 뿌리고 있는 디지털시계는 6시 29분을 나타내고 그 옆에는 방전된 내 삶과는 상반되게 간밤에 완전히 충전된 휴대전화도 놓여 있다. 몇 년 동안 바꾸지 않아 더는 알람 이라고 할 수 없는 기상을 알리는 멜로디가 들려온다. 뒷머리가 축축하게 땀으로 젖어 있다. 악몽을 꾸 기억도 없는데 왜 땀이 나 있지? 나이 앞자리가 바뀌더니 기력이 쇠해졌나? 봄이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한기가 느껴지는 날씨. 여전히 두꺼운 겨울 이불을 덮고 온수 매트를 켜놓고 자고는 있지만 따뜻함 내지 더워서 자연스럽게 난 땀은 아닌 게 분명하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까짓 땀 좀 난 게 무슨 대수라고. 더는 잠들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몸은 여전히 침대에 딱 달라붙어 있다. 깊은 밤과 새벽의 경계가 맞닿아 있는 이 시간, 그 어둠과 밝아짐이 만나는 지점에서 푸르스름한 새벽이 내려앉은 어깨 위로 포대기에서 내려오기 싫다고 떼쓰는 어린아이처럼 이불을 끌어 올려 본다. 이제는 일어나면서 불을 켜지 않아도 사물을 충분히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이르게 아침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얇은 불빛과 실루엣만 가득한 이 방에서 유일하게 살아서 숨을 내쉬는 나. 나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준비 없이 시작된 하루를 맞으며 침대 스프링 반동을 이용하여 상체를 일으킨다. 사실 무엇을 생각할 필요도 없다. 아무런 이벤트 없는 오늘은 어제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 일정한 음이 반복되는 음악처럼 내 삶은 단조로운 음표로 가득 차 있다. 어제처럼, 아니 어제의 그 어제처럼 그 시간에 일어나 내가 해왔던 그대로를 하면 된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자고 자신에게 파이팅을 할 필요도 없다. 그저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된다. 이제 침대 밖으로 한걸음만 옮기면 분침이 부지런히 한 바퀴 돌아가면 시침이 크게 한 칸 가듯 내 하루는 빠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주 느리게 하지만 분명히 잘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익숙해진 공간, 캄캄한 밤에도 나는 굳이 불을 켜지 않고도 방과 거실을 오갈 수 있다. 흐트러진 이불과 침대 시트를 뒤로하고 그나마 온기가 있는 방을 나와 거실로 걸음을 향한다. 아껴서 어디에 쓰려는지 생각해 둔 것도 없지만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꽤 오래전부터 난방을 꺼둔 거실로 나서자 맨발을 통해 한기가 정수리까지 순식간에 도착한다. 거실

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냥 방과 분리된 별도 공간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다. 팍팍한 사정에도 이 작은 공간을 쪼개어 방과 분리된 공간이 딸린 이 집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내 방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따로 쉬고 싶었기 때문이다. 밥을 해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그곳에 침대를 놓고 잠을 잔다는 것은 내 나이에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었다.

이 집은 온전히 나만을 위한 공간이고 특별히 이 공간에서 분리를 통해 나만의 안락함을 누리려 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할 필요는 없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집에는 나 외에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같은 공간에 머물 사람도 없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낯선 누군가와 거실을 같이 쓰고 방은 따로 쓰는 그런 불편을 겪을 필요도 없다. 내 온기와 온통 내 냄새로만 가득 차 있는 이곳은 나만을 위한 공간. 내 인생도 이 집처럼 다만 몇 개라도 칸막이로 분리되어 있다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노동과 휴식, 슬픔과 즐거움, 밝음과 어둠,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와 현재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아주 어지럽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가까이에 서 있어서 한 개만 쓰러져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공포감이 나를 짓누른다. 얇은 임시 벽이라도 있다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쓰러져 버리는 일은 없을 텐데.

거실등을 켜까 생각했지만 잠시 어둠에 몸을 묻고 밖을 내다본다. 온통 푸르스름한 하늘 저편에 열은 오렌지색이 묻어난다. 곧 밝음이 문득 내 곁에 서있겠지. 내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나는 무엇인가를 먹고, 입고 그리고 내 일상에 스며들겠지.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까지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루려고 애썼던 그 이름으로 불리게 되겠지. 회사에서는 나와 수직선으로 위아래에 자리한 사람들로부터 김팀장, 팀장님, 선배 등 직위로 불릴 것이고, 내가 고객이 되거나 반대로 남이 내 고객이 될 때는 또 그 관계성에 따라 때로는 주인이 되고, 손님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나와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그 사람들에 묻혀 있다 결국에는 다시 이 좁고 좁고 불이 꺼져있는 이곳에 들어오며 다시 불을 켜게 될 것이다. 그렇게 회사에서 나를 잊어가며 살다보면 그 대가로 적잖은 급여로 보상을 받는다. 탈출하고 싶지만 당장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계획도 없고 설사 탈출한다고 해도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한 더미 물고기알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홀로 이 우주를 표류하고 있다는 착각에 갇힌 갯 지느러미가 생긴 물고기처럼 남들이 모두 들여다 보는 그 투명한 알집 안에서 열심히 지느러미를 파닥거리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우두커니 이 새벽어둠 속에서 서서 뜬금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자각이 들자 쓴웃음이 번져 나온다.

몇 년간 그래왔듯 사실 요즘 나는 혼자 많이 지쳐있다. 나를 나에게서 건져달라고 누군가를 향해 소리 지르고 싶지만, 가위에 눌려 손가락 아니 눈썹 하나도 꿈쩍할 수 없는 악몽에 시달리는 소년처럼 나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없음을 진작 알았기 때문에 결코 남에게 내 이웃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한 적도, 이웃이 될 누군가가 내 곁에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을 복잡한 과정 없이 시도하고 그 결과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은 나를 나는 아주 합리적이고 실행

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만 운이 좋은 사람이다. 대부분은 계획이 아닌 충동으로 일을 벌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내 일의 시작과 끝만 기억할 뿐 그 과정에서 나 혼자만 느끼는 좌절과 싫증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고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일찍이 알았지만 그런 나 자신을 향해 너는 너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헛된 자기암시를 강요했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불편이라는 단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편해 본 적이 없기에 굳이 불편이라는 불편한 단어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까? 타인과 관계 맺음을 통해 내 공허함을 채우려 노력했던 때도 물론 있었으나 의도적인 시도와 만남은 내 계획대로 잘 안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고 결국 나는 단절을 통해 자유로워지는 길을 선택했다. 내가 쉽게 내린 결정은 나만 책임지면 되었고 그 결정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그 영향이 미치는 범위는 나로 한정되었다. 복잡하게 어떤 관계로 얽히지 않아도 충분히 나는 즐거울 수 있었고 나는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간다는 자부심도 심지어 있었다. 짧은 순간에도 몇 번이나 반복되는 내 감정의 기복을 보면서 공허함 속에서 굳이 더 초라해질 변명거리를 찾고 있다는 생각이든다. 이런 나를 보면서 조금씩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06:33~06:59

선선한 거실 공기에 내 목덜미를 적셨던 땀은 이내 내 목에 찰싹 달라붙어 버린다. 거실을 지나쳐 화장실 겸 욕실 스위치를 켜다. 스위치에서 딸깍 소리가 남과 동시에 오렌지색 불이 켜진다. 땀에 젖은 잠옷을 벗어내자 기다렸다는 듯 한기가 와락 나를 덮친다.

두 걸음만 옮기면 변기나 샤워부스로 옮겨갈 수 있지만, 굳이 그 두 걸음을 위해 내 발보다 조금 작은 분홍색 젤리 슬리퍼를 신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사실 이 슬리퍼는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해 샀었다. 그 사람은 내 곁에 더는 없고 이 슬리퍼는 그 사람이 아닌 내 발에 신겨져 있다. 젤리처럼 말랑말랑했던 옥실 슬리퍼는 햇살이 들지도 않는 이곳에서 변색이 되어 누렇게 되었고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나는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화학적 성분 변화로 인해서 딱딱하게 변해 이제는 젤리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는다. 타일에 부딪히는 소리가 딱딱한 사탕이 이에 부딪히는 것처럼 귀에 거슬린다. 오렌지색 옥실 불빛이 거실 바닥으로 스며오는 새벽빛과 묘하게 그라데이션을 이루는 모습이 설핏 보이지만 이내 문을 닫는다. 이제 나는 이 집에서 나를 가장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공간에 들어와 있다.

이 공간은 이 집에서 가장 좁고 머무는 시간도 가장 짧은 곳이지만 없어서는 안 될 곳이다. 침대 없이 거실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식탁이 아닌 침대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싱크대에서 샤워를 할 수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안방에서 배설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딱 필요한. 그만큼 머물면 되는 그곳. 필요 이상으로 쌓아둘 필요는 없지만 꼭 필요한 화장지와 비누는 늘 여분이 있어야 하는 곳, 내가 편한 시간으로 미뤄둘 수 없는 당장 해야 할 그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 들어선 이상 망설이거나 충동적으로 계획에 없는 그 무엇인가를 할 가능성은 아주 적다. 즉, 거실에서 잠깐 뉴스만 확인하려다 우연히 전환되는 채널에서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을 발견해 내일도 입어야 하는 그 옷이 구겨질까 봐 불편한 자세로 화면을 한참 주시할 필요가 없고, 잠시 침대에 누웠다 잠들어 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 불일을 보거나 씻는 것으로 목적 달성이 되고 바로 이 공간을 벗어나면 되는 그런 곳이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 목적과 그 기능에 가장 충실한 곳이 이곳이다.

내 생리적 상태와는 대조적으로 변기는 아주 시원한 소리를 내며 모든 담겨 있던 것을 저쪽 아래로 쓸어 내려간다. 답이 정해져 있는 대답에도 우물쭈물 뜸을 들이는 잔뜩 주눅이 든 신입 사원처럼 이미 온수로 설정되어 있지만 샤워기에서 온수가 나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 녀석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작은 거울로 내 얼굴을 비추며 어제와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 안도하며 또 실망한다. 제대로 쏟아져 내리는 따뜻한 물이 내 몸을 감싸며 간밤의 흔적을 모두 씻어낸다. 겨우 내내 덮고 지냈던 이불에 스며있지만 더는 의식이 되지 않는 내 몸에서 나는 나의 냄새, 어릴 적 꾸던 귀신 꿈보다 더 식은땀이 흐르게 만드는 일상의 실수와 착오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그 악몽으로 내가 흘렸던 많은 땀이 익숙한 비누 향과 함께 배수구로 빨려 들어간다. 이 뜨뜻미지근한 물은 이 물보다 더 차가운 물을 만나면 곧 식을 것이고 그 누군가가 사용한 더 따뜻한 물과 만나면 잠시나마 따뜻해지겠지. 사물이 사물과 접촉하며 열을 주고받듯 나도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과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주고받는다. 긍정과 희망, 배려라는 이름의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주고 나 또한 그런 힘을 받고 싶는데 아마도 나는 내 희망과는 완전히 다른 그것을 주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여전히 많은 생각으로 머리는 무겁지만, 몸은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다. 내가 가지고 있던 좋은 습관 여러 가지는 이미 대부분 잊히거나 없어졌지만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조금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 여유롭고 개운한 아침 시간이 정말 좋다. 샤워를 마치고 몸에 물기를 닦아 낸다. 작게 몸이 움직이면서 타일에 부딪혀 또각또각 슬리퍼 소리가 들린다. 그래, 어디를 가려고 신는 게 아니고 멈춰 서서 무엇인가를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슬리퍼였구나. 내가 이래서 이 슬리퍼를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맨발로 서 있는 것을 생각하자 또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듯하다. 머리숱은 예전과 비교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 머리를 말리는 시간을 그다지 줄어든 것 같지 않다. 강제적인 수분 공급 탓인지 거울로 비치는 얼굴과 내 몸에 비로소 긴장감과 힘이 되돌아 와 있는 것 같다. 밤사이 내 피부를 통해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던 그 수염들을 면도기로 밀어낸다. 온전한 내 얼굴이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본다. 웃음을 지어주려 했지만 마음과는 달리 획 고개를 돌려 외면해 버리고 만다. 괜히 관심을 주었다가는 내가 답할 수 없는 내 삶의 가치라던가 행복에 대해, 내 근원과 내성향에 대해 까다로운 질문을 나에게 날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낮은 목소리로 지금 행복하니? 만족해? 라는 질문을 하면 나는 더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가 엄습했기 때문이다. 여전히 김에 서려 있는 욕실을 나서며 나는 일시적으로 안개가 낀 것인지 날씨가 흐렸기 때문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회색빛 하늘을 쳐다보듯 오늘도 내 삶 자체는 아주 흐릿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06:59~07:15

샤워를 마치고 문을 열어보니 그사이 세상은 어둠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창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샤워와 머리 손질까지 마쳤으니 이제 직장을 향해 나갈 준비는 거의 끝나 있었지만 나는 오늘

퇴근 후 입을 잠옷을 이미 입고 있다. 간밤에 입었던 잠옷은 세탁기에 던져 넣고 출근할 때까지 편하게 지낼 요량으로 오늘 밤에 입을 잠옷을 미리 꺼내 걸쳤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을 때 나는 이 옷을 입는다. 어느 날인가 세탁기에서 잠옷을 꺼내다 다른 옷에 비해 잠옷이 유난히 빨리 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잠옷 재질이 좋지 않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하다 내가 이 옷을 입고 잠만 자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악몽으로 몸부림을 치고 땀을 흘리며 잠을 잘 때는 물론 퇴근하면서 출근할 때까지 내내 내 생활과 함께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하루의 반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계절과 날씨, 그날의 스케줄에 따라 자주 옷을 바꿔 입지만 내 일상생활을 늘 함께하는 잠옷 몇 벌로 1년을 지내고 그다음으로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나는 거의 매일 이 옷을 입고 지낸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내가 가장 편함을 느낄 수 있는 옷, 내게 바깥일과 쉬어야 할 때를 구별해주는 옷,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내다 어느 순간 관심을 가지고 보면 여기저기 해진 곳이 보이고 버려야 할 것 같지만 아무도 보지 않기에 조금 더 입게 되는 옷.

나는 내 어릴 적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다. 나를 안고 있는 아버지는 언제나 편한 메리야스 차림이셨기 때문이다. 집안에서는 물론 더운 여름, 그늘에 앉아 계실 때에도 어김없이 메리야스를 걸치고 계셨다. 내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언제나 양복을 입고 출근을 하시고 결코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셨는데 어린 나를 안고 계시는 사진으로 남아있는 아버지는 내가 기억하는 그 모습과는 아주 달랐다. 가족이 모여 있는 집에서는 모두 잠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런 이물감이 없다. 어쩌면 당연하기 때문이다. 매일 잠옷 입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가족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나는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족의 구성원으로는 살아 봤지만, 가족을 구성하지는 못했기에 그 느낌을 상상할 수 없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이 결혼해 또 다른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들로 북적이는 그 집안 풍경도 역시 상상에만 머물 뿐이다. 내 아이가 나처럼 나이가 들어 가고 늙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또 어떤 기분일까?

커피 한 잔 분량의 물을 주전자에 담아 인덕션에 전원을 넣고 잠시 기다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전자에서 달리기 출발을 알리듯 호루라기 같은 소리가 들려온다. 스틱을 찢어 알갱이 커피를 컵에 털어 넣고 뜨거운 물을 텀블러에 붓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오늘의 아침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늘 이 시간에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익숙한 아나운서의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증폭된다. 어떻게 해야 늘 저렇게 같은 높이와 속도로 기쁘고 슬픈 소식을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고 전달할 수 있을까? 원래 타고난 것은 아닐 테고 연습과 노력에 의한 것이겠지. 정말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할 줄 알고 시쳇말로 멘탈이 강해야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다. 그나저나 저 사람은 이렇게 일찍 뉴스를 진행하려면 새벽에 출근할 텐데, 그럼 친구는 언제 만나고 술은 언제 마실까? 벌써 몇 년째 이 시간에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인간관계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별의별 걱정이 다 든다.

내가 다니는 회사는 공식적으로 9시에 일과를 시작해 6시에 끝이 난다. 아침에는 누가 시킨 것은 아니지만 되도록 모두가 일과 시작 20분 전까지는 출근하려 노력하고 있다. 서로서로 눈치를 보는 것일까? 옛날 보다는 출근이 그나마 몇 십 분 늦어진 것이고 회의를 위한 회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신입사원들은 이런 관행에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다 어느 사이에는 그 문화에 젖어간다. 모두가 다 그래왔다. 나는 퇴근 후 만날 사람이 있다면 대개 7시 전으로 약속 시간을 정한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만날수 있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친구들은 각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쁘다. 팀원들과 이따금 술자리를 가졌었지만, 그 자리에서도 팀장으로 업무 지시를 하는 내 모습을 보며 아, 나도 내가 혐오했던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반성이 들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팀원들과 함께하는 회식의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저 아나운서가 만날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적을지 몰라도 깊이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시간에 여유가 있어 남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만나는 것이지.

역시나 외출할 수 없는 답답한 가운데 찾아온 봄과 관련된 뉴스가 많다. 봄이 오긴 왔는데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으로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없다. 맥락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春來不似春이란 말이 생각난다. 모두가 이제는 그 답답함이 일상이 되어버린 하얀 마스크를 끼고 누구는 희망을 누구는 계속되는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나는 만남보다는 단절이라는 단어가 더 적합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따금 마음에 맞는 친구와 늦은 시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맥주 몇 잔을 하고는 했는데 그런 사소한 기쁨을 느꼈던 만남 그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게 화가 난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이 만남의 제약, 그리고 단순히 어떤 행위를 못 함이 아닌 생업을 위협받는 사람들의 심정은 오죽할까? 모두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 현인들이 명쾌한 정의를 내린 것이 많이 있지만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관계를 통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고들 많이 말한다.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소통하는 만남에 이렇게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짐에 심지어는 나에게도 피곤이 느껴지는데 나와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오죽할까 싶다. 내 삶 자체는 팍팍하게 절망스럽지만 그런 절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뉴스를 통해 자주 만나게 되다 보니 웬지 마음 한편에 그런 사람에 대한 연민이 생긴다. 텀블러에 담긴 인스턴트커피보다 더 빨리 세상에 관한 관심이 식어간다.

남에게 나를 보여줘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준비가 끝난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조심하며 잠옷 목을 늘려가며 벗어 침대 위에 던져 놓고 흰색 셔츠로 내몸을 가린다. 오늘은 회사에서 일상 업무만 처리하면 되므로 옷차림에 그다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군복을 입듯 능숙하게 작업복으로 환복을 마친다. 언젠가 그 사람에게 내가 입는 이 양복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냐고, 남들이 양복이라고 부르는 이 옷이 내게는 작업복이라고, 이 작업복을 입고 벡타이까지 매면 그날은 아주 노동 강도가 심한 날이라고 농담처럼 던졌던 이 말이 늘 생각난다. 물론 그 말을 들었던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잊은 지 오래되었겠지만. 말이라는 게 그런 것 같다. 남이 내 말을 기억해주기를 기대하며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때로는 모든 감정과 전후 사정을 다 떼어내고 걱정하고 직선적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정작 남에게 한 그 말은 나에게 더 오래 남아있다. 남에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날 선 말을 했는데 그 칼날이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내손에 깊은 상처를 남기듯 내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때도 많다. 내가 나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많은 사람에게 퍼부

있던 그 가시가 돋친 말이 부메랑처럼 내게로 모두 되돌아와 나에게 가시가 되고, 거꾸로 자라는 고드름이 되어 결국에는 나를 뚫고 들어와 이렇게 모나고 세상을 비투로 보는 내가 된 것은 아닐까 싶다.

추위를 많이 타기는 하지만 3월이 되면서 겨울 코트를 입기에는 나 자신도 다소 부담스럽다. 충동적으로 코트며 겨울 양복을 모두 드라이 클리닝을 맡겼는데, 요 며칠 아침, 저녁으로는 초겨울처럼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때가 자주 있다. 비닐에 쌓여 다가올 겨울을 기다리며 이른 봄 단잠에 빠진 저 겨울 양복을 뜯어 며칠을 더 입을 것인지 이틀 전까지 고민했지만 목도리를 감고 장갑을 끼는 것으로 추위를 막아보기로 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살아있는 자연의 역동성을 느낄 수 있는, 자연과 잇대어 살아가는 내가 만나고 볼 수 있는 변화중 가장 극적인 것임이 틀림없다. 한때 바뀌는 계절에 맞추어 옷을 꺼내고 집어넣고를 반복해야 하는 게 귀찮아서 어디 따뜻한 동남아에 이민할까 하는 다소 황당한 생각도 했었다. 그 따뜻한 동남아에서도 겨울을 느낀다는 현지인의 말을 듣고 따뜻미지근하게 겨울을 맞느니 차가운 바람 불며 나뭇가지에 매달린 그 마지막 잎사귀까지 떨궈 버리는 그 11월을 지나 창밖을 내다 보았을 때 세상을 온통 하얗게 바꾸는 마법 같은 눈이 내리는 우리나라 겨울이 오히려 좋겠다는 합리적인 변명을 하며 그렇게 내 곁을 찾아오고 또 떠나가는 정든 이 나라에 여전히 살고 있다. 어정쩡하게 겨울과 봄 그 중간에서 있는 이 계절이 불만스럽기도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어느덧 내 곁에 성큼 다가서 나를 살짝 앞장선 봄의 뒤통수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출근할 준비는 모두 끝났다.

07:15~07:19

거실로 나와 출근할 때까지 뉴스를 좀 더 본다. 내 모습은 이미 집을 떠나 직장으로 향할 준비가 마쳐져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내 공간에 머물고 있다. 늘 같은 뉴스를 송출하는 것 같은 암울한 뉴스가 끝나고 다음 뉴스로 전환된다. 아나운서가 그 또렷한 발음으로 뭐라 했는데 제대로 듣지 못했다. 별생각 없이 비어있는 텀블러를 치우려 손을 뻗다가 그 순간 나는 텔레비전 화면에 빠져들고 있었다. 화면에는 연한 연둣빛 사이로 매화꽃이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마을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매년 이른 봄, 매화 축제가 개최되어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 축제가 취소되었다는 그리고 그 매화가 만발한 마을에는 정적이 돌고 있다는 그런 지역발 뉴스였다. 화면을 압도하고 있는 그 작은 점들의 집합, 얇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 매화꽃은 분명히 나에게 이리 오라 손짓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으로 봄비던 그곳에는 오직 매화꽃과 봄바람만이 주인공으로 그 무대에 서 있다. 봄마다 찾아오는 그 열병같은 것이 또 나를 찾아오려나 싶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발바닥이 간지러워졌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꽃가루 때문인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왔다. 아직 도시가 본격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듯 조용함이 세상을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세상 험한 뉴스로만 가득 차 있던 뉴스에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별다른 리포트가 없는 화면에는 한동안 그 흔들리는 매화, 파란 하늘, 그리고 흰 점에 가려 얼핏얼핏 보이는 봄이 내려앉은 땅만 보인다. 웬지 내가 입고 있는 이 작업복, 내가 앉아있는 이 좁은 방이 이 낮선 정적과 이 이른 봄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정적을 깨는 나의 두 번째 알람. 이제 집 밖을 나설 시간이다. 지금 출발하면 여유 있게 회사로 향하는 버스를 탈 수 있다. 7시 19분. 나는 아귀를 딱 맞춘 시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개의 사람은 10분 단위로 스케줄링을 하지만 나는 그 10분에서 1분이 모자라는 시간에 알람을 맞춘다. 그 1분에서 굳이 여유를 찾으려 애쓰는 내 모습이 때로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그 1분은 팍팍한 내 삶에 있어 복잡함과 여유로움, 겹침과 분리에서 절대 작지 않은 이격이 되어 준다. 화면에는 여전히 뉴스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풍경과 음악이 흐르고 있지만 전원을 끄자 모든 것이 원상태로 돌아온다. 신기루가 사라지듯 내 눈과 귀를 잠시나마 빨아들였던 그 모든 것들이 원래 없던 것처럼 다시 검정빈 화면으로 덩그러니 거실에 놓여 있다.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출근을 위해 어제저녁부터 신발장 위에 올려 두었던 가방을 그대로 메고 집을 나선다. 이제 안전하게 어제와 같은 일상을 시작만 하면 된다.

햇살이 비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명암이 대비되는 계단, 그 계단에 비스듬히 비치는 햇살이 오늘 아침에는 얼마나 더 사선으로 비치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이 되었다. 이제는 내 발에 꼭 맞게 된 구두를 신고 이미 계단을 몇개 내려가며 내 걸음 뒤로 쿵 소리를 내며 닫히는 문에 달린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소리가 들린다. 그 밝고 어두운 계단을 몇 번 돌아 현관으로 나선다.

07:19~07:21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얼마나 충동적인 사람인지. 하지만 나도 몰랐다. 나만의 소유는 아닌 모든 이들이 함께 사용하는 그 현관을 나선 뒤 어제와는 사뭇 다른 일상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모든 일에는 낯새가

있기 마련이다. 하물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도 그 사람의 속내를 알아낼 수 있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다. 하물며 나의 행동은 어느 정도 내가 의도한 바가 있어야 실전에 옮겨진다고 나는 믿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오늘 예정되어 있던 일상에서 반대 방향을 선택했다. 물론 당장 지금 되돌린다면 어제와 같은 일상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나는 나를 안다. 어제와는 반대로 틀어버린 내 발걸음이 어제 궤도로 절대 되돌아가지 않을 것을 말이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기 위해서 나는 현관에서 나온 후 오른쪽을 향해 신호등 두 개를 건너 광역버스를 타러 가야 했지만 지금 나는 왼쪽을 향하고 있다. 정말 아무런 준비도 의도도 없었다. 완전히 충동적으로 나는 출근해야 할 방향과 정반대 방향을 선택했고 결국 나의 평범한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리게 된 것이다. 절대 멈출 수 없는 마법의 구두를 신은 듯 내 발걸음은 일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회사에 뭐라고 얘기해야 하나 따위의 걱정은 아예 들지도 않는다.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어디인지 나도 모르는 가운데 왼쪽을 향해 무작정 걷는 게 가장 급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바쁜 걸음을 재촉한다. 오늘 새벽 일어났을 때 이유를 알 수 없었던 그 땀이 흘렀던 그 목덜미에 3월, 이른 아침의 차가움이 다시 내려앉는다. 새벽에 느꼈던 그 차가운 느낌이 미끄러움 내지는 끈적임이었다면 지금 이 차가움은 시림 내지는 스쳐 지나감이란 생각이 든다.

집에서 나온 후 2분의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 나는 일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그 간극, 어딘가 깊은 틈새에 빠져들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낮췄이 전혀 낮설거나 걱정이 되지 않는다. 잠시 고개를 돌려 오른쪽, 아니 내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건넌어야 할 그 신호가 막 초록에서 노랑

으로 바뀌고 있다. 어제의 나는 저 신호를 건너 다음 신호를 향해 부지런히 걷고 있었는데 어제와 같은 차림을 한 나는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제와 같은 속도로 그 반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그 사실에 의도치 않은 웃음이 흘러나왔다. 그나저나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또 충동적으로 내 일상을 이처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일까?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 중 이 2분은 사실 기억되지 않을 시간이고 사무실에서 잠시 다른 생각을 하며 의도치 않게 흘러보내도 내 25일 급여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들지 않을 정말 사소한 시간이다. 하지만 지금 내가 보낸 이 2분은 나의 일과, 좀 거창하지만, 앞으로의 내 인생 여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이왕 이렇게 된 것, 좀 더 왼쪽으로 올라가 보자.

무의미한 시간의 기록

오늘 나에게 시간은 더는 어떤 유의미한 의미가 없다. 지금부터는 시간이 아닌 상황이 중요하다. 하루를 시작한 지 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나는 또 내 충동에 굴복하고 말았다. 내 거침없던 발걸음은 초록 신호를 기다리는 그 몇 분 동안 멈추어 설 수밖에 없었다. 내 옆에서 있는 사람 숫자보다 저 건너편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려는 사람들 숫자가 배는 되는 것 같다. 아마 어제 내 뒤로 길게 늘어서 있던 나와 같은 방향의 버스를 타려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제는 내 뒤에 있어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오늘은 저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으니 그들 얼굴을 모두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그저 저 사람들은 나와는 관련 없는 타인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버스 안, 옆자리에 앉은 사람도 서로서로 철저히 외면하며 그냥 나에게 아무런 불편 없이 그저 잘 스쳐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타인이다. 바람이 화단의 꽃을 잠시 쓰다듬고 지나가듯 무심히 지나간다. 저 낮선 사람들 사이에 내가 아는 얼굴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난다고 해도 익숙한 곳이 아닌 의외의 장소에서의 우연한 만남은 아마 서로에게 불편한 일이 될 것이다. 초록 불로 바뀌기 전 마음 급한 몇몇 사람은 이미 횡단보도에 뛰어들고 고개를 숙여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들이 건너자 그들 뒤를 따라 길을 건넌다. 아무 급한 것도 없는 나는 괜히 그간의 관성인 듯 남들보다 조금 앞서 길을 건넌다.

그나저나 회사에는 뭐라고 얘기를 한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무모함인지 용감함 때문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아무런 염려가 되지 않았던 회사도 현실로 다가온다. 그리고 나도 오늘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이대로 온종일 걸어 다닐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발걸음을 돌려 회사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출근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 내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한다. 마침 커피 전문점이 눈에 띈다. 주문하자 당연하다는 듯 테이크아웃이죠? 하는 확인을 해온다. 나도 모르게 네라고 대답할 뻔했다. 커피와 베이글을 받아 들고 창가에 자리를 잡는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넓은 매장 좌석이 비어있다. 그리고 보니 오늘 벌써 두 번째 커피다. 평일 오전에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것이 얼마 만인가? 일단은 휴대전화로 동료에게 오늘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

출근이 힘들게 되었다, 미안하지만 내일까지 휴가를 부탁한다, 부장님께는 직접 연락을 드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낸다. 예정에 없이 내일까지 이틀간이나 휴가를 부탁한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이미 메시지는 보내졌고 되돌릴 수도 없다.

8시 10분. 최부장께 전화를 걸어도 괜찮을 것 같다. 망설임은 내 내면의 갈등만 더 부추길 것 같아 짧게 심호흡만 한 번 하고 바로 전화를 걸었다. 아, 이 음악 소리가 들리면 안 되겠다 싶어 얼른 카페 화장실로 달려간다. 다행스럽게 몇 초간 시간이 흐른 뒤 전화를 받는다. 최부장 목소리에는 숙취가 잔뜩 담긴 쉼소리가 느껴진다. 갑자기 개인적인 일이 생겨 내일까지 휴가를 내게 되었다, 휴가는 박 팀장에게 부탁해 두었다, 정말 죄송하다는 준비 안 된 내용으로 구실을 만들어 통화를 한다. 나도 모르게 허리를 몇 번 굽혔다 피기를 반복하고 있다. 관심 없다는 듯 알았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급한 연락은 받도록 하고 모레, 아니군, 모레가 토요일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봐요. 문득 내가 십수 년간 열심히 일해 왔던 회사에서 나의 안부는 별로 궁금한 일이 아니구나, 어쩌면 내가 당장 오늘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왜 퇴직을 하느냐, 급한 프로젝트는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다시 생각해 보라 등등 나를 붙잡고자 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직선 상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참에 나를 대체할 그 누구 중 자신의 성향이나 의도에 잘 맞는 사람을 끌어 올리거나 옮겨올 생각을 할 것이고,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는 좀 더 편한 그 누가 오기를 기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회사 차원에서 나는 대체 가능한 자리에 있는 그 누군가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내 자리로 돌아와 보니 내가 들고 왔던 가방, 내가 받아온 커피와

베이글이 당연하다는 듯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다. 진한 커피 향이 느껴지는 이카페의 커피는 내가 아침에 마셨던 그 인스턴트커피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커피라는 보통명사에서 자기들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해 제대로 발음이 되지 않는 복잡한 이름을 창조해내는 그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어렵듯이 알것 같다. 이 카페도 역시 우리 카페 커피는 당신이 방금 마신 그 커피와는 완전히 다른 커피입니다, 원두는 저 야생의 숲결이 살아있는 그곳에서 재배된 최고급 커피콩을 정성껏 선별하여 때 묻지 않은 청정 햇살에 말려 커피 특유의 향을 살리기 위해 전 세계 55개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한 우리만의 방식으로 볶아 등등의 장황한 스토리를 걸어 놓고 있다.

나야 커피에 대한 지식이 없어 단순히 향이 좋다, 진하다는 것 정도의 변별력 밖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음악과 함께 인테리어가 잘 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 기분이 아주 좋아진다. 여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와 대조적으로 내 머릿속은 아직 아무런 정리도 되지 않는다. 당장 이 커피를 다 마신 후 내가 무엇을 하게 될지 나조차도 알 수 없다. 회사에는 애매한 표현으로 이틀간 시간을 벌어 놓았지만 이틀간 무엇을 할 것인가? 아니, 당장 앞으로 30분 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생각도 없다. 딱딱한 내 현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 같은 적당히 따뜻하고 촉촉한 베이글에 버터를 바르고 적당히 쓰고 구수하고 약간 단맛도 느껴지는 튼튼한 머그잔에 담겨있는 커피를 음악과 함께 음미한다. 내 이틀간의 시간이 이 음악처럼 여유롭게 내 걸을 흐르고, 이 커피처럼 고급스럽게 나를 적셔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08:30~08:50

나는 여전히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채 카페에 앉아있다. 몇 사람이 급하게 들어와 짧게 그들의 주문을 넣고 종업원에게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못 하게 하겠다는 듯 묻기도 전에 테이크 아웃이요, 적립은 안 해요. 라는 말을 덧붙인다. 모두가 바쁜 일과를 시작하고 있었고 나는 잠시나마 안락하게 느껴졌던 카페에서 갑자기 답답함이 느껴진다. 빈 잔과 접시를 정해진 곳에 놓아두고 여전히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커피와 빵 향기가 가득 차 있는 카페 문을 열고 다시 밖으로 나온다. 봄바람을 느끼고 싶어졌던 장갑을 가방에 넣고 달리 목적지 없이 길을 따라 걸어본다. 카페에 들어갈 때까지는 분명 출근길이었는데 불과 몇 분 사이에 등갯길로 거리풍경이 바뀌어있다. 신학기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일까? 학생 교복이 내 양복보다 더 낮게 보이고 그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자신감에 넘쳐있는 것처럼 보인다. 목련꽃보다 더 하얗고 빛나는 교복 와이셔츠, 단정하게 그 셔츠 목을 감싸고 있는 넥타이, 학교 상징이 크게 가슴에 박혀있는 재킷 등허리에는 그들이 지금 가진 꿈과 앞으로의 기대, 그 무게만큼 무거워 보이는 가방이 모두 걸려있다. 마스크를 낀 채로 그들은 만의 언어로 크게 소통하고 있는 쾌활한 그들을 보며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는 생각이 자연스레 든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중·고등학교 시절, 부푼 꿈을 갖고 캠퍼스 교정을 밟았던 그 의욕에 찬 스무 살. 소위 말하는 명문대학교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노력한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성적으로 집에서 가까운 국립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입대 전까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그간 몇몇 동기, 선배들과 아주 친해졌고 그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날아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시간은 나만큼 빨리 흐르거나 나보다 빨리 흘렀고 우리는 원래 몰랐던 상태로 아주 빨리 멀어졌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나는 이미 고향 집에서 가까운 지역 농공단지에 사무실이 있는 나를 건설했던 기업에 취업이 확정되었다. 내가 처음 다녔던 그 직장에서는 나는 내가 일한 만큼의 충분한 대가를 준다고 생각했다. 나는 생산직이 아닌 소위 사무직이라고 부르는 총무팀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매일 누군가가 누군가와 먹은 식사 영수증을 정리하고, 누군가의 노동과 수고를 금액으로 환산해 주며 몇 단계에 걸친 절차를 통해 빨간 도장을 받아내 내 통장이 아닌 통장에서 돈을 꺼내 다른 사람 통장에 입금했다. 이미 회계 처리와 관련된 많은 절차는 전산화가 끝난 뒤였지만 여전히 그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몇 개로 나뉜 장부에 수기 정리도 함께해야 했다. 나는 장부에 글씨를 좀 더 잘 쓰기 위해 글씨 연습을 따로 했고 심지어는 숫자 쓰는 연습도 했다. 결과적으로 지금도 신청서라든지 고객 카드와 같이 누군가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서류에는 내 글씨체가 아닌 그때 연습한 글씨체로 글씨를 쓴다. 이따금 낙서할 때만 이응을 뽀뽀처럼 납작하게 쓰는 내 글자체가 나타난다. 사무실에서 영수증을 붙이고, 복사와 스캔을 하고, 이따금 서버 접속이 잘 되지 않는 시스템에 차곡차곡 자료를 입력하고 손으로 장부를 쓰고 은행 다녀오면 어느덧 그 길었던 하루가 지나가고 시계는 퇴근 몇 시간 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그냥 그 회사의 소속 직원이고 그곳에서 나는 굳이 직업을 통한 내 능력 발휘와 같은 나의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스며들어 직장생활을 하면 그저 그만이였다. 하지만 이런 권태로운 직장생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가 어느 순간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나는 이직이라는 힘든 길을 선택

했었다. 결국 이 모험은 최소한 남들이 보기에는 대성공으로 나타났다. 나는 그때보다 훨씬 좋은 보수를 받는 도시에 소재한 대기업에 합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요즘 그 회사에서도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들고 있다. 또 병이 도지려나 보다.

직장인 출근으로 바꿨던 아침 1장은 학생 등교라는 아침 2장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어린이집 등교라는 아침 3장이 펼쳐지고 있다. 똑같은 가방을 메고, 똑같은 모자와 유치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누군가의 손을 꼭 붙들고 버스에 오르고 있다. 정확히 정해진 지점에 정해진 시각에 도착한, 자신들 정체를 당당히 밝히듯 유치원 이름이 옆구리에 박힌 노란색 유치원 버스는 그 좌석 개수보다는 적은 수의 귀여운 아이들을 소중히 싣고 정해진 유치를 향해 운행하고 있다. 저 버스는 그들만의 약속에 따라 아마 몇 분의 오차도 없이 이 바쁜 아침에 정확하게 운행되고 있을 것이다. 입사 후 서서히 자리가 잡혀가던 무렵, 동기로부터 아침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저녁에 ‘받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아이를 그냥 버스에 태워 보내고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 그 일이 힘들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었다.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대부분 출근하고, 큰아이들은 등교한 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보냄에 있어 누군가 이 이들과 동선을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어린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안전한 자기 집에서 데리고 나와 이 거리에서 자신을 대신해 일과 중 그 아이를 돌봐줄 그 누군가의 손에 내 아이 손을 쥐여 준다는 이 행위가 결코 단순한 일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을 보내는 어른들 모습도 흥미롭다. 편안한 복장으로 모자를 꼭

놀러온 사람들은 아이들 버스가 출발하는 모습을 보고 재빠르게 집으로 되돌아가는 반면 외출 준비를 마친 사람은 삼삼오오 짝을 이루어 어디론가 함께 이동한다. 누가 봐도 나와 같은 출근 복장을 한 사람들은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켄겔음으로 각자 갈 길로 흩어지며 누군가는 전화를 걸며 바쁜 일상을 시작하고 있다. 나는 내 아이를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이들을 둔 부모의 애뜻한 정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내가 보아온 아이들은 언제나 때를 쓰고 있거나 낯선 사람의 질문에 침묵하는 아이들뿐이었다. 이름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라는 질문에 아이는 울음을 터트리거나 입을 굳게 다물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변호하기 위해 곁에 서 있는 가족이 네 살이에요, 라고 해야지, 애가 평소에는 말을 잘하는데 오늘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라고 말하곤 했다. 그래서 나는 서너살 된 아이들이 그네들 가족들과 있을 때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의사를 표현한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요즘은 육아 관찰 프로그램이 워낙 많아서 간접적으로나마 그 아이들도 분명히 가족들에게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새삼 저 어린 나이에도 자아와 욕구가 어른과 다름없이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필요를 정확히 말하고 요구하는 것에 깜짝 놀랐다. 이미 노화가 시작된 어른인 나보다 그들은 더욱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이들이 다시 각자 가정에 모이면 자신의 힘듦을 타인이 이해해주길 바라며 그들의 배려 없음에 서운해하거나 하루 일상을 잘 살아주었음에 감사하며 저녁을 함께 나누겠지. 그 저녁은 이 아침보다는 좀 덜 분주하고 각자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관찰자로서 몇 걸음 떨어져 그들 모습을 보다 보니 떠돌아다니는 별처럼 이

세상을 각자 여행하고 있는 우리는 행성이 태양을 한 초점으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공전하듯 어쩔 수 없이 일상을 초점으로 하여 돌고 또 도는 것이 아닐까 싶다.

나에게로, 회귀의 시간

언제부터 내가 나를 남과 비교하며 이렇게 자신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 나는 남과 비교해서 제법 잘살아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에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재취업을 했고 동기들과 비교했을 때 그다지 늦지도 빠르지도 않게 팀장이라는 중간관리자까지 승진했다. 결혼정보업체에 다닌다는 동창생 말로는 ‘조건만 보면’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긴 했지만 ‘당장 결혼할 마음만 있다면’이라는 또 다른 단서가 달려 있었지만 ‘내일이라도 당장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줄 수 있다.’라고 말했었다. 편안한 사이니까 하는 말이지만 직장이나 연봉이 그 사람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남들과 비교할 수 있는 잣대는 충분히 된다는 그런 속물 같은 말도 덧붙였었다. 이 말을 들으면서 나는 뜬금없이 자신감이 들었고 나를 불행하고 자신 없게 만들어가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나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의도적으로 나 자신을 찾으려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내가 어때서, 내 삶이 어때서, 내가 정말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언제든지 남과 같은 궤도, 아니 그들보다 한 단계 높은 궤도에 진입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허영심마저 들었었다. 하지만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그 궤도에 진입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어쩌면 영원히 진입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늘은 유난히 나를 긍정하지 못하고 더욱 부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나는

나를 이토록 불신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보니 오늘 새벽에 꾸 꿈이 생각나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 오늘도 분명히 나는 “나는 나로 돌아가야 해!”, “나는 나로 돌아가야 해!”, “나는 나로 돌아가야 해!”라는 비명을 지르다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사실 요 며칠 나는 언제나 이런 주문 같은 말을 되뇌며 잠에서 깰 때가 많았다. 아무도 없는 내방. 누군가 옆에 있었다면 화들짝 놀라 단잠에서 깰 만큼 그렇게 크고 또렷한 소리를 지르며 나는 내 상체를 벌떡 일으켜 세우곤 했었다. 돌아가야 한다고 했지만 정작 내 발은 침대에 묶인 듯 아니 내 몸에서 분리된 듯 그렇게 이불에 묻혀 여덟팔자로 힘없이 벌어져 있었다. 이런 몸 상태로는 돌아가기는커녕 이 침대 밖을 벗어날 수도 없을 게 분명하다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쓴웃음이 흘러나오곤 했었다. 지금까지 나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지나온 그 과거에 다시 발을 들여놓을 그 어떤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돌아가고 싶은 곳도, 과거도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틀간 시간이 있으니 어쩌면 내게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얼핏 스쳐 지나간다.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는 그 원인이 있다.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잠에서 깨어 출근 준비를 하고, 실제로 출근하다 충동적으로 왼쪽으로 향하고, 더욱 충동적으로 전혀 예정에 없던 휴가를 이틀이나 냈던 나, 이 모든 충동적인 일들은 어쩌면 나에게로 회귀하기 위해 지난 며칠간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무의식이 나를 조종한 것은 아닐까 하는 황당하고도 오싹한 생각이 든다. 괜찮다. 지금 나는 충분히 나를 의식하고 있고 비록 내가 어디를 목적지로 걸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길어야 이틀 후면 나는 내가 머무는 내 집으로 되돌아갈

것을 알고 있기 아니,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의 이 충동적인 직장 이탈의 유효기간은 이틀이다. 이틀만 지나면 나는 다시 나의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카페에서 나는 즉흥적인 이틀간 휴가 중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보았지만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어머니가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머니가 계셨으면 잠시 고향에 내려가 쉬었다 와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부질없는 생각이다. 아버지를 따라 어머니도 내 곁을 떠나가신 게 벌써 몇 해 전이다. 부모님 생전에 나는 실제로 일이 바빠서 때로는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기 위해 설, 추석과 같은 명절에도 번번이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거나 안 할 때가 많았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번 설에도 못 내려온다고? 하는 목소리에서 아쉬움과 서운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번에 못 뵈면 다음 명절에 뵈면 되느냐며 아주 쉽게 말을 하고는 했었다. 어머니와 함께 지내시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고 홀로 되신 어머니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설날과 추석에는 의식적으로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으로 향했었다. 하지만 긴 휴일로 이어지는 설날과 추석은 며칠의 휴가를 붙이면 제법 긴 휴가를 즐길 기회가 되었고 나는 그 연휴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녀오곤 했다.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낸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은 몇 년간은 잘 지켜졌지만 이내 흐지부지해졌다. 그사이 어머니는 점점 나이를 먹는 게 아닌 연세를 드셔 가셨고 결국 늘 나를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던 그 어머니는 아득한 눈빛을 내게 보내시며 망각의 심연에 잠기셨다. 결국 나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고향도 함께 상실해버렸다. 여행이라는 것, 여러 사람과의 만남은 꿈꾼다고 해도 결코 내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는 체념으로 다가오고 말았다. 이럴 때 어머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과

이맘때 집 뒷산에서 봄 향기를 듬뿍 담은 봄나물을 살짝 데쳐 어머니가 담그신 된장을 찍어 먹던 그 봄날의 정서가 참 그리워지는 오늘이다.

다시, 08:50~08:55

삭막한 도시에서 봄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도로변 화단에는 자주색, 노란색, 흰색 팬지가 한껏 심겨 있다. 이론적으로 어지간한 추위는 견뎌 내고, 한두해는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이 꽃의 수명은 길어야 몇 달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팬지는 알록달록한 피튜니아, 정열적인 빨강의 제라늄과 샬비어로 바뀌어 여름을 맞게 될 것이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이면 그냥 국화로 통칭하는 꽃으로 바뀌어 서리가 내리는 그 순간까지 아름답게 나를 반겨줄 것이다. 개성 없이 꽃을 받쳐 주는 저 화분은 오히려 사시사철 변함없이 이 거리를 지키고 영원한 주인공일 것 같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저 꽃은 결승점을 향해 열심히 400m를 4명이 나눠서 달리는 계주선수처럼 배턴을 다음 주자로, 다음 주자로 넘기며 자신의 화려함이 길지 못함을 곧 깨닫게 되겠지. 그리고 나처럼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그 화려한 꽃들의 변화보다 더 변화무쌍한 사계절,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다. 화단에 피어있는 저 꽃에도 분명 향기가 있을 텐데 바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자동차 때문일까? 한 번도 꽃향기를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가파른 사면에 매달려 있는 철쭉은 아직 꽃망울이 나오지 않았지만 혹독한 겨울을 이겨낸 짙은 초록 잎사귀 사이로 연한 연둣빛 새순이 자라고 새잎이 돋아나고 있다. 정원에 피어 있으면 단 한그루만으로도 충분한 사랑을 받았을 꽃나무인데 이렇게 도로에 서로 뿌리를 엉켜 하나의 군락을 만들어야 바빠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 그나마 몇 초 동안 인식되며 풍경으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문득

존재란 무슨 의미를 갖는가를 생각하게 된다.

어릴 적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지금도 저렇게 피어 있는 꽃을 보면 금방이라도 스케치북에 그려보고 싶은 충동이 들곤 한다. 사람들은 내가 그린 그 완성작을 보고 이런저런 좋은 평가를 하며 나를 칭찬해주었다. 나는 그런 칭찬이 마냥 좋았다. 내가 그 그림을 완성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망설임의 밑그림을 지웠어야 했는지, 그 두꺼운 지우개 똥이 내가 짜내어 쓴 저 물감보다 더 많다는 것은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도 내가 어릴 적 그랬던 저 그림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선택해야 할 그 순간에 나는 언제나 망설였고 그렇게 많은 기회가 지나갔으며 나는 내게 다시 돌아오는 그 아까운 기회 역시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흘려보내기만 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나로 나아가고 있고 지금의 내가 되기까지 많은 망설임의 시간은 이미 그 내용물은 모두 소비되어 버렸지만, 그 껍데기는 여전히 남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쓰레기 적치장처럼 내 뒤에 거대하게 산을 이루고 있다. 그 머뭇거림의 시간을 내게로 되돌릴 수도 없지만 설사 다시 그 시간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는 데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도저히 감당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지우개 똥은 그 선을 지우는 그 행위가 끝남과 동시에 쓰레기통에 부스러기인 그 상태로 들어가면 된다. 사람들은 과거 나의 망설임의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금 내 모습에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성적인 나는 굳이 그 망설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하지만 그 이성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곳의 나는 되돌아감을 또한 소망하고 있다.

천천히 다시 주변을 둘러본다. 햇살이 아직은 앙상해 보이는 나뭇가지 사이로 부챗살 모양으로 넓게 퍼져나가고 있다. 거리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인가 싶을 정도로 차량과 지나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달리는 차소리에 묻혀 있던 새소리도 들려오고 아직은 끝이 약간 시린 봄바람도 그대로 내게 느껴진다. 눈앞에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쪼아 먹고 있는 저 참새는 참 경이로운 생명체이다. 아주 많은 나라를 여행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본 중국,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참새와 육안으로는 차이점을 알 수 없는 똑같은 종류의 참새를 만났다. 심지어 잉글랜드와 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텃새로 살아가는 녀석들을 만났다. 몸집이 큰 것도 아니고 자신을 숲에 꼭꼭 숨기고 살아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거리를 활보하며 당당하게 자리를 잡고 살고 있단 말인가? 안타깝게도 세상에서 절멸되어 가는 생물 목록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참새는 어떻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두루 퍼져 다른 종과 크게 경합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 시간이 늦게 흐르니 내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그만의 의미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 오늘은 아침 내내 생각이 생각을 불러오고 있다. 오늘처럼 현재와 과거가 계속 겹치면서 동시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상태로 아침을 맞은 적은 없는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계속 직진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린다.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버스터미널이 있다는 표지판이 보인다. 그래,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떠나야겠다. 집 가까운 주차장에 내 승용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 차로 이동하기 위해 다시 온 길을 되돌아가기는 싫다. 재충전을 위해 여행을 다니려고 큰맘 먹고 나름 괜찮은 중고차를 샀지만 사실

대부분 시간을 달리는 게 아닌 대기하는 데 쓰고 있는 내 차는 주유비보다 주차비가 더 많이 든다. 오늘 같은날 승용차로 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곳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계획 없이 길을 나서다 보니 결국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된다. 충동적인 소비와 충동적인 결정. 하지만 후회나 불편함은 없다. 터미널을 향해 걸어가니 가는 곳이 생긴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다.

다시, 무의미한 시간의 기록

당연한 얘기지만 목요일, 시외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터미널은 사람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한산했다. 하기가 요즘 같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해 여행을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여행 자체에 관한 생각이 거세당했을 뿐 아니라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진즉에 가보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던 곳을 자가용으로 목적지까지 쉽 없이 달려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화려한 식사를 하고 마스크를 쓴 채 인증 사진 몇 장 찍는게 전부인 그런 여행을 하고 있다. 터미널에 오긴 왔지만 이런 현실이 각성되며 잠시 망설임이 생긴다. 내가 직업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에 충동적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정에 없던 이틀간의 휴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왔다가 혹여 직장에 피해라도 주면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생각이 나를 비집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대범하게 충동이 이끄는 대로 계속 오늘 일과를 진행할 것인지 멈추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찾아온 곳이다. 물론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이틀을 보낼 방법은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다시 집에 되돌아가 잠옷으로 갈아입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수도 있고, 꼭 여행을 가야했다면 자가용으로 이동해도 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실행시키는 데에는 30분? 천천히 하더라도 1시간이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용기가 생긴다. 만원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전과 비교해서 횡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지만, 대중교통을 통해 멀리 떨어진 고객사를 만나 미팅을 한 후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 내 가방에는 언제나처럼 여분의 마스크 몇 장과 손 세정제도 들어있으니 출근할 때처럼, 출장 갈 때처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용기인지 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임은 분명해졌다.

삶을 과학용어로 쓰는 것이 탐탁하지는 않지만,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때로 나는 흔적이 남는지 아닌지로 구분할 때가 많다. 무엇인가 지우거나 수정된 흔적을 내가 알아챌 수 있다면 이는 아날로그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언제나 원래 그런 것처럼 보인다면 이는 디지털이라고 나는 정의한다. 나는 지금 터미널에 걸려있는 아날로그 시간표를 올려다보는 중이다. 흰색 아크릴에 빨강으로 인쇄되었던 저 목적지와 시간은 하얀 종이로 덧대어 수정된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반면 내 휴대전화로 이 터미널을 검색하면 현행화 되어있는 현재 시점의 간결한 시간표와 요금표만 나타난다. 디지털적 삶은 타인이 무엇이 수정되었는지 도저히 유추할 수 없다. 아날로그에는 감성이라는 말이 제법 잘 들어맞는 것 같다. 하다못해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저 단순한 시간표와 요금표를 보면서도 나는 이전에는 버스로 연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단절되어버린 노선의 흔적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한때 이 터미널을 통해 이동했을 그 어떤 사람이 겪었을 아쉬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감성도 느낄 수 있다. 요즘에는 대부분 시간표가 디지털로 표시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간표도

언제일지 모르는 나중에 내가 이 터미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디지털로 대체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손 세정제를 듬뿍 묻혀 비비며 발매창구로 향했다. 승차권 발매 키오스크도 있었지만,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터라 지금부터 수십 년 전인 나의 20대 시절처럼 선택을 시간과 운에 맡기려 한다. 어디까지 가세요? 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지금 바로 출발하는 버스로 한 장 부탁드립니다. 목적지가 따로 없으세요? 네, 아무 데나 괜찮으니 바로 탈 수 있는 표로 부탁드립니다. 10분후에 강릉행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강릉? 왜 하필 강릉일까? 하지만 내입에서는 네, 좋습니다. 라는 대답이 나왔다. 어쩔 수 없다. 아무 데나 달라던 사람이 강릉이 싫다고 하면 저 보이지 않는 사람은 분명히 나를 한 번 더 쳐다볼 것이다. 그런 낯선 눈길을 또 받고 싶지는 않다. 네. 우등이에요, 24,500원이에요. 네, 몇 시간 걸립니까? 3시간 정도 걸려요. 중간에 정차하는 곳이 있나요? 네, 두 군데 정차해요, 표 드려요? 아, 네. 한 장 부탁드립니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생뚱맞게 아무 데나 가는 표 한 장 달라고 하더니 이것저것 질문을 하면 이 사람이 정말 갈 사람이 맞나 싶었을 것이다. 내 차림은 누가 봐도 출장을 가는 모습이다. 그런 사람이 아무 데나 가는 표를 달라고 하니 이 사람이 지금 장난을 치고 있나? 싶었을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참 고마운 분이다. 만약 지금 내가 짧은 시간에 물어본 이 질문을 인터넷으로 찾아야 했다면 아마 몇 분의 시간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경험 있고 지식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3번 승차장이예요. 저쪽 끝에 있으니까 얼른 가세요, 지금부터 승차 가능해요, 그리고 차내에 음식물 반입 금지인 거 아시죠?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라는 염려가 마치 혹시 돌아오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묻어 있는 듯하다.

어쨌든 그 끝인사가 참 인상적이다.

예상대로 버스는 나를 포함하여 승객은 고작 세 명이다. 젊은 연인들과 나. 9시 10분이 되자 안내 방송과 함께 버스가 출발한다. 예정대로라면 12시 15분에 강릉 도착이다. 세 시간의 여유를 사는데 24,500원 이면 꽤 괜찮은 거래라는 생각이 든다. 이 버스는 한 번은 사람을 더 태우기 위해, 한 번은 휴식을 위해 2번 정차를 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표를 사면서 굳이 안 물어봐도 됐었을 텐데. 이렇듯 필요한 정보는 때로 뒤에 알게 될 때가 많다. 강릉, 나의 이 계획 없는 여행이 강릉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익숙한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것에 안도가 든다. 세상은 변한것이 없고 오직 내 상황만 변한 것 같다. 강릉은 여전히 바다를 품고 있을 테고 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있는 그 카페는 지금도 사람들이 테라스에서 아득히 바라보는 그 푸른 소나무 너머 펼쳐지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보기 위해 찾아오겠지. 강릉으로 향하는 내 옆자리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 그 사람은 곁에 없다. 홀로 추억 가득한 그곳을 찾아가게 될 줄은 몰랐다. 그 사람과의 마지막 여행지였던 강릉. 그때 함께 여행에서 되돌아오면서 다음에도 함께 강릉으로 여행하자고 했었는데 그다음은 쉽게 오지 않더니 결국 오지 않았다. 그간 휴대전화기는 몇 번을 바꿨지만, 그 사람 전화번호는 지금도 여전히 저장되어 있다.

09:20-10:20

버스가 출발한 지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혼자 살지언정 늘 ‘우리 집’ 이라고 불렀던 그곳에서 너무 멀어진 기분이 든다. 지금쯤 내가 원래가 있어야 할 내 직장과 일시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지점이 분명히

있지만,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지금 나를 싣고 달리고 있는 이 버스는 정해진 그 길을 달려 직장이 아닌 강릉에 내려놓을 것이다. 세 시간을 함께 달린 우리는 그곳에서 그 시간을 함께했다는 것에 아무런 의미를 둘 필요도 없이 인사도 없이 버스를 떠날 것이고 이 버스는 또 누군가를 태우기 위해 우리 흔적을 깨끗이 정리할 것이다. 버스는 돌아 오고 떠나가는 그 여행을 계속할 것이고 나를 포함한 우리는 또 우리만의 긴 일상에서 수많은 사람 중 그저 한 명으로 바쁘게 어딘가를 오가며 스쳐 가게 될 것이다.

여전히 복잡한 내 기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봄볕이 환하게 퍼진 길을 따라 강릉행 버스는 신나게 바람을 가르며 달려 나가고 있다. 그나저나 이렇게 몇 시간을 버스로 이동하는 건 참 오랜만이다. 음악이 흐르듯 차창으로 풍경이 흐르고 이른 봄을 맞아 햇살을 가득 담은 강물이 한껏 은빛을 뿌려댄다. 모든것이 절정의 생명으로 깨어나고 있는 이 봄, 햇살 아래에서 나는 버스만 타면 단잠에 빠져들었던 그 열정에 가득 찼던 나의 지금보다 훨씬 젊었던 그때를 추억한다.

굳이 잠을 잘 필요는 없지만, 눈을 뜨고 있어도 딱히 할 일이 없어 눈을 감는다. 외부로 향하는 시야는 차단되었지만 나는 햇살을 통해 밝음과 어둠을 느낄 수 있다. 눈을 떴을 때보다 그 명암이 더욱 극명하게 대비된다. 내 생각도 급히 과거로 갔다 현재에 되돌아오고, 미래로 더 미래로 후퇴와 전진을 반복한다. 롤러코스터를 처음 탔을 때 정점에서 잠시 정차했다 쏜살같이 아래로 내 몸이 쏠려 내려갈 때 다시 올라오거나 언젠가 멈출 것을 알았지만 내 입에서는 두려움과 기대 그 사이에서나 나올 것 같은 감탄사가 나왔었다. 지금도 급하게 생각이 오가며 살짝 어지럼증이 느껴진다. 생각을 비우기 위해 머리를 흔들어 보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는

내 생각의 흐름을 막아낼 수 없다. 얼마나 지났을까? 달리는 버스 리듬을 따라 몸이 조금씩 흔들리더니 머리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을 느끼며 아득히 잠에 빠져든다. 기분 좋은 파스함이 몸을 감싼다. 역시 긴 고민은 그 짧은 수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한다.

눈을 뜨니 어두운 사무실 서랍에 들어가 있어야 할 내 가방은 지금 내 무릎 위에 얹혀 파사로운 봄별을 찍고 있다. 바로 옆 빈자리에 던져 놓아도 되지만 중요한 것도 없는 이 가방은 습관 때문인지 내 몸에 지금도 붙어있다. 몇년 동안 늘 오른쪽으로 늘어뜨려 메고 다녔더니 이제는 내 몸의 일부라고 말해도 전혀 이물감이 없다. 왼쪽 어깨를 지나 오른쪽 허리로 흐르는 가방끈은 내 어깨에서 가장 편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홈을 찾았고 처음에는 뻣뻣한 종이가방처럼 각이 잡혀있던 가방 뒷판은 이제 내 허벅지에 착 달라붙기 위해 살짝 일그러져있다. 이 가방도 무료하게 늘 사무실과 집만 오갔는데 오늘은 뜻하지 않게 이 녀석도 하루 휴무구나 하는 생각에 피식 또 웃음이 흘러나온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시간이 지나면 길이 드는 모양이다. 한참 잠들었다는 생각에 지금쯤 거의 다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절반에도 다다르지 못했다. 시간이 늦게 흘러 오늘은 오히려 기분 좋은 날이다.

너에게로, 회귀의 시간

나도 한때 사랑했던 그녀가 있었지만 이제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사람들이라는 복수로 불리지만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각자. 엄밀하게 무관한 사람보다 더 무관한, 서로가 우연히 만나더라도 편하게 스쳐 지나갈 수조차 없는 그런 지워져야 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남보다도 못한 타인이 되어 낯설게 살아가야 하는 그녀와

나는 이제는 우리가 아닌 각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디지털이 아날로그적으로 연결되는, 어쩌면 지금도 연락이 될지 모르는 이 저장된 번호를 터치할 수도 있다. 아무런 흔적 없이 그녀의 SNS를 검색하고 몇 장의 사진과 글을 통해 여전히 혼자인지 나를 유추해 본 다음 잘 지내? 라고 하는 짧은 댓글을 달아 놓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다시 시작할 엄두를 낼 필요도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낯선 사람의 입을 통해 들은 그 강릉이라는 단 두 음절에 그토록 심하게 요동치던 마음이 순식간에 진정되는 것을 보면서 한때 잊히는 것과 지워지는 것의 그 경계에 서서 괴로워했던 나의 그때가 참 허망하리 만큼 의미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학교 동기로 만난 우리는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사이였다. 입대 전 1년간은 내내 같은 수업을 들었고 함께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하고 몇몇 동아리 활동은 겹치기도 했기 때문이다. 전역 이후 이미 2년의 차이가 생긴 우리는 그만큼 더 떨어진 것 같았고 나와 그녀는 캠퍼스에서 만나도 모르는 사람처럼 지나쳤었다. 내 곁에는 나와 친한 사람이, 그녀 곁에는 그녀와 친한 사람이 각각 있었고 우리는 서로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나보다 빨리 졸업했고 학교에서만 유지되던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우리는 우연히 다시 만났다.

고향에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기업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나는 내 밑바닥을 보았다. 해야 할 게 너무 많았다. 내가 봐온 세상은 산이 우물처럼 둘러쳐진 강가, 그 커다란 바위 위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 보며 세상에는 딱 저만큼의 하늘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어린아이 같은 시각을 갖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볼 수 있는 딱

그만큼의 하늘만 봐왔다고 하는 표현이 적합할 것 같다. 나는 시험을 보는 최소 조건인 영어점수를 만들어야 했고 이미 접어 두었던 한국사를 또다시 공부해야 했다.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시험을 보기 위해 별도로 학원에서 제작한 수험서를 사야했으며 홀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역부족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얼마간 예금은 학원 수강료로 곧 소진되었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전에 나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그때도 봄이었다. 답답한 고시원을 나와 공원을 걸었고 문득 내 도전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아무 곳이나 눈에 띄는 곱창집에 들어가 낫술을 하고 있었다. 바로 그 곱창집에서 그녀를 만났다. 정확하게는 그녀가 나를 발견했다.

어머, 어떤 일이야? 잘 지내고 있어? 지금 시간에 여기에서 너를 만날 줄은 정말 생각도 못 했는데, 동기들 통해 네 소식은 들었지,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

그랬다. 역시 그녀의 나에 대한 정보는 현행화가 되어있지 않았다. 나는 구구절절 사람을 믿지 못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믿지 못해 일을 만들고 있다는 등의 말을 했다. 그렇게 그녀는 나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내 생각에 공감하며 또 내 도전을 격려하며 내 빈 잔에 술을 부어주었다. 그녀 역시 여기 가까운 곳에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후로 우리는 몇 번을 더 만났고 그렇게 가까워졌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각자 힘든 과정을 거쳐 결국 원하는 직장을 찾아 그 지긋지긋한 고시촌을 떠날 수 있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한 성공에 우리는 한껏 취해있었고 우리는 서로서로 염려해주는 관계로까지 발전했다. 주말여행 약속을 하고 그 주말을 위해 각자 직장에서 일하고 급여를 받아 함께 즐겁게 지냈다. 그랬다. 모든 게 완벽하고 오래갈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만남은 점점 간헐적 만남이 되어갔다. 각자 주변에 관계 맺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각자 우리는 그들을 위해 내 시간을 나누어 써야했고 우리 둘만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서로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없게 되는 현실을 빙자한 핑계도 늘어갔다. 우리는 다음을 이야기하며 현재를 내일로, 모레로 미루기 시작했고 결국 그다음 만남까지의 간격은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다. 추운 겨울을 보내며 따뜻한 봄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잠시 선잠이 든 사이 갑자기 여름을 맞아 버린 그런 기분일랴까? 기다리던 봄은 이미 나를 지나쳐 버려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꼭 그런 상황이었다. 나나 그녀나 의도적으로 이별을 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잠깐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사이 우리는 서로 더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녀와의 마지막 여행이었던 강릉, 추석 연휴 5일 중 그 중간 3일을 잘라 여러 의욕적인 계획을 세웠었지만, 그 휴가 첫날에는 올라오는 태풍으로, 둘째날은 도착하는 태풍으로, 마지막 날은 빠져나간 태풍의 여파로 우리의 계획은 예정대로 관통하는 태풍 진로와는 상반되게 완전히 틀어졌다. 첫날 우리는 태풍이 올라와도 괜찮다, 저렇게 역동적인 바다를 바라다보는 것만으로 힐링이 된다면 가장 기대했던 선상낚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애써 위로했다. 늦은 저녁, 우리는 파도로 요동치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셨고 태풍으로 평소 보다 두 시간 일찍 문을 닫아야 한다며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을 서비스로 내주며 미안해하는 명찰을 달고 있는 직원의 허리 숙임에 교양 있는 척 웃음을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는 커피 향과 음악에 젖어 있었고 달콤한 케이크가 쓴 커피와 어우러지는 그 맛을 음미하며 침묵하고 있었다. 둘째날은

완벽하게 호텔에 갇혀있어야 했다. 세찬 바람과 비가 함께 땅으로 내리꽂히고 있었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 제법 주머니 사정이 좋아진 우리는 경비를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했고 덕분에 쾌적한 신축 호텔을 예약해 두었다. 그녀와 나는 호텔이 넓고 전망이 좋아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으며 예정되었던 인근 지역의 기차여행과 맛있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또 애써 위로했다. 서로에게 이미 익숙해져 있던 우리는 서로를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예민한 질문은 하지 않았고 불편하지 않도록 마치 사회생활을 하듯 서로서로 눈치를 살폈다.

태풍이 지나가고 체크아웃을 몇 시간 앞두고 그녀는 나에게 앞으로 우리의 계획에 관해 물었지만 나는 과거의 추억으로 답했었다. 어쩌면 그녀는 내가 그 3일간의 갇혀있는 그 기간 내내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물어주기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때도 여전히 충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실행하고 있었고 그런 나 자신에게서 벗어나 누군가를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보는 나는 어쩌면 평범하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직장인으로만 보였겠지만 그녀는 알 수 없는 숨겨둔 나만의 것이 너무도 많았다. 나는 얽히고설킨 그 생각의 타래에 쉽게 갇혔고 사소한 습관에 쉽게 중독되었었으며 무엇보다 내 공간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앉힐 준비가 전혀되어있지 않았다. 돌아오는 길에 다음에도 강릉으로 한 번 더 여행을 오자, 그때는 태풍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계획과 희망을 담았지만 결국 그 계획은 실행되지 못했다. 엄마의 추석은 홀로 쓸쓸히 지나갔고 나의 추석 여행은 그렇게 요동치며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리는 태풍과는 상반되게 내 내면에 슬리지처럼 끈끈한 점액질로 쌓이며 그렇게 지나갔다.

현재로 향하는 버스 안을 사선으로 뚫고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살이 눈부셔 눈을 감는다, 감은 눈꺼풀 사이로 햇살이 흐르고 그늘이 지나가고 나도 모르게 아득하게 잠이 든다. 다시 잠이 막 들려던 찰나 나도 모르게 “나는 나로 돌아가야 해!”라는 말을 내뱉었다. 아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인가? 차라리 그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주문이었으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저나 내가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과거 그 태풍이 불던 그 날로 되돌아간다면 그녀에게 우리의 내일에 대해 약속을 하고 예정했던 그다음 여행을 떠날 수 있을까?

강릉, 도착 55분 전

버스는 터널을 지나 터널로 들어가고, 터널을 나와 터널로 또 들어간다. 그 터널에도 모두 이름이 있다는 게 새삼스럽다. 무슨 1호 터널, 무슨 2호 터널처럼 기계적으로 붙인 듯한 이름도 있지만 아주 예쁜 이름도 있다. 아마도 이 터널이 없던 그리 오래지 않은 그 시절에 불렀을 고개 이름, 재 이름을 터널에 붙였겠지. 엄마, 재 넘어 시장 갔다 올 테니 동생 잘 보고 있거라, 맛있는 참외 사다 줄게. 라고 다정하게 말했을 그 어떤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다. 이런저런 상념에 빠져 버스에서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승객을 더 태우기 위해 정차했던 곳에는 단 한 사람도 더 타지 않았고 휴게소에 잠시 쉬도록 버스가 정차했지만, 사람이 별로 없는 휴게소는 작은 편의점을 제외하고 모든 영업장 문이 굳게 닫혀있었다. 불 꺼진 공간이 불 켜진 곳보다 훨씬 넓었다. 흡사 터널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역시 산 정상에 있는 휴게소라 그런지 바람이 차다. 먼 산에는 아직도 눈이 쌓여있다. 불과 2시간 정도를 달려왔을 뿐인데 이런 풍경을 보니 아직은 겨울이 봄보다 더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생각이 든다. 편의점에서 산 생수 한 병을 들어준다. 차가운 공기, 내 머리와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쏟아지는 것 같은 햇살이 함께 담긴 생수에서 청량감이 느껴진다. 이곳에서 간혹 만나는 사람들 옷차림은 성급히 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 미련으로 겨울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다. 나는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 아마 나는 봄이 왔는지 겨울이 갔는지 헷갈리는 회색지대에 서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든다.

버스에 다시 타니 그 따뜻함이 반갑게 느껴진다. 커플들은 손에 과자와 음료수를 들고 차에 오른다. 기사분이 엄한 목소리로 차 안에서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를 한다. 커플은 아, 맞다, 이거 어떡해요? 버리고 올까요? 라며 난감해한다. 버스에서 드시지 말고 잘 가져가세요, 버스에서 드시다가 누가 민원 넣으면 손님도 손님이지만 제가 난처해집니다. 짐짓 나 들으라는 애기처럼 느껴졌다. 그 둘을 빼고 승객이라면 나밖에 없으니 말이다. 그 커플이 순간 나를 바라본다. 나는 껌연쩍게 웃어 보이려 했지만, 마스크에 가려진 내 입을 멀리 떨어진 그들이 보고 과연 웃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래, 학생들, 요즘 낯선 누군가를 믿으면 안 된다네. 속으로 그들에게 조언을 보낸다. 나는 안내 방송이 나오기 전에 팔각 안전띠를 매고 강릉에 도착할 여정을 기다리며 차창에 머리를 기대는다.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린다. 역시나 회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메시지나 전화는 오지 않고 있다. 다행이라고 해야겠지? 충동적인 내 이틀간의 휴가 중 불과 3시간이 지나고 있을 뿐인데 오늘 너무 많은 생각을 해서 인지 머리가 어지럽다. 이제 30분 정도면 강릉에 도착한다. 여전히 나는 내 짧은 충동이 만들어낸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상황이 낯설기만 하다.

빛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블랙홀처럼 거창한 비유는 아니더라도 온종일 햇볕 들어오기를 기다려도 결코 그 빛을 만날 수 없는 북향집 골방에 갇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해진다. 현관을 나오면서 좌측으로 발걸음을 틀지만 앉았어도 지금 나는 점심때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생활하고 있을 텐데, 어제와 같은 오늘에 만족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있을 텐데. 이제는 되돌릴 수도 없고 되돌아갈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다. 나는 지금 휴가 중이다.

강릉, 도착 5분 전

버스는 마침내 대관령 정상을 넘어 내리막길을 달려 강릉에 진입하고 있다. 산 정상에서 보았던 낮선 겨울 풍경이 버스가 내리닫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연두색으로, 초록으로, 분홍으로, 노랑으로 변하고 있었다. 파스텔을 솜으로 문지르면 그 가루가 스케치북에 달라붙지만 부서져 날아가거나 결국 털어 내버려야 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 하지만 파스텔을 사용하는 것은 캔버스에 찰싹 달라붙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 끈적 끈적한 물감이 표현할 수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열은 색감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보는 이 봄 풍경도 파스텔화처럼 어딘가 불완전한 면이 있다. 초록이 아직 다 채워지지 않은 게 황량해 보이는 벌판에 몇 그루 나무가 이미 꽃을 피웠고 찢긴 검정 비닐이 덮혀있는 저 밭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 겨울옷을 입은 사람이 이 따듯한 날씨에 걸어 다니고 있고 반대로 성급하게 봄옷을 입은 사람이 저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는 산 정상 휴게소를 급하게 걸어 다니고 있다. 무엇보다 사무실로 출근을 해야 할 사람이 넥타이를 매고 뜻하지 않게 버스에 앉아있다.

잠시 후 이 버스는 목적지인 강릉에 도착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남은 목적지까지 안녕히 가시라고도 하는 데 내 목적지는 어디일까? 망설임으로 이리저리 고쳤던 그 밑그림은 완벽히 가려지고 아름답게 채색되어 완성된 그림처럼 내가 충동적으로 결정했던 그 일의 결과물로 오늘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그 일상에서 또 다른 충동으로 지금 이곳을 향하는 내 일정에 있어 달리 목적지를 정한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정할 필요가 없다. 아침 내내 관찰자로 시간을 보냈으니 오늘은 내 삶의 주인공으로 굳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이끌어가려 하지 말고 낯선 나로 그냥 살아보자.

예정에 없던 이틀간의 휴가,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보고 이제는 누군가의 이웃이 될 수 있는지, 누군가를 내 공간에 들여놓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 영킨 실타래를 풀 수 없다면 차라리 되돌아오지 못하게 저 파도 치는 바다에 던져버리자. 상어가 떠난 수조처럼 텅 비어 있는 내 집에 돌아가 내 어깨로 내려앉는 그 새벽을 다시 맞이하자.

바다가 보인다. 앞에 앉아있는 커플은 각자 편한 방향으로 머리를 떨구고 여전히 그 짧은 시간에 단잠에 빠져있다. 손을 잡고 있는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에서 편안함이 느껴진다. 목적지 없는 그 5분 후를 대비하며 미리 느슨하게 가방끈을 어깨에 걸쳐놓는다. 여전히 햇살은 좋고, 나는 홀로 외롭지만 절대 자유롭지는 않은 정오를 지나고 있다. 습관처럼 가방에서 손소독제를 꺼내 손을 비빈다. 이제 이 버스에서 그만 내릴 시간이다. 떠남에서 더떠남을 꿈꿔본다. 터미널에서는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 바로 바다로 향해야지.

먼 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최 미 경

사람들은 나를 ‘무명천 할머니’라 부르지만 내게도 이름이 있었다. 내 이름은 진 아영이다. 본관은 풍기, 우리 시조는 고려 말에 큰 벼슬을 지냈다고도 하고 중국에서 건너왔다고도 했다. 오라방이 돌이었고 언니는 일찍 시집을 가서 집에 남은 딸은 나 하나라 아버지는 나를 많이 아꼈다. 그 옛날 기생이, 을생이, 갑순이 이런 이름 중에 아영이란 고운 이름을 지어준 것만 해도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귀히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다.

제주 사람들은 귀한 자손이 나오는 그것보다는 많은 자손을 얻기를 바랐다. 너른 들판이 있는 판포에서 진가들은 많은 자손을 내서 드물게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왔다. 친척으로 이루어진 마을에서는 앞집도 켤당, 뒷집도 켤당이었다. ‘켤당’에 초상이 나면 밀가루로 만든 빵떡을 만들어 바치는 고적을 했다. 초상이나 기제사에는 빙떡으로 지물을 해갔다. 우리 집 살림은 켤당집에 고적이나 지물을 해갈 정도는 살았다. 빙떡은 양념한 무나물을 메밀가루에 부쳐낸 제주의 고유 음식이다. 메밀가루를 묽게 반죽해 숙성될 동안 끓는 물에 채 썬 무를 데친 후 볶은 깨, 송송 썬

쪽파를 넣고 참기름 한 방울을 둘러 무친다. 솥뚜껑에 기름을 아주 조금 두르고 약한 불에 숙성된 메밀반죽한 국자를 솥뚜껑에 펼쳐 넣고 얇게 부쳐낸다. 빙은 솥뚜껑에 부쳐야 기름을 안 먹고 얇게 부칠 수 있다. 얇게 부쳐낸 빙에 무나물을 넣고 도르르 말아서 대나무 채반에서 식기를 기다렸다 먹으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었다. 나는 빙떡을 잘 부쳐 켜당네 제사가 돌아오면 한 소쿠리씩 해서 전해 주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잘못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누구 한 사람 알려주는 사람도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가끔 나는 내가 원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었나?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이렇게 흉한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면 어쩌다 그랬느냐고 물어볼 법도 한데, 아무도 나에게 묻는 사람이 없다. 나는 솔직히 내가 겪은 일을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다. 나는 점점 내 기억마저 확실치 않다는 생각을 한다. 잊어버리려고 하면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기억하려 하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감해졌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은 일이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그날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저 웃뜨르 판포에서 태어났다. 판포리는 북서쪽 해안가에 자리한 마을이다. 바람이 거세고 소금기가 섞인 바람으로 땅이 척박했다. 해 뜨면 돌밭으로 나가 해가 질 때까지 돌밭을 파야 했다. 그래도 동네에 오름이 하나 있어서 바람도 막아주고 들이 넓어서 농사를 많이 지었다. 우리 집도 상당히 넓은 밭이 있었다. 그때 제주에 뭐 잘사는 집이 있었나? 육지에 ‘벼는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라는 말이 있듯, 제주에는 ‘밭농사는 호미 끝 가는 대로 된다.’라는 속담이 있다. 제주에서는 당근 농사, 감자 농사, 그리고 고구마 농사를 지었고 보리농사를 지어 양식을

마련했다. 우리 집 살림 규모는 식구 수에 맞춰 장을 담글 정도는 살았다. 제주도에서는 한 사람에 콩 1말의 장을 담근다. 매년 식구 수에 맞추어 장을 담가 일 년 양식으로 삼았다. ‘장 한 사발에 밥 하나를 바꾼다.’라는 말이 있듯, 먹을 것이 귀한 제주에서는 장을 제일 중하게 여겼다. 우리 집 살림은 더도 덜도 아니고 우리 식구 먹을 장을 담가서 정지 뒷문을 지난 장독대에 보관할 정도는 살고 있었다.

바람이 잔잔한 날 바다에 나가면 밥상에 찬 한 가지 보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살림이었다. 너나없이 조밥을 먹고 여름 한 철 보리밥을 먹던 시절이었다. 간혹 제사, 명절에 곤밥 구경은 했었지만 내 차지까지 오지는 않았다. 그래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이라 그리운 것은 없었다. 보리밥만 해도 맛이 있었다. 제주 보리는 겨울에서 봄에 이르는 동안 한라산의 찬 기운을 받아서 원래도 품질이 좋다. 연자방아에서 물에 부풀려 갈아 낸 다음 다시 맷돌에서 여러 번 갈아낸다. 이렇게 여러 번 갈아내니 보리 씻어낸 물도 버리지 않고 된장국을 끓여 먹었다. 바다에 나가면 톳이 지천이었다. 톳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있어서 양식을 늘리려고 톳을 넣어 밥을 했었다. 톳을 넣어 밥을 하면 밥이 더 부드러워지고 양을 늘릴 수 있었다. 여기에 달래장을 해서 쓱쓱 비벼 먹으면 그렇게 맛 좋을 수가 없었다. 육지는 양반 상놈, 지주 소작인이 있어 잘사는 사람은 일 안 하고 먹고 살고, 못사는 사람은 죽도록 일하며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제주에서는 굶어 죽는 이도 없고 일 안 하고 배 두드리고 사는 이도 없었다. 누구나 그만저만 살았다. 부지런하고 게으른 차이로 부지런한 사람 밥 한술 더 먹고 게으른 사람 밥 한술 덜 먹으면 그만이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아방은 한림장에서 내 옷감을 떠왔다. 설에는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 빛 치마저고리 감을 떠왔고 추석 명절에는 치자

물들인 노란 옷감을 떠왔다. 제주도의 오일장은 물질과 김매기 등으로 바쁜 사람들이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해서 오전에 잠깐 성시를 이룰 뿐, 오후에는 파장이었다. 검소하고 부지런했던 제주 사람들은 장에 가서 필요한 것만 사면 바로 돌아오곤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장에 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해가 바다로 떨어져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해가 어둑해지면 동네 어귀에 나가 아버지를 기다리곤 했다. 당시만 해도 증절모를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장에 갈 수 있는 어른은 몇 안 되었다. 바다로 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늘이 노을로 붉게 물들어갈 때 막걸리 한잔에 거나하게 한잔하시고 두루마기 자락을 펼럭이며 아버지가 마을로 들어섰다.

“아영아! 아영아!”

“무사. 이 동네에 딸 가진 사람 아영이 아방 하나라? 무사 동네 떠나 가게 아영인 그렇게 불러 재키나?”

사람들은 아버지를 향해 농을 했다. 아버지는 배시시 웃는 나에게 장보파리를 건네주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노을 진 바닷가를 등 뒤로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은 언제나 아름다웠다.

아버지는 성질이 참 좋았다. 남에게 굶은 말 한번 안 하고, 남하고 큰소리 한번 낸 적이 없었다. 뭐라도 이웃에 도움을 줬으면 줬지 폐를 끼친 일도 없었다. 우리 어명은 날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세상을 떴다. 제주엔 심한 역병이 돌았을 때 우리 어명은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래도 할망에게 어지간한 살림은 배웠지만, 워낙 단출한 살림이라 살림을 배우고 말 것도 없는 시절이었다.

일제강점기 전에는 조, 보리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해산물 채취는 부업 형태로 살았었다.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보다 밥 먹고 살기는 좀 나았다. 그런데 일본강점기 때 해촌 중심으로 친일상업, 공출 수집 등이

이루어지면서 해변 마을이 좀 더 잘살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안가 마을을 중심으로 일주도로가 나서 해안가 사람들이 교통의 혜택을 보았다. 해안 마을 사람들과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다. 중산간 사람들은 해안가 마을사람들을 땅 한 평 없이 바다 밭을 일궈 산다고 무시했다. 해안가 사람들은 또 중산간 사람들에게 좀 열등의식이 있었다.

나도 물질을 해서 살았다. 물질은 숨비질과 자맥질로 나뉜다. 숨비질은 바닷속 깊은 곳에 들어가 숨을 길게 참아서 해삼도 따고 멍게도 탄다. 자맥질은 밭을 땅에 딛고 해엄을 치다가 물속을 더듬더듬해서 느낌이 있는 곳을 더듬어 해산물을 채취한다. 나는 숨비질도 자맥질도 잘했다. 해삼이나 전복이 돈이 많이 됐다. 해삼은 바닷속 깊은 곳에 있어 숨을 많이 참아야 한다. 그때야 잠수복이 있을까, 물안경이 있을까, 테왁에 망사리 하나 들고 숨을 꼭 참고 바닷속으로 깊이깊이 들어갔다. 바다 밑에 이르면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 문고리가 짹짹 들러붙는 엄동설한이라도 바닷속은 따뜻하다. 비창 하나 들고 전복을 따느라 숨을 참고 물 밖으로 나오면 가슴에서 호이! 호이! 휘파람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숨비소리이다. 해산물 채취를 위해서는 마을 안팎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해야 했다. 제주 여자들은 새벽 별아래 집을 나가 저녁 별빛 아래 귀가하였다. 하루에 반 이상을 들이나, 바다에서 노동했다.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에 의한 소득은 농가 소득의 절반을 차지했다. 해녀들이 저승길을 넘나들며 물질을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농산물과 비교하면 해산물이 바로 현금화되기 때문이었다. 전복이 큰돈이 되었고 봄, 가을에는 소라를 채취해서 큰돈을 벌었다. 해산물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일수록 더 값이 나갔다. 제주 미역이나 우뚝가사리, 청각, 모자반 등이 인기가 있었다. 해녀들의 물질에 의한 수입관리는

여성 자신의 재량이었기에 이 또한 큰 힘이 됐다. 물질하러 모인 불턱은 마치 다른 지방의 우물가나 빨래터처럼 세상사를 이야기하며 수시로 스트레스를 푸는 즐거운 장소였다.

제주 바다는 천연의 혜택이라 생각했다. 바다는 제주 사람들에게 밭이었고 논이었다. ‘친정 가서 못 얻어먹은 저녁 바다에 가면 얻어먹을 수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바다에 나가면 뭐라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순 있었다. 그래서 제주엔 벼는 거지는 있어도 굶어 죽는 거지는 없었다. 그러나 옛말에 ‘3대가 어부에 꼭 수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속담처럼 바다는 때론 재앙이 되기도 했다 제주 바다는 옥빛일 때라도 바람이 부는 날은 성질이 사나워지곤 했다. 외지로 출가물질을 가기도 했다. 출가물질을 가버리면 이웃이 대신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었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분주하게 오가야 겨우 밥먹고 살던 시절이었다. 제주인들은 일 년을 주기로 하는 농사철과 하루를 주기로 하는 물때에 맞춰 생활 주기가 있었다. 김매기를 계속해야 하는 농번기인 여름철에는 출가하지 않은 집에서는 밭에 가서 김을 매다가도 물때가 되면 어김없이 바다로 가서 물질해야 했다. 물질이 끝나면 다시 밭으로 가서 김을 매는 것이 반복되었다. 농사철과 물때에 맞춰 실 새 없이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바다 밭과 육지 밭을 오가야만 되는 제주 여자들은 그래서 더 억척같았다. 농한기라도 제주 여자들은 쉬지 못했다. 여름 농사가 끝나 보리를 파종 하고 나서 맞게 되는 11월에서 5월까지의 농한기가 되면 출가물질을 나갔다. 출가물질은 한반도나 일본으로 출가하여 돈을 벌다가 그 보리가 익어 수확기가 될 즈음이면 다시 돌아와 농사일했다. 출가물질 나간 이가 돌아오면 제초와 수확을 도와주는 ‘수눌품’으로 서로 돕고 지냈다. 밭에서 나는 것은 한정이 있고 바다에 가면 그날 운에 따라 전복이라도

큰거 잡으면 온 식구가 배를 채울 수 있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욕심을 부리게 된다. 큰 전복이 보이면 한길만 더 가면 켈 것 같은데 한번만 더 빗창을 심으면 딸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다 나는 물을 먹어서 죽다 살아났다. 그때가 스무 살이 되던 해던가 넘은 해던가 그랬다. 그때부터 나는 귀가 먹어 잘 듣지 못하게 되었다. 내 귀에서는 늘 파도 소리가 났다. 그래도 바다에 나가면 밥은 굶지 않고 살 수 있었다. 물질하면서 물먹고 귀먹는 일이야 다반사였다. 고래 새끼를 만나도 아무 일 없었다. 먼바다에 갔다가도 고래가 올 때면 물 아래에서도 알 수 있었다.

“배 아래로, 배 아래로”

고래가 썹썹 소리를 내면서 가까이 오면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 그 큰 바다짐승도 슬슬 도망가버렸다. 고래는 웬만해서는 사람을 해치는 일이 없었다. 그날이 있기까지는 나도 제주 여성으로 그렇게 당당하고 힘차게 살았다. 그 날 밭담 아래 쓰러지기 전까지는.

제주의 봄은 바람을 타고 온다. 나는 웅크리고 앉아 봄별의 기운을 찾고 있었다. 그렇게 돌담 아래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의 일상이 된 지 오래되었다. 아직은 매서운 찬바람에 자꾸만 목을 웅크리고 동구 밖으로 난 길에 눈길을 주었다. 오늘은 시에서 누군가가 나를 찾아오고 있다. 나에게도 손님이 찾아오는 날이 있다니 세상이 바뀌긴 바뀐 모양이다. 나는 사뭇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참을 기다리다 일어섰다. 시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한 시간이나 걸릴까? 두 시간이나 걸릴까? 시에는 나가본 적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 아침부터 올 담으라 앉아 마냥 기다리는 중이다.

마을 어귀 저기 두 아낙이 먼저 나를 알아보고 손짓을 했다. 어디

방송국 사람들이라고 했다. 나는 반갑게 다가가 알은체를 하였다. 한 어명은 결혼해서 아들이 하나 있다고 했고, 한 어명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아가씨인데 방송국 작가라고 했다. 이 어명들은 무슨 복을 지어 이렇게 좋은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들은 나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섰다. 마당이라야. 대문에서 다섯 걸음 될까 말까 하지만 그래도 마당 한가득 선인장이 그득했다. 왼쪽 몸뻐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여는 나에게 한 아낙이 묻는다.

“할머니 늘 이렇게 문을 잠그고 살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 그렇다고 말했다. 어차피 내가 말을 해봐야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그들은 나의 몸짓으로 내 말을 알아듣는다. 목소리가 전하는 말도 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목소리도 안 나는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까마는 그래도 나는 말을 한다.

집안으로 들어오니 봄별이 나는 바깥보다 더 춥고 썰렁했다. 다행히 아낙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왔다. 나는 이 아낙들에게 점심을 대접하고 싶어 수제비를 끓였다. 손님이 온다기에 쌀쌀한 날에도 아침에 바다에 갔다 왔다. 바다에 나가면 내 한 몸 먹을거리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 보말을 끓여 육수 내고 메밀 조 배기를 떴다. 메밀가루는 미지근한 물로 질게 반죽해서 숙성될 동안 무를 곱게 채 썰고 실파를 송송 썰어 놓는다. 냄비에 보말을 끓여낸 육수에 채 썬 무를 넣어 국물이 끓으면 조금씩 반죽을 떠 넣어 익히면 된다. 제주 사람들은 메밀을 많이 먹었다. 메밀은 산모에게 피를 삭히는 음식이라 하여 미역을 함께 넣고 끓여서 산후조리 음식으로 많이 먹었다. 나도 사건 나고 메밀을 질리도록 먹었다. 병원도 가지 못했고 변변한 약을 쓸 수도 없었다. 메밀 수제비를 끓여 어떻게든 국물이라도 목구멍으로 넘겨 창자가 달라붙지 않을 정도로만 먹었다.

온 방을 피로 물들이고도 병원 한번 제대로 가지 못했다. 수건으로 동여맨 상처를 아물게 한 것은 메밀 국물이었다.

반찬으로는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나는 톳나무를 무쳤다. 음식을 씹을 수 없는 나는 사람들이 음식을 씹을 때 내는 소리가 그렇게 부러울 수 없었다. 특히 톳 나물은 내가 참 좋아했던 음식이었다. 톳은 바닷가에만 나가면 지천으로 있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찬물에 행군 후 갖은 양념으로 무쳐내면 배고픈 시절에 허기도 달래주고 입맛도 돋우는 음식이었다. 음식도 해봐야 느는데 턱이 없는 나는 제대로 음식을 씹을 수가 없어서 겨우 물로 된 것만 먹다 보니 음식 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렸다. 그래도 이 메밀 수제비와 톳나물 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있는지 손님치레상을 차릴 수 있었다.

아낙들은 싹싹하게 나를 도와 상도 펴고 수저도 놓고 부산했다. 내 살림이라야 피난 살림처럼 단출해 내 집에 처음 온 아낙들도 금세 살림을 파악했다.

“할머니! 같이 드십서. 빨리 여기로 오십서!”

아낙들은 자꾸 같이 먹자며 나를 상으로 끌어갔지만 나는 두 손을 뿌리치며 완강히 사양하였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여러 번 권했지만 나는 도망칠 태세로 사양했다. 맛이 있는지 없는지 간도 보지 못한 수제비를 내 체면봐서 그런지 맛있게 먹어주는 게 여간 고마운 게 아니었다.

수제비를 먹고 난 아낙들은 잠긴 방문을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며 호기심을 보였다.

“할머니 왜 이렇게 문을 꽁꽁 잠그고 사세요? 방은 좀 따듯해요?”

나는 반질반질 윤이 난 열쇠를 찾아 방문을 열어 보였다. 방안 살림 이래야. 이불 한 채, 반진고리 한 짝이 전부인 살림이었다. 가져갈 것도

없어 보이는 이 살림살이에 문을 왜 꼭꼭 잠그고 사느냐 묻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길 해야 할까 몰라 어색한 웃음만 지어 보였다.

어색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마침 이웃에 사는 위현이 찾아왔다. 위현은 이곳 월령리에 함께 사는 사촌 동생이다.

“어디 방송국에서 왔다고?”

“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4.3 50주년 특집으로 다큐멘터리 제작하러 왔어요.”

“아이고. 세상이 변화긴 변화는가 보네. 요즘은 사방에서 저 할망 억울한 소리를 들으랜 와. 저 할망 말 못허니 내가 대변인이우다.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물어봅써.”

“마침 잘됐네요. 그러잖아도 궁금한 게 많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자꾸 이렇게 문을 잠그고 사시나요?”

“그거 내가 알아. 저 할망 평생 문 딱딱 잠그고 살아. 여기서 우리 집 오는데 백 미터도 안 되는 데도 우리 집에 올 때도 문 딱딱 잠그고 오지 그냥 안 와. 아 자기 집 올담 아래 앉아 있을 때도 고새를 못 참고 문을 척척 걸어 잠그니 답답할 노릇이지. 내가 아무리 그러지 말라고 해도 소용없어. 이살림 누가 들고 가버릴까 봐 그러는지 누가 쳐들어올까 봐 그러는지 알 수가 있나. 다 그게 그날 후유증인가 싶기도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어 알아들을 수가 있나, 물어봐야 대답을 할 수가 있나. 내가 답답해 환장할 노릇 이주.”

위현은 그동안 느꼈던 답답한 심정을 처음 보는 아낙들에게 잘도 털어놓았다. 그 일이 있던 날, 초등학생이었던 위현은 나에게서는 어린 꼬마 사촌이었다. 그런데 이날 평생 위현은 한동네에 살며 내 입이 되고 발이 되어 나를 보살펴 주고 있다.

봄별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초봄 오후, 위현택이 찾아왔다. 돌담 아래 앉아있으니 기현할망도 집으로 들어가다 말고 돌담 아래 앉았다. 길가에 있는 우리 집은 남향집이라 한라산이 바로 보이고 돌담 아래서 봄별을 쬔느라 나가있으면 오는 사람 가는 사람 같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갔다.

“할망, 그대는 안 아릅니까?”

나는 좀처럼 풀지 않은 무명천을 위현택 앞에서 풀어 보였다. 방송국에서 온 아낙들은 화들짝 놀랐다. 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을 돌려 눈물을 흘렸다. 무명천에 가려진 내 턱을 궁금해하면서도 막상 바로 보니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다시 무명천을 머리에 묶으며 이 상처로 인해 겪었던 지난날의 서러움이 왈각 밀려와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무자년 설달의 바람은 매서웠다. 바다에서도 바람이 불었고 산에서도 바람이 불었다. 가장 무서운 바람은 사람들 사이에 생겨난 바람이었다. 웅성웅성하며 바람이 전해주는 소식이 파도 소리 대신 내 귀를 막았다.

글쎄나 아는 사람들은 이미 산으로 갔다. 나는 왜 동네 남자 어른들이 산사람이 됐는지 잘 알지 못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나 같은 무지렁이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마을에 남아있는 남자는 모두 빨갱이로 몰리던 시절이었다. 사람 구실 하는 남자들은 마을에 남아있지 못하게 시국이 돌아갔다. 길에서 만나면 바로 총부리를 겨눴다. 그러니 집에 남아있을 수가 없는 형국이었다.

우리 마을 앞은 바다였지만 뒤로는 산으로 연결되어 일찍 산으로 올라간 사람들이 많았다. 시시때때로 토벌대들은 마을로 들이닥쳤다. 혹시라도 젊은 사람을 만나면 바로 총을 겨눴다. 토벌대들은 신을 신은 채 방안에 들어와 벽장문을 열고 총구를 겨누고, 텅 빈 뒤주에도 총구를 겨눴다. 심지어 이불더미도 총구를 겨눠 꺾꺾 눌러 보았다.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할망은 비질하며 두런거렸다.

“아이고. 저 귀신들은 누가 안 잡아가나? 진짜 빨갱이들이 너희 손에 잡히겠나? 진짜 빨갱이들은 얼마나 욕은 데. 지금까지 난리 나고 진짜 빨갱이 잡았던 소리 들어보질 못했져. 그저 잡았다 하면 죄 없는 동네 청년들이고 마을 남자 어른들 이주게. 그러니 목숨 부지하려면 산으로 가야지 마을에 남아 살아져.”

할망은 비질하고도 여러 번 걸레질하였다. 이런 소란은 역새 필 무렵 심해지더니 눈발이 날리는 한겨울이 되자 한 달에도 서너 번씩 반복되었다.

그날도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았다. 산에서 사는 사람들이 동네로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렸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폭도라고 불렀지만, 어제 경찰에 쫓겨 도망간 옆집 삼촌도 폭도이고, 장날 장에 갔다 오다 군인에게 도망친 삼촌도 폭도였다. 이웃집 사람 누구라도 산에 가면 폭도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도 동네로 들어왔다.

“폭도가 들어왔다!”

이제는 숨는 자와 찾아내는 자의 싸움이 시작된다. 경찰들은 숨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데 무자비했다. 겨울에 산에서 먹을 것이 없는 산사람들은 마을사람들 눈을 피해 마을로 내려왔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감자 몇 알, 무 몇 개였다. 주먹밥 한 뭉치라도 얻어먹으면 썩한 눈을 반짝이며 연신 고개가 땅에 닿도록 조아렸다.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동네에 폭도가 들어오면 그 동네는 무장대보다는 토벌대에 의해 초토화되었다.

제주의 초가집은 강한 바람을 견디기 위해 대체로 낮게 만들었다. 제주 들녘의 흔하디흔한 역새로 띠를 만들어 지붕을 덮었으며 짚 줄을 격자 모양으로 묶어 만들었다. 바둑판 모양으로 잘 엮인 지붕은 거센 바람을

맞받아치기보다는 부드러운 곡선 모양으로 만들어 바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들었다. 초가집의 벽면은 돌을 깎아 만들기보다는 대부분 자연석으로 이용하되 그 사이를 흙과 역새를 버무려 메꾸었는데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했다. 제주의 주거 형태는 주로 안채, 바깥채로 나뉘는데 안채는 주로 집안의 어른이, 바깥채는 결혼 후 자녀들이 주거하였다. 자녀가 결혼한 후에도 분가하지 않고 같이 살았다. 결혼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채와 바깥채 주인이 바뀌었다. 우리 집도 안채엔 아버지가 기거했고 안채를 내어준 바깥채에 할머니와 내가 살았다. 어머니가 없는 우리 집은 부엌은 안채 하나만 썼다. 안채와 바깥채 사이 마당 한쪽엔 우영밭이 있었다. 철 따라 채소를 갈아 먹는 우영밭에는 한겨울에도 배추, 마늘, 부추가 파랗게 자라나 있었다.

지붕은 매년 한 번씩 갈아주는데 지붕의 주재료가 역새인 탓에 토벌대들이 지붕 한쪽에 불을 붙이면 금방 불타오르고 동네는 불바다가 되었다.

군인과 경찰들은 눈에 보이대로 사람들을 향해 그대로 총을 쏘아 질러댔다. 남자를 만나면 폭도와 내통했다 해서 총을 겨눴고, 젊은 처녀를 만나면 겁탈을 서슴지 않았고, 그를 피해 도망가면 등 뒤에 총질하여 바닥에 쓰러트렸다. 총질하는 사람도, 총에 맞아 쓰러진 사람도 사람이 아니었다. 다들 미치광이가 되어 잠시 전쟁놀이를 하는 것 같았다. 숨어 있는 사람을 찾기 위해 집마다 불을 지르며 날뛰는 경찰은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온 폭도보다 더 무서웠다. 집에는 늙은 할망과 나뿐이었다. 할망은 나에게 얼른 숨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발담을 향해 내달렸다. 겨울 보리가 막 싹을 내밀고 있던 보리밭은 겨울바람에 얼어서 서걱서걱 소리를 내며 무너졌다.

“탕!!”

나는 발을 가는 쟁기의 보습이 바람에 날아와 내 턱에 박힌 줄 알았다. 하늘은 검붉었다. 그 와중에도 한라산에 하얗게 내려앉은 눈이 보였다. 눈 쌓인 한라산이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내 몸을 덮쳐버렸다.

그날 판포에서도 19명이 죽었다.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할 여력도 되지 않았다. 돌로 덮어 놓거나 흙 몇 삽으로 겨우 시신을 덮었다가 봄이 오기 전 수습하면 그나마 살아생전 큰 턱을 베풀었던 사람이라 여겼다. 한마을에 100여 명 넘게 희생된 마을도 있던 시절이라 다들 이만하면 다행이라고 하였다. 내가 깨어난 것은 그날이었는지 다음날이었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폭도가 쏜 총에 맞았다고도 하고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고 했다. 내가 누운자리는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동네 사람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에 더 절망했다.

“아고 큰일 아니라게. 살아지겠나?”

“살아도 걱정이지게. 성한 사람도 살기 힘든 세상에 무사 안 죽고 숨만 붙어 켜신 고 예.”

나는 턱이 날아간 고통보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 큰일 아니냐’는 말이 더 아팠다. 그 말들은 따발총이 되어 내 가슴을 쿵쿵 쑤대고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았으니 큰일이 난 세상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너무나 큰일을 겪으면 오히려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지 슬퍼할 겨를도 없었다. 다만 나는 총에 맞았으니 이제 폭도로 몰리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겨우내 누워서 방문을 열면 마당에서 약초를 삶는 할망의 등이 보였다.

“참말로 모진 놈의 세상이지게. 살이지민 살아진다. 사람 목숨 그냥 끊어지느냐?. 살이지면 살아진다.”

할망은 누구에게랄 것도 없는 소리를 연신 중얼거렸다. 아방이 죽고

나자 그 곳곳하던 할망도 반은 정신을 잃은 듯했다. 난리 통에 약을 구할 수도 없었다. 할망은 말린 미역을 물에 불려 상처에 칭칭 감아 주었다. 그저 약이라고는 그것뿐이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나에게 상처에 칭칭 감은 미역을 잘 씻어 쌀 한 숟가락을 넣고 약을 달이듯 고와서 방안에 들여 주었다. 바다고래가 출산을 하고 나서 미역을 뜯어 먹는 것을 본 고려인들이 해산한 산모에게 미역국을 끓여주었다고 한다. 제주 사람들은 미역이 성질이 차고 맛이 짜며 독이 없어 열이 나면 답답한 것을 없애고 뭉친 것을 치료해준다고 믿었다. 할망은 나에게 어떤 위로나 원망도 없었다. 그저 이 모진 놈의 세상이 얼른 지나가길 바랄 뿐이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자 여전히 봄별은 파사로웠다. 파사로운 봄별에 노란 나비들이 나풀거렸다. 내 턱은 날아가 병신이 되었는데 불에 탄 감나무에도 새순이 돋아났다. 들풀은 무정하게 자라났다. 나도 저 감나무 처럼 새순을 피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래턱이 날아간 얼굴은 흥해서 걸레로 쳐매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다. 이웃 사람들도 우리 집 마당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그저 가끔 검은 까마귀가 담장에 내려 앉았지만, 할머니는 그 까마귀마저 대빛자루를 휘저어 쫓아버렸다. 6월 중순이면 제주도 들녘은 보리가 익어 갈 때였다. 그러나 판포리 넓은 들에 사람 꼴을 볼 수 없었다. 밭 한가운데 보리 목이 누렇게 익어가도 거들 힘도 없었다. 그저 앉아서 창자가 부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산에 간 사람들은 사상에 물들었다고 했다. 도대체 사상이 무엇일까? 여름 피약별 땀감을 따서 감물은 들여 봤지만, 사상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고초를 겪어야 하나? 나는 그 사상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무척 궁금하였다. 마을엔 병들거나 늙거나 어리거나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만이 남아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세월이었다. 그나마 아낙들은 품팔이하고 들나물을

뜯어 먹었다. 냉이, 달래, 쇠스랑쿨, 콩쿨을 뜯어다 먹었다. 불타버린 집터에서는 잡초들이 무성했다. 그렇게 7년의 세월을 살았다. 난리 통에 아망도 할망도 잃었다. 나는 언니가 사는 아랫마을 월령리로 건너왔다.

아랫마을 월령리로 시집간 언니가 소달구지를 끌고 집으로 들어섰다.

“가자. 여기서 혼자 어떻게 살아가겠니?”

나는 고개가 저었다. 나에게는 삶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이 육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었다.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내가 누군가의 시선과 마주했을 때 느끼는 그들의 눈빛이었다. 나는 귀먹고 말도 못 하는 주제에 턱까지 날아가 버린 흥측한 사람이었다. 저녁 해가 바다로 떨어질 때쯤 언니는 빈 소달구지를 끌고 월령리로 돌아갔다.

월령리는 ‘검은길’로 불렸다. 캄캄하고 어두운 길이라는 뜻이다. 그만큼 못살았다. 우리 마을은 밭도 넓고 들도 넓어서 굶고 사는 사람은 드물었다. 월령리는 바닷가에 붙은 마을이라 보리 한 뭉치도 구하기 힘들었다. 시집간 언니는 친정집에 와서 보리쌀을 꾸어가 보릿고개를 넘겼다. 가을에 갇기로 하고 가져간 보리쌀은 미역이나 톳 한 망 사리로 갇아졌다. 썸이 맞지 않았지만 아망은 그렇게라도 시집간 딸을 돌보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언니의 형편을 잘 아는 나로서는 언니를 따라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나는 혼자서 살아보려고 애썼다. 그러나 밤마다 저벽저벽 발걸음 소리를 내며 군인이 찾아오고, 경찰이 찾아왔다. 밤마다 내 턱은 총에 날아가고, 바람에 날아온 삽에 날아가고, 쟁기 보습에 날아갔다.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밤마다 턱은 날아가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아침에 그 고통으로 괴로워하길 반복하는 나날이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나면

사지 육신이 풀리고 머리가 아파서 헛구역질이 나왔다. 밤에는 어두운 방에 앉아 새벽이 올 때까지 뜬눈으로 지새웠다. 아무리 잊으려 발버둥 쳐도 날아간 내 턱은 지울 수 없는 4.3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는 증거였다. 나는 난리에 총을 맞아 턱을 잃었다. 폭도 가진 집에서는 경찰이 쏜 총에 맞았다 하고, 경찰 가진 집에서는 폭도가 쏜 총에 맞았다 했다. 그러나 폭도 가진 집에서도, 경찰 가진 집에서도 나의 아픔을 외면했다. 그들도 침묵했고 나도 침묵을 지켰다. 모두 침묵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다. 잊으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통은 오롯이 나만이 홀로 울며 견뎌내야 할 숙명이었다.

언니는 새벽에도 달려왔고, 낮에도 달려왔다. 꿈자리가 사나우면 달리듯 친정집으로 달음박질쳤다. 밭을 매다가 호미를 들고 달려왔다. 바다에 나갔다. 테왁 망사리를 들고 종종걸음치며 달려왔다. 언니를 바래다주러 갔다가 월령리까지 함께 걸었다. 언니는 다시 나를 바래다주러 나왔다. 그러길 서너 번 반복하다가 나는 언니를 따라 월령리로 건너왔다.

언니는 판포리 살림을 정리해서 8평짜리 창고 하나를 얻어 주었다. 제주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솔단지를 따로 걸고 사는 형편에 친정 불이가 와서 언니 집에 함께 살 수는 없었다. 그렇게 검은 질로 이사 온 나는 캄캄한 어둠 속에 갇혔다. 8평 작은 창고 같은 집에 창을 크게 내서 달빛은 밝게 빛나 내 방을 환하게 비추주었다. 나는 그렇게 월령리 달빛에 설움을 비추며 살았다. 그러나 그렇게 나를 돌보던 언니도 내 나이 환갑을 맞은 해에 병을 얻어 세상을 뜨고 말았다. 언니가 떠나 버리자 나는 더 죽기를 희망했다. 밤에 잠들면서 달님에게 빌었다.

“제발 내일은 두 눈 꼭 감고 숨 멎은 채 아침을 맞게 해주세요!”

나는 밤마다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내 목숨은 모질고도 길었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는 내 육신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뿐이었다. 나는 육신의 고통과 정신의 고통 속에서 동시에 살아갔다. 육신의 고통이 나은지 정신적 고통이 나은지 알 수 없었다. 사람들은 4.3으로 심각한 상처와 장애를 앓고 살아가지만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살아갔다. 마치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시치미를 뚝 떼고 살아갔다. 나는 이렇게 밤마다 고통으로 지새우고 켠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는데 내가 지난밤 어떤 고통을 견뎌냈는지, 무엇을 보았는지 나에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모두 4.3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그렇게 다들 잘 살아가고 있었다.

총상 입은 몸은 날이 굳으면 여기저기 쭈서대 전딜 수가 없었다. 툷을 따다가도, 보말을 줍다가도,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에 돌밭을 무릎으로 박박 기어야 했다. 피약별이 내리쬐는 발머리에서 나를 향해 총구를 겨눈 검은 물체에 두 손을 번쩍 들어 빌었다.

“살려 줘! 제발 살려 줘!”

심장이 멈추는 듯 공포와 피를 토하는 아픔을 참아야 했다. 이 세상에 혼자 살아남았다. 그저 혼자였다. 비가와도, 날이 좋아도 나의 하루는 길었다. 그렇게 긴 하루를 보내고 맞는 아침은 또다시 고통으로 점철된 하루가 시작되었다. 바다에도 그냥 남들 가니까 같이 갔다. 남들은 바다 깊은 곳에 물질해서 전복도 따고 소라도 따서 돈을 벌지만 나는 물질도 못 하고 갯바위에 붙어 있는 툷을 따면 죽었다. 남들이 만원 벌면 난 천원 벌어도 만족해야 했다. 그것도 안 나가면 누가 나를 먹여주나. 아무것도 벌지 못해도 수도세도 나오고 전기세도 나왔다. 마을에 내는 이런저런 경비도 많았다. 나는 힘없다고 면해 주었지만, 그 경비만큼은 빠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이 세상에 무슨 연유로 나와서 행복이란 건 아무것도 모르고 이 고생만 하고 살아야 할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다른 사람들은

아들 낳아서 나라에 충신을 낸다지만 나는 아들은커녕 딸 하나도 없었다.

밤마다 등을 방바닥에 널 때마다 기도했다.

“내일 아침엔 눈 뜨지 않게 하소서. 숨 쉬지 않게 하소서. 그저 이 밤 내일아침 해가 뜨기 전 자는 듯 데려가소서.”

나에게 죽음은 쉽게 오지 않았다. 살아나서 또 길고 막막한 하루를 살아야했다. 언제나 이승에서 고생을 마치고 저승길을 갈 수 있을까 혼자서 눈물없는 울음도 많이 났다. 지나온 날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서 앞도 뒤도 보이지 않았다. 내 이 억울한 사연을 말도 못 하고 살아온 세월 죽어서 무당 입을 빌려서라도 쏟아내고 싶었다. 그러나 나 죽으면 누가 나를 위해 굿을 해 줄 것인가? 누구 몸을 빌려 누구의 입을 통해 이 억울한 마음을 토해낼 것인가?

나는 참기 힘든 고통이 밀려들면 위헌네로 갔다. 위헌은 내가 가면 진통제를 맞춰 주었다.

“이거 정 못 견디면 맞아야주. 경해도 자주 맞으면 안되우다. 이거 아편이라 마 씨. 이거 중독되면 큰일 납니다.”

위헌의 걱정 섞인 잔소리가 이어졌다. 나는 간절한 눈빛으로 이번에만 맞춰 달라고 했다.

“성님. 선인장 몇 개 주서당 주카 마썸? 선인장 열매가 요새 돈이 좀 된다고 해서 키우는데 성님도 하나 주카 마썸?”

위헌 댁이 머리에 쓴 수건을 마루에 탁탁 털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위헌 네에게서 얻어 온 선인장 뿌리는 금세 잎이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었다. 닳아빠져 구멍 뚫린 양은 대야에 심었던 선인장은 담장을 타고 올라갔다. 보라색 열매를 따서 모아두면 위헌 네가 팔아서 돈으로 바꿔 주었다. 돈이라고는 만져보고 지내지 못했는데 돈을 만져보자

나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경찰 가진 사람들은 폭도들이 내 턱을 앗아갔다고 하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믿었다. 폭도 가진 사람들은 경찰이 내 턱을 앗아갔다고 기억하고 그 기억을 믿었다. 경찰 가진 사람들도, 폭도 가진 사람들도, 한동안 나를 피해 다녔다. 나도 그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난리가 끝나자 사람들은 마을 재건 사업이네 새마을운동이네 하며 그날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다. 마을에는 큰 도로가 생기고 초가집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뀌어 갔다. 사람들은 갈 중의 옷을 벗어 던지고 알록달록 예쁜 월남치마를 입었다. 변하지 않은 것은 날아간 턱에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는 내 삶뿐이었다. 다른 것들은 잘도 재건 되는데 내 턱만큼은 재건되지 않았다.

봄이 되면 동백이 피고 여름이면 보말이 스멀스멀 기어 다녔다. 가을엔 노랗게 밀감이 익어가고 겨울엔 한라산에 눈이 담뿍 담겼다. 꽃이 피고 무성한 햇살을 견디면 찬 바람이 불고 다시 봄이 찾아왔다. 날아간 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 그렇게 자연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누구도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길가다가 어깨만 스쳐도 미안한 일이고 돌부리에 넘어져 무릎만 깨져도 어찌 된 일이냐며 물어볼 텐데 아무도 내 날아간 턱에 대해서 아는 체하지 않았다. 아무도 묻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유일한 해결책은 침묵뿐이었다.

난리 때는 너도, 나도 다 난리를 겪느라 세상이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어려운 시절을 모두 잊어버리고 지내는 듯하였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 동굴을 빠져나와 평범한 일상을 찾아갔다. 아이를 낳아 기르고 그 아이가 커서 학교에 다니고 시집 장가를 갔다. 다른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를 더 외롭게 했다. 나는 밤마다 우리 집 문을 열고 찾아오는 폭도들과 마주했다. 폭도가 찾아오지 않은 날에는 군인들이 문을 두드렸다. 나는 자물쇠를 찾아 방에 자물쇠를 채우고 문고리에 손가락을 걸어 밤새 문고리를 붙들고 앉아 있었다. 어느 날은 총을 들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나는 없어진 아래턱을 감싸고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다. 꿈이었나? 의심도 해봤지만 늘 생생해서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문이란 문은 다 잠갔지만, 폭도도 군인도 경찰도 어떻게 그 문을 따고 밤마다 찾아와 나를 겁주는지 몰랐다. 나는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빗장을 잠갔다.

나는 스스로 혼자가 되었다. 나는 울담 아래 피어나는 수선화와 담장을 타고 오르는 개미와 친구가 되었다. 어느 날 담장 아래 멍하니 앉아 있는데 개미 한 마리가 기어가다가 내 고무신으로 다가왔다. 개미는 검정 고무신 앞부분을 만나 오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생각했다. 잡아서 건네줄까? 개미를 자세히 관찰하니 작은 몸매에 허리는 더 잘록해서 도대체 저 허리로 뭘 먹고 사나 궁금해졌다. 그래도 어딘가로 바쁘게 가는 개미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어제 본 개미가 오늘 본 개미인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다. 개미는 늘 어딘가 바빠 갈 길이 있었다. 어딘가 부지런히 가는 개미가 나보다는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날 이후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었다. 희망을 품어본 적도 없다. 늘 머리가 아팠고 어지러웠다. 먹는 것도 고통이었지만 고통을 견디며 먹으면 소화가 안 되어서 괴로웠다. 서면 어지럽고, 앉으면 다리가 아팠다. 골목길을 가다가도 언제 쓰러져 누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고통의 굴레에서 빙빙 돌고 있었다.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었다.

밤 고양이도 친구가 되었다. 까마귀, 까치,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친구가 되었고 어느새 나는 그들에게 말 없는 위로를 받았다. 사람 아닌 모든 미약한 것들이 내 친구가 되었다. 나보다 힘이 센 것들은 모두 무서웠다. 사람이 제일 무서웠다. 그러면서도 늘 사람을 그리워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내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영아, 넌 세상에서 제일 지독한 난리 속에서 살아 남았시난 앞으론 무서울 일 어실꺼여. 그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니? 너는 이미 무서운 일은 다 겪었시난 세상 무서울 게 뭐가 이실 커냐? 이제 액운은 다 지나갔어. 혹시라도 남은 액운이 네게 남았다면 그건 내가 짝 쓸어다가 저승 가는길에 버리고 가마.”

저승길까지 내 고통을 짊어지고 간다는 할망의 말에 뜨거운 것이 가슴을 타고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럼 슬픔에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물없는 슬픔을 견뎌내기란 말하지 못하는 고통만큼이나 처절한 일이었다.

나는 할망이 죽고 나자 세상 모든 것이 무서웠다. 바람도 무서웠고 붉은노을도 무서웠다. 그중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었다.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낮에 만나는 사람도 밤에 만나는 사람도, 사람은 나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사람의 온기를 그리워했다. 아방의 따뜻한 등, 할망의 거친 손바닥, 언니의 온화한 미소를 그리워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모두 내 곁에서 떠났다. 내게 남은 것은 어둠과 공포뿐이었다.

낮이 밤으로 바뀌는 때가 가장 무서운 시간이었다. 그 무덥던 여름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에도 낮이 밤으로 바뀌는 때에는 하늘이 붉게 타올랐다. 붉게 타오른 하늘은 방안에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흥건하게

젖어 있던 비릿한 피 같았다. 나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의미가 없었다. 굶어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물에 빠져 죽거나 그저 하루빨리 이 고단한 삶을 끝내고 싶었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죽음 자체는. 나는 죽기 위해 살았다. 난리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난리 속에 죽은 사람처럼 아무 데나 던져질 수는 없었다. 집에 키우는 개가 죽어도 죽음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애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그때 죽은 사람들은 인간의 존엄을 갖추지 못한 채 버려졌다. 100명 200명 대량 학살된 곳에서 내 뼈 네 뼈를 가리지 못해 한데 버무려 묘를 쓰기도 했다. 어머니가 총을 맞으며 아들을 덮어서 살아난 사람, 포대기에 업힌 아이가 총에 맞는 바람에 살아난 어머니 등 사연은 제각각이었다. 그들을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들이 제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나는 잘 죽고 싶었다.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죽기를 바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죽을 때만큼은 그날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죽고 싶었다. 바다에 빠져 죽을까, 쥐약을 먹고 죽을까 궁리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평범하게 죽고 싶었다. 박복한 이 긴 목숨을 주신 데에도 깊은 뜻이 있으리라.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내기로 하였다. 4.3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말이다. 다만 오직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 고통스러운 삶을 하루라도 빨리 거두어주길 기도했다.

바닷가에 나가 뭐든 돈이 되는 것을 채취해 팔아보기로 했다. 월령은 판포보다 더 바다가 가까웠다. 바다에 나가 보니 툇이 미역처럼 자라 바위를 덮었다. 툇을 따다가 말렸다. 위헌네가 한림 장에 내다 팔아다가 준 돈을 한푼 두푼 모았다. 툇은 바닷바람이 영양제인지 추운 겨울날 채취한 툇이 더 맛있다. 어차피 우리 집은 온기가 하나 없어 출기는

안이나 밖이나 매한가지였다. 추운 겨울 바닷가에 와서 톳을 채취하다 보면 해가 떠올랐다. 바람은 차지만 갯바위에 얹드린 내 등을 따뜻한 햇볕 한 줍이 내려앉았다. 채취한 톳을 한 망사리 들고 위현네로 갔다.

“어서 옵서. 죽 먹읍써. 밥이면 안 권하는데 죽 끓였시난 죽 한술 뜹서.”

위현네는 언제나 나에게 친절했다. 수저를 내 손에 쥐여 주며 한술 뜨길 권했지만 난 아쉬운 눈빛만 내보이며 뒤로 물러섰다. 용기를 내서 한술 떠볼까 싶었지만, 뭐든 먹으면 줄줄 아래로 새니 남 앞에서는 뭘 먹을 수가 없었다.

턱은 위쪽에 고정된 위턱과 이가 있고, 움직이며 음식을 먹는 아래턱이 있다. 위턱과 아래턱이 서로 만나야 음식을 씹고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난 아래턱이 아예 남아 있지 않았다. 목구멍은 살아서 처음엔 음식을 먹지않으면 배가 고팠지만, 나중에는 창자도 부어버렸는지 뭘 먹고 싶은 생각도 없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다. 난 다른 사람 앞에서 한 번도 음식을 먹어보질 못했다.

위현네는 정지로 들어가더니 작은 보시기에 죽을 덜어주며 집에 가져가 먹으라고 들려주었다. 차라리 다리가 부러졌더라면 그래도 주는 음식을 얻어먹기라도 하련만 무사 턱은 날아가 버려서 먹지도 못하게 만들었는지 원망이 되었다. 먹지 못하니 영양실조로 뼈만 남았고 영양이 부족하니 관절염이 와서 안 아픈 뼈마디가 없었다. 위현네가 준 죽을 사양하며 한쪽으로 밀어 놓았다. 나는 마당에서 콩깍지를 까고 있는 위현의 눈치를 보며 한림 장에 가보고 싶다고 했다.

“성님. 그 얼굴 해서 한림 장까지 가지쿠파? 말만 허민 내가 사다주쿠다. 뭐 필요함수 파? 집에 쥐 들어 와서? 쥐약 사다주까 마썸?”

나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몸뻘 안주머니에서 그간 모은 돈을 위현네

에게 보여 주며 죽을 때 입고 갈 옷을 사고 싶다고 했다. 내 나이도 이제 환갑을 넘은 지도 오래됐으니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이제라도 죽는 것이 복 아니겠냐는 내 말에 위현네는 가만히 내 손을 부여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게 멘 마 씨. 게 멘 마 씨. 아이고 불쌍한 인생. 어떡 할 말이 파.”

위현네는 내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하느님은 나에게 명을 길게 주었지만, 복은 주지 않았다. 복 없이 태어나 긴 명을 잇는 것은 차라리 가혹한 형벌이었다.

“게멘마씨. 게멘마씨.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복이겠지 양. 죽을 때라도 고운 옷 한 벌 입어가야 큰아방도 만날 거고 할망도 만날 꺼주 마썸. 경 해압주. 다음 장에 고치 견게 마썸.”

위현은 짐짓 못 들은 척 헛기침을 하며 먼 산을 쳐다보더니 이내 대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위현네가 기어코 들려주는 죽 한 사발을 들고 돌아오는데 이상하게 희망이 생겨났다. 아! 나도 이제 잘 죽을 수 있겠구나. 선인장 열매도 팔고 톳도 팔아 돈을 모으면 죽을 때 고운 옷 한 벌은 입고 갈 수 있겠구나. 아방을 만날 때랑은 고운 옷 입고 가서 만나야지. 난 가져온 죽에 물 한 사발을 더 넣고 화로에 불을 지폈다. 최대한 불을 줄여 오래도록 쌀이 물이 될 때까지 고왔다. 쌀이 흐물흐물 해지자 주걱으로 계속 저어 알갱이가 하나도 남지 않게 저었다. 이렇게 끓인 쌀 물을 숟가락으로 떠 넣었다. 반은 흘리고 반은 목구멍으로 넘겼다. 내 한 끼는 늘 그렇게 요란스럽고 구차했다. 그날 밤 위현네가 찾아왔다.

“성님. 나우다. 문 좀 열어줍써. 주무 시 파?”

나는 똑꼭 잠근 자물쇠를 풀고 나가보았다. 위현네는 흰 천에 성냥갑

밑바닥을 감싼 부드러운 천을 받친 무명천을 들고 왔다. 턱에 쳐 맨, 때 묻은 걸레를 풀어내고 무명천을 둘러 머리에 묶어주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거울을 내려서 얼굴을 비춰주었다.

“얼굴 한번 봐봅써. 어 평합니까? 좀 고와 보입니까? 그거 걸레로 쳐 매고 다니는 것 보당은 곱지양?”

나는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였다. 내 흥한 얼굴이 무명천에 가려져서 날아간 턱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고운 천으로 얼굴을 감싸니 아래턱이 있는데 가려진 것처럼 느껴졌다. 고마운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위현네랑 처음으로 버스를 타보았다. 장으로 가는 버스는 사람들이 짹짹 들이쳤다. 자꾸만 집들이 뒤로 내달리고 바다도 뒤로 내달렸다. 나는 어지러워서 위현네 손을 꼭 붙들고 눈을 감았다. 위현네는 한쪽 팔을 뻗어 나를 안듯이 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까지 팔을 풀지 않았다. 언니랑 갔던 참빗 파는집에 가보았다. 그 어명은 아직도 참빗을 팔고 있었다. 참빗을 하나 사고 싶었지만, 저승 갈 때 입을 옷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어 우선 저승 옷부터 사기로 했다. 저승 옷은 삼베옷을 산다고 하지만 내 형편에 무슨 영화를 누렸다고 삼베옷까지 입겠나 싶었다. 그저 깨끗한 무명옷 한 벌이면 되었다. 무명옷 한 벌에 버선 한 벌을 샀다. 위현네 입담으로 무명으로 된 조각 천 하나를 더 얻었다. 죽을 때도 날아간 턱은 가리고 싶었다.

저승 옷을 사서 걸어오는 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머리카락을 나부끼게 했다. 나는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죽을 옷을 한 벌 마련하고 나니 자꾸 욕심이 생겼다. 죽을 때는, 뒤축이 닳아 무명실로 기운 검은 고무신 대신 코가 뽀족하게 솟은 흰 고무신 한 켤레도 신고 가고 싶었다. 이제 보말이 날 철이다. 보말을 주우면 돈이 될 것이다. 보말은 갯바위에

나가면 흔하게 주워다 먹을 수 있다. 너무 흔한 재료지만 간장에 버무린 보말출레는 어느 집 밥상에나 빠지지 않은 여름 반찬이다. 제주가 관광지가 되면서 삶은 보말을 사 먹는 이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보말칼국수를 만들어 파는 집이 생겨났다. 이제 몸을 움직이면 나도 내 한 몸을 건사할 수 있다는 용기까지 들었다.

죽음을 준비하면서 삶에 희망이 생겼다. 고무신값을 벌기 위해 한겨울에도 바다로 나갔다. 바위를 덮고 있는 툇을 땀다. 몸이 아파 오랫동안 일을 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뜸나는 대로 바위틈에 엎드려 툇을 땀다. 툇을 따놓으면 위현이 와서 옮겨다 주었다. 나는 그 툇을 바람에 말리고 햇볕에 말렸다. 장날마다 툇을 팔러 가는 재미가 생겼다. 그런데 그날의 기억은 바닷가에 엎드려 툇을 땀 때도 가끔 찾아왔다.

저벅저벅!!! 쿵쿵.

저벅저벅!!! 쿵쿵.

아! 저기 마을이 불타고 있었다.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나는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났다. 나는 살려달라고 빌었다. 제발 오늘 죽어도 좋고 내일 죽어도 좋으니 고무신 한 켤레 신고 가고 싶다고 빌었다. 나는 바닷가 돌무더기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위로 쳐들고 빌었다.

“제발 살려줍써.”

“제발 살려줍써!”

그러다 풍덩! 나는 뒷걸음치다 바닷속으로 빠져들었다. 지난 장에 사온 옷을 입고 가야 할 텐데. 머리를 곱게 빗고 고운 옷을 입고 언니를 만나야 할 텐데 나는 물에 빠져 죽을 그것보다 이대로 언니를 만나게 될까 안타까웠다.

눈을 떠 보니 방안까지는 좀처럼 들어오지 않는 위현이 방안으로

들어와 앉아 나를 내려다보았다.

“무사 바당에 나가졌수파? 고만 집에 있주게. 큰일 날 뻔하지 않아서게.”

나는 위현의 말에 죽지 않아서 큰일인지 죽을 뻔해서 큰일인지 묻지 않았다. 위현은 영양제를 놓고 있었다. 먹을 것을 잘 먹지 못해 늘 영양 실조에 시달렸다. 씹지 못하니 먹을 것이 제한적이었고, 먹지 못한 날이 많아지니 위도 보타버렸다. 그저 쌀 한 숟가락을 오래오래 고와서 뱃속으로 한 숟가락씩 집어넣고 며칠을 사니 몸이 온전할 리가 없었다. 나는 또 그렇게 며칠을 어둠 속에서 앓다가 일어났다.

죽음을 준비하는 일은 생각보다 활력 있는 일이었다. 웅크리고 앉아 어두운 방 안에 숨어 남의 눈에 띄까 봐 전전긍긍하던 삶이었다. 그러나 나에게도 할 일이 생겼다. 무명천으로 턱을 가리고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길에서 동네 사람들을 만나도 나를 피하지 않았다. 어제는 을생 할망 회갑 잔치에 초대되었다.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웠는데 을생 할망은 몇 번이고 찾아와 내 손을 잡아끌었다. 위현이랑 위현네와 함께 잔칫집에 갔다. 회갑상은 제법 근사하게 차려졌다. 돌미역을 넣은 옥돔 미역국이 회갑상에 올랐다. 마당 한가운데서는 돼지 뼈를 우려내 끓여낸 몸국이 펄펄 끓고 있었다. 제주 잔치에는 돼지 잡고 몸국 끓이면 준비된 거였다. 다른 건 다 사치였다.

잔치 때 잡는 돼지는 마을 계를 통해 잡는다. 돼지는 삶아서 고기를 건져내고 뼈는 하룻밤 동안 핏물을 빼낸다. 핏물은 버리고 깨끗한 물을 부어 팔팔 끓여내 이 첫물은 쏟아내 버린다.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육수가 좀 아까워도 버리는 것이 깔끔한 맛이 난다. 이제 거의 온종일 약한 불에서 고면 몸국에 알맞은 육수가 나온다. 몸은 바닷물 속에서 자란다. 톳보다는 더 너풀거리고 부드럽다. 바람바람 씻은 몸을 넣고 나서 메밀을

물게 풀어 뜨거운 국물에 넣으면 맛있는 몸국이 끓여진다. 나는 몸국 한 그릇을 얻어 집으로 돌아왔다. 괜히 내가 마당에서 한 귀퉁이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게 분위기를 깰 것 같았다. 잔치에 초대될 줄 알았더라면 지난 장에 손잡이가 달린 얼레빗이라도 하나 사다 줄 걸 후회가 들었다.

나는 가끔 해지는 저녁 바닷가 바위에 앉아 있곤 했다. 서쪽 바닷가 마을이라 날마다 하늘을 다른 빛깔로 물들이며 해가 졌다.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해가 바다로 떨어지기 전 낮달이 떠올랐다. 나는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해를 따라 내 몸도 저렇게 바닷속에 잠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 하늘빛도 바다 빛도 푸르지만 날마다 농도가 다르게 푸르고 푸른빛이 점점 검어지면 겨울이 왔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이 치는 날에는 집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가슴에서 화닥화닥 불이 나서 전될 수가 없었다. 그런 날은 바닷가에 앉아 한없이 지는 해를 바라 보았다. 그렇게 해가 바닷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미리 나와 무색하게 떠 있던 낮달이 제빛을 다할 때까지 나는 갯바위 아래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어두워야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다생물들이 그렇다. 밤이 되면 돌 아래에 붙어 있던 고둥들이 스멀스멀 돌 위로 올라왔다. 온갖 바다 곤충들이 제 세상을 만나 활발하게 움직였다.

판포를 떠나와 50년이 흐른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무엇이 두려워서 내가 태어나 부모에게 사랑받고 자란 내 집을 땡개치고 살았을까? 내가 사는 월령에서 도로 하나만 건너면 판포리, 내가 태어나 살던 곳이다. 그날 그 충성이 있기까지 나는 물에 들어가 전복을 따고 밭에 들어가 농사를 지었다. 1949년 1월 충을 맞은 턱이 날아가면서 누구 원망 한번 제대로 못 한 채 그 아픔을 견디어야 했다. 내 인생은 송두리째 총살당했다. 치료조차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난리

통에 아버지도 죽고 두 오라방은 일본으로 피신했다. 그나마 약 뿌리라도 삶아주던 할망도 나이가 들어 화병으로 죽고 나 홀로 남게 되었다. 나는 사고가 나고 유일한 혈육인 언니가 있는 이곳 월령리로 오게 되었다. 아랫마을 사는 언니가 나를 데리러 왔다.

“따라나서라.”

나는 쉽게 따라나설 수 없었다. 친절 붙이라고 하나 있는 거 이 꼴을 해서 어떻게 시집간 언니에게 얹혀산단 말인가.

“언니 됐수다. 여기서 살당 죽으면 되지 마 씀. 이 꼴로 어디를 따라나설것 파?”

언니는 나를 부둥켜안고 울었다. 언니는 그렇게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아랫마을로 내려갔다. 언니를 배웅하고 들어오는 길 바다로 해가 떨어지고 있었다. 아! 나도 저 해를 따라 바닷속으로 잠길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날 언니는 또다시 나를 데리러 왔고 그다음 날도 데리러 왔다. 나는 언니를 배웅하러 나온 차림으로 언니를 따라나섰다. 밤마다 찾아오는 저벽저벽 발걸음 소리 때문에 도저히 혼자 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죽은 세월로 산 세월이 50년이 넘었다.

그나마 언니는 나 때문에 속이 삭았는지 일찍 저세상으로 가버렸다. 언니가 죽자 쥐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모진 목숨 끊을 힘도 나에겐 없었다. 언니가 죽고 난 후 사촌 동생 위현이 나를 돌봐주었다. 고향을 떠나온 이후 한 번도 고향 집에 가지 못했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웠으면 죽지 않고 살아서 큰일이라는 일을 고향에서 겪었다. 십 리도 안 되는 고향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다리나 팔이 부러졌다면 이러한 고통이 없었을까? 하필 턱이 날아가

버릴것은 뭐가? 수도 없는 나날을 고개를 처박고 가슴을 쥐어짰다. 총상은 날이 꺾으면 쭈서대 견딜 수가 없었다. 그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악몽의 그 날이 반복되는 밤이었다. 5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고향 땅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한림 장에 갈 때도, 보건소에 약을 타러 갈 때도, 버스는 고향마을을 지나왔지만 나는 일부러 바닷가 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먼바다를 쳐다보았다.

어제는 꿈에 아버지가 오셨다. 아버지는 지계에 진달래꽃을 한가득 지고와서 마당에 부려 놓았다. 나는 아버지가 꺾어온 진달래꽃을 따서 화전을 지졌다. 옛 판포 집 앞마당에 솔뚜껑을 뒤집어 놓고 콩기름을 두른 철판에 찹쌀가루로 만든 지름 떡을 지졌다. 노릇노릇 구워진 지름 떡에 진달래꽃을 떼서 모양을 내고 있었다. 이제 막 접시에 옮겨 담고 아버지께 드리려 했는데 아버지는 이미 대문 밖을 나서고 있었다. 아버지는 화전을 지지고 있는 나를 두고 다시 산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나는 아버지를 불렀다.

“아방! 나도 데려 갑 씨!”

“아방! 나도 데려 갑 씨!”

아방은 지계를 지고 가다가 살짝 돌아보더니 나에게 그만 들어가라고 손을 내저었다.

아침에 일어나서야 할 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꿈이었지만 참 오랜 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오늘은 옛집에 한번 가보자’

난리 통에 아버지도 오라방도 잃었다. 병든 할망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시집간 언니가 사는 월령리로 들어왔다. 그 이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 고향을 떠난 지도 반백 년이 다되어 간다.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고향 땅을 뒷집 사는 기현할망 손을 꼭 잡고 건너왔다. 집도 변하고 길도 변하고 앞이 왁작해지고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다. 이 골목 저 골목을 더듬다 보니 어떤 아낙이 다가와 말을 걸었다.

“삼촌. 나 알아 집니까? 저 옷뜨르 철구 각 시우다.”

다행히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나타나 옛날 내가 살았던 집을 안내해 주었다. 우리 집에 다다르자 가슴이 뛰었다. 우리 집 안채는 그대로 있고 바깥채는 돌아앉아 있었다. 울담에 붙어 있는 밭에는 마늘이 싹 트고 있었다. 나는 함께 간 기현할망에게 기대어 그날의 기억을 떠오르는 대로 말했다.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어질어질해서 담벼락으로 몸을 붙였다.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그날의 총성이 들리는 듯하였다. 아! 그날 나는 왜 총을 맞았던가? 누가 쏜 총알이 내 턱을 날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던가?

나는 그간의 세월을 원망도 할 겨를 없이 매 순간 찾아오는 공포에 질리면서 육신의 고통을 감내해 왔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살아온 세월조차 누구에게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그저 총을 맞아서 죄인이고 죽지 않아서 죄인이었다. 나는 옛집에 이르러서야 눈물이 쏟아졌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흰 구름은 떠가고 있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을 아는지 모르는지 봄이 되면 여전히 산에 진달래가 피고 울담 안에 동백꽃이 붉게 피었다. 총에 맞은 내 턱은 날아가 밭에 녹아 한 줌 흙이 되어 찾을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은 재건 사업을 일으켰다. 지붕을 고치고 허물어진 담을 고치고 큰길을 내고 물을 길어가던 허벅은 뒷간으로 물러가고 집안까지 수도가 들어왔다. 모든 것이 재건되어 같

때도 내 턱은 재건되지 않았다. 나는 누굴 원망하지도 못한 채 숨을 죽이며 살았다. 내가 살던 내 집은 철문이 달려 들어가지 못하고 흰둥이 개가 킁킁 주인인 나를 보고 짖어댔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십 리도 안 되는 길, 도로 하나면 건너는 이 길을 나는 왜 진작 와보지 못했던가. 참 멀고도 먼 길이었다.

오십 년 만에 판포리에 다녀온 후 나는 몸져누워 일어나지 못했다.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다. 온몸에서 열이 나고 머리가 터질 듯 아파졌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온몸이 쭈서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다. 온몸의 살이 몸국에 담긴 돼지 뼈에 붙은 살처럼 녹아서 흘러지는 느낌이 들었다.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었다. 이제는 그만 아방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위현에게 진통제를 맞으러 갈 힘도 없었다. 그렇게 사나흘 동안 꿈쩍없이 앓고 있을 때 위현이 집으로 찾아왔다. 시에 사는 아들네가 집 사서 이사를 하는데 다녀왔노라며 이렇게 아픈지 몰랐다면 미안해했다. 나는 위현네가 방으로 들어서자 안도감에서 그랬는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그 후 나는 성이시돌요양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분홍빛, 보랏빛 수국이 활짝 피었을 때 들어온 요양원에서 겨울을 나고 다시 봄을 맞이했다. 요양원 마당에는 아름다운 성당이 있다. 성당의 초록빛 삼각 지붕에 봄별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의 하루는 미망의 세월일 뿐이었다. 눈을 감으면 월령리 갯바위에 앉아 있었고 바닷가 돌 틈에서 보말을 주웠다. 툇을 낚으로 베어서 한 망사리 이고 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본 월령리의 내 모습은 힘있고 당당한 제주 여성이었다.

작은 개미들도 꾹꾹하게 자기 길을 가는데 나는 죽을 때까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던 삶이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삶은 나의 인생을 파괴했다.

있으려 발버둥 칠 때 더 또렷한 기억이 날 괴롭게 했다. 기억하고자 할 때는 꿈처럼 아득해졌다. 나의 불행은 무장대와 토벌대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들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내 불행을 세상과 흥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내 억울한 세월은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나 하는 원망도 많았던 세월이었다.

그래도 나는 긴 세월 살다 보니 마을 사람들의 보살핌을 받았다. 혼자서 살 수 없게 되자 이곳 요양원으로 옮겨져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더 춥지도 덥지도 않고 밤바다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며 충을 들고 찾아오는 일도 없다. 봄날 햇살처럼 따사롭고 평화로운 날들이다. 그러나 아직 내 소망은 이루지 못했다. 아직 나의 생은 미망이다.

“아영아! 아영아!”

밖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났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아방!”

나는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다.

아버지는 내 손을 잡고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가자. 인제 그만 가자.”

아버지는 자리에 앉아 등을 내게 내어주었다.

90이 넘는 나이에 나는 50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등에 업혔다. 아버지 등에서는 땀 냄새가 났고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나는 아버지 등에 가만히 얼굴을 대고 눈을 감았다. 이제야 떠날 수 있구나. 참 모질고 긴 세월이었다.

눈을 떠보니 내 사진이 걸려 있고 여러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다. 위헌은 향불이 꺼지기 전에 향을 사르며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나를 돌봐주었던 성 이시돌 요양원 수녀님 주재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다행히 나는 화장되지 않고 이 육신이 묻힐 땅 한 평을 허락받았다. 내 관을 젊은 사내들이 여럿이 들고 산길을 올랐다. 나는 아버지를 등에 업혀가고 내 고단한 설움은 관속에 담았다. 한여름을 피해 가을이 시작하는 계절에 춥지도 덥지도 않은 날에 나는 떠났다.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도 피했고 바닷물에 던져져 고기밥이 되는 것도 피했다. 내 살아온 세월 하루도 편한 날 없었고 몸 한구석 안 아픈 데를 찾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는 살아냈다. 죽지 않고 살아냈다. 하느님이 부르기 전까지 살아냈다.

살아서 받지 못한 대접 죽어서 가장 후한 대접을 받았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봐 주었다. 내 관이 땅에 들어가고 흙으로 내 육신을 묻고 붉은 영장도 덮었다.

‘진 아영 (마리아) 之墓’

나는진 아영으로 태어나 무명천 할머니로 살다가 진 아영으로 돌아갔다. 영정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턱을 무명천으로 감싸 머리에서 묶은 여인의 얼굴엔 주름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눈은 아직도 공포에 떨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떨고 있는 눈을 쓰다듬어 주었다. 이제는 밤마다 저벅저벅 발소리를 내며 찾아오는 순경도, 군인도 오지 않겠지. 이제는 밤마다 턱을 감싸 쥐고 고통을 호소하는 날도 없겠지. 이제는 밤마다 찾아와 감자를 내놓으라고 죽창을 들고 서 있는 폭도도 없겠지.

붉은 영정이 내관에 정성스럽게 놓이자 수녀님께서 미사를 주도하셨다. “그리스도 님께서 평화 속에 받아들였다가 부활시켜 드릴 것입니다.”

내 관을 향해 성수가 뿌려졌다. 내 무덤에도 돌을 골라내고 고운 흙이 덮였다. 고운 흙 위에는 잘 자란 피가 정성스럽게 덮였다. 내 살아생전 겨우 바람을 피하고 눈, 비를 피하며 살았지만 죽어서는 양지바른 곳에 고운 흙 위에 푸른 잔디까지 덮였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따뜻하고 안온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직 소원이 있다면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을 위해 톳을 따다 말리고, 미역을 따다 말려서 한푼 두푼 모은 돈으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말아 주었으면 하는 내 유언이 지켜지길 바랄 뿐이었다.

엄숙한 거고 경건했지만, 누구 한 사람 내 죽음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이는 없었다. 그저 편안한 곳에서 편히 쉬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은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내 머리카락을 간지럽혔다. 일평생 죽음을 준비해 온 삶! 뉘라서 눈물을 흘리랴! 그저 여러 사람의 축복 속에 떠나게 돼서 기뻐다. 나는 평화 속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늘 혼자 외로웠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고마운 이들이 참 많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를 거둬준 언니가 그랬고, 한마을에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나를 돌봐준 사촌 동생 위현이 그랬다. 동네 사람들도 오며 가며 먹을 것을 마당에 들여 주었다. 바닷가 옆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가 밭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내가 톳을 팔 수 있는 곳은 나에게 남겨두고 먼 곳으로 나가 주었다.

세상이 바뀌며 사건에 대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다. 말을 하지 못해 나는 온몸으로 아우성을 쳤지만, 그들은 내 말하지 못하는 말은 그들 마음껏 받아들였다. 그래도 나는 내 억울한 세월을 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살다간 인생도 무슨 뜻이 있겠지. 그 뜻을 깨우치지 못하고 가지만 그저 이제라도 이 세상을 뜰 수 있어 반가웠다. 젊어서 죽은 아버지 등에 업혀 아버지보다 더 폭삭 늙어 죽은 나는 그렇게

바라던 황천길을 떠났다.

제주속담에, 인생은 ‘사람은 이웃집에 불씨 얻으러 잠깐 왔다 가는 신세’라는 말이 있는데 나는 명이 긴 것을 원망하며 살았다. 할머니는 둥근 보름달이 밝게 떠오르는 날 뒷간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우리 아영이. 명도 길고 복도 길게 주소서.”

그러나 할머니의 기도로 명은 길게 받았지만, 복은 받지 못했다. 복 없이 긴 명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았다. 그런데도 황천길로 돌아서니 지나온 세월은 한없이 덧없게 느껴졌다. 인생은 참 종잡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도 나는 내 명대로 살아냈다. 나는 4.3 때 바로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을 원망했다. 그러나 그때 내가 죽었더라면 고통은 거기서 끝났겠지만 나는 곳곳하게 살아내 4.3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었다. 나는 4.3의 증인이 되고자 산 것은 아니었다. 그저 살아있는 목숨을 꿀을 수 없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다. 그렇게 어두운 세월을 살아내니 사람들은 내게 손을 내밀어 주었다. 죽고 싶은 날들이 더 많았던 세월 죽음을 준비하며 4.3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죽고 싶은 소망 하나만으로 살아냈다. 나는 소망을 이뤘다. 이번 생은 고단하고 누추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살아냈다. 이번 생을 살아낸 성적표로 다음생에는 꽃처럼 예쁘게 나비처럼 가볍게 태어나리라. 아흔이 넘은 나이에 쇠살에 죽은 아버지 등에 업혀 나는 간다. 내 죽음에 슬픔을 못 이겨 울음을 울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위헌이 망부석이 되어 자리를 뜨지 않고 앉아 쉬지않고 기도했다. 그저 내가 마음 편히 떠날 수 있기를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여러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다. 내가 떠나는 길, 아무것도 남기고 갈 것도, 남기고 갈 사람도 없다는 것도 홀가분했다. 나는 홀가분했다. 꽃잎처럼 가볍게. 나비처럼 훨훨.

영광 카메라

군산용문초등학교 공 자 영

아버지가 쓰러진 지 3년째, 선정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아버지의 가게를 유지하는데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7만원, 이미 200만원을 넘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이제는 가게를 정리하겠노라 통보를 하러 가는 길이다.

엄마와 아버지는 병원에서 산다. 선정이 한 손에는 가넷세 나가는 통장을 들고, 다른 손엔 참외 한 봉지를 들고 대학병원 재활 병동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이제 막 점심을 드신 듯 입을 닦고 있다.

“어, 왔어? 은석 아빠, 선정이 왔네요.”

아버지는 목에 턱받이를 하고 있다. 엄마가 휴지로 입을 닦는 대로 입술을 움직인다. 아버지가 선정이와 눈을 맞추고는 손하트를 날린다. 아버지가 소통하는 몇 개의 언어다. 그는 뇌기능의 70퍼센트를 잃었다. 걸을 수도 혼자 설수도 말을 할 수도 없다. 그저 싫은 것은 ‘씨발’이라는 단어로, 참을만한 것은 ‘침묵’으로, 애정은 ‘손 하트’를 날리는 것으로만

표현된다. 선정은 아버지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점심 드셨어요?”

“응, 이제 막. 바쁘는데 뭘 와. 주말에 이 서방이랑 올 거면서.”

엄마는 낮은 보호자 침대로 자리를 옮겨 앉는다. 침대 머리맡 서랍장을 열어 과도와 그릇을 꺼낸다. 그 서랍장과 침대가 3년간 엄마의 살림집이었다. 서랍장 안에는 갖가지 다회용 용기들이 가득하다. 햇반 그릇, 본죽 그릇, 나무젓가락, 위생봉투가 좁은 서랍 안에 질서있게 정리되어 있다.

“휴직 중이니까 이 시간에 오지. 운동은 몇 시에 시작해요?”

“2시. 여기 앉아.”

엄마는 선정의 무거운 배가 마음에 쓰여 얼른 의자를 권한다. 선정은 임신한지 6개월이 되었다. 둘째가 어렵게 생겼는데 초기에 아기가 자리를 잡지 못해 꼼짝없이 누워 두 달을 보냈다. 이제는 안정기에 들어섰다고는 하지만 엄마는 행여 무리가 될까 서둘러 앉힌다.

“엄마, 영광 카메라 정리할까?”

선정이 엄마에게 버르던 말을 한다. 영광 카메라는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의 의사를 물어야 하지만 선정은 아버지에게 말을 거는 것이 어색하다. 3년이 지났지만 아버지의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안 된다.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하고 있는 그가 사고라는 것을 하고 있는 지도 짐작이 안 된다.

“은석이한테 들었어. 가게 정리하자고. 은석 아빠, 당신 가게, 영광 카메라, 이제 정리할까?”

엄마는 티비를 보던 아버지의 얼굴을 손으로 돌려 시선을 맞춘다. 갈팡질팡하던 아버지의 눈이 엄마를 맞추고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눈을 흘긴다.

“정리하지 마?”

엄마의 반복된 질문에 팔을 휘저으며 인상을 찌푸린다. 선정은 조금증이 난다.

“아버지, 이것 봐. 가겟세가 너무 많이 나갔어요. 가게는 전세라 월세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행이기는 한데 영광 카메라 앞으로 다달이 나가는 돈이 꽤 돼요. 매달 나가는 거 보이지요? 이게 전기세, 이게 수도세, 이게 전화비예요. 3만원, 2만원, 2만원. 쓰지도 않는 돈이 나가니까 나는 너무 아깝네. 거기 상가 규칙이 그렇대요. 우리는 가게 문도 닫고 아무 것도 안 쓰니까 공과금도 안 내면 좋겠는데 그 건물에 계량기가 한 대라 어쩔 수 없대요. 가게마다 얼마나 쓰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똑같이 나눠서 내야 한대. 계산해보니까 벌써 200만원이 넘는 거 있지요.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정리해야겠어요.”

선정은 아버지 눈앞에 통장을 들이민다. 아버지는 움직임이 가능한 왼손으로 통장을 받아들고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살핀다. 아버지는 고민을 하는 것 같다. 한참을 선정의 눈과 통장을 번갈아 보더니 눈이 붉어진다. 눈물이 차오른다. ‘다시 시작하더라도 지금은 우선 정리하세요’에 담긴 거짓말을 읽었을까. 그 전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는 걸까. 이제는 고집부릴 수 없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선정이 더는 감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알아챘을까?

하지만 아버지의 미련은 선정의 배려대상이 아니다. 아버지의 눈을 외면하고 계획한 이야기를 꺼낸다.

“엄마, 나 이제 둘째도 낳을 건데 엄마가 애 좀 봐 줘. 기린동 집도 정리하고 우리 동네로 이사하자.”

선정은 엄마가 어떤 인생을 꿈꿨는지 안다. 엄마는 아버지 그늘에서

살다가 남편 그늘에서 살다가 자식들 살림을 봐주는 전형적인 가정 주부를 동경했다. 엄마는 스스로를 매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규정했다. 익숙한 곳만 밟고 다니는 삶을 지향했다. 형편이 나빠져 결국은 일을 하러 나가야 했지만 엄마는 손주를 보며 저녁 찬거리 걱정만 하고 사는 삶을 늘 부러워했다.

“피, 너 어차피 휴직하고 애 볼거잖아.”

“당연하지. 근데 2년을 휴직하고 복직해도 애가 어려서 나 혼자서 못 해. 내가 큰 애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다고. 이 서방은 새벽에 나가서 늦게 퇴근하니까 다 내 몫인데 애 둘을 내가 다 어떻게 해. 엄마가 필요해.”

선정은 회심의 카드를 쓴다. 엄마가 아버지의 ‘영광카메라’와 기린동 집을 정리해야 하는 명분을 던진다. ‘당신이 필요해요’ 전법. 당신은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나를 위해 당신의 소중한 것을 조금 양보해 주시겠어요?

“너네 동네 어디?”

“이제 알아봐야지. 우리 아파트나 근처 아파트로.”

“아파트면 비쌀텐데?”

“우선 알아보고. 기린동 집 비싸게 팔아 볼게. 가게 전세금이랑 하면 방법이 있을 거야. 나 출근하려면 엄마가 근처에 살아야 한다니까. 엄마 없으면 나 일 못 나가”

엄마와 아버지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침대와 같은 것들을 얼마나 소망했는지 안다. 구도심 가게 뒷방에서 살면서 언젠가는 남들처럼 제대로 꾸며 놓고 살겠노라 얼마나 다짐했는지 안다. 엄마의 마음에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는다.

“당장은 안 돼. 네 아버지 아직 좀 더 재활해야지.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갈 정도 될 때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돼.”

“그래요. 아직은 좀 더 해 봐야지. 참, 보험비도 들어왔어요. 병원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 그 보험이라도 들어두길 잘했다. 다음 주부터는 새자인 병원으로 와. 거기서 가기로 했어.”

“또 옮겨요?”

“응,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3개월만 있을 수 있대. 발병하고 초창기는 6개월까지도 봐주는데 새로 병에 걸린 사람들 받아야 하니까 오래된 환자는 나가라고 하나 봐. 과잉진료니 뭐니 하는 법 때문이래”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처음 일반 병실로 내려왔을 때 의사는 처음 1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 다음은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했다. 의사의 말 그대로였다. 아버지도 처음 1년은 차도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후로는 늘 그만그만했다. 병원에서 1년이 지난 환자는 가정이나 요양병원에서 치료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처음 치료를 시작한 아버지는 중환자실, 일반 병실, 재활 병동을 거친 후 송주시의 재활의학과가 있는 병원을 순례했다. 새자인 병원, 드림병원, 다시 대학병원.

“내가 아버지랑 더 얘기해 볼게. 이제는 나도 그 동네로 돌아가는 것이 좀 그래. 그 동네에서 낡고 기던 양반이 이렇게 나타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 이러니 저러니 말 듣는 것도 싫고, 네 아버지 안쓰럽게 바라보는 것도 싫고 그래.”

엄마도 그 동네로 돌아가기 싫단다. 누구라도 그 낡고 습한 곳이 좋으려면 싫다는 이유가 뜻밖이라 선정의 마음에 균열을 만든다.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 엄마 아버지한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온 마음이 또 무너진다.

아!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집에 들르지 않은 거구나. 엄마는 매주 찬거리도 챙기고 빨래도 하러 집에 갔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집에 데려가지 않았다. 명절날 3일씩 재활 훈련이 없는 때에도 병원에서 자식들 인사를 받았었다.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하고 잠은 병원에서 잤다. 귀찮아서 그런가 보다 했다. 집에서 샤워들 맞으려면 음식이며 청소가 부담이 되니 그러나 했다. 집에는 침대도 소파도 없으니 아버지 계시기 불편해서 그러겠거니 추측했었다. 그런데 엄마는 아버지의 얘기를 묻는 이들과 말을 섞을 때도 있었겠지. 아버지의 상태를 전하는 게 괴로웠던 순간이 있었던 거겠지...

선정은 엄마의 또 다른 아픔을 알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 아버지가 쓰러지고나서 지금껏 엄마는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었을까. 처음 병원에 왔을 때 의사는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했었다. 쓰러진 지 열 시간이 넘은 상태라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니 뇌의 왼쪽은 팽팽 부풀어 올라 오른쪽 반구를 밀어대고 있었다. 의사는 응급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머리뼈를 조금 떼어내고 다친 뇌가 충분히 부어오를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수술은 다섯 시간이 걸렸다. 자정에 시작된 수술이 새벽까지 진행되었다. 대기실에서 엄마는 내내 늦게 발견한 당신을 탓하며 잘못된 점을 복기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가게에서 100미터 떨어진 집에 오지 않고 가게 뒷방에서 혼자 주무셨다. 엄마는 아침 출근 전에 주무시는 아버지는 들여다보고는 나갔는데 그 일을 좀 더 성의있게 했어야 했다고 후회를 했다. 엄마는

새벽에 일어나 아들 밥 챙겨주고 식당에 출근을 했다. 아버지는 가게에서 밤새 티비를 보다 매일 늦잠을 잤다. 엄마는 아침이면 가게의 셔터를 올리고 어질러진 가게를 치우고 잠든 아버지의 뒷통수에 출근 보고를 해야 했다. 엄마는 그의 게으름이 꼴 보기 싫었을 거다. 그런데 퇴근하고 들른 가게 뒷방에서 아침의 상태로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어깨를 두드리고 얼굴을 때려도 반응이 없는 아버지를 흔들다가 이부자리에서 대변의 흔적을 보았다. 가슴이 철렁했다. 흐트러진 이부자리가 고통의 몸부림이었구나. 열린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열 두통. 이미 골든 타임을 놓쳤을 거라는 예감에 두려움이 몰려왔다. 어쩌면 아침부터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조금만 주의 깊게 살폈다면 밤사이 이상한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 병원에서 몇 명의 간호사와 의사가 언제부터 의식이 없었느냐고 물을 때마다 엄마는 자식들에게 변명을 하고 자책을 했다.

동이 터 올 때까지 수술은 끝나지 않았다. 엄마와 선정, 은석이는 수술실 앞에서 서로 눈 좀 붙이라고 가끔 말을 거는 것 말고는 혼자만의 시간에 잠겼다. 의사는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절대로 상태를 좋게 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했다. 그저 다친 뇌가 부풀며 다른 뇌를 죽이지 않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는 물리적인 수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술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모두는 같은 소원을 빌었다. 제발 다시 원래대로 건강하게 해 달라고. 아버지의 머리뼈를 살짝 떼어 놓는 수술이 아니라 오늘 일어난 일을 도려내는 수술이길 바랐다.

의사 선생님에게 울면서 살려달라고 비는 순간에도 엄마는 엄마대로, 선정이는 선정이대로, 은석이는 은석이대로 아버지의 질병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갔다. 병원에 얼마나 입원해 있어야 하는지,

간병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병원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그 중 각자 맡아야 할 일들과 맡을 수 있는 일들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엄마에게 좌절이 아닌 순간이 있었을까. 처음 1년 동안에는 희망의 순간도 있긴 했겠지. 의식을 찾았을 때, 일반 병실로 내려 왔을 때, 일반식사가 가능해졌을 때, 혼자 식사를 하게 되었을 때, 손을 잡고 천천히 걷게 되었을 때. 매주 면회를 갈 때면 한주의 실적을 신이 나서 자랑하고는 했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한 재활이었다. 아무리 언어치료를 진행해도 싫은 건 ‘씨발’이었다. 도움 없이 혼자 일어날 수 없었고, 화장실은 자주도 갔다. 운동을 열심히 시키면 무릎에 염증이 생겼다. 어떤 음식은 기도로 넘어가 폐렴을 유발했다. 이제는 열심히 하면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병이 생겼다. 아무리 훈련해도 아버지의 상태는 제자리였다. 노력이 부작용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엄마도 이제는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엄마의 체념이 수많은 좌절을 통해 만들어진 것일거라 생각하니 선정은 마음이 아프다.

엄마는 아버지 드실 참외를 작게 잘라 포크를 꽂아 준다. 아버지가 고분고분하게 포크를 받아 과일을 입에 넣는다. 선정은 그 장면이 낯설다. 아버지는 건강했을 때 성미가 불같고, 입담이 걸걸하고, 자존심이 강했다. 절대로 엄마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약자에게 결코 너그럽지 않았다. 가끔 장애가 심하거나 치매에 걸린 사람에 대한 혐오도 서슴지 않았다.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꼭 혀 깨물고 죽어버리지.”

“저게 산 목숨이여, 죽은 목숨이지. 저러고도 살고 싶다고...”

중환자실에서 당신의 상태를 인지한 후로 처음 한 말도 ‘죽고 싶다’

였다. 아버지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당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던 병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가 ‘죽고 싶다’고 한 말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처지가 죽도록 싫다는 뜻이지 진짜 죽고 싶단 뜻은 아니었다.

선정은 아버지가 죽인 것은 그의 자존심이었다고 생각한다.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당신이 대장이 되지 않아도 가정은 유지되는 것이다. 선정이 사춘기 때부터 진행했던 강한 가장과의 대결이 이렇게 흐지부지 되는것 같아 괜한 심술이 난다.

선정은 아버지가 싫었다. 특히 오늘 정리하기로 맘먹은 그의 카메라 가게 ‘영광 카메라’가 싫었다.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다. 당신이 가장이니 당신을 중심으로 가족이 움직이는 것이 당연했다. 설명이 없어도 그가 행하는 것은 명령이었고, 정의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은 그만큼의 권력을 갖는 일이었다. 그는 선정 가족의 주인이었다.

선정은 ‘영광 카메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곳은 아버지의 일터이기도 했지만 선정의 집이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선정의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는 선정 인생의 사소한 부분 까지 대신 결정하려고 했지만 당신에 대한 건 어떠한 참견도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아버지는 가게가 항상 열려있어야 한다고 했다. 아버지가 있건 없건 항상 문은 열려있어야 했다. 문을 여는 시간도 닫는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다. 휴일도 없었다. 엄마는 진열장 뒤에서 멸치를 짚고, 시금치를 다듬었다. 자식들은 틈만 나면 가게를 봐야 했다. 물건들에는 가격표도 붙어 있지 않았다. 환율에 따라 가격이 바뀐다고 했다. 일본에서 들어오는

물건들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정가제로 운영하면 사람마다 다른 가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눈치 빠른 둘째 은정은 재주껏 간단한 소모품을 팔기도 했다. 하지만 선정은 ‘부모님 잠깐 출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겠어요.’라는 말 말고는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엄마는 가게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아버지에게 자주 혼났다. 가게에서 냄새나게 식재료를 다듬는다고, 궁상스럽게 뜨개질을 한다고 혼났다. 메모의 글씨가 흐리다고 혼났고, 어음날이 되었는데 돈 구할 능력이 없다고 혼났다. 선정은 그때마다 왜 일관성도 없는 아버지의 말이 매번 법이 되는지 황당했다.

사진작가 협회의 선거철이나 작품 출품의 계절이 오면 ‘영광 카메라’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영광 카메라’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진작가 협회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인맥을 쌓고 협회의 선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곧 여러 대회 심사위원이 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고객들에게 높은 상을 줄 수 있는 권력을 뜻했다.

밤이 새도록 사진인이라고 불리는 고객들은 누가 우리 편인지 상대방 인지를 갈랐다. 상대 진영을 염탐하고 비난했다. 밀어줘야 하는 인사와 끌어내려야 하는 인사를 구분했다. 원래 장사라는 것은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돈을 받는 행위이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들에게 주는 것들은 형체가 애매하고 선명하지가 않았다. 선정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예술인지 장사인지 정치인지 알 수가 없었다.

‘영광 카메라’에서 아버지는 왕이었다. 등단을 원하는 초보 사진인들은 아버지를 스승으로 모셨다. 아버지는 동호회 만들어 출사를 다니며 촬영

명소를 하나씩 풀어내며 돈을 벌었다. 우선은 성능이 좋은 값비싼 카메라를 구입해야 회원이 될 수 있었다. 찍어온 사진들을 품평하고, 촬영기술을 알려줄 때면 고객들은 김사장을 선생님이라고 깎듯하게 대했다.

김 선생님이라고 치켜세우던 이들 중 이 병실을 찾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아버지는 참외를 다 먹고 티비를 본다. 엄마는 참외가 담겨있던 햇반 그릇을 씻어 놓고는 오후 운동을 가야 한단다.

“나 영광 카메라 가 보려고요. 뭐 시키실 일 있어요?”

“시킬 일은 없고, 집에 가서 냉장고 윗 칸에 넣어둔 반찬 가져다 먹어.”

엄마는 주말에 집에 들어서 선정이 갖다 먹을 반찬도 해둔 모양이다.

“힘드네 뭐 우리 먹을 반찬까지 하셨어. 잘 먹을게요. 엄마도 식사 잘 챙겨드시고, 아버지도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운동하세요.”

엄마는 엄마의 두 배는 되는 아버지를 불끈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고는 입원실을 나선다.

선정은 결혼한 후로 기린동을 떠났다. 집에 가끔 들르기는 했지만 아버지가 쓰러진 후로 ‘영광 카메라’의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다. 가게와 관련한 자잘한 심부름은 은석에게 맡겨 뒀는데 정리를 하려면 정확한 견적을 위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터를 올리고 본 ‘영광 카메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가게를 이 자리로 옮긴 후 한 번도 바꾸지 않은 벽지는 섯누렇다 못해 시커멓다. 분명히 중고로 사 왔을 소파는 여기저기 커버가 벗겨져 있다. 진열장에는 오래도록 팔리지 않은 카메라 소모품이 가득하고 캐비닛 안에는 수리를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은 똑딱이 카메라가 빼곡하다.

온통 쓰레기다. 깨진 유리를 테이프로 붙여놓은 진열장, 벽면을 채운 철골 전시대, 오래전 구독한 일본어 잡지, 쓸모를 알 수 없는 촬영 장비들. 이 중에 남길 것이 있기는 할까. 가게에도 가게 뒷방에도 선정의 눈에 쓸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온 가족이 모여 치워도 며칠이 걸릴 일이고, 트럭을 대여하고 폐기 비용까지 생각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선정은 묵직한 배를 쓸며 폭 꺼진 소파에 앉는다. 짜증이 밀려든다. 대체 왜 이 가게는 유지하는데도 돈이 드는데 치우는 데에도 이렇게 돈이 드느냐 말이다. 전세금을 받아도 처리비용을 빼고 나면 얼마나 남겠느냐 말이다. 이 유물 같은 짐들을 짊어지고 있다가 물려주는 저의가 무언가 싶다. 원망스럽다.

선정이 ‘영광 카메라’를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10년도 전 일이다. 더이상 ‘영광 카메라’는 생계를 책임져주지 못했다. IMF도 어렵사리 넘겼는데 그놈의 디지털 카메라와 포토샵이 문제였다. 이젠 패러다임의 전환이었다. 필름카메라의 구조 속에 사는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기술이 물거품이 되었다. 디지털 카메라는 필름과 현상 수수료라는 비교적 소소한 수입에 대한 문제였다. 그런데 포토샵은 사진가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흔들었다. 몇 년 동안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을 과연 작품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협회 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이제껏 아버지는 연출로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촬영을 하기에 적당한 계절, 적당한 시각, 적당한 소품과 모델. 아버지는 적재 적소에 고객들을 안내하고 좋은 사진을 건지도록 안내하며 단골들을 관리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포토샵으로 태양도 옮기고, 구름도 만들고,

불필요한 피사체는 지우기도 한단다. 어떤 것은 너무 감쪽같아서 포토샵을 이용했는지 알아채지도 못했다. 변화는 빨랐고 ‘영광 카메라’는 늙었다. 그 곳의 왕은 변화를 쫓아갈 자본도 유연성도 없었다.

그 무렵 엄마는 반찬가게에 일을 나갔다. 아버지는 ‘영광 카메라’에 앉아 엄마가 받아오는 일당으로 가겟세를 내고 대출이자를 냈다. 동네 통장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다. 가가호호 쓰레기봉투를 배달하고 주민들과 잡담을 하며 일과를 보냈다.

엄마가 손을 깊이 베고도 비닐로 꼼꼼 싸매고 출근을 한 날, 선정은 아버지에게 다른 벌이를 생각하는 게 어땠겠냐고 입을 떼 본 적이 있다. 대기업을 퇴직하고 경비를 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어쩌면 저리도 뻔뻔할까 싶어 알미웠더랬다.

아버지는 충격을 받은 듯 한참을 말이 없었다. 하늘을 보며 눈물을 삼키기도 하고, 입술을 깨물며 먼 곳을 응시하기도 했다.

“나도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렵게 입을 열고는 감정이 복받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렸다.

“네 뜻은 알겠다. 가 봐라.”

그 뒤로 점심을 드신 후에는 설거지를 해 놓았고, 보리차를 끓여 놓았고, 어머니한테 큰소리를 덜 쳤다.

하지만 돈벌이를 하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아파트 관리소장은 괜찮는데 경비원은 도무지 못하겠다고 했다. 경비원은 하겠는데 면접은 못 보겠다고 했다. 공사장 함바집을 운영하고 싶지만 일꾼이 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엄마와 함께 국숫집을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사람 국숫집에서는 일할 수 없다고 했다.

선정은 끝내 변하지 못한 아버지처럼 과거에 박제되어 버린 ‘영광 카메라’를 둘러본다. 이곳에 선정에게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가 살펴본다. 딸에게 가치 있는 아버지의 물건이란 마음을 주고받은 추억이다. 가족을 버리고 꿈만 좇다 주저앉은 그의 업적이 아니다. ‘영광 카메라’에는 선정이 채길 물건이 없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엄마한테 전화를 건다.

“엄마, 가게 왔는데 버려야 할 것들이 많네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겠어요. 폐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엄마. 뭐 챙겨야 할 것 좀 있어요?”

엄마는 아빠 운동시간인지 전화에 집중하지 못한다. 주변이 소란스럽고, 엄마의 목소리도 어수선하다.

“채길 거? 내가 주말에 가서 볼게. 아버지 물건은 챙겨 와야지.”

“아버지 물건 뭐?”

“아버지 사진들 거기 많아. 필름도 많고. 그리고 아버지 사진 실린 작품집들도 남겨 놔야지.”

“엄마, 너무 많이 남기지는 말아요. 이제 집도 이사할 생각 해야 하는데 그것도 다 짐 돼요.”

“많이 안 남겨. 꼭 필요한 것만 채길 거야.”

엄마는 폐기물 비용 얘기를 듣기는 한 걸까? 버리느라 고생할 배불뚝이 딸 생각을 하기는 하는 거야? 앞으로 이 많은 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선정은 끔찍하다. 하잘 것 없는 이것들 중 채길 것을 고를 시간이 있다는 엄마가 태평해 보인다. 운동 때문에 정신이 없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야속하다.

선정은 ‘영광 카메라’를 정리할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내야 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해결 방법을 구했다. 쓸만한 아이디어를 얻었다. 기증을 하라는 것이다. 은석한테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누나, 내가 여기 고옥 마을 왔는데 카메라 박물관이 있네?”

“그래? 혹시 기증받는지 물어봤어?”

“어. 거기 있는 사람한테 물어는 봤는데 관장님하고 얘기해 보래. 명함만 받아왔어. 새벽 카메라 박물관이야. 누나가 통화해 봐. 생김지 얼마 안 됐나봐. 크기는 작는데 깔끔해. 거기 기증한다고 하면 아버지도 좀 누그러지실 것 같아.”

“엄마는 좀 어때?”

“엄마는 아예 가게를 통째로 집으로 옮겨올 건가봐. 버릴 게 없대. 그 일본어로 된 잡지, 그것도 안 버릴거래.”

“헉, 좀 말려봐.”

“말리고 있어. 일본어 잡지는 내가 갖다 버려버렸어.”

“네가 고생이 많다. 엄마한테는 자주 가?”

“주중에 퇴근하고 한번 가고, 주말에는 엄마 절이랑 집에 다녀오시라고 한번 가고 그러지 뭐. 누나는 이번 주에 가?”

“어. 이번 주말에 갈 거야. 매주는 못가도 이 주일에 한 번은 가야지. 토요일 저녁에 갈 테니까 같이 고기 먹으러 가자.”

“알겠어. 엄마 진짜 고기 먹어야 돼. 아빠가 운동하기 싫다고 자꾸 떼어서 엄마 요즘 컨디션 나빠. 억지로 일으키고 세워 놓는다고 맨날 싸워. 하여튼 누나가 올 때 비싼 거 사드려.”

“응, 좋은 소식 물어온 거 칭찬해.”

“뭐, 누나가 고생이지. 관장한테 물건 다 기증할 테니까 쓰레기는 싹 정리해 달라고 해.”

“당연하지. 우리가 뭐 그거 팔아서 돈 남길 일 있니? 설마 필요한 것만 가져가고 쓰레기는 안 치워주거나 하는 뭐 그런 몰염치한 스타일은 아니겠지?”

“헉. 설마. 우리한테야 쓰레기지만 박물관에서는 가치가 있을 물건들 아냐?”

“흐흐 그치. 오래된 물건들이잖아. 역사적 가치가 있을거야. 흐흐.

엄마는 기어코 아빠의 사진과 필름을 몽땅 챙기고, 아빠 작품은 몇 장 있지도 않은 사진대전 수상 작품집도 보관하실 건가 보다. 색이 바래고 때가 끼 귀신 나오게 생긴 그 묵직한 책들을 다 어디에 두겠단 건지 앞이 캄캄하다.

선정은 아버지의 사진에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아버지 사진을 대하는 엄마의 태도에는 궁금증이 생긴다. 엄마에게는 아버지가 보여주는 세상이 전부였다. 아버지 작품이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는 근거가 뭘까?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카메라 가게를 같이 몇 십년 하더니 작품을 보는 심미안이 생긴 건가? 설마 당신이 아는 가장 위대한 예술가가 아버지인 것은 아니겠지? 혹시 남편에 대한 애정? 아님 아버지의 성과로 대리만족하고 살아온 당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있는 건가?

이유가 어떻든 그 오래된 물건들이 그 상태 그대로 옮겨진다면 매우 흉물스러울 것은 확실하다.

박물관 관장과 통화를 해 본 결과 ‘영광 카메라’는 관장이 원하는 곳은 아니었다. 그는 사진관의 물건들을 원했다. 아마도 ‘미술관 옆 동물원’에 나왔던 ‘초원 사진관’ 같은 곳. 여러 사람이 거쳐 간 낭만적이고 인간적인 역사가 있는 곳. 선정은 마음이 급해졌다. 갑자기 ‘영광 카메라’의 장점

들이 화수분처럼 생각났다.

“우리 아버지가 사진작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사진작가 협회에서 큰 상도 받고 지역에서는 지부장도 하셨어요. 지역 신문사에서 사진기자도 했고요.”

“아! 그래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 성자 태자 되세요. 김성태요.”

“아... 제가 사진 쪽은 잘 몰라요.”

아버지의 작가로서 인지도는 별로인 듯하다. 그렇겠지. 개인전 한 번 안 했는데 무슨 사진작가겠는가. 아버지 말대로 그때 애들 어릴 때 무리를 해서라도 대학을 다니고 교수를 했어야 했을까? 엄마가 셋째도 생겼는데 무슨 수로 애들을 먹여 살리느냐고 울며 바짓가랑이를 잡았어도 아버지의 꿈을 좇았어야 했을까? 없는 형편에 뱃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얹잡아 보던 아버지의 꿈이 갑자기 안쓰러워진다.

선정은 다른 방향으로 공략한다.

“카메라 수리도 하셨어요.”

“카메라 수리요?”

박물관장 목소리가 높아진다. 역시 이쪽이 관심 분야인 듯하다.

“네. 젊어서 서울에서 카메라 수리를 오래 배우셨어요. 여기 내려와서도 계속 수리를 했고요.”

“카메라 수리했던 장소가 따로 있어요?”

“장소는 따로 없고 카메라 수리 책상이 있어요.”

“수리할 때 쓰던 도구들도 있고요?”

“아, 뭐 작은 드라이버나 납땜 인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면 책상 서랍에 있을 거예요.”

“그래요? 제가 보러 갈게요. 혹시 관련된 사진 자료 있을까요?”

“아버지 수리 배울 때 찍은 사진도 있는데 그것도 보여 드릴게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정말 좋네요. 내일이라도 괜찮으세요?”

‘영광 카메라’는 이 지역에서 거의 유일한 카메라 수리샵이었다. 멀리서 수소문을 해서 카메라 수리를 맡기러 오는 사람도 꽤 있었다. 이 카메라 수리 기능이 아버지가 ‘영광 카메라’를 열게 한 씨앗이었다.

아버지는 결혼 후 홀로 서울에 가서 쉬는 날 없이 밤새도록 카메라를 고쳤다. 거기서 2년간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으로 ‘영광 카메라’를 차렸다. 비록 가게 한 칸을 다 가질 여력은 안 되어 반 칸짜리로 시작했지만 백화점을 끼고 있는 변화가였다. 그렇게 가넷세에 따라 오른쪽 왼쪽으로 옮겨 다니며 세아 백화점 앞 거리에서 30년을 살았다.

그런데 카메라 수리는 매우 집중이 필요한 기술이었다.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 들여다 보아도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았다. 기술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서 수리비를 꽤 받을 수는 있지만 시간이 없었다. 출사를 나가고 수고비를 받는 것이 더 빨랐다. 신제품이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였다. 서울에서 배운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다. 카메라 수리대에는 뜬어 놓고 고치지 못한 카메라가 항상 남겨 있었다. 수리를 해주기로 한 날짜를 맞추지 못해 성을 내며 돌아가는 손님들도 많아졌다. 점점 카메라 수리는 서울 수리점에 맡기는 대행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너무 형편이 안 좋을 때만 며칠 밤을 새서 어찌어찌 수리를 하며 카메라 수리 기술자의 명맥을 유지했다.

카메라 수리는 ‘영광 카메라’의 처음이었고, 위기 때마다 가끔 빛을 발하는 기술이었지만 점차 가게 한 칸에 자리잡은 랜드마크 정도의 위상으로 전락했다.

선정은 가게 앞에서 박물관장을 만나기로 했다. 아이 유치원 보내 놓고, 서둘러 엄마 집에 들러 젊은 아버지의 사진도 찾았다. 먼저 와 가게로 서 있는 관장은 서글서글하고 에너지가 느껴지는 중년의 여성이다. 명함을 내밀고 인사를 건네는 말씨가 호쾌하다.

두 달 만에 셔터를 다시 연다. 배가 더 나와서 구부리는 것을 어려워하자 관장이 열쇠를 받아들고 셔터를 올려준다. 선정은 이제 이 가게는 우리의 것이 아니니 열쇠도 넘겨버리고 다시는 이 문을 열지 않으리라 결심한다.

시끄러운 소리를 내며 셔터가 올라간다. 이 셔터도 정말 고물딱지구나 싶은데 유리문 열쇠통마저 헛돌고 안 열리는지 관장이 당황한 기색이다. 선정은 이것도 늙어 살살 달래야 했지 싶어 열쇠를 받아들고 문을 열어준다. 선정이 먼저 들어가 불을 켜자 박물관장이 탄성을 지른다.

“히! 어머니,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세상에!”

탄성. 몹시 감탄하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가지가지 감탄사들. 그를 그토록 기쁘게 한 건 무엇이였을까? 이 골칫덩이 쓰레기 섬에서 보물이라도 찾은걸까? 선정은 혼란스럽다. 관장은 카메라 수리 책상을 보고 신이 났다. 아버지의 가게가 생겼을 때부터 항상 있었던 저것? 그냥 책상에 깊이가 얇은 서랍이 좀 달려 있고, 책상 위에 빙 둘러 유리막이 씌워져 있는 거 저것?

“이런 건 처음 봐요. 이거 카메라 수리 전용 책상인가요?”

“그건 모르겠고, 여기서 수리를 하셨어요.”

“아. 이걸 이대로 고대로 가져가야겠네요. 사진을 좀 찍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선정은 그의 호들갑이 당황스럽고 고맙다. 아니 그냥 무조건 고맙다. 이런 은인이 없다.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기증하실 거예요?”

“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증할게요.”

선정은 하나도 남김없이라는 말을 힘주어 하면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해줄 것을 암시한다.

“우선 오늘은 제가 사전 점검차 온 건데 조만간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와서 한번 꼼꼼히 살펴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열쇠는 이미 복사해 두었어요. 이거 쓰시면 되고요. 저한테 오실 때마다 매번 연락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 정리되면 그때 알려주세요.”

선정은 서둘러 털어내듯 열쇠를 건넨다.

“아버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요.”

“아버지는 지금 새자인 병원에 계세요. 시간 되실 때 연락 주시면 같이 갈게요. 아버지는 당신 물건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미련이 많으세요, 관장님 만나서 얘기 나누시면 맘이 좀 풀리실 거예요.”

“언제 아버님 모시고 박물관에 한 번 오세요. 당신 물건이 어디에 어떻게 전시될 건지 보시면 좋잖아요.”

“그러게요. 그게 좋겠네요. 바람도 쐬 겸 한 번 들르게요.”

선정은 박물관장의 반응이 참으로 고맙다. 선정의 골칫거리 쓰레기 숙제를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로 벅찼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정 때문에 혹은 해결과제에 대한 일념으로 외면하고 있던 아버지의 역사가 떠올랐다. 그의 역사에 대신 환호를 보내준 관장이 고마웠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는 한가지 단어만으론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는 모양이다.

새자인 병원에서 박물관장을 만나기로 한 날, 엄마와 아버지는 기분이 좋지않다. 관장은 뺑가게 화과자를 사들고 와서는 반갑게 인사를 건네다가 조금 당황한다. 원래도 엄마와 아버지는 사근사근하지는 않다. 어떻게 장사를 하나 싶게 낮을 가리는데 표현 방식이 데면데면하고 통명스럽다. 관장은 다소 딱딱한 분위기에 긴장을 한 듯하다. 선정이 소개를 한다.

“엄마, 새벽 카메라 박물관 전형숙 관장님이예요.”

선정은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눈빛으로만 말을 건다. 엄마는 관장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아버지에게 통역을 한다.

“은석 아빠, 우리 카메라 가게, 그 가게 이제 정리할 거잖아. 거기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우리가 가질 것은 가지고 남는 것들은 박물관에 주재. 그 물건을 가져가실 분이래.”

“김성태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물건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연신 손사래를 치며 마땅찮음을 표현하면서도 관장이 주는 명함을 받아 자세히 살핀다.

관장은 누구를 보면서 말을 꺼내야 할지 난감하다. 물건을 기증하는 사람도 명확하지 않다. 김성태 씨인가. 김선정 씨인가. 송영자 씨인가. 우선은 김성태씨의 물건이니 환자복을 입고 흐릿하게 바라보는 그가 알아듣든 아니든 김성태 씨를 보면서 말을 꺼낸다.

“우리 박물관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작지만 잘 꾸며 놓았어요. 제가 젊어서부터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수집한 옛날 카메라가 꽤 되어요. 내년이나 내 후년 정도에는 병화동에 넓은 부지를 얻어서 확장할 계획도 있고요. 선생님 가게에 가보니까 귀한 물건들이 많더라고요. 카메라 수리를 하셨다고요.”

엄마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짧게 추임새를 넣는다.

“예, 애 아빠가 카메라 수리를 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관장의 눈을 보며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거린다.

“아버지가 예전에 카메라 수리했었다고요?”

선정이 서둘러 통역을 해 보지만 틀린 답이다, 아버지가 눈을 흘기며 손을 젖는다.

“아아안...니야.”

“사진은 안 된다고요?”

엄마가 통역을 하자 아버지는 맞다고 고개를 주억거린다. 이미 주고 받은 얘기가 있었나 보다.

“사진들은 전신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게에 다른 사람들이 안 찾아간 사진봉투들도 있을 텐데 혹시 어디 출품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 하거나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 가게에서 나간 사진이라는 걸 알면 싫어할거고. 은석아빠, 그 얘가지요?”

아버지는 엄마의 얘기를 듣고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의 사업 중 그나마 정기적인 소득을 보장한 것이 있다면 필름 현상, 사진 인화 대행 서비스였다. 이것도 대행이다. ‘영광카메라’는 어쩌면 ‘사진인들을 위한 서비스 총망라 대행점’이라고 소개할 수 있겠다. 자기 자본이 없는 사람은 이런 중개업의 수수료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다.

가게에서는 손님이 필름을 가져오면 현상소에서 준 봉투에 필름을 넣고 이름을 써두었다. 하루에 한 번 현상소 직원이 와서 이 봉투를 받아 갔다. 올 때는 어제 가져간 봉투에 사진과 필름을 담아서 주고 갔다.

손님들은 필름을 맡기러 한 번, 다음 날 찾으러 한 번 가게를 방문했다.

물론 지금은 즉석에서 인화하는 휴대용 인화기까지 있지만 30년 전에는 그랬다. 그런데 필름을 맡긴 손님들 중에는 필름을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가게 서랍 속에는 수없이 열고 닫히며 생긴 상처로 입구가 너털너털한 현상소 봉투들이 가득했다. 엄마는 이것들이 도용, 표절, 유출되지 않도록 신경 쓰라는 얘기였다.

기증자가 주의를 줄만한 적절한 이야기였다. 게다가 그 현상소 봉투는 관장이 좋아한 물건이기도 하다. 엄마가 걱정하는 그 안의 내용물이 아니라 겉봉투만이라는 게 다르기는 하지만. 관장이 관심을 보인 것은 지금은 알지 못하는 필름 카메라만의 추억. 맡기고 찾아가는 기다림을 보여주는 흔적. 맡긴 필름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의 사연들이었다.

“당연하지요, 봉투들만 박물관에 전시할 겁니다. 사진은 쓰지 않을게요. 개인 정보가 있으니까요.”

“선생님, 언제 선정씨랑 같이 박물관에 오세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선생님이 이번에 기증해 주시는 물건들이 많아서 제가 구상하는 병화동 박물관에 ‘김성태’라고 한 꼭지를 만들 수도 있겠어요.”

관장은 결코 지켜지리라 기대하지 않는 약속까지 한다. 하지만 듣기에 나쁘지는 않다. 아버지의 이름이 남겨진 박물관이라니...

선정은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새벽 카메라 박물관에 간다. 요즘 고옥 마을이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다더니 차 댈 데도 없고 사람도 많다. 차를 멀리 대고 휠체어를 밀면서 고옥 마을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울퉁불퉁한 바닥 때문에 앉아 있기가 불편한지 짜증을 낸다. 아버지를 달래 꽤 긴 거리를 걸어 들어가니 카메라 모양 벽화가 그려져 있는 목적지가 보인다. 새벽 카메라 박물관 안에 들어서니 정원이 아기자기하다. 작은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서 여섯 살 아들은 남편한테 붙여두고 아버지랑 박물관을 돌아본다. 엔틱 카메라 전시관이라서 신문물을 선망했던 아버지에게는 그다지 매력이 없는 것 같다. 아니면 그저 피곤하고 얼른 침대로 돌아가고 싶은걸까? 아버지의 표정이 좋지 않다.

선정은 연신 엄마와 아버지 옆에서 얼마나 좋은 일이나고, 이렇게 예쁜 곳에 아버지의 이름과 물건이 놓인다면 그것도 가치 있는 일이라며 분위기를 띄워본다. 엄마는 ‘좋네.’라는 단답을 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젓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한다.

선정은 자꾸만 엄마와 아버지의 기분을 살피는 자신이 못마땅하다. 헤아려야 할 것이 너무 많다. 배는 남산만큼 불러있고, 6살 아들은 보채는데 엄마 아버지는 상심해있다. 선정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한 것을 보는 것이 힘들다.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줘야만 할 것 같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 오지랖이라고 굳게 마음을 먹는데도 늘 무리를 하게 된다.

이 모든 일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진행되었다면 조금 달랐을까? 아버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데 그의 역사를 박물관에 과거로 기록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긴 하다. 어찌면 영정사진을 찍는 마음 같은 것일까 선정은 생각한다. 엄마와 아버지의 표정이 선정에게 또 숙제로 남겨진다.

선정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한다. 원래 계획했던 수순이긴 하다. 하지만 카메라 박물관에 다녀온 후 마음이 허한 엄마와 아버지가 마음에 걸려 일정을 서두른다. 엄마와 아버지에게 ‘영광 카메라’는 박물관에나 던져줘도 되는 것이 아니었다. 당신의 공간 안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기를 바랐다. 당신들이 직접 추억하고 애도할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한다. 새로운 희망을 드려야 한다.

우선 아버지의 집을 정리해야 했다.

어제 아버지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다. 벌써 집을 보러 오겠다는 사람이 있단다. 잔뜩 설레서 아버지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 선정은 잔뜩 화가 났다. 아버지의 집을 팔려는 순간, 선정이 대신 해결해야 할 아버지의 숙제가 친친 영킨 채로 다시 눈앞에 던져졌기 때문이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쓰러진 것은 이 집 때문이다. 3년 전 그때, 아버지는 이 집을 팔 궁리로 머리가 아팠다. 아버지는 집을 사 줄 유일한 구매자라고 짐작은 대성수퍼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했다. 처음에는 잘 설명해서 아버지의 집을 사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으름장을 놓았고, 급기야는 아버지의 땅에 침범했다며 대성수퍼 화장실 가는 길을 막고 담장을 쳤다.

대성수퍼는 자꾸 살 듯 말 듯 간을 봤다. 대안을 찾지 못해 밤잠을 못 이룬 여러 날째, 아버지는 쓰러졌다. 대성수퍼의 직접적인 잘못은 없지만 대성수퍼를 바라보는 선정 가족의 시선이 곱지는 않았다.

선정은 더는 대성수퍼에 애걸복걸할 생각이 없었다. 그저 혈값에 라도 팔고 떠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대성수퍼가 일을 방해하고 나선 것이다. 집을 사고파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형식적인 행위에 대성수퍼가 웬 말인가.

아버지의 집. 선정이 고등학교 때 전세로 얻은 거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는 처음으로 살아보는 그럴듯한 집. 이제는 20년을 살아온 낡고 낡은 집. 그 집을 청산해야 이 지긋지긋한 동네를 뜰 수 있다.

선정은 애초에 아버지가 경매로 나온 그 집을 사겠노라 했을 때부터 반대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집을 경매로 내놓은 사람 사정이야

뻘하지 않은가. 아버지는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었지만 그 집을 사게 되면 전세금을 못 받게 될 것은 자명지사였다. 아버지는 전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큰소리를 치며 선정이 3년간 부은 적금을 가져갔다. 그러고는 돈이 없다고 뻘대는 전주인을 몇년간 달달 볶아 반 토막 난 전세금을 겨우 거뒀다.

이 집과 아버지는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인연이었다. 손을 댈 때마다 결과가 더 나빠졌다. 세를 놓아보려고 했던 것도 실패했고, 고치겠다고 손을 댔다가 집안에 늘 습기가 차올랐다. 나날이 집은 누추해졌고, 볼품 없어졌다.

아버지는 이 집을 꼭 팔고 싶어졌다. 이 집을 팔고 집사람과 애들에게 전세라도 아파트를 얻어주고 싶었다. ‘영광 카메라’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국숫집도 열고 싶었다. 이 집을 꼭 비싸게 팔고 싶었다.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말이다.

선정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숙제를 대신 시작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겨 놓은 갈등의 찌꺼기가 공격해왔다.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감당이 안되었다. 어디를 향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감당도 못할 싸움을 벌여놓고 쓰러져버린 아버지를 공격해야 할지, 치사하게 뒤끝이 작렬하는 대성수퍼를 향해야 할지 그냥 모든 것이 화가 났다. 은정이한테 전화를 건다.

“어 언니, 가게 잘 정리되고 있대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진짜 대성수퍼 거기 진짜 짜증 나. 아버지가 혈압이 오를 만했어. 집에 관심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다고 자꾸 판지를 걸었었잖아.”

“어, 도시가스 들어오는 길도 안 열어 줬다면서.”

“그래, 그래서 도시가스 포기했지. 아버지가 그 집 화장실 막고 담 세운 것도 있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한 거, 넘어갔어. 그냥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집이니까 좀 싸게 파는 걸로 결정했다고.”

“근데?”

“내가 어제 집을 내놨거든. 그냥 시세에 맞게 팔아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바로 오늘 집을 보러 온 거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동네가 아시다 죽은게 아니었나 봐.”

“산대?”

“어! 산대! 시세에 맞춰서 사겠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대성수퍼가 집으로 들이닥쳐서는 집을 사겠다고 사람을 데려가서 이러쿵 저러쿵. 야! 그러는 법이 어디 있냐? 그래도 되는 거냐? 갑자기 안 산대! 생각을 좀 더 해 보겠대!”

“엥? 대성수퍼가 뭐라고 했는데?”

“나야 모르지. 도시가스 얘기를 했는지, 자기랑 싸운 얘기를 했는지.”

“대성수퍼 그 사람도 참 어지간하다. 원하는 게 뭐래?”

“넌들 알겠니. 만나봐야 하나? 아. 싫어. 진짜 싫어.”

“휴... 언니도 진짜 고생이 많다. 우선 오늘은 넘기고 부동산 통해서 얘기해. 직접 만나면 감정 더 상해.”

“그렇겠지? 그냥 이 꼴 저 꼴 다 안 보고 빨리 해치워버리고 싶다.”

엄마는 선정이 가끔 이렇게 흥분해서 쏟아낼 때면 아버지 성미를 닮았다고 했다. 선정이 가장 끔찍해 하는 말이다. 그의 불같은 성격이 얼마나 싫었는데 하필 그것이 내게 새겨졌단 말인가? 정제되지 않은 분노를

마음껏 표현할 곳은 가까운 가족밖에 없다. 그런 이유로 가족은 서로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간단히 평가를 내리거나 비판을 하기도 한다. 가족은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하고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이기도 하다.

선정은 은정이 이만큼 들어준 것으로 족하다.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전이되고, 지나치면 공감을 얻기 어렵다. 행여 은정이한테서도 아버지를 닮았다는 말을 들을까 감정을 고른다.

“휴... 그래도 뒷담화하니까 좀 나아지긴 하네.”

“흐흐흐. 그나저나 엄마 언니 동네로 이사한다면서?”

“응.”

“이사하려면 엄마 가진 돈으로 부족하지 않아? 어떻게 할 계획이야?”

“알아보고 있어. 네 형부랑도 얘기 중이고.”

“내가 보탬 수 있어.”

“진짜? 진짜? 얼마나?”

“우선 알아보고 얘기해. 절반은 지원할게.”

“올. 김은정 돈 좀 벌었나 보다?.”

“별긴 뭘 벌어. 언니랑 은석이는 근처에서 고생하는데 난 돈이라도 보태야지. 이번에 최서방하고 집 합치면서 여유자금 생겼어.”

“주말 부부 청산이야? 축하해. 여하튼 너 판말하기 없기다!”

선정의 마음에 풍선이 달린 것 같다. 두둥실 날아가는 것 같다. 늘 돈이 문제였다. 장녀라는 이유로 아버지랑 같이 산다는 이유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다는 이유로 선정의 월급은 소유권이 애매했다.

처음엔 집을 사야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은정이 서울에 전셋 집을 구해야 한다고 했고, 다음엔 집을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막내의

등록금이 필요할 때도, 엄마가 다쳐 일을 못 나갈 때도 선정이의 통장 잔고는 흔들렸다.

선정은 은정이가 집값의 절반을 부담하겠다고 하자 어깨를 누르고 있던 짐이 몽땅 떨어진 느낌이다. 그래, 은석이도 은정이도 착한 애들이다.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살길을 스스로 찾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한다. 자식 셋이 다 다른 대학을 나왔지만 결국 공무원을 선택했다. 비빌 언덕이 없다는 걸 애초에 깨달았기 때문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가난한 이들에겐 그나마 중산층의 사다리를 타는 유일한 길이다. 가족을 위해 시간을 쪼개고 마음을 쪼개고 그간 모은 종잣돈을 쪼개는 착한 자식들의 모습은 지긋지긋한 가부장제의 순기능일 수도 있겠다.

선정은 은정이와 은석이를 낳고 착하게 키워주신 부모님이 감사하기까지 하다. 부양의 책임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자 선정은 그간의 노고가 다 보상받는 느낌이다.

대성수퍼가 난리를 피우면 뭐 어떡한가. 내게는 뒷배가 있다.

오랜만에 박물관장이 전화를 했다. 가게를 다 정리했다고 보고하는 전화일 것 같아서 반갑게 받는다.

“잘 지냈어요? 여기 가게는 다 정리가 끝났어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쓸만한 물건은 좀 있던가요?”

“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카메라 도면을 세세하게 그려 놓은 종이들을 발견했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랬다니까요. 가게 뒷방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상자를 하나 하나 다 열어봤거든요. 알지요? KODAK이라고 써 있고 FUJI라고 써있는

슬라이드 필름 상자들이요. 근데 거기에 아버님이 곱게 보관해 놓은 도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물 찾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니까요.”

“다행이네요. 관장님께 필요한 물건을 찾으셨다니.”

“네. 아버지 수리하실 때 사진도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지요?”

“네. 그렇게 하세요. 우린 다른 사진들도 있으니까요.”

“고마워요. 저희가 필요한 것들은 챙기고 나머지는 다 폐기처리 했어요. 트럭으로 두 번이나 날랐어요. 방에 있던 금고는 진짜 무겁더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웠어요.”

관장은 쓰레기를 치우느라 고생이 많았노라 공치사를 하는데 그게 하나도 밍지 않다. 정말 궁금한 걸 묻지 않아도 말해줘서 고마울 뿐이다.

“수고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버지 물건을 가치 있는 곳에 잘 정리하게 되어서 저희도 좋아요.”

“기증해 주신 것들은 잘 보관할테니 걱정 마세요. 아버님 물건을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꾸며야 할지 구상이 샘솟고 있어요. 나중에 이전하면 또 보러오세요.”

“그렇게요. 가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열쇠는 버리고 셔터만 내려주시면 좋겠어요. 잠그지 마시고요.”

박물관장은 장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사람. 아니 어찌면 주는 게 받는 것이고, 받는 게 주는 것인 사람. 모두가 윈윈이 되는 장사를 했다. 선정은 머리 아픈 숙제를 멋지게 해결한 것이 뿌듯하다. ‘영광 카메라’는 깨끗이 사라졌다. 엄마가 가게에서 빼 온 아버지의 물건들이 한가득이지만 그 정도는 예쁜 상자에 담아 숨길 수 있는 수준이다.

선정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다. 출산을 하기 전에 엄마 아버지의 거처를 마련하느라 부지런히 움직였는데도 체중이 많이 불었다. 어기적거리며 걷는 모양이 우습다. 선정의 아파트 옆에 엄마 명의 아파트를 한 채 구입했다. 이사까지 마치고는 뒤뚱거리며 짐을 정리하는 중이다. 선정은 그냥 이 상황이 우습다. 단계는 많고 절차는 복잡했지만 어쩐지 일이 수월하게 된 기분이다. 대성수퍼는 시세보다 500만원이 싸게 아버지의 집을 사 갔다. 아버지가 바란 금액에서 한참 모자라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다. ‘영광 카메라’의 전세금도 받았다. 아버지의 전 재산과 딸들의 적금이 보태졌다. 결정도 과정도 쉬운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 정도면 들인 품에 비해 성과가 괜찮다.

선정은 아버지가 발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린다. 아버지의 발언은 늘 조율되지도, 조정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 그가 끝내 기린동에서 국숫집을 하겠노라 고집을 부렸다면 누구도 이기지 못했을 거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짐이 또 하나 늘었겠지. 그가 가족을 위한다고 별이는 일들은 늘 그랬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 가족의 생존과 생계를 어떻게 아버지 혼자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겠는가? 생존이 달린 중요한 문제는 같이 고민하고 책임을 나눠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그가 입을 닫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나설 수 있었다. 그가 사방에 널어놓은 짐 덩어리들은 그렇게 치워진 것이다.

선정이 정리한 것은 아버지의 짐이었을까. 아버지라는 짐이었을까. 선정은 사춘기 때부터 아버지의 그림자를 벗어나기 위해 애썼는데 그의 사회적 기능이 사라진 다음에야 그것이 이뤄졌다는 것이 씁쓸하고 안타까웠다. ‘천천히 내려오는 연습’ 때때로 연예인들은 인기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며 추락이 아니라 착륙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한다. 세상의 중심

에서 주변으로 조금씩 소외되는 느낌을 연습해야 한다고 한다. 아버지가 혼자서 정한 가장의 이미지를 조금씩 수정했다면 결과가 조금 달랐을까? 점점 스러져가는 당신의 권력을 지켜내려 뒷목에 힘을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영광 카메라’의 영광은 이미 지나갔단 걸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다르게 살아갈 방법을 찾았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자의가 아닌 채 갑자기 다르게 살게 된 이런 상황은 피하게 되었을까? 그러나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겠지.

같은 사건을 겪고도 추억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힌다. ‘영광 카메라’에 대한 추억은 모두 다르게 적혀 있을 거다. 영광의 한 페이지거나 희노애락을 담은 인생 그 자체일 수도 있다. 선정에게는 떨치고 싶은 과거이고 대신 해결해야 하는 숙제였다. 선정은 얼마나 아버지의 추억을 덜 훼손하면서도 발목을 잡고 있던 추억에서 벗어난 자신을 칭찬한다. 나의 추억이 타인의 추억과 다르다고 고쳐 쓰라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선정은 엄마의 아파트가 주택연금이란 이름으로 안전한 늪음을 보장해 줄거라 기대한다. 낳아준 아버지에게 진 빚은 이걸로 다 갚았다. 묵은 짐을 털고 추억만 상자에 보관했다. 역사 속으로 ‘영광 카메라’가 사라질 때 아버지의 질서도 같이 사라졌다. 가족 안에 새로운 방식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이제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착한 딸이 될 거다. 상대의 영역이 존중되는 거리, 따스한 지지가 전달되는 만큼의 거리가 있는 가정이 만들어질 거다.

선정은 새 생명을 맞을 준비가 다 끝났다.

2021년 공직문학상

동시

CHILDREN'S POEM

공부하기 싫은 날

홍학꽃

실내화 사주세요

잠이 샌다

나의 하루는 동물의 왕국

베개



공부하기 싫은 날

금상

교육부 김 서 영

꾸벅꾸벅 졸고 있는 책상사이로
찬란한 햇빛물이 스며듭니다.

이 책장이 뻗처럼 진득해지고
영겨있는 내 머릿속에서
꼬마게들이 꼬물꼬물 기어나와
세상 위에서 철썩거리면 좋겠습니다.

햇빛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
저 게들이 활자를 긁어모아
내 머릿속에 넘치도록 쏟아 넣어주면
참 좋겠습니다.



홍학꽃

은상

김제교육지원청 장 효 진

아이들이 오지 않는
여름 방학 동안
우리 학교 운동장에
홍학이 날아왔어

먼 나라에서
우포늪 찾아
쉬었다 가는 길

복숭아빛 날개를 펼쳐
푸드덕푸드덕 달리기도 하고

기다랗고 가느다란 다리로
성큼성큼
학교 숲도 거닐다가
숨바꼭질도 했을 거야

키 작은 향나무 뒤에 숨으려던
어리고 엉뚱한
홍학 몇 마리는

비 온 뒤
질퍽한 흙에
발목이 쑤욱
박혀버렸어

발을 빼지 못하고 있다가
꽃이 되었다니까

에이, 거짓말이라고?
봐, 여기 분홍 깃털 보이지?
가느다란 다리도 보이지?
이게 홍학이 왔다 간 증거야

깃털
하나, 둘
떨구고
상사화 저물면
엄마 찾아 고향으로 갔다고
믿을래



실내화 사주세요

은상

진주 이반성초등학교 박 예 록

실내화가 으라차차
금세 자란 날 밀어내요
꽉 끼는 발가락 때문에
숨 막힌대요

작아진 실내화를 구겨 신어요
그랬더니 글썽
자존심 구겨지니까 존중하래요

새로 사귄 친구가 귀땀해줘요
엄마한테 얘기하라고

우리 엄마는
깨끗한 새 옷도
달콤한 솜사탕도
사준 적 없어요

이름 모를 언니가 입던

소매 닳은 옷

새 옷이고

하늘이 맛나다 붙잡아둔

뭉게구름

숨사탕인걸요

엄마

오늘은 나 보러 올 거지

나도 엄마한테 말하고 싶어

나 이만큼 더 자랐어요



잠이 샌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손 옥 연

“양치질하고 자야지”
반쯤 감긴 눈으로
비틀비틀 꾸벅꾸벅
분홍 칫솔에 치약을 주욱

꼬막손은 가만히 두고
칫솔 입에 머금고 서서
입으로만 오물오물

달콤한 딸기맛 치약,
쫄쫄 뺨아가며
쩍쩍 입맛을 다시네

입안에 조금 남아있는
삼키다 만 딸기 거품
오늘오글 행구던 아이

거울에 비친 얼굴 보며
눈물이 그렁그렁 울상이 되네
“엄마, 잠이~,
잠이 새버렸어요”

나의 하루는 동물의 왕국



대통령경호처 정 겔

따르릉따르릉
아침을 깨우는 알람시계 소리
*일나라 일나라
오늘도 꾸짖는 엄마의 말씀

느기적느기적
힘겹게 오늘도 일어난다
그런데 웬걸, 오늘은 일요일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

철퍼덕철퍼덕
엉덩이를 때리는 엄마의 손길
그만자라! 아침먹자!
이불 개고 어느새 식탁에 앉아있는 나

후르륵후르륵
영양가 만점의 곰탕
취도 새도 모르게 어느새 두 그릇
얼른 먹고 범수랑 공 차려 가야지

옆치락뒤치락

새 축구화로 사자마자 실력 발휘

하마터면 질뻔했어 나의 결승골

오늘도 위풍당당 나의 발걸음

호로록호로록

점심은 아빠가 좋아하는 수제비

양껏 먹고 나니 저절로 감기는 눈

어느새 침대에 누워있는 나

영기적영기적

엄마의 잔소리에 책상으로 향하는 나

시계보니 벌써 두시

숙제 걱정애 떠오르는 선생님 얼굴

꼬르륵꼬르륵

배시계 소리에 맞춰

올라오는 돼지고기 냄새

아빠는 소주 한잔, 나는 콜라 한잔

일요일 저녁은

숙제와 밀린 일기 작성

오늘 나의 하루는

11마리 동물과 함께한 동물의 왕국

* 일어나라 : '일어나'의 경상도사투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석 은 옥

베개를 안고 있으면
엄마냄새가 난다.

엄마와 놀이터에서 사 먹은
딸기맛 젤리
엄마가 머리감겨줄 때의
포도향 샴푸
엄마와 같이 만든
초코맛 쿠키

엄마는 돈 안 주는 사장님들을
잡는 일을 한다고 한다.
세상에 돈 안 주는 사장님들이
그렇게 많은가?

어제도, 어제 어제도, 어제 어제 어제도
엄마는 매일매일 늦게 온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내 돈을 주면 될 텐데...
그럼 엄마를 빨리 볼 수 있을까?

엄마를 보고 싶을 때면
엄마 베개를 꼭 안는다.
엄마 냄새가 나서
엄마와 같이 있는 거 같다.

오늘도 엄마는 준이가
잠들때까지 오지 못 하나 보다.





2021년 공직문학상



동화

FAIRY TALE

비둘이의 꿈

뽕튀밥 껌밥

제기차기의 달인

슈퍼마켓에는 장보고가 산다



비돌이의 꿈

산림항공본부 남궁용훈

“토독, 토독”

따스한 봄 햇볕이 포근히 감싼 별이 아파트 2층, 에어컨 실외기와 아파트난간 사이의 작은 둥지에서 비돌이와 비순이가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아빠는 환하게 웃고 엄마는 날개를 펴며 둘을 안아 줍니다. 둘은 뼈악대며 엄마의 가슴을 헤집다가 젖을 찾아 뭍니다. 주인집 아이들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이 가족을 신기하게 쳐다봅니다.

이주가 지나자 아무것도 없던 날개에 깃털이 나고 힘도 생겼습니다.

“이제 나는 것을 연습해보자”

아빠의 말에 비돌이와 비순이는 부리를 앙다물고 아빠의 날갯짓을 흉내 내며 연습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둥지 밖에서 날고 있는 아빠와 엄마를 따라 비돌이는 힘껏 날갯짓하며 허공에 몸을 날렸습니다.

떨어지는 것 같았지만 깃털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날개를 움직이자 몸이 붕 하고 떠올랐습니다. 비돌이와 비순이는 아빠,

엄마와 함께 첫 비행의 기분을 만끽하며 날았습니다.

정들었던 등지를 떠나 아빠와 엄마를 따라, 온 가족이 있는 여의도 공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삼촌, 이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우리 손주’ 하며 부리를 비벼 주며 반겨 주었습니다.

“너희가 말로만 들었던 우리 조카구나” 하며 아빠보다 어려 보이는 비둘기 아저씨와 아줌마가 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와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와 외삼촌이 이상했습니다. 이모는 몸이 부은 것처럼 뚱뚱하였고, 외삼촌은 조금만 걸어도 숨을 ‘헉헉’ 대고 있었습니다.

비둘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왜 이모는 뚱뚱하고 외삼촌은 숨을 헉떡여요?”

시무룩해진 얼굴로 엄마가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와 빵 부스러기들을 먹는데 이모와 외삼촌은 부작용으로 뚱뚱해지고 심장에 이상이 생긴 거란다. 그런데 우리가 먹을 것은 사람들이 주는 것밖에 없어서 너희들도 저렇게 될까 걱정이라네.”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외삼촌과 이모를 바라보다가 비둘이와 비순이를 보았습니다. 언젠가는 비둘이와 비순이도 외삼촌과 이모처럼 될 것입니다.

비둘이는 여의도 공원에서 엄마, 아빠를 따라 걸어 다니며 하루 종일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와 빵부스러기를 주워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칠 때와 누군가 돌멩이를 던질 때 만 잠깐 날아다닐 뿐, 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리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으나 날개의 힘은 점점 빠지고 이모처럼

퐁퐁해 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돌이는 답답했습니다. 처음 날았을 때, 자신의 온몸을 스쳐 지나가며 바람이 귓가에 속삭여 주는 것 같은 기분은 오래된 추억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비돌기는 유해조수로 지정되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가슴에 띠를 두른 사람들이 광장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먹이를 주지 말라니, 비돌이는 걱정이 되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사람들이 먹이를 안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엄마도 모르겠다. 저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자”

걱정스런 엄마와 아빠는 사람들 머리 위의 나뭇가지로 날아가 앉았습니다.

“비돌기의 수가 너무 많아 배설물이 건물들 곳곳에 쌓여 미관을 해치고, 비돌기 배설물에는 나쁜 균이 있어 아이들에게 폐 질환과 뇌수막염을 일으킵니다. 공원 옆 별리아파트 놀이터에 비돌기 배설물이 많이 쌓여있어 아이들이 놀지 못하고 있습니다. 먹이를 줄이면 비돌기의 수가 줄어든다고 하니 이제부터 비돌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띠를 두른 사람들 말에 아저씨, 아줌마,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돌기 먹이주기 금지”

띠를 두른 사람들은 이런 현수막을 붙이고 떠났습니다.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먹이를 던져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두 끼밖에 먹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참을 수 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

“꼬르륵, 꼬르륵”

배가 자꾸 고프다고 신호를 보내 왔습니다.

비돌이와 비순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함께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비둘기 절반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은 나무 등치 아래에 모여서 걱정만 했습니다.

걱정이 어둠처럼 비둘기를 휘감았을 때였습니다. 난생 처음 본 검은 새가 여의도 광장을 한 바퀴 돌고는 가로등에 앉았습니다. 눈부터 다리까지 검은색이었습니다.

“여기도 먹이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자존심을 포기한 비둘기만 있지, 가슴에 불꽃이 있는 비둘기는 없어”

검은 새가 먹이를 찾느라 쓰레기통을 뒤지는 비둘기들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불꽃이 있는 비둘기?’ 라니 비둘이는 궁금했습니다, 또 ‘자유와 자존심을 포기했다니?’ 비둘이는 날아올라 검은 새 옆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둘기, 비둘이라고 해요”

비둘이는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 난 까마귀 마고 할머니다”

마고 할머니는 검은 눈을 깜박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스스로 자유와 자존심을 포기하다니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비둘이가 물었습니다. 마고 할머니는 뒤통, 뒤통 바닥을 걷고 있는 비둘기들을 보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모두가 잊었어, 파란 하늘을 자유롭게 종횡무진 날아다니던 너희 조상들의 모습을 말이야, 너희 조상들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들이 주는 먹이나 받아먹고 쓰레기통을 뒤지지는 않았단다. 배가 고프더라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택했지, 그중에 하늘을 좋아하고 빠르게 나는 비둘기는 사람들의 부탁으로 다리에 편지를 묶고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날아다니는 전서구를 했지, 악마 같은 매와 싸우며 말이야, 그때의 그들의 눈을 보면 마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고 날갯짓을 하면 바람이 그들의 몸을 휘감아 돌풍이 몰아쳐 가는 것 같이 보였던단다.”

“우리 할아버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지 않았는데요?”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때의 이야기란다. 여기에 정착하기 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이야기지”

“숲에 가면 먹을 것이 많나요?”

“물론, 너희들이 멀리 날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 서울을 벗어나 시골로 가면 숲이라는 곳에 너희들 먹이가 널려있단다. 비굴하게 사람들에게 기대어 살지 않아도 되고”

“저희도 갈 수 있나요?”

“물론 숲은 누구의 것도 아니란다. 우리 것이지”

비돌이는 숲으로 가면 모두를 살릴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다만, 숲까지의 거리가 멀어 가는 것이 어려울 거다. 지금 너희들의 체력으로는 서울도 벗어나지도 못할 거야. 훈련을 한다면 모를까.”

“훈련요, 할게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는 거죠?”

당돌한 비돌이의 부탁에 마고 할머니는 대답 대신 비돌이의 눈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너의 눈에는 너희 조상들과 같진 않지만 작은 불꽃이 보이는구나, 그래, 도와주겠다.”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한 비돌이는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아빠, 엄마 그리고 무리의 어른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두 시골로

숲을 찾아가자고, 무리의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위험하게 모르는 곳에 어떻게 가느냐? 굶어 죽더라도 여기에 있자,

다른 한쪽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차라리 비둘이 말대로 시골과 숲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비둘이 가족과 사촌들만 떠나기로 하였습니다.

결정이 난 날부터 마고 할머니를 따라 날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여의도 광장을 벗어나 하루하루 더 먼 곳으로 날아가 보았습니다.

비둘이는 좁은 광장 말고 더 큰 세계가 있었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태어나서 광장에서만 살아온 할아버지, 할머니도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날갯짓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날갯짓에 힘이 붙고 비행 실력이 늘어 갔습니다.

그중에 비행 실력이 가장 많이 는 것은 비둘이였습니다. 비둘이는 마고 할머니와 함께 고층건물 사이의 돌풍을 헤치며 높이 날아오르기도 하고 도로를 따라 흐르는 바람을 타고 남들과 달리 더 멀리 날아가 보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심장에 이상이 있던 외삼촌은 이제는 숨 쉬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뚱뚱하다고 놀림 받았던 이모는 날씬해졌습니다. 다들 더 높이, 더 먼곳, 알지 못하는 숲까지 날아갈 준비가 된 것이었습니다. 광장 한쪽에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튼튼한 날개를 활짝 펴 날갯짓을 해 보였습니다. 훈련을 시작하기 전과 달리 바람이 힘차게 일어났습니다.

제일 앞에는 마고 할머니가 서고 다음으로 비둘이가 섰습니다. 양 옆으로 근육질의 날개를 자랑하는 외삼촌과 날씬한 이모가 섰습니다.

“이제 떠난다.”

마고 할머니가 검은 날개를 펴, 크게 날갯짓을 하였습니다.

날아올랐습니다. 비둘이가 따라 날아올랐습니다. 가족과 사촌들이 따라 날아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순이와 아빠가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무리를 지어 여의도 광장 하늘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던져주는 과자를 먹거나 쓰레기를 뒤흔던 비둘기들도 고개를 들어 올려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고개만 갇힐 뿐 다시 모이와 쓰레기만 열심히 쫓아 댔습니다.

“안녕!” 남은 비둘기들에게 비둘이는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비둘이는 자신이 태어난 별리아파트 위를 날았습니다.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비둘이는 마음속으로 “안녕”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마고 할머니를 따라 동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동안의 훈련으로 비둘이와 가족들, 사촌들의 머릿속에는 방향을 찾는 숨겨졌던 나침반의 본능이 활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고 할머니가 어느 방향으로 간다고 말하지 않아도 쉽게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비둘이는 무리의 앞, 뒤를 오가며 고층건물 사이의 돌풍에 주의하라 일러주고 낮게 날 때는 투명 소음 방지벽을 조심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외삼촌과 이모는 힘들어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따라 날았습니다. 푸른 강물이 쫓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유람선들은 뱃고동을 울려 주었습니다.

비둘이는 강물을 스치듯 날았습니다. 물방울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원하는 비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얀색의 새가 물을 스치듯 날아 비둘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 나는 갈매기 갈두리야”

“안녕, 나는 비둘기 비둘이라고 해”

둘은 같이 날갯짓을 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난 시베리아에서 왔어, 이곳, 저곳을 여행하는 중이지,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어?”

“우리는 가족과 함께 숲으로 가는 중이야!”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갈매기 갈두리는 크게 반 바퀴 돌아, 왔던 방향으로 날아갔습니다. 비둘이는 마고 할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시베리아는 어디예요?”

“북쪽의 끝으로 일 년 내내 겨울만 있는 곳이란다. 갈두리가 많이 컸구나.”

“갈두리를 아세요?”

“물론, 저 아이도 너처럼 가슴에 불을 가지고 있는 아이란다. 사람들이 한강을 개발한다고 밤섬을 폭파하자, 보금자리를 잃은 갈매기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 낙담만 하고 있을 때, 저 아이가 갈매기의 무리를 이끌고 시베리아로 갔단다.”

“저도 그 시베리아라는 곳에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저도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너도 갈 수 있지, 네 가슴 속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더 크게 키운다면 언젠가 너도 시베리아를 넘어 세상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란다.”

마고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울은 넓었습니다. 멀리 왔다고 생각했지만, 아파트와 빌딩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의 끝이다.”

마고 할머니가 말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은 여전히 동쪽 하늘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들의 높이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오층에서 삼층, 삼층에서 일 층으로 낮아지더니 이제는 집이 드문드문 나타났습니다.

“마고 할머니, 더 가야 하나요? 어디로 가는 거죠?”

마고 할머니와 나란히 날던 비둘이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살 숲과 시골로, 사람들의 인정이 넘치는 곳으로, 내가 찍어둔 곳이 있단다.”

그때였습니다.

커다란 검은 물체가 비둘이 가족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매였습니다. 그것도 비둘이 보다 세배나 크고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가진 매였습니다.

“피해라!”

마고 할머니 말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매가 화살처럼 무리의 중앙을 지나쳐갔습니다. 밑으로 내려간 매는 크게 한 바퀴 돌고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올라왔습니다.

“어서 가세요! 제가 유인할게요!”

비둘이가 소리쳤습니다.

“비둘아! 부탁한다!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너의 가슴의 불을 믿고 날개를 펼쳐라!”

마고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반드시 살아와야 해!”

마지막으로 소리친 비순이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며 아빠와 함께 도망갔습니다.

홀로 남은 비돌이는 천천히 날갯짓을 하였습니다. 다른 새들은 할 수 없는 제자리 비행을 하며 매가 올라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매가 크게 날갯짓을 하고는 뾰족하고 날카로운 부리를 벌리며 비돌이를 향해 올라왔습니다.

‘획, 획’ 비돌이는 오른 날개를 꺾으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매는 허탕을 치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획, 획” 매가 공격할 때마다 비돌이는 날개를 이리저리 접으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여러 번의 허탕에 매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비돌이는 날개를 접으며 아래로 쏜살같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어지는 힘에 속력이 붙었습니다. 마치 불이 붙은 유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도 비돌이를 향해 쫓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돌이는 마고 할머니와 비행술을 연습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마고 할머니와 고층건물이 일으키는 돌풍을 타고 오르는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비돌기가 무서운 매를 이길 수 있어요?”

비돌이의 물음에 날갯짓하며 바람을 타던 마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전설의 전서구가 있었지, 위험에 처했다는 군인의 절박한 편지를 다리에 매달고 날던 중에 매를 만났지, 매의 발톱에 어깨와 가슴을 다쳤지만, 그 전서구는 군인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난 비행술로 매를 떨치고 임무를 완수하여 군인들의 생명을 구했단다. 비행술이야, 너희 비돌기는 태생적으로 비행술이 뛰어나단다. 너의 숨겨진 비행술만 깨운다면 매쯤은 상대도 안 될 것이야.”

“까악!”

가까워진 매의 소리에 정신이 돌아온 비둘이가 뒤를 보니 매가 날카로운 부리로 꼬리를 물려 하고 있었습니다. 비둘이는 용기를 내어 날개를 펼쳤습니다.

‘획!’ 비둘이는 멈추었지만 매는 멈추지 못하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비둘이는 땅과 가깝게 날며, 숲을 향해 날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매가 다시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비둘이는 나뭇가지 사이를 날았습니다. 나뭇가지가 머리 위와 발아래로 지나갔습니다. 왼쪽, 오른쪽으로 나무를 돌며 날았습니다. 잔뜩 화가 난 매는 헉헉대며 힘차게 쫓아 왔습니다.

또다시 매와 가까워졌습니다. 이대로라면 잡힐 것 같았습니다. 매의 부리가 비둘이의 꼬리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비둘이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였습니다.

앞쪽에 나뭇가지가 얼키설키 엉켜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몸만 간신히 들어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구멍을 향해 비둘이는 힘차게 날갯짓을 하였습니다.

구멍이 가까워지자 비둘이는 날개를 접었습니다. 날아오던 힘으로 좁은 구멍 속을 통과하였습니다. 화살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푸드득! 쿵!”

멈추지 못한 매는 나뭇가지에 부딪혔습니다.

구멍을 빠져나온 비둘이는 날개를 활짝 펴며 숲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비둘이는 머릿속의 나침반으로 동쪽으로 무작정 날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으로 가면 가족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거야 하는 희망을 품고서요.

점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빨간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날갯짓도 힘이 들었습니다. 날갯짓을 줄이고 바람을 타고 나느라 속력이 줄었습니다.

이대로 영영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면, 하는 두려움이 비둘이를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비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 위로 새들이 원을 그리며 무리 지어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고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삼촌, 외삼촌, 이모, 비순이가 비둘이를 기다리며 날고 있었습니다. 보고 찾아오라고, 무리를 지어 같은 자리를 돌며 비둘이가 올 때까지 날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비둘이의 눈물이 방울져 하늘에 흩어졌습니다. 비둘이는 행복했습니다. 힘차게 날갯짓을 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날았습니다. 알록달록 붉게 물들은 숲과 벼 수확이 끝난 다랑논 위를 함께 날았습니다.

눈에 내린 비둘이는 아빠와 엄마와 함께 부리를 비볐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흐뭇하게 보던 마고 할머니가 다가 왔습니다.

“비둘아, 이제 이 할머니는 가야 할 것 같다.”

“마고 할머니 우리와 같이 살아요?”

비둘이는 할머니에게 간청했습니다.

“비둘아, 난 수많은 공간과 여러 시간대를 여행하던 중이었단다. 너 같이 꿈을 가진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너의 가슴에 불이 붙었으니, 너와 같은 또 다른 아이를 찾아서 나는 나만의 여행을 떠나야겠구나.”

마고 할머니는 검은 부리로 비둘이의 부리를 따스하게 만져주었습니다.

비돌이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언제나 가슴속의 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대 꺼트리지 말아라, 활활 타오르게 하려무나.”

마고 할머니는 검은 날개로 큰 날갯짓을 하며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입술처럼 빨갛게 물든 태양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할머니!”

비돌이가 따라 올랐으나 마고 할머니는 점이 되어 태양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할머니!”

비돌이의 외침은 붉은 노을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가을이 지나가고 겨울이 왔습니다.

비돌이 가족과 사촌들은 다시는 사람들의 먹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숲과 가을걷이가 끝난 논을 부지런히 날아다니며 먹이를 구했습니다.
눈 속의 먹이를 구하느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럴수록 더 건강해졌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이제는 모두 산비둘기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아팠던 외삼촌은 앞 건너편 숲에서 살던 외숙모를 만나 알을 두 개 낳았습니다. 비돌이가 외숙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외숙모는 외삼촌의 어디가 좋아서 결혼하신 거예요?”

“너희 삼촌은 튼튼한 심장과 날개를 가지고 있잖아”

외숙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부리로 외숙모의 부리를 사랑스럽게 비벼 주었습니다.

이모는 얼마 안 있으면 뒤 건너편 숲에 사는 총각 아저씨하고 결혼할 예정입니다. 이모의 건강미에 홀딱 빠진 총각 아저씨가 목덜미의 털을

잔뜩 세우고 구애를 했었는데, 아홉 번이나 구애를 한 후에야 이모가 받아 주었습니다.

비둘이에게도 여자 친구가 생겼습니다. 건너편 숲에서 살고 있던 산비둘기 비아리였습니다. 회색 털끝에 연한 초록과 파란색이 살짝 있는 예쁜 비둘기입니다.

비둘이가 좋다고 목의 털을 한껏 세우고 다가가면 새침하게 고개를 휙 돌립니다. 그래도 비둘이는 좋다고 웃습니다.

도시를 떠나 숲으로 오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해졌습니다. 비둘이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을 맘껏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비둘이는 태양을 향해 날아올랐습니다. 여자 친구 비아리도 따라 올랐습니다. 비둘이는 영원히 자기 가슴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트리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빵튀밥 컷밥

성남시 중앙도서관 서연미

나는 빵을 아주 잘 쳐요. 내가 빵만 치면 모두 웃음이 빵 터졌어요. 말도 안 되는 빵인 줄 알면서도 다들 배꼽 빠지라 웃어대더라고요. 신이 나서 자꾸만 이야기를 꾸며내고, 지어내고, 덧붙일수록 빵이 점점 더 고무줄처럼 늘어났어요. 겁이 나기도 했지만 머릿속에 퐁퐁 떠오르는 빵 생각을 멈출 수 없었어요. 내 이야기를 기다리는 친구들을 실망하게 할 순 없잖아요.

체육시간이 왔어요. 줄넘기를 하다가 선생님 눈을 피해 운동장 나무 그늘아래 잠시 쪼그리고 앉았어요. 느껴지지 않던 바람이 뺨을 간질이며 땀을 식혀줬어요.

강아지풀 줄기로 초록빛 국수를 말아 볼까요. 민들레 꽃잎을 찢어 샛노란 반찬을 차려낼까요. 자주색 벽돌을 지그재그 굽으면 고춧가루가 푸슬푸슬 쏟아져요. 돌멩이랑 버무리면 깍두기도 만들어지고요. 흙을 한 움큼 쥐고 굴리면 퐁 색깔 주먹밥도 만들 수 있다니까요.

오늘은 무슨 빵을 쳐볼까 머리를 굴리며 싱그럽게 한 상 차리고 있던

그때, 누가 내 어깨를 꼭 잡는 게 아니겠어요?

“소란아! 여기서 혼자 뭐 하는 거니?”

깜짝 놀라서 그만 스프링처럼 튀어 올랐고, 그 순간 팔꼭질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니 험상궂게 찡그린 선생님이 췌려보고 있었어요. 날 보던 친구들이 깔깔거렸어요. 창피하고 분해서 이마를 붙들고 고개를 푹 수그렸어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요. 빨개진 얼굴로 선생님을 노려봤어요. 가만 보니 선생님 어깨 위에 하얀 먼지가 쌓여 있는 거 있죠?

흥, 저건 보나 마나 비듬일 거예요. 먼지 같기도 하지만 아니, 분명히 비듬이에요. 재미없는 수업을 하는 선생님은 분명히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느라 씻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그럼 머리에서 비듬이나 풀풀 날리고 그러는 거죠. 걸을 때마다 더럽게 비듬이나 훑날리는 비듬 괴물!

왜 이렇게 수업 시간이 길까요. 얼른 쉬는 시간 종이 치기만을 기다려요. 쉬는 시간에 빨리 비듬 괴물 이야기를 소문내야 하는데 말이죠.

친구들이 모여서 공기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곁으로 의기양양하게 다가갔어요. 끝내주는 빵을 들려줄 참이었으니까요.

“야, 너네 그거 알아? 선생님 머리에 비듬 장난 아니야.”

“푸하, 선생님이? 말도 안 돼.”

“내가 푹푹히 봤다니까. 어깨에 눈처럼 십 센티는 쌓였어.”

“아까 선생님이 내 어깨를 꼭 잡았잖아. 나 비듬 옮을까 봐 팔 빠지게 탈탈 털었어.”

아이들이 못 볼 걸 본 것처럼 잔뜩 찡그렸어요. 옆에 있던 친구는 코까지 막았고, 앞에 있던 친구는 짹 짹 비명을 지르기도 했어요.

순식간에 선생님은 더럽고 징그러운 비듬 괴물이 되고 말았어요. 이 정도로 반응이 좋을까 싶었지만 흥분한 친구들을 보니 뺨을 멈출 수 없었어요. 종이 올린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흥을 보고 있는데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어요. 아이들이 쑥덕했어요. 여기저기서 비듬 괴물, 비듬 괴물이라고 웅얼거렸어요.

가자미눈을 뜬 선생님이 탁자를 탁탁 두들겨도 아이들은 계속 떠들었어요. 아이들 모두가 와글대며 선생님 흥을 멈추지 않았어요. 수업이 끝나자 선생님은 찡그린 얼굴로 교실을 나갔어요.

“소란이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요?”

전화를 받는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아, 네네... 제가 일하느라 바빠 신경을 못 써서 죄송해요.”

선생님 전화 한 통으로 엄마한테 뺨쟁이였다는 걸 들키고 말았어요. 선생님이 오늘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일렀나 봐요. 당장 방문을 열고 나가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관뒀어요. 좀 찢리기도 했으니까요.

비듬 괴물이라고 소문 좀 냈다고 골이 나다니. 또 그걸 엄마한테 쪼르르 이르다니. 비겁하게 일러바치거나 하는 선생님이 미워요.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풍선 불듯 조금 부풀렸을 뿐인데 말이죠. 뺨 좀 찼다고 너무 해요.

그나저나 엄마한테 야단맞을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밤늦도록 아무 말이 없으니 더 불안했지요. 엄마가 안 그래도 일이 많으며 집에 늦게 들어오는데, 내가 미워져서 집에 안 들어오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오늘밤 잠은 다 잤어요.

“소란아, 엄마가 귀 파줄까?”

야단 대신 귀를 파 준다고요? 엄마가 그냥 넘어갈 건가 봐요. 휴, 다행이에요.

그간 엄마가 바빠서 귀 파야 할 때가 한참 지났다는 걸 알고도 미웠어요. 포근한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어요. 선생님을 골탕 먹인 일로 찜찜했지만, 귀이개가 귀를 간질이니 스르르 눈이 감겼어요.

“소란아, 꿇밥이 왜 꿇밥인 줄 알아? 귀가 먹는 밥이라서 꿇밥이야. 귀가 나쁜 소릴 많이 들어서 왕꿇밥이 쌓인 거야.”

비몽사몽 고개를 끄덕였지만 잠이 솔솔 쏟아져 까무룩 졸고 말았어요.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꿈결인가 싶었어요.

“너 자꾸만 뽕치면 왕꿇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다음날도 내 뽕은 끊이지 않았어요.

다순이네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할머니처럼 주글주글하다는 뽕, 구름이가 어제 화장실에서 넘어져 동물을 뒤집어썼다는 뽕을 막 치고 있었어요.

그때 귀에서 무언가 팝팝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살폈지만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던 이야기나 마저 계속했지요.

옆 반 바둑이 코 옆에 난 점이 바둑돌보다 더 크다는 뽕, 어제 교장 선생님 차 옆을 지나가는데 통차가 지나가는 줄 알았다는 뽕을 신나게 치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귓속에서 뽕튀밥이 마구잡이로 튀어나왔어요.

“야, 소란이 귀 좀 봐. 뽕튀밥이 나와!”

“뽕튀밥 괴물이다! 도망가자!”

뽕튀밥이 폭포처럼 쏟아졌어요. 두 손으로 귀를 꼭 막았어요. 막아도 설새 없이 뽕튀밥이 쏟아졌어요. 교실을 넘어 창문을 넘어 운동장까지 뽕튀밥이 튀어 나갔어요.

“아악, 왜 이래. 나 좀 살려줘!”

나무 뒤에 숨어서 놀란 토끼눈으로 날 바라보던 다순이, 학교 밖으로 뒤통무니 빠지게 달아나던 구름이, 우스운 내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손가락질하던 바둑이, 눈 흘기며 속닥속닥 서로 수군대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까지. 도와달라고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다들 너무 미웠지만 내가 먼저 놀렸으니 별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이 학교가 끝나기도 전에 귀를 막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귀를 막은 손도 소용이 없었어요. 손가락 사이로 뽕튀밥이 파바박 튀기며

빠져나갔어요. 걷는 걸음마다 뽕튀밥이 비듬처럼 머리카락 뒤로 푸슬푸슬
흘날렸어요.

바람이 불자 뽕튀밥은 회오리바람처럼 하늘로 솟아오르다가, 파도치듯
휙 휙 바닥을 쓸고 다니다가, 벚꽃잎처럼 이리저리 사방으로 흩뿌려졌어요.

결국 넘쳐나는 뽕튀밥은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넘어갔어요. 차들이
뽕뽕 거리는 소리도 팝팝 터지는 뽕튀밥 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렸어요.

“뽕뽕, 뽕-앙-”

저 뒤에서 경찰차와 소방차 그리고 구급차까지 몰려오고 있었어요.
소방차는 사다리차를 올려 높은 빌딩의 사람들을 구출하고, 쓰레기
수거차가 나타나 정신없이 뽕튀밥을 쓸어 담고 있었어요.

“어머나, 아저씨, 내 발 밟지 말아요!”

“밥소사, 요리 배달이 늦겠어. 어쩔 좋아!”

“멍멍아, 어딴니. 왜 안 보이니!”

뽕튀밥을 밟은 어른들이 뒤엎켜 넘어지고, 어린 아이들은 가득 쌓인
뽕튀밥 위로 점프를 하며 놀았어요. 지나가던 강아지들은 뽕튀밥을
할짝할짝 훑아먹느라고 정신이 업었어요. 자꾸 터져 나온 뽕튀밥 때문에
온 세상이 새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뽕튀밥이 쌓였어요. 모두가 뒤죽
박죽된 채 뽕튀밥에 갇혀버리고 말았어요. 어른들의 다리는 뽕튀밥 속에
파묻혀 보이지도 않았고 어린 아이들은 아예 얼굴만 간신히 뽕튀밥 위로
내놓고 있었어요.

“다들 미안해요. 저도 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새빨개진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길에서 뽕튀밥 속을 헤엄치듯 빠져나왔어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달리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이 멀까요. 달아나고 있는 뒤로 아직도 친구들이 손가락질하고 있을것만 같았어요. 지나온 길 위를 돌아보니 뽕튀밥이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뽕튀밥이 더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서웠어요. 언제 또 뽕튀밥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이불을 뒤집어쓰고 엄마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빠비빅”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달려가 엄마를 와락 안으니 눈물이 찔끔 났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엄마가 오기만 기다렸다고요.”

“우리 소란이, 무슨 일이니?”

“귀에서 자꾸 뽕튀밥이 나와요. 제발 다 파주세요.”

깜짝 놀랄 줄 알았는데 씩 웃고 마는 엄마가 알미웠어요. 준비해뒀던 귀이개를 가지고 엄마 무릎에 머리를 들이밀고 누웠어요. 엄마가 귀이개로 살살, 술술 귀를 파 주었어요. 매번 아프지 않게 파 달라던 엄살도 부릴 새가 없었지요. 귀이개가 닿는 구석구석이 가려운 곳 굵듯이

후련했어요. 엄마가 귀를 파주자 어찌나 시원하던지 참던 오줌을 누는 기분이었어요.

엄마가 낫밥을 손바닥에 올려줬어요. 낫밥이 옥수수알처럼 컸어요. 엄마가 계속 파주는 데도 낫밥이 계속 나왔어요. 아마 백 개도 넘었을 거예요. 손바닥에 다 올릴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하도 수상해서 낫밥을 이리저리 굴리며 살피는데 마침 낫밥이 뽕튀밥처럼 터졌어요. 팝팝 소리를 내며 손바닥에서 튕겨 나갔어요. 백 개도 넘는 뽕튀밥들이 줄 맞춰 통통 튀었어요.

그때 갑자기 엄마가 귀이개를 지휘봉처럼 휘둘렀어요. 그러자 뽕튀밥들이 박자에 맞춰 통통 튀어 오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가 봉지를 꺼내들자 뽕튀밥들이 봉지 속으로 뛰어들어 갔어요. 엄마가 뽕튀밥들이 담긴 봉지를 묶어 건네주셨어요.

“소란아, 이거 다 먹어야 해.”

“웬, 낫밥으로 만든 뽕튀밥을요?”

“소란이가 주변 사람들 창피한 이야기를 뽕튀밥처럼 부풀렸잖아. 소란이 귀가 그 뽕들을 와구와구 먹고 뽕튀밥 낫밥으로 만든 거야.”

“네?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딴데요!?”

“뽕칠 때마다 귀에서 뽕튀밥이 나올 거야.”

“엄마, 자꾸 장난치지 마요. 뽕도 얼마 안 컸다고요!”

그러자 낫속에서 다시 뽕튀밥 낫밥이 튀어나왔어요. 엉엉 울며 귀를 막고 두 손 모아 손을 싹싹 빌었어요.

“으악, 잘못했어요! 뽕 안 칠게요! 안 친다고요!”

“어머, 소란아 미안. 엄마가 귀이개를 너무 깊게 넣었나 봐.”

“엄마! 왕귓밥 다 봤어요? 이제 귀에서 뽕튀밥 안 나오는 거죠? 네?”

“응? 뽕튀밥이라니? 애기 귓밥만 나왔는 걸?”

“엄마가 소란이 귀 자주 봐줘야겠다. 이제 왕귓밥은 없고 애기 귓밥만 나오네.”

식은땀을 흘리며 벌떡 일어나자 엄마가 내 등을 쓰다듬어주셨어요. 엄마가 손바닥을 펼쳐 보여줬어요. 귀에서 나온 작은 귓밥이 몇 조각 보였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고개를 옆으로 눕히고 통통 뛰었어요. 손바닥으로 귀를 탈탈 털어보았지만 뽕튀밥은 나오지 않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다리도 풀려서 엄마 품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소란이 배고프니? 뽕튀밥 있는데 먹을까?”

놀란 토끼 눈으로 손사래 치자 엄마가 빙그레 웃었어요.

“예구, 엄마가 퇴근하고 소란이 귀 파주느라 밥을 못 했네. 우리 나가서 먹을까?”

“와, 좋아요. 전 엄마랑 같이 먹는 건 뭐든 좋아요.”

“돈가스 먹으면서 오랜만에 소란이 이야기 좀 들려줄래?”

엄마가 신발을 신고 나갈 채비를 했어요. 나도 얼른 신발을 따라
신으면서 종알댔어요.

“엄마, 제가 끝내주는 이야기 하나 알거든요. 뽕튀밥 껏밥이라고
아세요?”



제기차기의 달인

대양초등학교 장 철 호

‘제기차기의 달인을 찾아라!’

민수네 학교에서는 우리의 민속놀이를 찾아서 배우고 느끼는 특색 활동을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학급별로 제기차기 대회를 여는데, 대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휴. 저게 안 돼?”

민수의 제기 차는 모습을 보고는 모두 친구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쉬고 있어요. 발과 손이 따로 놓고 운동은 팡인 아이거든요. 당연히 제기차기는 2개를 넘기지 못해요. 친구들은 그런 민수를 ‘개발’, ‘팡발’ 이라고 별명까지 붙이기 시작했어요. 자연스럽게 제기차기는 민수가 가장 싫어하는 운동이 되어 버렸지요.

‘우리 조상님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종목을 만들어 내셨을까?’

민수는 제기차기를 생각해낸 우리 선조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학교수업이 끝나고 힘없이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파트 공원 분수대 쪽에서 힘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나, 합, 둘, 합...”

민수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어요. 분수대 앞에서는 호리호리한 몸매의 할머니가 신들린 듯 제기를 차고 있었어요. 얼마나 발이 빠른지 할머니의 발을 떠난 제기는 공중에서 정신없이 회전했어요.

‘대박,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할머니 중에 제기를 저렇게 잘 차는 건 처음 봐.’

민수는 입을 벌린 채 신기하게 바라만 봤어요. 분명 TV 진기명기에 나오는 제기차기의 달인이 틀림없었어요.

“다리가 비실비실한 게 안 되겠네. 안 되겠어. 쫓쫓”

할머니는 제기차기를 멈추고 민수를 아래위로 훑어보시고는 말했어요.

“아니, 제가 뭐가 비실거린다고 그러세요?”

처음 보는 할머니가 자신의 약점을 말하니 민수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어딜 감히 속이려고? 다리가 약해, 다리가...”

할머니는 계속 민수의 다리를 보고는 중얼거리셨어요. 민수는 이상한 할머니라 생각되어 얼른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할머니가 족제비 눈을 하며 물었어요.

“너 제기 한번 차볼 생각 있니?”

“네? 제기를요?”

민수는 순간 솔깃했지만, 나이 많으신 할머니 앞에서 제기를 찰 생각을 하니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흠. 됐어요. 저 빨리 집에 가야 해요”

“너 제기를 못 차는 게로구나”

“아니예요, 누가 못 찬다고 그래요?”

민수는 발끈해서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목소리는 기어들어 갔어요.

“그러니? 그럼 한 번 차보거라”

민수는 흘린 듯 자기도 모르게 제기를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기는 공중에서 한번 빙그르르 돌더니 툭 떨어졌고, 땅바닥으로 팡당 넘어지고 말았어요.

“아이코, 아야”

엉덩이가 깨지는 것같이 아팠지만 부끄러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저런, 내 예상이 맞았네.”

할머니는 무심히 말을 던지시고는 제기를 들고 차기 시작했어요.

‘앗, 저건 혈랭이?’

제기차기 기술 중에 최고의 난이도라고 할 수 있는 혈랭이 차기는 한발은 지탱하고 나머지 발은 공중에서 내려놓을 수도 없는 신공의 기술이에요. 그런 최고로 어려운 기술을 할머니는 너무도 쉽게 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할머니 저도 기술을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이에요”

“좀 전엔 안 한다고 하지 않았니?”

민수는 조금 전 자신의 행동이 너무 민망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조금 전엔 너무 부끄러워서 그랬던 거예요. 만약 이번에도 제기를 못 차면 친구들은 분명 꺾발이라고 계속 놀릴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제발요!”

할머니는 제기차기를 멈추고 한동안 생각을 하셨어요.

“좋다. 딱한 사정이 있는 것 같으니 가르쳐 주도록 하지.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한다고 약속하거라”

“네, 약속할게요”

민수는 이번엔 망설이지 않고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음. 좋다. 내일 학교 마치고 여기서 다시 만나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다음날 학교를 마치고 공원 분수대 쪽으로 신나게 뛰어갔어요. 역시 할머니는 제기를 차고 있었어요.

“왔구나”

“할머니 제기 잘 차는 비법을 전수해 주세요”

“비법이라, 저기 계단이 보이지? 100계단쯤 될 거다. 뛰어 올라갔다 내려오거라. 출발!”

아니 100개나 되는 계단을 뛰어서 오르락내리락하라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싫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던가”

“아. 아니에요. 할게요”

민수는 할머니의 마음이 바뀔까 봐 얼른 계단을 향해 달렸어요. 계단을 아무리 세어도 100개는 어렵도 없이 모자랐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참고 또 참았어요. 100개가 되었을 때 눈앞은 노랗게 변했어요. 그렇게 힘겹게 계단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니 한 번 더 올라가라는 신호가 떨어졌어요.

“할머니,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포기..”

“아, 아니에요. 언제 제가 포기한다고 했어요?”

화가 났지만, 달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어요. 다리는 점점 모여왔고 땀은 비 오듯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의 기다시피 해서 내려오니 서 있을 힘조차 없었어요.

“음, 오늘은 이만하면 됐으니 집에 가도 좋다”

뭐지?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 말고는 한 게 없는데 집에 가라니. 이상했지만 힘이 다 빠져서 계속 운동하긴 무리였어요. 그런데 다음날도 또 다음날도 계단 오르기는 반복이 되었고 점점 할머니를 향한 저의 의심은 커지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비법이란 말이지?

“할머니 비법이란 게 있긴 한 건가요? 이제 제기차기 대회도 5일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는 민수의 다리를 세심하게 관찰하셨어요.

“음, 다리에 웅골찬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는군”

알 수 없는 말쑼을 하시고는 주머니에서 풍선을 꺼내 불기 시작하셨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제기 차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죠?”

“이 풍선을 발로 차 보거라”

풍선이란 제기 차는 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할머니는 민수를 놀리는 듯 했지만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해야 했어요.

“풍선이 안 떨어지도록 정신을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쉬운 걸 하라고요?”

유치원생도 하는 풍선 놀이를 하라니! 투덜대면서도 풍선을 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벼운 풍선은 이리저리 날려 다녀서 쫓아다니기 바빴어요.

‘아이, 이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어떠냐? 풍선이라고 얕보면 큰코다친다. 더 집중해라”

쉽게 생각했던 풍선 차기였지만 10개를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오기가 생겨났고 계속 차다 보니 조금씩 풍선이 발에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래, 오늘은 이만하면 됐다. 가 보거라”

그렇게 계단 오르고와 풍선 차기는 반복이 되었고, 시간은 어느새 훌쩍 흘러 제기차기 이틀 전날이 되었어요.

“할머니 모레면 제기차기 대회 날인데 비법은 한 가지도 배우지 못했어요”

민수는 할머니에게 원망스럽게 말을 하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호호호 녀석, 싱겁기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주머니에서 낡은 재기를 꺼내시더니 민수에게 건네 주었어요.

“자 이제 재기를 한번 차 보거라”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잘 찬단 말이야.’

민수는 해보나 마나 금방 땅에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재기를 차기 시작했어요.

“어? 어? 어?”

민수의 발을 떠난 재기는 땅에 떨어질 생각이 없었어요. 다리는 힘이 실려 탄탄해졌고 재기를 바라보는 민수의 눈빛은 먹이를 노리는 호랑이의 눈빛으로 변해 갔어요.

“어흥!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 누구냐?”

민수와 재기는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호랑이 춤을 추고 있었어요.

“할머니! 재기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신기해요”

즐거워하는 민수를 보고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고 계셨어요. 민수는 그때 느꼈어요. 재기를 차는 것도 다리에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체력과 집중력이 생명이라는 것어요. 달인 할머니의 비법은 민수를 춤추게 했어요.

“이젠 스승보다 낫구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진 것 같구먼”

할머니는 헐랭이 차기뿐만 아니라 양발 차기 신의 기술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만하면 우리 모두가 1등을 할 수 있겠지?’

민수는 밤이 늦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드디어 제기차기 대회 날이 되었어요. 모두마다 대결이 펼쳐졌고, 민수네 모두 차례가 되었어요. 제일 잘하는 건희가 처음으로 차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평소에 잘차던 건희는 10개를 넘기지 못하고 제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그다음 예승이, 승민이 줄줄이 다섯 개를 넘기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에이, 우리 모두는 끝났어. 민수는 해보나 마나 두 개도 못 찰게 뻔한데”

“포기하자 포기해”

친구들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민수는 싱긋 웃으면서 제기 차기를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십…, 삼십…, 오십…. 제기는 공중에서 서커스 묘기를 펼치고 있었고,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민수를 응원하기 시작했어요.

“우와 민수야! 잘한다 잘해”

“민수야, 힘내. 조금 더, 화이팅!”

민수는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할머니가 전수해 준 혈령이 차기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와, 달인이 나타났다.”

하지만 욕심이 너무 과했는지 양발 차기를 시도하다가 그만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진짜 대단하다. 120개를 찼어.”

“우리가 1등이야”

친구들은 달려들어 민수를 껴안으며 손을 잡고 돌았어요. 민수는 그제야 자기가 제기차기를 100개나 넘게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숨도 차지 않았고 다리도 너무 쉽게 잘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기차기의 달인! 민수를 소개합니다.”

예전에 개발, 팡발이라고 놀리던 예승이가 새로운 별명을 붙여 주었어요. 달인 할머니가 민수의 몸에 들어 온 것 같이 민수도 역시 제기차기의 달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믿을 수 없는 대회가 끝난 후 민수는 할머니가 있는 공원으로 얼른 뛰어갔어요. 하지만 제기를 차고 있어야 할 할머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록 할머니의 제기 차는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 공원 한쪽이 시끌벅적했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저씨들이 알 수 없는 동상을 세우고 계셨어요. 가까이에서 본 동상은 달인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할머니?”

‘한평생 제기차기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운 우리동네의 자랑, 제기차기의 달인, 김○○ 할머니를 기립니다.’

동상의 가운데에 새겨진 글을 읽다가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애야, 왜 그러냐? 괜찮으냐?”

일을 하시던 아저씨의 말에 겨우 정신을 차렸어요.

“이 할머니는 제기차기의 달인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여기서 저랑 제기차기를 했다구요”

“그렇구나! 할머니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단다.

사에서 훌륭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만들어서 세우는 중이지”

민수는 몸에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체력 관리는 짱이셨지. 돌아가시는 날까지 제기차기를 했는지?”

“암. 그렇고말고.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지. 제기차기의 달인. 허허허”

아저씨들의 대화를 들으니 조금씩 실감은 났지만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달 전엔 너무도 건강한 모습으로 제기차기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셨는데도 왜 자기를 도와줬는지 여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프신 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운동을 하신 할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생전에 가족 하나 없이 혼자 사셨다고 하니, 손자 같은 아이가 안쓰러우셨을까요? 하지만 이제 이유는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제자가 민수가 되었거든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제기차기 달인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민수는 제기차기에서 1등으로 받은 상장과 최우수 선수만이 가질 수 있는 금색 제기를 할머니의 동상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는 머리를 숙여 기도했어요.

‘언젠가 내가 할아버지가 되면 똑같이 손자들에게 제기를 가르쳐주는 날이 오겠죠? 그때도 할머니가 저를 대했던 마음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할머니의 동상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당장이라도 움직이면서 제기를 찰 것만 같아요. 할머니의 얼굴에선 포근하고 해맑은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슈퍼마켓에는 장보고가 산다

보건복지부 국립춘천병원 김 가 람

수아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밖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카카캉’ 하는 쇠소리가 들리고 ‘드륵드륵’ 기계음이 시끄럽게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의 열린 창문 틈으로 가까스로 발끝을 올려 빼꼼올려다보니 모자를 쓴 여러 아저씨가 왔다 갔다 했고 큰 상자, 플라스틱 상자 여러 개가 사람 키 높이 만큼 쌓여있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앞에 뭐가 생기려고 저렇게 많은 물건이 앞에 있는 거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수아는 “아하!” 집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앞에 큰 슈퍼마켓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던 모자 쓴 아저씨 두어 명이 길고 긴 사다리를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큰 이름 간판을 들어 힘겹게 올리고 좌우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을 보자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까르르 웃고 말았습니다. 간판의 이름을 읽어 보니 ‘장보고 슈퍼마켓’ 이라고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슈퍼마켓에

어떻게 장보고가 산다는 거지?”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보고는 해적을 소탕하고 바다 무역을 장악했던 바다의 전설임을 책을 많이 읽었던 수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까르르 웃는 수아의 반응에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엄마는 수아에게 다정하게 물어보았습니다. “수아야 밖에 무슨 재미난 일이 있니?” 수아는 엄마에게 쏘르르 달려 안기며 말하였습니다. “엄마. 앞에 슈퍼마켓이 생기나 봐. 근데 슈퍼마켓의 이름이 장보고야.” 활짝 웃었습니다. 엄마는 수아의 반응에 살짝 미소짓고는 수아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러게. 집 앞에 그러지 않아도 슈퍼마켓이 없어서 불편했는데. 잘되었네. 근데 슈퍼마켓에 어떻게 장보고가 있을까? 엄마도 갑자기 궁금한데? 수아가 한번 장보고가 어디 있는지 잘 찾아서 얘기해 줄래?” 엄마는 수아의 상상력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수아가 관찰력이 뛰어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던 엄마였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말에 더욱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슈퍼마켓에 수아가 익히 알고 있는 장보고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그날 저녁 장보고 위인전을 다시 한번 읽어 보았습니다. 용맹하고 씩씩한 장보고의 이야기에 수아의 눈이 반짝반짝 해졌습니다.

수아는 장보고 책을 모두 읽고 아빠에게 오늘 집 앞에 새로 생긴 슈퍼마켓에 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수아는 앞에 슈퍼마켓에 분명 장보고가 살고 있을 거라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하였습니다. 아빠는 수아의 그런 모습에 눈을 찡긍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우와 바다에 살던 장보고가 어떻게 육지까지 왔을까? 아빠도 갑자기 궁금한걸? 정식으로 슈퍼마켓이 열리면 우리 엄마랑 같이 장보고 찾으러 여행을 가볼까?” 아빠가 생각지 못한 제안에 수아는 더욱이 신이났습니다. 수아는 아빠를 와락 껴안고

“좋아요. 내일 엄마랑 아빠랑 장보고 찾으러 가보는 거예요! 저랑 약속했어요!” 활기차게 대답하는 수아를 보며 엄마와 아빠는 서로 눈을 마주치고 어깨를 으쓱대었습니다. 수아는 다시 부엌 창문으로 달려가 낮부터 분주했던 장보고 슈퍼마켓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미 정리가 끝나 불 꺼진 슈퍼마켓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수아의 눈은 달랐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깊고 깊은 바다가 열려 있었고 밤중에 고요한 순풍이 잔잔한 파도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수아의 귀에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저멀리 칼침을 차고 바다를 돌아보는 장보고가 서 있었습니다.

수아는 그날 밤, 자는 엄마와 아빠 몰래 살금살금 날아 슈퍼마켓의 입구에 슬며시 발을 디더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순간 깜깜한 동굴처럼 앞이 캄캄하여 수아는 눈을 잠깐 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수아의 눈이 틀림없었는가 봅니다. 이윽고 눈부신 모래사장과 푸르른 바다가 햇빛에 반사되어 산란한 빛을 뿜어내었습니다. 수아는 너무도 멋진 광경에 넋을 잃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 무장을 한 장보고가 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아가 놀라, 말을 잊지 못하자 장보고는 그런 수아를 보고 큰 소리로 “꺄꺄꺄” 웃었습니다. “나를 찾아낸 것은 네가 처음이구나. 꼭꼭 숨겨 바다를 알아본 것도, 너로구나.” 장보고는 굵고 묵직한 목소리로 수아에게 말하였습니다. 수아는 “천만예요. 제가 찾은 것이 아니예요. 그저 이름이 쓰여 있는걸요. 장보고가 산다고요.” 수아는 장보고의 위엄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장보고는 그런 수아를 보고 수염을 한번 쓰다듬더니 “네 말이 맞다. 여기에는 바다가 살고 있지. 푸르른 바다가 만들어낸 산물은 언제나 바다의 생명을 드러낸단다. 한번 보려무나.” 장보고는 수아의

손을 잡고는 하늘로 쑥 솟구치더니 바닷속 깊이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물을 무서워하여 수영을 못하였기에 장보고와 바닷속을 들어가는 것이 매우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바다는 너무도 편안했고 차갑지 않았으며 숨쉬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장보고는 말했습니다. “해적이 없어진 지는 너무도 오래되었지만 바다를 지키는 것은 여전히 나의 일이지. 이토록 아름다운 바다를 보여주어서 영광이구나.” 수아는 바닷속을 보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였습니다. 오색 찬란한 해초들이 장보고와 수아에게 손을 흔들었고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수아에게 인사를 하며 볼을 간지럽혔습니다. 성난 문어가 다짜고짜 수아를 보더니 얼굴에 검은색 먹물을 뿜어내기도 하였고 형광을 내는 해파리들이 무지개를 이루어 장관이었습니다. 고운 모래가 바닷속에도 존재하였으며 바닥을 기는 물고기, 옆으로 기는 게, 해조에 숨어 있는 새우, 유영하는 거북이 등이 수아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순간 물고기 떼들을 보고 있던 커다란 고래가 큰 입을 벌려 다가왔습니다. 순식간에 물고기 떼들을 바닷물과 함께 삼키자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수아는 잠시 귀를 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 수아의 볼을 간지럽혔던 작은 물고기 떼였습니다.

수아는 “조금 전 인사하던 물고기였는데” 수아는 유유히 헤엄쳐 가는 큰 점정 고래를 보고서 불멘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장보고는 수아의 그런 모습에 또한 껄껄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바다라는 생태계는 큰 태엽 바퀴 같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물려 있단다. 먹히는 그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살리는 길이지. 고래도 물고기를 먹지 않았다면 목숨이 위태로웠을 거야.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란다.” 장보고는 안색이 살짝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수아의 손을 잡고 쑥 또 어디론가 솟구쳤습니다.

이윽고 장보고와 수아 앞에 크기를 알 수 없는 큰 배 한척이 또 있었습니다. 갑자기 배에서 녹이 쓴 갈고리 그물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려 아래에서 웅 웅 소리가 나더니 긴 그물망이 올라왔습니다. 그물망에는 은색 물고기 떼, 문어, 크고 작은 조개더미들 그 밖의 해초 등이 그물에 걸려 버둥대었습니다. 이미 많은 물고기가 배에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장보고는 말하였습니다. “바다가 주는 산물이 비단 우리의 것이 아니란다. 나의 해적은 어쩌면 우리일 수도 있어서 걱정이구나.” 슬프게도 수아는 장보고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채었습니다. 사실 수아는 장보고 손에 이끌려 오는 동안 바다 위에 떠 있는 쓰레기 더미들과 자잘한 플라스틱 조각들, 조각조각 떨어져 있는 스티로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낡은 그물들에 목이 걸려 있는 돌고래와 등에 바늘이 박혀있는 상어들, 비닐봉지를 먹고 있는 거북이 친구들을 보면서 수아는 너무도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장보고는 수아에게 본인이 차고 있던 칼집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바다도 육지도 지키기 나름이지. 장보고는 멀리 있지 않단다.” 희미한 말소리가 귓전에 울렸습니다. 잠에서 깬 수아는 장보고가 칼집을 건네 주었던 손을 보았습니다. 수아는 마치 바다에 정말 다녀온 것처럼 손바닥이 축축하게 느껴졌습니다. 수아는 꿈속의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멋진 바다를 헤엄치고 온갖 종류의 해양동물을 본 것이 너무도 생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아가 본 바다의 또 다른 모습들이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수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하였습니다. 차마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오늘 장보고를 만난다면 물어봐야지 생각했습니다. 수아는 장보고를 만나러 가는 여행에 마음이 들떴습니다.

수아는 엄마와 아빠의 손을 꼭 잡고 드디어 집 앞의 장보고 슈퍼마켓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아의 눈앞에 꿈속에서 보았던 바다가 두둥실 떠올랐습니다. 수아는 엄마와 아빠에게 넓디넓은 바다를 함께 여행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말하였지만, 엄마와 아빠는 바다를 눈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아의 말에 살짝 미소만 짓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곳은 오로지 수아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바닷속을 구석구석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여러 가지 물고기들이 떼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맨 먼저 삼각형 모양으로 위로 높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는 통조림통이 보였습니다. 수아는 슬쩍 가서 마음속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여기 왜 있니?” 그러자 순간 통조림 속 물고기가 통조림 밖으로 고개를 살짝 내비치더니 “우리는 여기 팔려 왔어. 너희들을 위해서 말이야.”라고 슬픈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수아는 꿈속에서 보았던 물고기 떼들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물고기는 말했습니다. “여기는 너희들을 위한 바다야. 우리를 위한 바다는 잃어버렸지.” 물고기는 그 말을 마치고 다시 통조림통 안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아는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더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다시 한번 불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수아는 다른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마는 수아의 손을 놓쳐버리고 말았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다. 수아는 구석구석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저 멀리 수조에 들어있는 조개들과 오징어들, 멍게, 큰 대게들과 심지어 밖으로 길게 나와 은색 비닐을 뿜내고 있는 긴 갈치들도 보였습니다. 한달음에 달려간 수아는 “안녕. 너희들은 여기 왜 있니?” 마음속으로 아주 반갑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아를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다. 수아의 동그랗게 큰 눈을 한참을 바라보던

그들은 “너는 여기에 왜 있는 거니?”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수아는 통명스러운 그들의 반응에 당황하였습니다. “이곳에 너희들이 있는 것을 보고 왔을 뿐이야.” 밝게 말했지만, 그들은 수아의 말에 콧방귀를 칠 뿐이었습니다. “아니. 너는 우리를 구경하고 있는 거라고. 여기는 우리의 바다가 아니야. 너희들의 수족관인 거지.” 그들은 수아를 외면하고 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그들의 모습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수아가 아는 체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화가 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장보고가 왜 여기에 자신을 찾으라고 했을까 생각했습니다. 꿈속에서와 달리 이곳의 물고기들은 표정이 없었고 활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슬펐습니다. 그러던 중 옆에 작은 메추리 알 한 개가 수아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는 누구를 찾는 거니?” 예상치 못한 메추리 알의 속삭임에 수아는 말했습니다. “바다를 찾아왔는데 물고기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메추리 알은 말했습니다. “여기는 죽어있는 바다야. 네가 무엇을 찾던 모두가 그럴 거야.” 수아는 메추리 알의 그런 반응에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에 다 살아있는 것들이 있는데 왜 죽어있다는 거지요?” 메추리 알은 두둥실 떠올라 수아의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메추리 알은 수아를 따라오라는 듯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메추리 알은 달걀들이 있는 곳으로 수아를 안내했습니다. 수아는 메추리 알이 달걀이 뽁뽁하게 쌓여있는 곳으로 온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메추리 알은 외눈박이 달걀에 던지시 말을 걸었습니다.

외눈박이 달걀은 큰 눈을 끔뻑이며 수아에게 얘기하였습니다. “여기는 물고기만 있는 바다가 아니야. 육지에 사는 모든 것들이 있는 곳이기도

해.” 수아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메추리 알은 그런 수아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이 “주변을 한번 돌아봐.” 말하였습니다. 수아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주변에는 청록색 사과, 상추, 당근, 브로콜리, 파, 마늘, 고구마, 감자 등의 작물들과 여러 채소가 보였습니다. 외눈박이 달걀은 수아를 보면서 얘기하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잘려서 왔으니까. 살아있는 것들이라 할 수 없지.” 수아는 질문 하였습니다. “다 바다에 사는 것들이 아닌데요?.” 외눈박이 달걀은 말하였습니다. “바다는 여기 모든 것들의 고향이야. 모두 바다로부터 태어나고 자라왔지. 아주 긴 시간을 거쳐서 변했을 뿐이야. 너는 이 바다가 행복해 보이질 몰라도 우리는 행복한 곳이 아니야. 다죽어서 온 것뿐이지.” 수아는 행복하지 않다는 외눈박이 달걀의 말이 궁금했습니다. 외눈박이 달걀은 그런 수아의 표정을 보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엄마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깨어나지도 못하고 이곳에 왔지. 단 한 번 깨어질 때는 너희가 먹을 때뿐이지. 안 그래?”

수아는 외눈박이 달걀의 딱딱한 말에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수아는 비단 바다에 사는 것들만 물고기라고 생각했었기에 그들의 말을 빌려 육지에서 온 것 역시 바다의 산물이었다는 말을 이해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바다도 육지도 지키기 나름이지. 장보고는 멀리있지 않단다.” 라며 말했던 장보고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메추리 알은 수아를 데리고 또 어디론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 정육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 모양의 고기는 빨간 조명 안에 계속해서 달구어져 있었는데 얼마나 오래 달구어져 있었는지 보기만 해도 축 처져 지쳐 있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메추리 알은 잠을 자고 있던 빨간색 고기를 겨우 깨워 수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에 억지로 눈을 뜬 고기는 잔뜩 얼굴을 찌푸린 채 수아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짜고짜 수아에게 자기의 모습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평평하고 단면의 넓적한 모양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고기는 표정이 일그러지더니 매우 슬프게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 모습이 그렇게 변했다니…. 나는 다리가 네 개였다고. 두 개의 맛있는 뼈를 가진 큰 소였고, 음-메 멋진 목소리를 가진 그 동물 말이야. 평생 울타리 밖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이 조명에 눈도 뜨지 못하는 신세라니.” 듣고 있던 옆의 벌거숭이 닭고기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나 역시 갇힌 공간 안에 살았지. 평생 알만 낳아야만 했어. 새끼는 본적도 없고, 그나마 알을 낳지 못하면 여기로 와야 했지. 나야말로 벌거숭이로 있다고.” 수아는 고기의 한탄스러운 체념에 자기도 몰래 눈물이 났습니다. 수아가 꿈꿨던 어젯밤의 바다와는 달리 이곳은 수아의 생각만큼 아름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바다라고 생각했던 이곳의 물고기들은 모두가 무표정했고 화가 났으며 자기를 잃어버렸다며 슬퍼하는 모습에 수아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아는 왜 장보고가 자기를 찾아보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픈 줄 알았다면 엄마를 졸라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꿈속에서 보았던 그 바다를 찾지 않았을 텐데, 이곳은 물고기들의 말대로 사람을 위한 바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손을 놓쳤던 수아의 엄마 아빠가 큰 슈퍼마켓 한가운데에서 울고 있는 수아를 발견했습니다. 엄마는 수아의 손을 놓쳤던 순간부터 수아를 계속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수아를 가까스로 발견하고 울고 있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어디 다친 곳이 없니? 이 넓은 곳에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널 찾았다고.” 수아는 엄마의 품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와 아빠를 잃어버려 울었던 것이 아니었지만 아주 서럽게 울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수아의 울음이 큰 슈퍼마켓 안에서 길을 잃어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짐작하였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서 서럽게 울던 수아는 울음을 그치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엄마와 아빠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꿈의 이야기와 슈퍼마켓에서 보고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수아의 내용에 귀를 기울였으며 살짝은 웃기도 조금은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며 수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아는 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꿈속의 장보고가 자기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를 오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는 내가 알던 바다가 아닌 것 같아요. 행복하고 질서 있는 곳의 바다가 아녜다고요.”

엄마는 그런 수아를 다독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수아가 바다를 제대로 찾아온 것 같구나. 꿈속의 장보고는 우리 수아를 진짜 바다를 볼 수 있게 한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수아는 엄마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텅달아 아빠는 엄마의 말을 이어 말했습니다. “여기는 없는 것이 없는 곳이지. 살아있는 것도 있고 어찌면 죽어있는 것도 있고 만들어진 것도 있는 곳이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다도 없는 것이 없는 대지의 창고나 마찬가지로. 육지의 만물 역시 바다로부터 태어난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거야.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우리의 필요 때문에 어떤 것을 희생해도 된다는 것은 우리의 오만이란단.”

“엄마도 마트를 올 때마다 생각한단다.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과하게 먹는것은 아닌지 말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기에, 사람이 소비할 때마다 희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할 수는 없어. 그렇기에 엄마도 장 보고 갈 때마다 감사와 미안함을 느낀단다. 우리가 모두 장보고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란다.”

수아는 엄마와 아빠의 말을 듣고 어젯밤의 장보고가 쥐여준 칼집이 생각이나 손바닥을 슬며시 바라보았습니다. 마침 수아의 눈에 깊고 깊은 바다의 모습이 또 어른거렸는데 그곳에 다시 장보고가 늠름하게 서 있었습니다.





2021년 공직문학상



공직윤리

최 영사의 또 다른 일터



최 영사의 또 다른 일터

주 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최 재 훈

나는 베트남에서 일하는 재외공무원이다. 그리고 내 곁에는 언제나, 휴대전화 두 대가 있다. 하나는 주로 국내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적 용도로 쓰는 개인 휴대전화고, 다른 하나는 공적 용도로 쓰는 업무 휴대전화다.

10년 전 나는 여자친구가 있었던 새내기 경찰공무원이었다. 그때도 내 곁에는 언제나 휴대전화 두 대가 있었다. 나는 오직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용도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번호의 휴대전화를 한 대 더 사용했다.

경찰 직업 특성상 느닷없이 걸려오는 전화가 많았다. 때로는 예고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잘 받는지 점검하는 비상응소 훈련도 있었다. 경찰 공무원이 전화를 잘 받는 것은 언제나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이 때문에 여자친구와 달콤한 통화도 방해받기 일쑤였다. 또 여자친구와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는 여자친구와 소통을 다른 소통과 구별하고 싶기도 했다.

‘전용’을 뜻하는 영어 단어 ‘Exclusive’의 의미가 ‘특별한, 고급스러운’이라는 뜻으로 나아가듯, 여자친구 ‘전용’ 휴대전화는 서로의 존재를 ‘특별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했다.

당시 그 휴대전화의 호칭은 ‘스위티폰’이었다. 주말에는 어디서 외식하고 아들 장난감은 무엇을 사주는 게 좋을지 갑론을박하는 결혼 7년 차 부부가 된 지금은 그 휴대전화에 호칭이 있었던 사실이 새삼 놀랍기만 하다. 그리고 그 호칭이 ‘스위티’라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그 시절 스위티폰의 벨 소리는 특별했다. 특정 발신자를 낚으시 알려주는 그 벨 소리는 편안하고 반가웠다. 특히 이태원파출소에서 밤잠 한숨 자지 못하고 국민의 부름에 응답해야 했던 시절에는 더욱 그랬다. 스위티폰이 전하는 여자친구의 따뜻한 배려심은 무전기가 전하는 차가운 긴장감과 대비되어 아련한 온기로 가슴에 남았다.

그러던 언젠가 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 등 다양한 이유로 업무용 휴대전화가 경찰을 비롯한 공직 사회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부서에 따라 실무 공무원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되기도 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나도 업무용 휴대전화를 쓴 적이 꽤 많았다. 당시 그 휴대전화의 호칭은 ‘업무폰’이었다.

업무폰이 더해져 나에게는 총 세 대의 휴대전화가 생겼다. 한 달쯤 지나니 도저히 세 대를 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스위티폰을 해지하는 것을 택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불편했고

언젠가 한 대는 잃어버릴 것만 같기도 했다.

스위티폰과 작별하게 했던 업무폰을 해외에서 쓰게 될 줄은 몰랐다. 2019년 8월, 영광스럽게도 나는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양국 경찰 간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재외공관 영사 근무를 명받아 베트남 하노이에 왔다.

이곳에서 업무폰과 함께한 시간은 문자 그대로 정신없이 지나갔다. 밤낮으로 사건 사고를 처리하기도 했고, 막 적응할 즈음 미증유의 대재앙 코로나19를 베트남에서 직면하기도 했다. 바쁘게 보낸 하루하루가 쌓여 어느덧 3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영사로 일했던 지난날을 돌아봤다.

‘업무폰과 일터’에 대한 이야기는 그 중심에 있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내 곁에 있는 이 업무폰은 차원이 다른 업무폰이었다. 그간 써온 업무폰은 도구였다. 국내에서 경찰관으로서 썼던 업무폰은 여자친구와 소통 전용으로 썼던 10년 전 스위티폰처럼 업무 전용 휴대전화였다. 반면 베트남에서 쓰는 이 업무폰은 업무 전용을 넘어서 업무의 기반이자 상당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상 사무실(virtual office)이었다. ‘업무폰’은 나의 또 다른 ‘일터’였다.

우선 국내 공무원과 소통은 여러 이유로 업무폰으로 집중된다. 나는 우리 대사관의 유일한 경찰 영사이다. 내가 다루는 일 중에는 ‘국민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에 대처하는 긴급한 일이

적지 않다. 그리고 국내 공무원에게 현지 상황을 생생히 설명할 때는 업무폰에 설치된 ‘메신저’가 매우 효과적이다. 또 현장 출동, 관계자 면담 등으로 사무실에 부재할 때가 많은데 이 역시 업무폰으로 소통이 집중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나는 업무폰을 통해 국내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덕분에 나는 늘 우리나라 품격에 맞는 양질의 영사 조력 제공에 필요한 도움을 국내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베트남 공무원과 소통도 업무폰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부임 초기에는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베트남 고위공무원과 대면 접촉하려고 애썼다. 이 기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베트남 고위공무원과 나 사이에는 언어 차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었다. 이는 베트남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부족한 내 역량 탓이기도 하다.

외교에서 대면 소통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고, 실제 베트남에서 고위공무원을 접촉해 난제를 해결한 사례도 수없이 많다. 하지만 수많은 사건 사고에 대해 맞춤형 조력을 제공하는 영사 업무에서는 효율성도 매우 중요하다. 대면 소통을 택하면 시간과 장소를 협의해야 하고 통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시간도 2배, 4배로 늘어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 방법은 직급을 따지지 않고 영어를 구사하는 공무원들과 외교네트워크를 왕성하게 맺고 이들과 전화나 메시지로 상시 소통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영사의 존재 이유이자 업무폰의 존재 이유인 우리 국민과 소통도 대부분 업무폰을 통해 이루어진다. 면적이 서울의 5배가 넘는 하노이에 단 하나뿐인 대사관이 국내 주민센터나 파출소와 같은 접근성을 갖출 수는 없다. 또 우리 기업이 베트남 곳곳으로 진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의 거주지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베트남 전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공관을 찾아 영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일이고 부담이다. 즉 재외 공관의 도움을 받기 위한 최고의 수단은, 전화다.

영사 조력의 시작은 낯선 나라에서 재외국민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그리고 영사 조력의 목적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라는 국민의 물음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 권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때로는 영사가 사건 현장으로 출동하여 국민이 처한 어려움을 피부로 공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영사가 관계기관을 빠르게 접촉하여 적시에 조력을 제공할 때 국민이 진정 만족하는 경우가 더 많다. 주로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경찰 업무와 달리, 영사 업무는 사무실에서 답을 찾는 경우도 많다.

우리 대사관을 비롯한 모든 재외공관은 24시간 365일 ‘긴급신고 전화’를 운영한다. 반면 나의 ‘업무폰’은 긴급신고전화와 구별되는 나의 영사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휴대전화이다. 전임자가 애써 형성한 외교 네트워크를 최대한 이어받고자 나는 큰 고민 없이 업무폰을 그대로 인수하였다. 그런데 이 선택에는 예상하지 못한 단점도 있었다. 우리 대사관에 경찰 영사가 처음 생긴 지 15년이 넘다 보니, 이 연락처가 베트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국내의 112처럼 알려진 것이었다. 교민 사이에 여러 단체 채팅방이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내 연락처가 전파되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적잖게 놀랐다.

2019년 무려 43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이 전화는 ‘국민의 비상벨’ 처럼 실재 없이 올랐다. 당시 하루 신고 건수는 국내 작은 파출소 신고 접수 건수에 비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퇴근 후 샤워할때도, 새벽에 잘 때도 업무폰이 올랐다. 학수고대하던 주말과 연휴도 사건사고 대응을 위해 반납해야 했다. 국내에서 위급할 때 반사적으로 112를 누르듯,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국민은 내 연락처로 전화했다. 또 불법과 불의를 눈 뜨고 못 보셨던 일부 국민은 베트남의 민낯을 목격하실 때마다 나에게 제보하기도 했다.

사실 나의 근무시간은 정해져 있고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재외국민에게 안내한 적도 없다. 우리 외교부도 ‘심야, 새벽, 휴일 등 근무시간 외 무리한 영사 서비스 제공은 하지 않는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그래서 나도 업무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판단으로 전화를 받지 않은 적도 있다. 이때 나는 메시지로 대사관 긴급신고 전화번호를 민원인에게 안내했다. 하지만 답신은 이렇게 왔다. “경찰 영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통화 한 번 할 수 있을까요? 친절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지인으로부터 연락처를 전달받아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는 경찰공무원 임용 선서부터 ‘하노이에 있는 유일한 경찰 영사로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자.’라고 다짐했던 영사로서 초심까지, 지난 공직생활의 여러 다짐에 대한 자각이 강렬하게 찾아왔다. 또 ‘도움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전화일 수 있다.’

라는 걱정 어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다. 실제 그런 전화를 받고 급히 현장으로 출동한 적도 많았다. 폭행, 연락 두절, 교통사고, 술값 시비 등 일종의 유형화된 신고가 대부분이지만 “지금 사람이 뛰어내렸는데 피가 철철 나고 있어요.”나 “직장 동료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의식이 없어요.” 처럼 가슴 철렁한 신고도 여러 번 있었다. 몇 차례 이런 경험이 쌓이자 근무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화를 받지않는 데 오히려 더 큰 용기가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업무폰’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무조건 받기로 했다.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명감은 사생활에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빠와 놀기를 참으로 좋아하는 어린 아들과 수영장을 갈 때도 나는 이 업무폰의 존재와 혹시나 올지 모르는 연락에 늘 신경 써야 했다. 지근거리에 둔 업무폰을 예의주시하며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또 벨소리 볼륨을 최대한로 높였음에도 수영장 소음 때문에 혹시 듣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하며 부재중 전화가 있는지 수시로 확인했다. “아빠! 왜 수영 안 해? 핸드폰 좀 그만 봐!” 아들로부터 몇 마디 타박을 듣자 수영장처럼 업무폰을 다른 곳에 두어야 하는 곳은 아예 가지 않기로 했다. 사실 업무폰이 도구를 넘어 일터가 된 것은 의도된 변화는 아니고 시대변화와 해외 근무가 만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오히려 남에게 봉사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수용하자고 끊임없이 다짐한다. 왜냐하면 ‘긍정적 사고와 적극적 행동’이 다시없을 보람찬 영사 근무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내가 행하는 직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2019년 제정된 재외국민의 안전한 체류와 방문을 위한 ‘영사조력법’이 유예 기간 2년을 마치고 시행되었다. 또 얼마 전 3월에는 ‘행정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적시한 ‘행정기본법’이 시행되었다.

적극 행정은 행정의 기본이므로 당연히 영사 조력에도 적용된다. 나는 두 법률의 제정 의미를 ‘해외라서, 언어가 달라서, 문화가 달라서 등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도 재외국민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사항을 숙지하라. 나아가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해석한다. 이 국민의 명령을 현실로 구현할 방법은 무엇일까? 지난날의 영사 업무 경험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촉진한 비대면 문화를 생각해보니, 그 해답은 ‘업무폰’에 있음을 알게 된다.

메신저 앱 대다수가 사용자 간 무료 통화를 지원한다.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큰 비용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다. 그래서 나도 국내에 있는 국민과 처음에 국제 전화로 소통했더라도 추가 연락 부담을 낮추고 영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하고자 꼭 말씀드린다. “편하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 보내도 됩니다. 그리고 국제전화 비용이 부담될 수 있으니 보이스트록으로 전화해도 됩니다.”라고 말이다. 2020년 11월, 외교부 영사콜센터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무료 전화 앱을 출시했다. 이에 대해 시대 흐름과 국민 요구에 정확히 반응한 ‘적극 행정 우수 사례’라고 평가하고 싶다.

‘업무폰’을 나의 또 다른 일터이자 적극 행정의 매개체라고 말하면서도

진정한 일터가 되기까지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점도 꼭 언급하고 싶다. 베트남에서 영사로 일하는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제는 보관 부담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범죄자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기는 이른바 ‘휴대전화 날치기’가 횡행하는 베트남에서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국가자산이기에 당연히 보관에 더 주의해야겠으나, 휴대전화는 사무실에 있는 다른 자산과 다르다. 공무원의 보관 부담을 줄이고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사실상 가상 근무 공간이 생겨 근무 장소가 무한히 확장되는 점과 근무시간도 출퇴근 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점도 큰 과제다. 업무폰 때문에 피로도가 증가하고 휴식권마저 위협받는 측면도 있다. 사무실에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고쳐야 여기서 하는 일이 잘 되듯, 가상 사무실에 생긴 문제도 너무 늦지 않은 시점에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동료 공관원의 이임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말은 한-베트남 관계가 발전을 거듭하는 시점에 베트남에서 근무한 덕분에 국익을 위해 일할 기회가 많았다는 말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시대 발달과 교류 증진에 새로운 입법과 코로나19까지 더해져 나는 ‘두 개의 일터’에서 적극행정을 몸소 실천하며 소중한 경험을 거듭했다. 아마도 내가 임기를 마칠 때 즈음이면,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으리라.

10년 전, 스위트폰이 내 머리맡에, 내 주머니에, 내 가방에, 내 손에 항상 함께했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여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다. 또 그 연락

에는 따뜻함과 달콤함이 함께했다. 시간이 흘러 베트남에서는 업무폰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도 무사히’라는 말을 곱씹으며 아무런 연락이 없길 소망한다. 또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연락에는 긴박함과 긴장감이 함께한다.

“베트남은 공산당 설립 100주년이 되는 2030년에는 현대식 산업기반을 갖춘 국가로 거듭나고 ...” 흥미진진하게 10년 후 베트남에 관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업무폰’을 통해 사건이 찾아와 흐름이 끊겼다. 이내 사건을 처리했지만, 나는 읽던 글로 돌아가지 못하고 나만의 상상에 접어들었다. 내 손의 스위트폰이 업무폰으로 변하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뒤 같은 자리에서 일할 영사의 ‘업무폰’은 어떤 모습일까? 업무폰이 있기는 할까? 과연 지금 내 자리에서 일할까? 집에서 일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변화든 그 변화는 재외국민과 더 잘 소통하는 적극 행정을 위한 길의 한 여정이라고 믿는다.





2021년 공직문학상



공직공감

SYMPATHY

야철(冶鐵)

주임님, 꼭 살아내세요



야철(冶鐵)

부산구치소 김성준

줄탁동시(掙啄同時). 공직에 들어선 지 채 얼마 되지 않은 신규 직원으로서 저 낱말이 떠오른다. 병아리 한 마리가 달걀을 깨고 부화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부리로 쪼아야 한다. 병아리는 힘겹게 껍질 안에서, 어미는 껍질 밖에서 서로 도와야 한 생명이 태어날 수 있다. 신규 공직자 역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한다는 점에서 병아리와 같다. 부족함 많은 나의 껍질을 쪼아주던 어미닭 같은 분들이 참 많다. 선배, 동기들이 그랬고, 특히 나의 아버지께서 그러셨다.

나의 아버지는 해양경찰로 36년간 봉직하셨다. 임무는 함장으로서 독도해역 경비와 독도경비대 인원 및 물자 수송이었다. 30년 넘은 낡고 녹슨 함정을 타고 동해의 거친 파도와 싸우신 그 공은 아들인 내가 잘 안다. 바다는 넓고 사건은 많다. 범죄든 조난이든 유조선 침몰이든 그 무엇이 터지더라도 아버지는 시한 없는 비상근무를 감당하셔야 했다.

내 기억에 아버지께서 가장 오래 귀가하지지 못한 기간은 20일 남짓이었다. 독도 지형 탐사를 빌미로 영해를 넘어온 일본 순시선에 맞서야

했던 것이다. 그때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대형 태극기를 해경 경비함에 달아주었다. 해경 경비함은 대형 태극기를 달고서 일본 순시선과 대치했다. 동해에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 그것은 푸른 동해가 우리 영해임을 상징하는 것이고, 국난이 발생하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친다는 결기이기도 했다. 나는 그 커다란 태극기 아래에서 함정을 지휘하며 우리 영해를 지키시던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웠다.

공직에 대한 자긍심이 특히 높으셨던 아버지는 오랜 봉직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 주의할 점, 꼭 지켜야 할 점 등을 선배 공무원으로서 늘 내게 강조하신다.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이제는 아예 암기할 정도다. 나라에 봉사하시며 살아오셨던 점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신 아버지는 후배 공무원이자 아들인 나 역시 그 올곧은 길을 따라 걷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아버지는 언제나 고되게 일하셨고, 한 번 출동하면 일주일 정도 집에 못들어오셨다. 하지만 가족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의 공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해경이라고 하면 김해경이나 박해경처럼 사람 이름인 줄 아는 이도 있다. 아버지가 해경이라고 하면 “그럼 성함이 김해경이시겠냐.”라는 식이다. 교도관의 아들들도 각자의 아버지들을 보며 내가 느낀 씁쓸함을 느끼지 않을까 싶다. 공직의 그림자 중 하나는 외로움이 아닐까 싶다.

세상엔 외로운 이들이 많다. 그 중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은 아마 다른 사람들이 공(功)을 알아주지 않는 이들이 아닐까.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자기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건 그게 그들의 숙명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멈추면 세상도 멈추기 때문이다.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틀라스는 지구를 떠받치고 있지만 인간은 아틀라스를 볼 수 없는 것과 같다. 아틀라스를 보려면 지구 밖으로 나가야 한다. 남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피와 땀과 인내로 숙명을 견뎌내는 이들, 그들은

아틀라스처럼 보이지 곳에서 이 거대한 세계를 지탱하고 있다.

어떤 직업은 무슨 일이 일어나야 상찬을 받는다. 가령 과학자는 학문적 성과를 내면 인정을 받는다. 이런 류의 직업은 만인의 시선과 관심을 받으며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진 무대에서 박수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어떤 직업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그 일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음이 입증된다. 국정원이나 군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즉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야 비로소 그들이 제 할 일을 잘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교도관은 어느 쪽인가. 분명 후자 쪽, 그러니까 남들의 눈길이 닿지 않아 외로운 후자 쪽일 것이다. 법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교도소의 질서가 잡히고, 탈주범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야말로 교도관이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음을 방증하기에 그렇다.

교도관은 경찰처럼 범인을 잡고서 어깨를 으쓱하며 언론과 인터뷰 할 일도 없고, 판사나 검사처럼 법정에서 방청객의 선망의 대상이 될 일도 없다. 교도관은 언제나 묵묵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항상 수용자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녀야 하는 그들은 이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과묵하게 이 세계를 유지시키는 교도관, 그들은 신화 속 외로운 아틀라스에 비유할 만하다. 그래서인지 오해도 많이 받는 직업이 교도관이다.

아무리 경찰이 애써서 범인을 잡고, 검사가 치밀하게 수사하여 기소를 하고, 판사가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도 교도소와 교도관이 없으면 법을 집행할 수가 없다. 법을 집행할 수 없다는 건 사법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말이된다. 사법정의가 세워지지 않으면 입법행위도 무의해지는 것이고, 이는 곧 법치의 근간이 무너짐을 뜻한다.

교도관과 교정기관은 입법행위가 사장되는 것을 감시하고, 사법질서가 질식하는 것을 막는 ‘법의 숨결’과 같은 존재다. 활자로만 존재하는 법이 살아 꿈틀거릴 수 있도록 숨을 불어넣는 존재, 그것이 교도관이다. 따라서 입법과 사법이 나라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이라면, 교도관은 그 두 개의 기둥에 힘을 실어주는 철근과도 같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정기관의 중요성은 이처럼 대단하다. 오죽하면 영국의 철학자 겸 정치가인 벤담이 ‘판옵티콘’이라는 교도소를 구상하고, 그곳의 교도관을 자처했겠는가. 지혜로운 벤담은 교도관의 국가적 비중이 정치인 못지 않음을 알았기에 효율적인 교정행정을 실천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나는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는 가볍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불 난 집에 불을 끄고,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이 박수갈채를 받는 게 당연하다면, 사회 정의가 흔들릴 때 이를 바로잡고 길 잃은 범죄자를 거둬나게 하는 교도관 역시 찬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희생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드라마, 영화, 소설 등에 나오는 교도관은 부정적으로 묘사되기 일쑤다. 부패하거나 무능하거나, 심지어 존재감 없이 묘사된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 나오는 교도관은 부패와 폭력의 상징이었다. 영화 <부당거래>의 교도관은 무능했다. 드라마 <모래시계>에 종종 나오던 교도관들은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었다.

물론 교도관이 긍정적으로 묘사된 작품도 있다. 영화 <그린마일>이나 <집행자>는 교도관의 삶과 애환을 눈물겹게 그린 것들이다.

그러나 이런 작품들도 문제는 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의 의미와 위상을 있는 그대로 균형 있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애환’만 부각함으로써

어두운 면을 확대하여 보인 것이다. 그로 인해 교도관이 자부심 있고 역할이 대단한 직업이 아니라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오인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물론 어느 직업이든 애환과 고달픔은 있게 마련이고, 교도관 역시 그럴 것이므로 이러한 영화들이 그 통증을 대변해주는 것에는 감사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각의 초점을 ‘애환’에만 맞췄다는 점에서 교도관에 대한 시각을 왜곡할 수 있고, 바로 그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도관을 바라보는 시각이 왜곡되었음에도 내가 교도관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업으로 택한 것은 아마 대학에서 수강한 ‘형사정책’ 덕분인 듯하다.

군 전역 후 복학을 하고서 수강신청을 하는 날, 동작 빠른 후배들에게 밀려 인기과목을 수강신청하지 못했다. 신청 가능한 것 과목 중에서 끌리는 것이 법대 4학년 수업인 ‘형사정책’이었다. 나는 법대생이 아니어서 ‘형사정책’을 수강하면 학점이 안 나올 게 뻔했다. 법적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타과생에게는 학점을 짜게 주는 관행도 엄연히 있었고, 더군다나 4학년 수업이므로 졸업반인 4학년에게 우선적으로 높은 학점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꼭 한 번 들어보고 싶었다. 도대체 같은 조건 하에서 왜 누구는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는 저지르지 않는지,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범죄의 원인은 무엇이며, 범죄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평소 너무 궁금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잇을 만하면 세상을 경악케 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요즘, 일반인이라고 해서 범죄학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범죄 관련 추적 프로그램이 항상 인기를 끄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모두 범죄라는 일탈현상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형사정책’은 어려웠지만 매우 흥미로웠다. 기억나는 학자로는 생래적 범인론을 주창한 이탈리아 롬브로조가 대표적이다. 두상 등의 외모로 범죄 경향을 파악하고자 했던 롬브로조, 그의 학설은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일부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범죄율을 낮춰야 한다는 게 사회적으로 중차대 하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수업을 통해 범죄의 원인은 생물학적 원인, 환경적 요인, 사회·경제적 원인 등 매우 다양하고, 그렇기에 그 대처방법 역시 매우 과학적이어야 하며, 사회 전체가 범죄율 저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

범죄의 발생은 그만큼 사회가 여러 면에서 질병을 앓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교정당국만의 노력만으로는 해소할 수 없는 일이기에 그렇다. 또한 교도소와 구치소라는 곳이 철저하게 수용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알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죄 없는 선량한 교도관이 죄 지은 범죄자를 위해 살아가는 이상한 공간, 그곳이 교도소와 구치소였다.

대학에서 저런 지식을 배워 몇 가지를 외우고 있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일이다. 그러나 ‘형사정책’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가르침은 우리가 왜 감옥이나 형무소 대신 교도소라는 명칭을 택했는지, 어째서 교도소 직원을 간수 대신 교도관이라고 부르는지를 깨우치게 된 것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반만 년이나 될 만큼 유구하기에 교도소의 역사 또한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오래됐다. 교도소는 고조선 시대에도 있었으며, 이는 ‘팔조법금’이라는 법률의 집행을 위한 것이었다.

당연히 삼국시대에도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있었다.

조선시대의 교도소는 전옥서(典獄署)로 불리다가 구한말에 감옥서로 개칭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름만 바뀌었을 뿐 단순히 죄인을 옥에 가둔다는 의미는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다가 일제에 의해 국권침탈을 당하고 서대문형무소가 세워진 후 감옥은 독립운동가 탄압의 상징처럼 됐다. 어쩌면 우리가 교도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두려움부터 생기는 건 감옥과 형무소로서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인 듯하다.

감옥이라 불리든 형무소라 불리든 사람을 격리시켜 벌을 주고 고문하고 인권을 말살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주권재민, 즉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은 감옥과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하게 했다.

죄를 지었다고 단순히 벌만 주는 응보형 사상은 함무라비 법전 때나 어울릴 법한 전근대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다.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응당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왜 그런 일탈을 저질렀는지를 분석하고, 그를 어떻게 도와 건전한 시민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곧 교정(correction)이며,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대하는 태도다. 즉 감옥이나 형무소 대신 교도소로, 간수 대신 교도관으로 이름이 바뀐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일보하고 더 문명적으로 발전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호칭은 그것을 듣는 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누군가에게 모두 매일 “바보야”라고 부른다면 그는 정말 자기가 바보인 줄 알것이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부르면 그에게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 마찬가지로, 교도소와 교도관이라는 명칭은 교정당국의 사회적 역할을 드높임으로써 교도관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엄청난 책임을 안겨주는 것이기도 하다. 아이의 나쁜 버릇 하나 고치는 데도 굉장히 애를 먹어야 한다. 타이르고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어도 아이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 하물며 다 큰 성인을, 그것도 악습에 물들어 이미 범죄를 적어도 한 번 이상 저질러본 사람을 교정·교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가.

교도관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해 낮이든 밤이든 교도소에 불을 밝힌다. 잘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하며,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 수형자들과 함께 수용되다시피 해서 살아가는 교도관, 그러면서도 수형자의 갱생을 위해 인생을 바치는 그들은 내 눈에 구슬땀을 흘리며 죄를 담금질하는 야철장(冶鐵匠)처럼 보인다.

야철장과 교도관, 둘은 닮은 점이 많다. 거칠고 딱딱한 돌무더기에서 철을 추출해낼 수 있는 철광석을 감별해내는 야철장의 눈은 악에서 선의 가능성을 발굴해내는 교도관의 눈과 같다. 한 줌의 철을 녹이고 식히고 때리고 다시 녹이고 식히는 과정을 수없이 거듭하며 흘리는 야철장의 뜨거운 땀은 쉽게 교정되지 않는 수형자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보살피는 과정을 평생 반복하는 교도관의 인생과 닮았다.

그 가없는 노력을 했어도 제대로 된 철을 만들지 못하면 자신을 책망하는 야철장의 정신은 출소한 재소자가 재범을 저지를 때 고통을 느끼는 교도관의 양심과 겹친다.

만들어진 철이 칼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쟁기가 되어 사람은 땅을 일구지만 야철장의 존재에는 관심이 없다. 마찬가지로 교정되어 출소한 재소자가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제 역할을 해낼 때 그의 개과천선만 빛날 뿐 그 뒤에서 땀과 눈물을 흘렸던 교도관을 기억하는 이는 드물다.

학생을 길러낸 선생은 남들이 알아주지만, 수형자를 새 사람으로

길러낸 교도관은 그렇지 못하다. 생명을 잉태하여 낳아 기른 부모의 공은 모두가 떠받들지만 하나의 인생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교도관의 은공을 눈여겨보는 이는 드물다. 야철장(冶鐵匠)이 철 만드는 장인이듯 교도관은 새 사람을 만드는 장인인데도 말이다.

이러니 교도관이 외롭지 않겠는가. 하지만 외롭다고 임무를 저버리면 국경선은 누가 지킬 것이며, 독도는 누가 수호하고, 교도소는 누가 맡을 것인가. 나라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 재산, 신체, 자유를 지키는 군경이 존경받을만하다면, 나라를 격을 높이는 교도관은 그 어떤 직업에 비해 서도 낮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나라는 결국 국민이 모여 구성하는 것, 일탈의 길에 접어든 국민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행위야말로 국민의 질을 높임으로써 국가의 격을 올리는 행위인 것이다.

글의 서두에서 교도관과 교정당국을 입법과 사법이라는 국가의 두 기둥에 힘을 실어주는 철강에 비유했다. 철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음으로써 건물 전체를 지탱해줄 수 있다.

야철장이 철을 만들 듯 새로운 사람을 만드는 교도관, 문득 야철장(冶鐵匠)의 ‘야(冶)’라는 글자야말로 교도관의 노력과 정체성을 함축하는 글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장장이라는 뜻의 ‘야(冶)’는 ‘얼음 빙(氷)’과 ‘별태(台)’가 모여 만들어진 글자다. 대장장이는 철을 녹여 주물을 만들고 식히고 또 녹이고 다시 식혀야 비로소 철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야(冶)’라는 글자에는 얼음과 별(뜨거움)이 들어가 있다.

교도관도 그런 존재인 듯싶다. 얼음처럼 차갑고 냉철한 판단력이 있어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뜨거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재소자를 돕는 일에 열정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차가움과 뜨거움, 이 모순된 성질을 한꺼번에 가져야 하는 초능력, 그게 교도관에게 요구

된다. 또 그렇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도관의 정체성이라 생각된다. 흥미로운 것은 ‘별 태(台)’라는 글자에는 ‘별’이라는 뜻 외에도 ‘기르다’, ‘기뻐하다’라는 의미도 있다. 사람을 새롭게 기를 수 있어 벽차오르는 기쁜마음, 이것이 남들은 못 느끼지만 교도관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행복감인 것 같다.

고되고 외롭고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잠을 쫓아가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도관,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 교도관이 힘겹기에 사회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탈주범 한 명 발생할 때마다 온 나라가 발각 뒤집히고 군경이 비상근무를 서는 것을 여러 번 보아왔다. 그 막중한 책무와 헌신에 강한 자긍심을 느끼며 나는 오늘도 근무에 매진한다. 이런 점은 16,000여명의 모든 교도관들이 한마음 한뜻일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그 한마음 한뜻을 나는 첫 야간근무 때 뜨겁게 느꼈다. 가뜩이나 긴장한 신규 공무원이었던 나는 아침 7시에 출근하여 저녁 6시까지 배우며 일하느라 녹초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다음날 아침 8시까지 야근을 해야 했다. 나의 첫 야근은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시작됐다. 그때는 그 근무방식이 참 가혹하다 여겼는데, 교도관으로 일해 보니 저것이 우리의 일상이고 운명인 것이었다. 중증 환자 발생 등 수시로 터지는 긴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려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도주 사태 등 보안 사고 등에 대비하려면, 교도관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세가 예순에 가까운 계장님부터 나와 비슷한 또래의 말단 교도관까지, 밤새도록 순찰을 돌며 혹시나 아픈 수용자가 있지는 않은지,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살피는 그 눈빛만큼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그분들을 보며 아버지의 말씀이 다시 떠올랐다.

“군복이든 경찰복이든 소방관복이든 교도관복이든, 제복을 입는 사람은 그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제복의 무게를 견디며 전국 오지의 교도소에서, 수천 명의 수용자들을 감당해내는 구치소에서 전력을 다하는 동료 교도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씻덩어리를 녹이고 식히고 때리고 다시 녹이고 식히는 때리는 과정을 수없이 거듭하며 흘리는 야철장의 굵은 땀처럼 교도관은 뜨거운 땀은 우리 근무복을 적신다.



주임님, 꼭 살아내세요

법무부 의정부교도소 정 봉 길

공직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이 무엇일까? 흔히들 청렴, 공무원으로서의 소명 의식 내지 사명감, 국민에 대한 봉사심 등을 얘기한다. 2020년 12월의 일을 겪기 전까지는 나 또한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사태를 겪으면서 청렴이나 사명감의 더 밑바탕에는 ‘책임감’이라는 자신 앞에 주어진 일 혹은 과업을 끝까지 완수 하려는 마음가짐이 존재하며 그것이야말로 공직자로서의 모든 일의 원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205명. ○○구치소의 코로나 감염자 숫자다. 그 누구도 그토록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수용자가 코로나에 감염될 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2020년 12월 당시 ○○구치소 수용 인원이 약 2,400여명 이었는데 그 중 절반에 달하는 인원인 1,200 여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었다. 또한 직원들도 500 여명 가운데 29명이나 감염돼 문자 그대로 ○○구치소는 구치소 전체가 감염 됐다고 말할 수 있었고 구치소 내 어느 곳도 안전 지대가 없었다. 정말 두려웠다. 매일 매일 출근하는 자체가 두려움의 연속

이었다. 2021년 2월 8일 코로나 격리팀에서 해제 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신께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제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 주소서. 우리 팀 내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라고..

이 수기는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던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8일까지 코로나 격리 수용동에서 해제 되기까지의 내 마음의 기록이다. 비록 매일은 아니었지만 마음 속에서 감정이 북받쳐 오를 때 나는 일기를 썼다. 공직 생활 중 가장 힘들었고 위험했던 순간들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의무 앞에서 회피하지 않았던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였다. 근 두 달 간 이어진 코로나 격리 수용동에서의 근무는 내게 ‘책임감’과 ‘동료애’가 무엇인지를 가슴 깊숙이 깨닫게 해 준 귀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때의 감정, 느낌, 생각들을 보다 가감 없이 나타내기 위해 그 당시 썼던 나의 일기를 이제 소개해 보고자 한다.

충격과 공포

2020년 12월 15일

내가 이렇게 코로나에 가까이 간 적이 있었던가? 내 옆에서 근무 하시는 분이 확진 됐다. 그분과 친해서 항상 같이 다니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바로 그분이 확진자라니. 그날 바로 검사 받고 다음 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참 가슴 졸인 시간들이었다. 난 단순 접촉자가 아니라 밀접 접촉자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 하늘이 도왔다. 12월 들어 마스크를 매일 교체하고 항상 쓰고 있었던 덕분인거 같다. 나와 가장 가까이 있던 분이 확진 되니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다.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다시 한 번 깨달았다.

2020년 12월 19일

185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오전 11시 경 직원 전원 음성이라는 문자를 받았고 수용자 얘기가 없어서 수용자들은 서너 명 발생 했나 보다생각 했는데, 오후 2시 경 온 메일을 출력해 보니 A4 용지 석장이 넘어가는 것이었다. 숫자를 세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했다.

“이럴 수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7층, 8층은 대부분의 수용자가 확진이 되었다. 내가 있는 6층은 그나마 확진자가 위층들에 비해선 적었지만, 우리 사동도 거의 30%정도의 인원이 확진이 되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방호복을 입고 근무 서야 하나.

2020년 12월 23일

우리는 오늘도 코로나 전수검사를 받았다. 요즘은 3일에 한번씩 전직원 및 수용자가 PCR 검사를 받는다. 내일은 몇 명이 확진됐을 지 아무도 모른다. 문자가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두 번째 직원 확진자가 나온 12월 13일 이후 문자가 하루에 적어도 네 다섯 통 씩 온다. 그 대부분은 직원 누구가 확진 됐으니 그 직원과 접촉한 직원은 감염병 대책반에 신고 하라는 내용이다. 문자가 오는 시간은 주야를 가리지 않는다. 문자를 확인할 때마다 드는 그 두려움과 공포.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또 누굴까, 어느 분이 확진된 걸까.

안 나오는 직원들의 빈 책상을 보면 눈물이 난다. 가슴이 너무나 아프다. 친하게 지냈던 내 옆 수용동인 ○○동 주임님의 근무자실에 가 보았다. 말끔하게 정돈된 근무자실에 정작 계셔야할 분이 안 계신다. 미치겠다.

정말 미치겠다. 격리팀 직원들의 힘든 모습을 보는 것도, 확진된 수용자를 전방 시킬 때 수용자의 그 슬픈 표정 특히 하얀 방역복 입은 직원들을 보며 두려워 하는 그 모습을 계속 봐야 하는 것도 너무나 괴롭구나.

2020년 12월 26일

“주임님 조심하세요. 꼭 살아내세요.” 한 재소자가 나에게 한 말이다. 남들이 보면 전쟁에 참전하는 군인으로 착각하겠다. 그러나 위의 말은 우리상황이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정말 지금의 우리 상황은 매우 두렵고 공포스런 상황이다. 매일 같이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두려운 적이다.

누가 감염자인지 잠복기인지 아무도 모른다. 직원인지 재소자인지. 크리스마스 휴일인 24일과 25일, 직원들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를 분리 수용하기 위한 전방을 실시했다. 전방 대상자가 300 명 가까이 되고 그 와중에 전방을 못가겠다고 버티는 수용자들도 다수 발생하여 전방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시각은 이틀 모두 새벽 두 시가 다 돼서였다. 그 오염 지역을 방호복 입고 서너 시간을 누볐다. 특히 나처럼 수용자를 직접 대하는 수용동 근무자들은 이미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기 이전부터 그들이 확진자인지도 모르고 근무해 왔으니, “혹시 나도..” 하면서 정말 많이들 불안해하고 있다.

요즘 나는 매일 부처님께 기도한다. “제발 저와 제 동료들, 내 가족들 아무 일도 없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 내가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3년 동안 갇혀 있었던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 빅터 프랭클과 같은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인간은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그 선택에 따라 인간은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동물의 단계로 떨어진다고 하였다. 나도 스스로에게 내 하나 하나의 선택이 삶에서 인생에서 역사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한다. 무엇이 나를 지탱하고 왜 이 직업을 계속 하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 지려고 또 그 물음에 답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0년 12월 29일

어제 야간 근무를 서는데 함께 있던 직원이 자신은 코로나 난민이라고 얘기를 한다.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자신이 지금 집에 못 들어 간지 10일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면서 숙식을 관사에서 해결하는 데 자신 포함 직원 셋이서 같이 지내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 소에 확진자가 너무 많고 위험해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다.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라 자신은 코로나 난민이라는 것이다.

정말 격하게 공감이 됐다. 나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12월 13일 이후 난 퇴근해 집에 가면 자가 격리자처럼 집 밖으로 거의 안 나온다. 마트도 편의점도 좀처럼 가지 않는다. 가끔 한 바퀴 아파트를 걷는 것 이외엔 문 밖 출입을 하지 않는다. 두려움 때문이다. 내가 접촉한 확진자가 한 두명도 아니고, 우리 소 직원들 모두가 나와 같은 심정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니다. 정말 많은 수의 직원들이 가족들을 처가로 보내거나 아니면 홀로 나와 기존 직원들의 관사에 신세를 지거나 원룸을 계약해 살고 있다.

아파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느 동에서 발생 했는지 알려주진 않지만 하얀 방호복 입은 보건소 직원들이 몰려와 방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웃주민들이 저절로 알게 된다고 한다. 그 말을 들어서 인지

나도 주변 사람들이 내가 ○○구치소 직원이라는 사실을 알까봐 두렵다.

난민. 말로만 듣던 난민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출근해 무수히 손소독제를 뿌리고 손을 씻는다. 라텍스 장갑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다. 나로 인해 내 가족, 내 동료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우리는 지금도 자의에 의한 선택으로 코로나 난민 생활을 하고 있다.

2021년 1월 3일

빅터 프랑클이 얘기한 것은 ‘책임감’이었다. 자기 십자가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야 한다는 그것은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걸 새삼 느끼고 쉽지 않음 또한 체험하고 있다.

어제도 전수검사 때 또 난동 부리는 수용자가 있었다. 그러나 그날 그 어느 직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었다. 왜냐? 그 수용자가 확진자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욕하고 때릴 듯이 덤벼들기에 내가 중간에 막아서서 차단하려고 하는 순간 그 수용자가 나를 밀쳤다. 방역 복을 입고 있었는데도 감염이 우려되어 순간적으로 난 뒤로 물러서고야 말았다. 마스크까지 벗기려고 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결국 직원들이 그 욕 다 받아주고 겨우 달래서 진정 시켰다. 매스컴에서 직원이 코로나를 전염 시켰다고 직원 책임론을 부각한 이후, 수용자들은 “우리가 니네 때문에 코로나 걸렸다”고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니 어쩔 수가 없었다.

이제 나도 이번 주 중에 격리팀으로 갈 거 같다.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내 앞의 이 현실을 회피하고 싶지는 않다. 내 안의 어떤 것이 그것이 양심인지 책임감인지 모르겠지만 피해서는 안된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격리 수용동 근무

2021년 1월 4일

아, 너무나 고된 하루였다. 예상은 했지만 격리팀으로 투입 되서 딱 하루근무 했는데 평소보다 10배는 힘들었다. 아니 이제까지 근무했던 그 어떤 때 보다 힘들었다.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명퇴, 육아휴직자 등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이해한다. 이리 힘든데, 더구나 주위는 온통 바이러스 보균자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충분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된다. 나도 오늘 직접 격리 사동 근무를 들어와 보니 정말 처참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 중이다. 방호복을 6번 정도 갈아입었던 거 같다. 방호복을 입고 한 30분 정도 수용동 내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고글과 페이스 쉴드에도 습기가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마스크도 일반 마스크가 아닌 N95마스크라 더 숨쉬기가 곤란하다.

격리팀 근무 전에는 나도 명예퇴직 조건이 되니까 여차하면 명퇴하겠다는 생각 즉 이 상황에서 도망 치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다. 어떻게 해야 근무를 빠질 수 있을까? 정말 지난달부터 하루에도 수십 차례 내게 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늘 직접 격리 사동에 들어와 겪어보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빠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도망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 한 순간에 머릿속이 정리가 되었다. 명예퇴직이라는 단어도 말끔히 지워졌다. 그러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격리 수용동에서 한 사람이 빠지면 남아 있는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그 몇 배가 된다. 시쳇말로 죽음인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데 어떻게 내가 명퇴를 고려하겠는가? 그럴 수는 없다. 절대로. 이제야 나는 2차 대전 때 휴가 중인 독일군 병사들이 왜 기꺼이 스탈린그라드의 러시아 군 포위망 속으로 복귀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포위된 바로

그곳에 자신의 전우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동료들이 있기에 죽거나 포로로 잡힐 지도 모르는 그 사지로 병사들은 돌아갔던 것이다. 나역시 마찬가지다. 내 동료들이 격리 수용동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빠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내 동료들과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리라.

2021년 1월 10일

다른 격리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직원 확진 소식은 전체 격리팀 직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매우 무겁다. 우울, 그자체. 뭘 더 이상 어찌해야할 지.

아, 사랑하는 이들과 못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괴롭구나. 작년 10월에 어머니를 뵈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얼굴을 뵈지 못했다. 코로나 사태 전에는 어머니가 병원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진료를 가시기에 내가 모시고 가기도 했었는데. 격리팀 근무는 기약이 없고.

우리 직원들 너무나 고생이 많다. 당뇨에 기관지염까지 지병이 있는 직원들도 근무자가 부족하여 예외 없이 격리팀에 배정되고 있다. 최소한 그분들은 근무에서 제외 시켜 줘야 하는데. 현실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다.

2021년 1월 13일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우리를 지켜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유일한 무기들.

2021년 1월 21일

18일간의 격리팀 근무가 끝났다. 이제 6일간 자가 격리 후 다시 격리팀

으로 복귀한다. 어제 있었던 전수검사에서 직원 9명이 재검 끝에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재검은 불안하다. 이제 조금씩 안정화돼가고 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휴직자가 3명이나 생겼다. 작년 말부터 명퇴자, 휴직자가 좀 과하게 나오고 있다. 다들 힘든 데.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진 좀 아니라는 생각이다.

수용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응급 상황이 아님에도 시도 때도 없이 비상벨을 눌러 댈다. 비상벨은 진짜 응급 시에만 사용 하는 건데, 직원때문에 자신들이 코로나에 걸렸다고 생각하여 그 화풀이를 직원에게 쏟아내고 있다. 수용자들이 “왜 판사가 보석을 기각했느냐? 왜 환자인 나를 니들이 뭘데 붙잡아 두느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때를 써도 요새는 달란다. 끝없이. 우리 수용자님들 화가 풀릴 때까지. 힘들고 지친다.

언제쯤 작년 11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2021년 1월 24일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렇다. 인간이 삶을 잘 살아낸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자기 앞에 주어진 책임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케네디도 빅터 프랭클도 그것을 얘기하였다. 그러므로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것 즉 책임을 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양심의 소리”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2021년 1월 31일

12월은 공포였다. 특히 12월 24일쯤인 거 같은데 격리팀 팀장의 빨리

방패를 갖다 달라는 다급하고 급박한 목소리가 TRS 무전기를 통해서 들렸던 건 또렷이 기억한다. 처음에 방패 2개를 갖다 준 것 같았는데 모자라다고 더 많은 방패를 갖다 달라고 계속해서 무전이 왔었다. 당시 격리 수용동은 아수라장이었다. 침 뱉고 도시락 집어 던지고 욕하고, 그 난장판 속에서 수용동 진입을 위해선 방패로 몸을 보호하고 접근해야 했다. 그 팀에서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다.

초기 투입 됐던 격리팀 평균 근무 일수는 4일 내지 5일에 불과했다. 팀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 규정된 18일간의 근무 일수를 못 채우고 즉시 교체됐기 때문이다. 그때 1진으로 투입 됐던 팀에서 2명의 확진자가 2진으로 들어갔던 팀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격리팀으로 투입되기만 하면 확진자가 발생하니 투입 순서를 기다리는 현장 직원들은 다음은 내 차례인가 하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졌다. 순서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모두가 코로나에 걸릴 것 같았다. 이러한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방호복 입고 벗는 법을 대다수의 직원들이 몰랐기 때문이었다. 격리 수용동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 방호복 착탈의 법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중요한 방호복 착탈의 법을 교육 받지 못했던 것이다. 나중에 매스컴에서 연일 크게 보도된 이후에야 방호복 착탈의 법이 교육되기 시작했다. 방호복 착 탈의법이 숙달 된 후 우리는 비로소 격리팀 근무의 공포심과 압박감에서 자유로워졌다.

2차 전수검사에서 285명이 넘었을 때 우리에게겐 이러다 수용자 뿐 아니라 직원들도 모두 확진될 거 같다는 공포감이 엄습했다. 정말 심각했다. 검사 후 어김없이 실시된 새벽까지 이어진 전방. 흐릿한 불빛 아래 주 복도 군데군데 처 놓은 투명 비닐 차단막, 그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하얀 방호복 입은 직원들과 푸른색 수의를 입은 확진된 재소자들, 또 그와중에

들리는 수용자들과의 실랑이.

그로부터 어느덧 두 달이 다 돼가고 있다. 격리 해제자도 많아지고 ○○갔던 300여명의 인원도 다시 돌아오고 있다. 2월 안에는 완전히는 힘들겠지만 어느정도는 정상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지난번에 나온 직원 확진자는 격리 해제 사동 근무자였다. 어떻게 걸렸지? 그곳은 격리 해제자들만 수용된 수용동이었는데...

2021년 2월 8일

오늘부로 격리팀에서 해제. 이제 12월부터 먹어 온 그 지겨운 도시락을 더이상 먹지 않아도 되고 수용동에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해제가 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 적어도 4월까지의 이 체제가 지속될 거라 예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격리팀 근무 기간은 힘들고 위험 했지만 좋은 동료들하고 함께 해서 나름 할만 했고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눴던 시간들이었다. 24시간 근무 시 인성교육실 개인용 텐트에서 취침을 했는데 그런대로 잘만 했다.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 팀이 모두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단 한명의 확진자도 없었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나와 해체되고 규정된 18일의 근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자가 격리된 팀이 1월 이후 두 팀이나 더 나왔는데 우리는 다행히 무사했다. 정말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일상으로의 회복

코로나 사태가 발생 했을 때 ○○구치소는 비상 근무 체제로 빠르게

전환 되었다. 야간 4부제 근무는 3부제 근무로 주간 일근 근무는 2부제 근무로 변경되었다. 3부제 근무는 코로나 격리팀에 적용된 근무 체제였고, 하루 철야 야근, 하루 비번인 2부제 근무는 비확진자들만 수용된 층인 4층과 5층 근무자들에게 적용된 근무 체제였다. 코로나 격리팀에 배치된 직원들은 수용자들과 똑같이 코호트 격리 됐기 때문에 휴식도 없었으며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외에는 다른 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만날 수가 없었다.

이제 근무 체제는 3부제, 2부제 근무에서 4부제 근무 체제로 다시 회복 되었다. 그동안 서로 격리돼 있어 보지 못했던 직원들을 근 두 달 만에 만나니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그때 우리의 첫 마디는 “살아 있었네.” “정말 반가워”였다.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기분이 들었다.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우리 ○○구치소는 이제 정상화의 길을 조금씩 가고 있다. 매일 같이 행한 복도 방역, 하루 최소 5번 이상 방호복, 고글, 페이스 실드를 착용한 채 확진자 수용동에서의 작업, 그 외 끊임없이 비상벨을 누르는 막무가내 수용자들에 대한 대처까지. 돌아보면 힘들과 고통의 연속이었고 인내를 요구하는 나날이었지만 우리들은 해냈다. 직원들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확진자가 생겼을 때 한 마음으로 아파하고 걱정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고생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가 바로 내 동료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나는 ‘책임감’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슴으로 깨달았다. ○○연수원에서 신규 직원들에게 다산의 목민심서를 강의하면서 공직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렴과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이라고 강조했었지만, 어찌보면 그것은 머리로만 알았던 지식에 불과했다. 이제 나는 안다. 공직자에게 ‘책임감’이란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난을 일부러 찾아서 겪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고난 앞에 무너졌을 때 그 조직은 조직 자체가 와해된다. 반대로 고난을 멋지게 극복해 냈을 때 그 조직 내 구성원들은 끈끈하게 서로 단합을 이뤄낸다. 우리 ○○구치소가 그랬다. 비록 처음에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 당황하고 어찌해야 할지 고민했으나 우리들은 묵묵히 자신의 업무를 수행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기 때문에, 또 그 임무를 동료에게 미룰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끈끈한 단합을 이뤄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하면 견딜 수 있고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 이런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했던 지난 두 달은 나에게 동료애가 무엇인지 또 공직자에게 책임감이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귀중한 경험의 시간이었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760000-000051-10



2021 공직문학상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